

발간등록번호
2022-KIHF-195



#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

2022. 10.

#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

2022 . 10.

연 구 기 관 :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 고 선 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공 동 연 구 자 : 손 서 희, 서 찬 란

연 구 지 원 : 정 혜 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본 보고서는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4

## 제2장 가족다양성 관련 문헌고찰

제1절 가족 정책에 나타난 가족다양성 .....	21
제2절 가족다양성 개념과 적용 사례 .....	28

## 제3장 가족다양성과 가족서비스

제1절 국내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현황 .....	47
제2절 국외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 정책 및 서비스 사례 .....	56

## 제4장 가족다양성에 근거한 가족서비스의 방향: 초점집단면접

제1절 가족 정책전문가 초점집단면접 .....	75
제2절 가족서비스 실무자 초점집단면접 .....	86

## 제5장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현황 및 요구

제1절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현황 .....	103
제2절 가족센터 이용자의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요구 .....	136

##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가족서비스 실무를 위한 가족다양성 .....	161
제2절 가족다양성 적용 점검 및 진단 .....	178
제3절 가족센터 사업에서의 가족다양성 적용 및 발전과제 .....	182

## 부록 .....

1. 초점집단면접 설문조사지(가족 정책전문가, 가족서비스 실무자)
2. 설문조사지(가족서비스 실무자, 가족센터 이용자)
3. 사업계획서 예시
4. 가족서비스 실무자 교육 참고자료

## 참고문헌 .....

231



# 표 목 차



<표 1-1> 전문가 자문회의 및 초점집단면접 개요 .....	16
<표 1-2> 설문조사 개요 .....	17
<표 2-1> 가족다양성이 나타난 건강가정기본법의 조문 .....	22
<표 2-2>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족다양성 관련 주요 세부 정책과제 .....	26
<표 2-3> 가족다양성 인식·수용에 관한 연구 .....	30
<표 2-4> 가족다양성과 맥락 .....	38
<표 2-5> 사회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는 가족의 기능들 .....	39
<표 2-6> 공공정책과 서비스에 가족다양성 적용 점검표 .....	40
<표 3-1>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 연혁 .....	47
<표 3-2> 「2022 가족사업안내(0)」의 가족센터 사업 방향 .....	50
<표 3-3> 가족센터 영역별 사업 내용 및 서비스 대상 .....	51
<표 3-4> 가족센터 별도예산 추진 사업 .....	52
<표 3-5> 가족센터 유형별 예산지원 .....	54
<표 3-6> 뉴욕시 가족센터 서비스 .....	56
<표 3-7> 매사추세츠주 가족지원 센터 서비스 .....	57
<표 3-8> 네바다주 가족 자원센터 서비스 .....	58
<표 3-9> 플로리다주 아동 자원센터 서비스 .....	59
<표 3-10> 미네소타주 인적서비스부 아동난민 서비스 .....	60
<표 3-11> 노스캐롤라이나주 아동복지서비스 .....	62
<표 3-12> 미국 국방성 군인가족 지원서비스 .....	63
<표 3-13> 캐나다 가족지원 센터 서비스 .....	65
<표 3-14> 가족 서비스 토론토 제공 프로그램 및 서비스 .....	66
<표 3-15> 호주 정부 사회복지부 아동·가족서비스 .....	67
<표 3-16> 영국 Family Action 제공 서비스 .....	68
<표 3-17> 아일랜드 아동 및 가족 기관 제공 서비스 .....	69
<표 3-18> 싱가포르 가족 서비스 .....	70
<표 4-1> 가족 정책전문가 초점집단면접 내용 .....	75
<표 4-2> 가족 정책전문가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	75
<표 4-3> 가족서비스 실무자 초점집단면접 내용 .....	86
<표 4-4> 가족서비스 실무자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	86
<표 5-1> 다양한 가족의 정의 .....	105
<표 5-2> 가족센터에서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한 가족 유형 .....	105
<표 5-3> 다양한 가족 대상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맥락 .....	106

<표 5-4> 가족센터의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 .....	108
<표 5-5>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 .....	111
<표 5-6>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 .....	113
<표 5-7>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 .....	114
<표 5-8> 「2022 가족사업안내(Ⅰ)」의 기본사업 중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을 고려하여 확대·발전시킬 사업 .....	115
<표 5-9> 「2022 가족사업안내(Ⅰ)」의 기본사업 중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을 고려하여 변화가 필요한 사업 .....	116
<표 5-10> 「2022 가족사업안내(Ⅰ)」의 기본사업 중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을 고려하여 시도가족센터가 주관하기를 희망하는 사업 .....	118
<표 5-11>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수행의 어려움 .....	120
<표 5-12>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수행의 어려움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 .....	122
<표 5-13> 「2022 가족사업안내(Ⅰ)」의 내용과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수행의 어려움 .....	123
<표 5-14> ‘가족다양성 인정’ 이 가족 사업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여성가족부의 정책과제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원 .....	125
<표 5-15>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정책과제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원 중 시급히 필요한 일 .....	126
<표 5-16>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과 관련하여 가족센터가 잘 수행하고 있는 역할 .....	128
<표 5-17>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시·군·구 가족센터 사업영역으로 중요한 것 .....	129
<표 5-18>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지역사회 의 새로운 욕구를 반영한 가족센터 역할 .....	131
<표 5-19> 분석대상자 특성 .....	137
<표 5-20> 분석대상자의 가족 특성 (다중응답) .....	138
<표 5-21> 설문조사 내용 .....	139
<표 5-22>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 .....	141
<표 5-23>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 내용 .....	142
<표 5-24>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 참여 소감 .....	144
<표 5-25>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의 좋은 점 .....	145
<표 5-26>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의 불편한 점 .....	146
<표 5-27>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이유 .....	147
<표 5-28> 주제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확대 필요 정도 .....	149
<표 5-29>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인정 및 포용을 위한 이해 교육 확대 필요 정도 .....	150
<표 5-30> 다양한 유형의 가족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정도 .....	151
<표 5-31>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가족/개인 간의 소통 교류 프로그램 확대 정도 .....	151
<표 5-32>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참여하는 공동체 돌봄 활성화 정도 .....	152
<표 5-33> 주제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확대 우선순위 .....	153
<표 5-34> 주제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우선 확대 순위 (1순위) .....	154

<표 5-35> 가족센터에서 우선 지원해야 할 가족 기능 순위 (1순위) .....	155
<표 5-36> 가족에 대한 인식 .....	156
<표 6-1> 가족서비스에서 가족다양성 개념화 및 적용 .....	163
<표 6-2> 가족의 기능 .....	168
<표 6-3> 가족다양성의 요소와 차원 .....	172
<표 6-4> 가족 기능 및 가족다양성 요소에 따른 가족서비스 체계와 프로그램 예시 .....	174
<표 6-5> 가족센터 사업목표에 가족다양성 포함 여부에 따른 사업 분류 및 예시 .....	177
<표 6-6> 가족서비스 사업과 프로그램을 위한 가족다양성 점검표 .....	178
<표 6-7> 가족센터 전체 사업을 위한 가족다양성 점검표 .....	179
<표 6-8> 가족센터 기관 운영을 위한 가족다양성 점검표 .....	181
<표 6-9> 개별 가족서비스별 목표 및 가족다양성 적용 예시 .....	183
<표 6-10> 가족관계 영역 서비스 명칭 변경안 .....	184
<표 6-11> 가족다양성 관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별 역할 .....	188
<표 6-12> 가족다양성 측면에서의 가족센터 성장 단계와 가족다양성 적용 전략 .....	189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모형 .....	18
<그림 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체계 .....	25
<그림 3-1> 2022년 6월 기준 전국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48
<그림 3-2> 2021년 기준 가족 구조별 가족센터 이용현황 .....	52
<그림 3-3> 2021년 기준 가족 특성별 가족센터 이용현황 .....	53
<그림 3-4> 가족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유형별 조직도 .....	53
<그림 5-1> 「2022 가족사업안내(I)」(p. 95)의 가족센터 기본사업 .....	114
<그림 5-2>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수행의 어려움 .....	121
<그림 5-3>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수행의 어려움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 .....	122
<그림 5-4> ‘가족다양성 인정’ 이 가족 사업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여성가족부의 정책과제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원 .....	125
<그림 5-5>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정책과제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원 중 시급히 필요한 일 .....	127
<그림 5-6>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시·군·구 가족센터 사업영역으로 중요한 것 .....	130
<그림 5-7> 가족 특성별 현황 .....	138
<그림 5-8>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 .....	140
<그림 5-9>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 영역 (다중응답) .....	141
<그림 5-10>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 내 가족 유형 .....	143
<그림 5-11>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 참여 소감 .....	144
<그림 5-12>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의향 .....	146
<그림 5-13> 다양한 가족 포용 캠페인·교육·문화 활동 참여 경험 유무 .....	148
<그림 5-14> 다양한 가족 포용 캠페인·교육·문화 활동 효과 .....	148
<그림 5-15> 가족센터에서 우선 지원해야 할 가족 기능 순위 .....	154
<그림 6-1> 가족 기능 및 가족다양성 요소를 고려한 가족다양성 개념 모형 .....	169
<그림 6-2> 가족다양성 사업을 위한 가족센터 및 종사자 전문성 활용 .....	184
<그림 6-3> 가족다양성 관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별 역할 .....	189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 필요성

2021년 4월에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정책 목표 중의 하나로 ‘가족다양성 인정’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구 규모 축소, 1인 가구 증가, 국민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변화 등 우리 사회의 인구 및 가족의 변화와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 정책의 방향으로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들은 이전과 비교하여 가족을 단위로 한 접근에 더해 가족 구성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세부 과제들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 목표 ‘가족다양성 인정’은 가족의 형태와 특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특히 우리 사회가 기존의 결혼제도, 자녀 출산과 양육 중심의 가족제도를 벗어난 다양한 삶의 양식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반적으로 가족 정책의 단위로 개인을 강조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는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적용된다. 그러나 가족다양성의 인정과 확장을 목표로 한 세부 정책과제들은 특정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들에 치우쳐 있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청소년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등을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이들을 각각 지원하는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여,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정책 목표의 추진 방향인 다양성과 포괄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칫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된 특정 형태의 가족 유형만이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정책 목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 ‘가족다양성의 인정’이 특정 영역과 대상에 편중된 정책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들도 제시되었는데,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열거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주로 제도적 결혼으로 형성되지 않은 가족 형태들로 가족다양성의 의미를 가족 형성과정과 구조의 다양성에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과제들이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정책 목표와는 달리 다양성과 포괄성이 낮다는 점은 진미정(2021)과 박정윤 외(2021)에서 지적된 바 있다. 진미정(2021)의 논의처럼 가족 정책의 포괄성과 전체성을 고려할 때,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 목표를 특정 유형의 가족을 지원하는 측면에 국한하

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모든 유형 및 다양한 특성이 있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관계와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가족서비스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가족 정책의 주요 전달체계인 시·군·구 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 다양한 가족, 모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통합되기 이전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에서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을 구분하지 않고 대상을 통합한 프로그램(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제외)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가족다양성 관련 세부 과제가 특정 영역과 대상에 편중된 가족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는 현재 통합적·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를 통합하고 사업 방식을 변경해 온 가족센터의 변화 방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 간의 부조화는 가족센터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세부 정책과제에 부합하는 가족서비스를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박정윤 외, 2021). 이를 고려할 때, 가족다양성이 통합적 가족서비스 현장에서 어떤 의미와 방식으로 사업에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현재 시·군·구 가족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 사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 사업과 프로그램은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서비스로 이해되어, 특정한 유형의 가족(예,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등)을 가족서비스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가족다양성을 가족의 유형과 형태의 다양성에 한정하고, 특정 유형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에 집중하는 한계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가족 정책 목표를 가족서비스를 통해 적절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시·군·구 가족센터에서 가족서비스를 통해 가족다양성을 적용하고 있는지 기존 서비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지역센터 기반 가족서비스의 재정비와 가족다양성 관점을 반영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서비스로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가족 정책을 고려하여 가족다양성 관점의 가족서비스 개편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시된 가족다양성의 의미를 검토하고 가족서비스 실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족다양성 개념을 도출한다.

둘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시된 가족다양성 관련 정책과제와 가족서비스

현장의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 실태를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가족다양성을 적용한 가족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가족서비스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구 가족센터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족다양성 관련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정책 목표 중 ‘가족다양성의 인정’을 위한 가족사업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지역 가족센터들의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사업기획 및 예산 확보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시·군·구 가족센터의 가족사업 수행 지침인 ‘가족사업안내’에 가족다양성을 적용한 사업수행 방법을 안내한다면, 가족센터의 가족사업 실무자들이 담당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 연구 결과는 가족다양성 적용과 확장을 위한 가족서비스 개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연구 결과는 시·군·구 가족센터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안내’를 개선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연구 결과는 가족서비스 성과를 가족다양성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연구 결과는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가족서비스 실무자가 가족다양성 관점을 적용한 가족사업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업무 역량 향상 교육에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 1.1 가족서비스 실무에 ‘가족다양성’ 적용을 위한 ‘가족다양성’ 의미 분석

가족서비스 실무 적용을 위한 가족다양성의 개념 및 요소 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건강가정기본법,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2 가족사업안내(Ⅰ)」 등에 나타난 가족다양성 의미 분석을 통하여 법률, 정책, 가족센터 사업 지침에 나타난 가족다양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가족사업안내」는 가족센터 종사자들이 가족사업을 수행할 때 기준이 되는 실무지침서이다. 「2022 가족사업안내(Ⅰ)」에 제시된 사업의 목적 및 방향 등에 대한 서술내용을 검토하여 가족서비스 실무에 반영되고 있는 가족다양성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둘째, 가족다양성 관련 국내외 학술자료를 검토하여 가족다양성에 대해 개념적으로 고찰하였고, 가족 정책에서의 가족다양성 적용과 관련된 논의점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가족기능 및 가족다양성의 개념화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였고, 가족서비스에서의 가족다양성 적용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 목록 및 실무지침서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가족 정책전문가,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가족서비스에서 가족다양성의 의미를 조사하고 가족센터 사업에 적용할 가족다양성 관점을 정리하였다. 가족 정책전문가(교수, 연구원 등)들이 인식하는 가족다양성의 개념과 의미를 학문적, 정책적 맥락에서 조사하여 지역 가족센터의 가족서비스 실무에 필요한 가족다양성 개념도출에 활용하였다. 또한,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가족다양성의 의미를 조사하였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사·군·구 가족센터의 가족사업과 서비스에 가족다양성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이 정의하는 가족다양성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할 가족다양성의 의미 도출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 1.2 가족서비스 현장의 ‘가족다양성’ 적용 실태 분석

가족서비스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가족다양성의 실태와 가족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가족사업안내(Ⅰ)」에 나타난 가족 사업 내용 및 서비스 대상, 가족센터 이

용현황, 조직구성 유형 등을 살펴봄으로 우리나라의 가족서비스 현장에서 나타나는 가족 다양성 적용 실태 및 서비스 현황을 문헌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국외의 가족 정책 및 가족서비스에서 나타나는 가족다양성 적용 사례와 관련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다양한 국가의 문헌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지역 가족센터의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제공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시·군·구 가족센터를 대상으로 가족센터에서 실행한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사업과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가족센터 사업에서 가족다양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가족실무자 대상으로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다양한 가족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의 장·단점, 가족서비스에서의 가족다양성 적용 어려움, 가족다양성 관련 서비스 확대 방향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가족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족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요구도를 조사하여, 가족센터 사업과 프로그램에 가족다양성 적용 실태를 이용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 1.3 가족다양성을 적용한 가족서비스 개편 방안 도출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포괄하며, 가족다양성을 적용하는 가족서비스 재구조화 방향을 도출한다. 먼저 가족서비스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가족다양성 개념을 도출하였다. 가족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에 가족다양성 적용 실태 분석, 가족센터 이용자의 가족다양성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등을 종합하여 가족다양성을 적용한 가족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 개편방안을 제안하였다.

## 2. 연구방법

### 2.1 문헌조사

가족다양성 개념 및 관련 요소, 가족다양성 사업의 근거, 가족서비스 실무에서의 가족다양성 적용 의미 등을 파악하고 국내외 논점 및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해 2장과 3장에 걸쳐 문헌연구를 하였다. 문헌 자료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2 가족사업안내(I)」, 국내외 선행연구 및 정책보고서, 온라인 자료 등이 포함된다.

### 2.2 전문가 자문회의 및 초점집단면접

우리나라 가족서비스 현장에서 가족다양성의 의미, 적용 방안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가족 정책전문가,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을 초빙하여 자문회의 및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였고 4장에서 제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녹취하여 전사하였고, 전사된 자료에서 중요 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가족다양성을 적용한 가족서비스 방안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 수정하여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초점집단면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전문가 자문회의 및 초점집단면접 개요

구분	가족 정책전문가	가족서비스 실무자
조사 기간	• 2022년 7월 8일 ~ 7월 21일	• 2022년 7월 5일 ~ 7월 28일
참여자 수	• 총 6인	• 총 12인
참여자 특성 개요	• 가족센터에 대한 조예가 깊고, 가족다양성, 가족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은 학계 전문가로 구성	• 가족서비스 실무경험이 풍부한 시·군·구 가족센터의 센터장과 중간관리자로 구성
참여방식	• 화상회의(Zoom 이용) • 구조화된 질문지 이용 초점집단면접	• 화상회의(Zoom 이용) • 구조화된 질문지 이용 초점집단면접
시간 및 횟수	• 1~2시간 • 3인 1회 / 총 2회 실시	• 1~2시간 • 4인 1회, 3인 4회, 2인 1회 / 총 6회 실시
자료 기록	• 녹취(녹화) 및 전사	• 녹취(녹화) 및 전사
진행자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주요 내용	• 가족다양성 의미 • 가족서비스에서의 가족다양성	• 가족다양성 및 다양한 가족의 의미 • 가족센터 운영 경험 및 가족다양성 프로그램 적용에서의 현황

### 2.3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가족센터의 가족서비스 현황분석을 위해 시·군·구 가족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가족센터를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표집과 눈덩이표집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각 센터에서 사무국장, 총괄팀장 등 센터의 가족서비스 실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실무자 1인이 가족센터를 대표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온라인조사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조사로 시행하였고,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례품을 지급하여 설문조사 참여율을 높이고, 충실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내용은 ‘가족센터 사업 기획과 수행에서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의 의미’, ‘가족다양성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목적, 대상, 유형 등 서비스 구조의 특성’, ‘가족다양성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및 어려움’ 등이다. 조사 내용은 가족다양성 의미에 대한 가족 정책전문가,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의 초점집단면접 조사와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가족센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전국의 가족센터 이용자를 모집단으로 편의표집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온라인조사 플랫폼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149명의 유효응답자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가족다양성 프로그램 참여 경험’,

‘다양한 가족 포용 프로그램’, ‘가족센터 서비스 확대 요구’, ‘가족센터 가족지원’, ‘가족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방법에 있어, 양적 변수에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 분석을 적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고, 조사대상의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이 필요한 항목은 교차분석, *t*-test,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서술형 응답은 응답 내용에서 공통주제를 도출하여 정리하였다.

가족서비스 실무자 및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설문조사 개요

구분	가족서비스 실무자	가족센터 이용자
모집단	• 전국 가족센터	• 전국 가족센터 이용자
조사 기간	• 2022년 8월 11일 ~ 8월 31일	• 2022년 8월 16일 ~ 8월 26일
표본 수	• 설문조사 참여자 124명 자료 분석 • 문항에 따라 응답률이 상이함	• 유효응답자 149명 자료 분석 • 문항에 따라 응답률이 상이함
표집 및 조사 방법	• 편의표집 및 눈덩이표집 •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이용	• 편의표집 •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이용
분석 방법	•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 교차분석, <i>t</i> -test, ANOVA
조사 내용	• 가족센터 사업 기획과 수행에서 가족 다양성 • 다양한 가족의 의미 • 가족다양성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목적, 대상, 유형 등 서비스 구조의 특성 • 가족다양성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및 어려움	• 가족다양성 프로그램 참여 경험 • 다양한 가족 포용 프로그램 • 가족센터 서비스 확대 요구 • 가족센터 가족지원 • 가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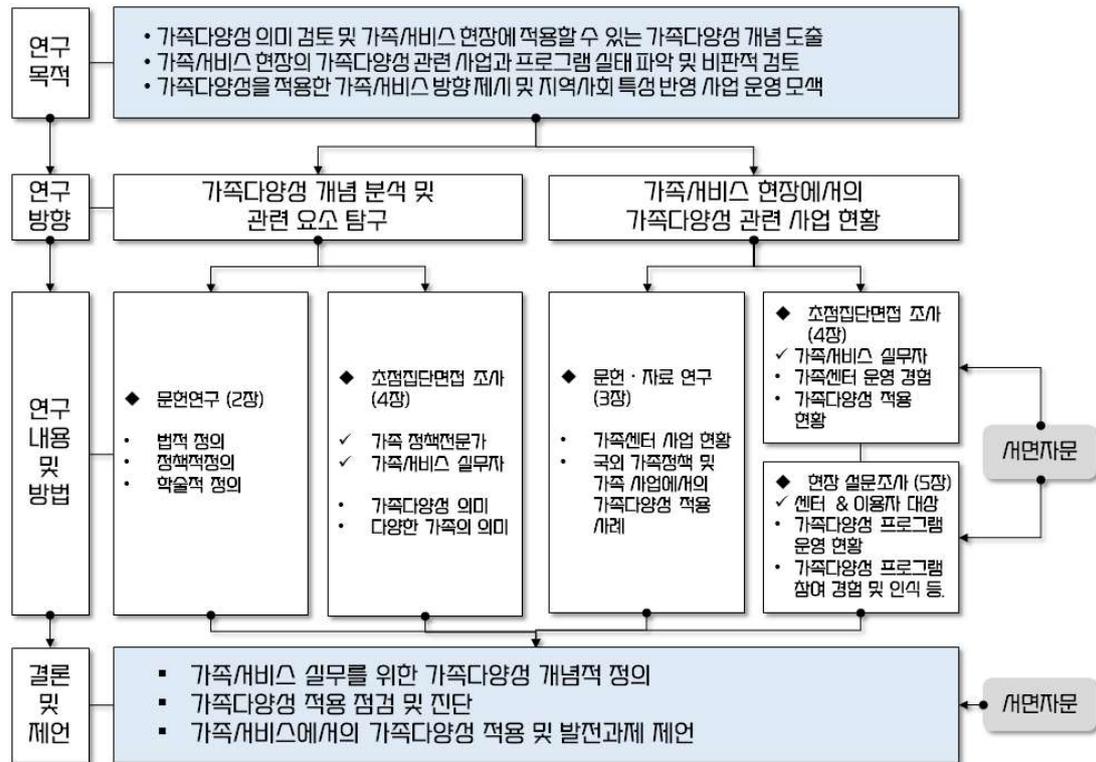
## 2.4 전문가 서면 자문

초점집단면접에 사용된 구조화된 질문지와 양적 조사에 이용된 설문지 문항의 구성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가족다양성 개념적 정의 및 가족서비스 방향성과 정책과제 도출 등에서 보다 객관적인 관점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전문가 자문을 서면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 3.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 방향과 전반적인 연구내용 및 방법을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그림 1-1>에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모형



## 제 2 장

### 가족다양성 관련 문헌고찰

제1절 가족 정책에 나타난 가족다양성

제2절 가족다양성 개념과 적용 사례



## 제1절 가족 정책에 나타난 가족다양성

가족서비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족다양성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족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법과 정책에 나타난 가족다양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시·군·구 가족센터 가족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21)에 나타난 가족다양성을 검토하였다.

### 1.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다양성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다양성을 지향하고, 다양한 가족을 법의 적용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조항을 <표 2-1>에 정리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중 가족다양성을 지향하는 부분으로 제3조(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3조에서 가족과 가정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는데, 제3조에 제시된 가족의 개념은 가족 형성 방법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가족이라 하는가로 정의되었고, 가정의 개념은 생활과 기능으로 정의되었다. 이를 근거로 가족다양성의 적용은 제도적 가족보다 생활공동체, 기능하는 생활단위인 가정을 강조하여 법의 적용대상에 다양한 생활 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 하여 시행해야 함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정책과 사업에서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다양한 가족의 욕구 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고(제15조), 자녀양육지원(제22조) 시책 수립 시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 하도록 명시하였다. 즉, 중앙정부 가족 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만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족 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때 가족다양성을 고려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해 언급한 조문들을 살펴보면, 3조의 가족의 정의, 1인 가구의 정의에서 법의 적용대상으로 다양한 가족의 유형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정의에서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단위’에는 가족 구조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입양가족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사실혼 커플, 동거커플 등 혈연, 입양의 관계가 아니며 법적 혼인상태가 아닌 커플은 가족에서 제외된다. 또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위를 가족으로 정의하여 가족에서 1인(개인)은 제외되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인 가구를 명시하였다.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제15조) 시 ‘위기가족’, ‘1인 가구’를 위

한 지원책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가족실태조사(제20조)에도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수요를 파악할 것을 제시하여, 여러 조문에서 1인 가구를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고려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1조의 2~4까지 위기가족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위기가족’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가족 유형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부성권 보장(제21조 2항), 자녀양육지원 강화(제22조)에 대한 조문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가족부양의 지원(제25조)에서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제26조)에서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제31조)에서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 ‘이혼한 가족’ 등을 조문에 명시하여 가족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에 따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34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제34조의 2)의 사업에 ‘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을 취약가족으로 언급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사업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표 2-1> 가족다양성이 나타난 건강가정기본법의 조문

조항	조문
제3조 (정의)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 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10.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제20조 (가족실태조사)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위기가족긴급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

조항	조문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자료: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7280호, 2020. 5. 19. 일부개정]

## 2.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가족다양성

### 2.1 가족다양성의 배경과 추진된 정책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배경에서는 우리 사회 가족 변화를 ‘구성과 형성 방식의 다양화’로 설명한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 자녀’ 가구 비중의 감소, 만혼 및 혼인 감소 등으로 가족 형성의 지연, 전통적인 혼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비혼 출산, 동거 등 가족 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경향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가족 내 개인 가치 부각, 젠더 갈등 지속, 가족유형별 소득 격차 지속 등을 우리 사회 가족 변화의 배경으로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하에서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먼저, 1인 가구를 정책 대상에 포함하였고,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차별 예방교육 의무화(’16년)
-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및 가족실태조사 시 1인 가구 포함(’18년)
- 유치원, 초·중고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의무화(’18년)
- 미혼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복지급여(아동양육비, 건강보험 등) 지급 가능(’20년)
- 다양한 가족 포용, 평등한 가족관계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19년~)
- 언론매체 등에 대한 반편견 모니터링 및 가족다양성 교육 시범 운영(’20년) 등 신규 추진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 성과로 ‘다양한 가족의 자녀 양육 및 자립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지원, 결혼이민자 한국 사회 정착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아동수당 도입, 가족센터 건립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기반 마련, 사고 재난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가족 지원 강화 등이다.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정부는 가족다양성의 포용, 다양한 가족의 자녀 양육 및 자립을 위한 정책 등을 실시하였지만, ‘가족 유형별 지원 중심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와 사회적 낙인 우려’를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다양한 가족 지원정책을 확대해 왔으나, 가족 유형별 부분적 지원정책이 특정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다른 가족을 배제하여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가족 유형별 지원을 다양한 가족 지원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 ‘가족 유형별 선별적 지원’에서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모든 가족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확대 필요’를 제시하였다. 또한 ‘가족다양성 증가와 감염병 확산 등에 대응’,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가족돌봄 지원체계 구축 필요’를 향후 가족 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 2.2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족다양성 관련 정책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으로 ‘가족다양성 포용’,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 및 다양한 가족 구성의 선택에 대한 권리 보장’,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여건 보장’을 제시하며, 가족 정책의 기조로 가족다양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핵심 지원 대상 가족에 대한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욕구가 있는 모든 가족’이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이나 차별 없이 기본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비혼, 1인 가구, 노년기 가족 등 가족구성원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가족에 대한 보편적 정책으로 확장
- 재난, 감염병 등 가족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의 유연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하고, 위기·취약가족의 조기 발굴·지원, 비대면 가족서비스 등 확대

4개 정책 영역에서 가족다양성 정책과제들을 살펴보면(〈그림 2-1〉 참고), 정책 영역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의 세부 정책과제들 중 가족다양성 관련 정책과제는 ‘1-1. 가족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1-2. 가족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이 있다. 정책 영역 ‘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에서는 ‘2-2.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여건 조성’, ‘2-3.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 서비스 체계 구축’ 이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세부 과제로 볼 수 있다.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영역에서는 ‘3-1.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지원 확대’ 에 가족다양성을 반영한 세부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정책 영역별 가족다양성 관련 주요 세부 정책과제는 다음 <표 2-2>와 같다.

<그림 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 체계

### <제4차 기본계획 정책 체계>



출처: 여성가족부(2021. 4. 27).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p.14에서 발췌

〈표 2-2〉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족다양성 관련 주요 세부 정책과제

영역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1-1. 가족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 구성 다양성 보장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li> <li>법률혼·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 규정 개정 및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금지·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li> <li>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기반의 대안적 관계(비혼·노년동거 등)에서 생활, 재산 등 권리 보호 방안 마련</li> </ul>
	1-2. 가족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및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li> <li>공무원 등 대상별 가족다양성 교육 운영, 정부간행물 등에 대한 반편견 모니터링 실시 및 매체 홍보 등 가족다양성 인식 확산</li> <li>성불평등한 가족의례·문화를 발굴·개선하고 다양한 가족의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가족관계 확립 지원</li> </ul>
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2-2.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 및 제도 강화·이혼 전후 지원 강화</li> <li>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 정비</li> <li>다문화가족 자녀의 동등한 출발점 보장</li> <li>위기·취약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li> </ul>
	2-3.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	<p>▶ <b>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교육·상담 등 서비스 확대(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li> <li>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의 가족 상담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 상황에 대한 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서비스 제공</li> <li>- 이혼 전·후, 부부간·부모간 가족관계, 가족갈등 및 자녀양육 등 관련 정보제공 및 심리·정서적 지원</li> </ul> </li> <li>가족관계 개선, 가족내 의사소통 및 폭력 예방 등을 위한 가족교육 확대</li> <li>* 부모·부부 역할, 이혼전·후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관계 향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양기관 간 협의체 구축, 입양가족(부모) 교육·상담 지원</li> </ul> </li> </ul>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3-1.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지원 확대	<p>▶ <b>지역사회 기반 취약위기가족 지원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li> <li>미혼모부, 한부모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사례관리 등 맞춤형지원(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li> <li>장애인이 포함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업 내실화 및 관계부처 협업 강화(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li> <li>저소득가구, 위기상황에 따른 나홀로 아동 등 지역사회 취약가족 발굴 및 통합적 사례관리 추진(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li> </ul>

자료: 여성가족부(2021. 4. 27).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 3. 소결

시·군·구 가족센터 가족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나타난 가족다양성의 의미를 검토한 결과, 가족 정책의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 형태를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 하여 시행해야 하며,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다양한 가족의 욕구 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 정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가족다양성을 고려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가족 정책과 사업에 관한 법조문들에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명시하였고, 특수한 요구가 있는 가족들을 조문에 명시하여 특수하고 다양한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가족다양성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가족의 유형은 다양하며 다양한 유형의 가족 욕구를 충족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나타난 가족다양성의 의미는 다양한 가족 구성 방식에 기초한 가족 유형의 다양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제4차 기본계획의 가족 유형 다양성은 가족 구조와 내용의 다양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족 구조의 다양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과 그 이외의 가족에 초점을 두었다. 가족의 규모로 1인 가구, 혼인상태로 한부모가족 등을 들 수 있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었지만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가족으로 분류되는 가족으로 다문화가족, 장애아동 가족, 입양가족 등이 등장한다.

제4차 기본계획의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정책 목표는 가족 유형의 다양성을 강조한 가족다양성이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이외의 가족 유형들을 국민이 수용하도록 교육, 캠페인, 미디어 등을 활용한 정책과제와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가족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정책은 다문화가족, 비혼 동거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게 차별적인 법과 제도 등을 개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이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게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세부 정책과제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언급된 내용은 미혼모부가족,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보조생식술 이용 비혼 단독 출산, 난자정자공여, 대리출산, 대안적 가족 공동체, 사실혼 등이다.

셋째,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서비스 제공이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서비스 과제에서는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청소년부모, 임신출산갈등, 미혼모부, 장애인 가족, 취약가족이 언급되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족 유형별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여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 가족 구성의 선택에 대한 권리보장,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의 여건 보장을 정책의 기초로 내세웠으나, 세부 정책과제에서는 가족 유형별 지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상 모든 가족’,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등을 강조하였지만, 가족서비스는 특정 유형의 가족에 한정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과제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열거하여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정책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측면도 있으나, 열거된 유형의 가족이 취약가족으로 인식되어 정책과 사업의 대상으로서 낙인감과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종합적으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목표는 ‘가족다양성 인정’으로 설정하였으나, 기본계획에서 가족다양성 개념을 직접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없다. 가족다양성 인정을 위한 가족서비스 방법으로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인식을 확산하는 사업, 특정 유형의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서비스 등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제4차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가족서비스에 가족다양성 적용’이라 함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 인정과 포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서비스로 이해된다.

## 제2절 가족다양성 개념과 적용 사례

### 1. 가족다양성 개념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와 가족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김유경, 2005; 김혜영, 2008; 박세경, 2005).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가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의 주체로서 그리고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임무를 수행해 왔다. 다양한 가족은 사회적 변화의 결과물인 동시에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가족의 가변성이 나타난 것이다(박세경, 2005). 삶의 모습이 다양해지는 만큼 가족의 생활 모습도 다양화되어 왔고, 가족 구조의 변화와 다양화의 방향은 시대적 흐름이라 하겠다. 즉 가족다양성은 가족의 구조와 생활 모습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세경(2005)은 가족다양성을 다양한 가족이 추구하는 가치의 다양성으로 설명했는데, 가족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배경으로 개인의 자율성, 선택권, 다양성에 대한 존중, 전통적 성역할 거부, 특정 유형의 가족에 대한 배타성 극복, 개별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인정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안정적으로 가족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가족 구조의 다양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조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기능 약화의 문제일 수 있고, 이러한 기능 약화에 대한 논의 없이 가족의 구조적 특성 변화로 야기되는 문제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즉,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된 가정생활의 특성이 반드시 가족원 개인이나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거나, 특정 유형의 가족은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단정적 시각의 가족 정책은 오히려 특정 유형 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여 가족다양성의 가치에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다양성을 반영한 가족 정책은 구조적 측면에서 다양한 가족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족의 복잡한 욕구를 반영한 정서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혜영(2008)은 정보 기술의 발달, 노동환경의 변화, 인구구조를 포함한 인구학적 변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요인들이 한국 가족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세경(2005)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형태로 가족을 구성하는 성향이 강해졌고, 개인의 가치관 및 취향에 기초한 가족 구성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이 중요시되고 있어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선택만큼 가족의 형태적 다양성은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다. 가족다양성 증가와 관련하여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핵가족이자 주거와 생활을 공유하는 소위 ‘정형가구’라 불리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

어늘었고, 1인 가구 등과 같은 ‘비정형가구’의 비율 증가를 대표적인 가족다양성 증가 현상으로 제시하였다.

김두섭 외(2005)는 한국 가족은 가족 구조, 형태, 관계 등에서 큰 변화의 과정에 있으며, 사회구조적 환경 변화 속에서 개인과 가족의 선택은 다양해지고 가족 형태의 다양성은 선택의 다양성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가족의 변화와 관련된 사회·정책적 담론에 있어 가족다양성의 증가를 강조하는 가족진보론적 입장보다는 가족 형태와 기능의 붕괴를 강조하는 가족쇠퇴론적 입장이 더 강함을 지적하였다. 사회적 변화와 함께 가족의 기능과 형태는 변화해도 가족은 사회의 중심축으로 존재할 것으로 전망하며, 오히려 개인과 조직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가족에 대한 욕구는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더불어, 사회변화와 가족의 변화 사이의 지체 현상, 가족의 가치 또는 의식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문소정(2008)은 한국 가족의 다양화에 대한 아노미 다양화담론, 헤체 다양화담론, 포스트모던 다양화담론을 소개하였다. 한국 가족이 겪고 있는 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있으며 각각이 바라보는 정책적 개입 방법이 다름을 제시하면서, 다양화담론의 한계를 설명하였다. 다양성, 다양화의 개념은 한국 가족의 변화가 계급적 차별성을 다원적 의미의 수평적 차이로 치환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 가족의 양극화를 고려하지 않은 다양성은 양극화에 따른 가족 간의 차별을 다원적 수평적 차이로 감추는 문제를 내포한다. 따라서, 계급, 성별, 연령별로 나타나는 차별적 다양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담론들은 한국 가족의 양극화 속에 가족들 간의 다양한 차이, 하나의 가족이 내포하는 다양한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서구의 가족다양성 관련 연구들은 가족의 다양화(diversification)는 세계적인 경향이고 가족 다양화를 이해하는데 가족생활과 가족 형태의 다양화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별히 이혼과 재혼, 이혼 후 가족생활, 재혼, 한부모, 공동양육권 등에 주목해왔고, 이성애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의 증가, 국가 간 이주의 증가 등을 가족 다양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았다(Eerola, Paananen & Repo, 2021). 자녀가 있는 또는 없는 결혼 또는 동거 커플, 한부모, 의붓가족, 재혼가족, 무자녀가족, 동성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근 가족의 유형과 관계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Neyer et al. 2016; OECD, 2016; Vilhena & Oláh, 2017)는 점은 여러 연구와 조사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근거하여 가족구조와 유형의 다양성은 가족다양성의 핵심 요소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최근 가족의 다양화, 가족다양성 증가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가족생애과정(family life course)의 역동성이다(Vilhena & Oláh, 2017). 과거 가족생활은 표준화된 경로와 예측되는 생활 사건(예. 자녀가 독립하는 사건, 결혼과 자녀 출산 결정 등)들을 따라갔다면, 현재 가족이 살아가는 경로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생활 사건의 발생과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가족구조와 유형의 다양성이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가족생애

과정의 역동성은 가족의 중단적인 변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Van Eeden-Moorefield & Demo(2007)는 전통적으로 가족다양성은 전형적인 가족(traditional family)으로부터 차이(변형)를 의미했는데, 현대의 가족다양성은 가족들이 서로 다르게 존재하게 하는 매우 광범위한 특성과 차원들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러한 다양성은 가족의 구조적, 인구학적 차원은 물론 가족과정(family process)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족다양성 연구는 주로 가족다양성 인식, 수용을 주제로 연구되었는데, 대부분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정형가족 이외의 가족 구조와 유형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특정 유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용도를 연구하였다(김성숙, 강현경, 2012; 김화선, 2016; 박미경, 2017; 유계숙, 2005; 유계숙, 유영주, 2002; 이선영, 정유진, 2018; 이진숙, 2017; 최은경 외, 2021). 다수의 연구들이 유계숙과 유영주(2002)의 가족다양성 수용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가족다양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수용도를 연구하였다. 유계숙과 유영주(2002)는 형태적 가족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가족구성의 다양성 수용 척도를 20개의 다양한 가족구성과 가족관계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지 응답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근애와 전효정(2010)은 양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확대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제시하여 비교적 간략하게 가족다양성을 측정하였다.

2020년에 실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여성가족부, 2020)에서는 이혼, 재혼, 동거, 독신, 무자녀 부부, 비혼출산, 국제결혼, 미성년자의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한 수용 정도로 가족다양성 수용 정도를 조사하였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다양성 수용도 측정도구 개발연구(최셋별 외, 2021)에서는 30개의 유형과 사례를 제시하고, 조사대상자가 각각을 가족으로 간주하는지에 따라 가족다양성 수용도를 보았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가족다양성 수용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3>에 제시하였다. 이들 선행연구에서 가족다양성은 다양한 가족구조, 다양한 관계, 다양한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가족다양성 인식·수용에 관한 연구

연구자(연도)	연구주제	가족다양성 수용 측정 문항
유계숙, 유영주(2002)	형태적 가족개념 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li> <li>2.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사는 편모</li> <li>3. 어렸을 때 자신을 입양한 노모와 함께 사는 52세의 중년 여성</li> <li>4. 각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한 부부(아이들끼리는 서로 이복/이부 형제간임)</li> <li>5. 입양한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사는 노부부</li> <li>6. 시집가서 남편을 잃은 딸과 외손자와 함께 사는 할아버지</li> <li>7. 한집에서 같이 사는 세 명의 중년 자매들</li> <li>8. 정자은행을 통하여 출산한 아들과 함께 사는 미혼 여성</li> <li>9.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사는 자녀가 없는 부부</li> <li>10. 이혼한 남성파, 그가 사귀고 있는 여성파, 그녀가 키우고 있는 전남</li> </ol>

연구자(연도)	연구주제	가족다양성 수용 측정 문항
		<p>편의 아이 (이 남성은 ( ) 그녀와 재혼하면 아이를 함께 키울 결심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계부와 그가 동거하는 여성과 함께 사는 아이 (아이의 생모는 전남편인 생부와 이혼하고 현재의 계부와 재혼했으나 2년 전 병으로 사망했음)</li> <li>12. 서울 근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6명의 성인과 12명의 아이들</li> <li>13. 한집에서 같이 사는 사촌 간의 두 남성</li> <li>14. 레즈비언(동성애) 커플과 함께 사는 그들의 아이들 (한 여성의 아이는 이혼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이고 다른 한 여성의 아이는 한때 동거했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임)</li> <li>15. 사별한 남편의 육촌 여동생과 한집에 같이 사는 미망인</li> <li>16. 2년 전 교통사고로 함께 죽은 부부(자녀는 없었음)의 양가 부모들</li> <li>17. 어릴 적 친구와 한집에서 같이 사는 77세의 할머니</li> <li>18. 남편과 사별하고 애완건을 키우며 사는 84세 할머니</li> <li>19. 나와 단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나의 조상들</li> <li>20. 연애만 하며 혼자 사는 독신남</li> </ol>
이근애, 전효정(2010)	아동이 인식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부모 가족</li> <li>▪ 한부모가족</li> <li>▪ 확대가족</li> <li>▪ 핵가족</li> <li>▪ 조손가족</li> <li>▪ 재혼가족</li> <li>▪ 장애인가족</li> <li>▪ 맞벌이가족</li> <li>▪ 입양가족</li> <li>▪ 다문화가족</li> <li>▪ 소년소녀가장가족</li> <li>▪ 독신가족</li> </ul>
여성가족부(2020)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가족의 모습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li> <li>▪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li> <li>▪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li> <li>▪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li> <li>▪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li> <li>▪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li> <li>▪ 미성년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li> </ul> </li> <li>2. 본인이 결혼하려는 상대 또는 자녀가 결혼하려는 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의 자녀</li> <li>▪ 재혼 가족의 자녀</li> <li>▪ 미혼부/모 가족의 자녀</li> <li>▪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li> <li>▪ 다문화가족의 자녀</li> <li>▪ 입양된 자녀</li> </ul> </li> </ol>
최셋별 외 (2021)	가족다양성 수용도 측정도구 개발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의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것에 동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인 혼인 및 혈연관계인 사람들</li> <li>▪ 배우자가 없는 어머니/아버지와 자녀(들)</li> <li>▪ 어머니/아버지 중 한 사람과 입양된 자녀(들)</li> <li>▪ 어머니와 정자은행을 통해 낳은 자녀(들)</li> <li>▪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남녀커플</li> <li>▪ 혼인신고 없이 함께 하는 남녀커플과 그들의 자녀(들)</li> <li>▪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20대 남녀커플 등 총 30개 유형</li> </ul> </li> <li>2. 개인적 수용성(다음의 사람들과 관계 맺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들)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li> <li>▪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자녀</li> <li>▪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 남녀커플</li> <li>▪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 남녀커플의 자녀 등 총 13개 유형</li> </ul> </li> </ol>

## 2. 가족다양성과 가족 정책

가족정책과 가족서비스의 맥락에서 가족다양성의 의미를 정의할 때, 가족다양성 인식과 수용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는 다르게 강조되는 내용이 있다. 김혜영(2008)은 가족 구성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공존이 어려움을 지적하며, 과거 결혼이나 혈연적 유대를 통한 결속과

유대의 욕구가 가족 구성의 주요한 욕구였던 것과 달리 현재 한국 사회의 가족 구성은 개별성과 독립성 욕구가 중요한 욕구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다. 결혼은 가족 구성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이고, 가족 구성과 해체에서 개인적 판단과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비교하여 가족 구성과 해체의 유연성 증가는 가족 안정성 약화를 동반하였다. 가족 구성과 해체가 개인의 독립적 선택이므로 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증가했지만, 외부적 간섭과 개입은 줄어들었고 가족이 공동체로서 유대감을 제공하거나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이 축소되면서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가족이 사회와 개인 사이의 완충 기능을 더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인들은 직접 자본주의 시장과 국가 제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더 예속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겪을 수 있는 대상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현재 가족다양성에 대한 요구에서 가장 큰 부분은 가족 내·외부 환경 모두 성평등에 기초하면서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가족다양성의 축을 개인의 자율성 확장과 선택권 강화에만 둔다면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느슨한 가족관계, 가족구성원의 유연성 확대는 가족안정성 약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상황에서 젠더, 세대, 계층별로 다른 결과를 맞게 될 것이고,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혜영, 2008).

김유경(2005)은 다양한 가족의 유형 중 재혼가족, 입양가족, 국제결혼가족의 개념과 특성을 소개하였다. 혈연 중심, 동일 국적과 민족, 동일 성씨 중심의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우리 사회의 주류 가족으로 정형화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재혼가족의 자녀, 입양아, 외국인 배우자, 혼혈인 등의 권리 옹호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주장하였다.

가족다양성 개념을 정의하는데 김유경(2005)은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첫째, 주체의 관점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개념을 소개하는데, 예를 들면 재혼가족의 동의어로 의붓가족, 계부모가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이혼은 유자녀 이혼이 많고, 이혼자가 재혼가족을 형성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재혼가족의 대부분은 의붓가족인데, 재혼가족은 부모 입장의 명명인 것과 달리 의붓가족은 아동의 입장에서 가족 형태를 표현한 것임을 설명하였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명명할 때 누구의 관점으로 가족 형태를 표현하는가에 따라 가족의 유형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가족 유형을 명명할 때도 다양성의 관점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한부모가족’을 다양한 가족 중 집중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으로 제시하였는데, 한부모가족이라는 명칭은 자녀의 관점은 결여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사별로 형성된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의 관점에서 한부모가족도 맞겠으나, 이혼이나 별거로 형성된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의 관점에서 양부모

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한 명인 가족이 되는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부모자녀 관계가 존재하지만, 자녀 관점의 가족생활에서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의 관계가 배제된 가족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매우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당장 새로운 명칭을 찾기는 어렵겠으나, 가족다양성의 관점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과 사업에서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가족의 유형으로 분류된 가족 유형 안에서의 다양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김유경(2005)은 Clingempeel, Brand & Segal(1987, 김유경(2005)에서 재인용)이 제시한 재혼가족의 유형을 소개하였는데, 재혼가족은 재혼한 부부 각각 이전 혼인에서의 자녀 유무 및 이전 혼인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 유무에 따라 9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각 유형의 가족생활에서 다른 욕구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김혜영(2008)도 가족 구성 방식과 내용에 따라 동일한 구조를 가진 가족도 서로 다른 특수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가족생활의 다양성에 주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정형가족’으로 불리는 가족 구조, 즉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도 과거에는 남성연상혼의 비중이 압도적이었으나, 동갑이거나 여성연상혼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안에서도 과거와 비교하여 다양한 가족생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가구의 소득구성방식, 노동시간 배분 방식 등의 차이가 동일한 가족 구조 속에 다양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증가 또한 가족다양성이 가족 구조의 다양성에만 주목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 3. 가족다양성의 정책적 적용에 대한 제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 목표로 ‘가족다양성 인정’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가족다양성을 가족서비스 실무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박정운 외(2021)와 진미정(2021)은 가족 정책으로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정운 외(2021)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구현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책 대상과 집행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가족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인데 가족을 단위로 하는 가족 정책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 다른 사회 정책과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한계점을 갖는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가족과 가정을 정책의 대상과 단위로 하기보다는 개인, 가족구성원을 강조하여 정책의 대상을 아동, 노인, 여성 등 개인으로 설정하였다. 정책 대상으로 개인을 강조하였으나, 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의 권

리와 아동의 관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거나, 한부모가족을 저소득 취약가족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보편적 가족 정책으로서 정책 집행의 한계를 보인다. 가족서비스 현장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과제들을 구현하기 어려운 점으로 대부분 정책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이어서 중앙정부 가족 정책 예산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통한 정책 추진의 한계가 있다. 그 밖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으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을 제안하고, 전문인력 체계의 강화를 통한 서비스의 전문화는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 면밀한 시행계획과 예산이 준비될 때 전달체계 통합의 어려움을 능가하는 정책 시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진미정(2021)도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의 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서비스 현장의 사업과 가족서비스는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 하에 설계되고 시행된다. 그러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대부분은 가족제도 개선에 치중되어 있고, 가족관계와 가족생활 향상을 지원하는 가족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정책은 매우 미흡하다. 이러한 한계는 가족 정책의 보편적, 예방적 성격에 대한 몰이해와 개별 가족의 생활과 관계 향상을 지원하는 가족서비스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에 있다고 보았다.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가족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근거한 가족서비스가 현재 가족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운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목표가 ‘가족다양성 인정’으로 설정되었으나 영역별 정책과제에 나타난 ‘가족다양성’은 한부모가족, 미혼모부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등에 한정되고 있다. 정책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논의와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생활 향상과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역 가족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회 환경과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고, 시의성 있게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 종사자의 교육과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족 정책 분야 연구들은 가족다양성을 개념화함에 있어 가족의 형태와 구조의 다양성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로의 개편방안과 코로나19 이후의 가족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에서 가족다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박정윤 외(2019)는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가족 정책과 서비스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가족다양성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가족의 생활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원의 역할과 관계, 가족생활주기 별 강조되는 가족의 기능이 고려된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최인희 외(2021)는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비스 집행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을 분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상을 통합한 가족서비스 집행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윤소영(2021)은 코로나19 이후, 가족서비스 제공방식에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에서 가족다양성을 구현하는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정윤 외(2019)는 통합적 가족서비스 전달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한국 가족의 다양성이 증가를 고려한 가족 정책과 가족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가족다양성을 포용하되 계층, 성, 세대 간 통합과 연대를 지지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가족지원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족 중심의 가족다양성으로부터 확장하여 무자녀 부부가족, 1인 가구, 중장년·노년기 가족 등 기존 가족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었던 대상을 포괄하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형태로서 가족을 구분하는 가족다양성의 개념이 아닌 관계로서 가족을 상징하고 대상 가족의 범주를 확대 포용하는 가족서비스의 설계를 강조하였다. 가족다양성을 확대하는 가족서비스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가족의 생활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원의 역할과 관계, 가족생활주기 별 강조되는 가족의 기능이 고려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인희 외(2021)는 현재 가족센터로 물리적 통합이 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모델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족 정책의 통합적인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로서 가족센터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 통합 편성 등 행정 실무적 차원의 정비와 개선으로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명칭은 가족센터이고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 사업과 서비스의 집행과정은 예산의 목적상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으로 분리, 가족센터의 예산 유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가족센터의 가족서비스 집행과정에서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을 포함하는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될 때 가족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가족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소영(2021)은 코로나19 이후 가족서비스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족센터는 비대면 서비스를 하고, 각 서비스 별 대면, 비대면, 대면과 비대면의 혼용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대해 이용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있어 비대면 서비스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비대면 서비스의 안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가족지원서비스 중 아이돌봄지원,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음을 고려하여 가족돌봄

서비스와 문화프로그램을 융합한 프로그램 제공을 제안하였다. 또한,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 방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며, 코로나 19 이후 상담프로그램 이용자와 교육프로그램 이용자의 급증을 통해 위드코로나 시대 자녀 돌봄 지원 관련 대면·비대면 교육·상담 프로그램 간의 융합도 제안하였다. 그 밖에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가족생활 및 가족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로 가족 간 물리적·심리적 공유 영역 증가, 재택근무 및 온라인 등교 등 비대면 소통 환경의 급격한 확산, 친구 모임, 취미활동 등 사회적 외부 활동 축소로 인한 개인 일상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가족 간 편차가 발생하므로 가족서비스의 세분화를 통해 가구별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가족다양성에 부합하는 가족서비스 제공방식의 다양화도 가족서비스 개편 방향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은주와 이기숙(2008)은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초기인 2007년 부산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실적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 가족다양성의 반영 정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입법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 운영되기 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함께 수행했었던 시기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여러 유형의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가족들 이외에 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에 접근이 어려웠던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의 특정 욕구를 해소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가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등 시설에 거주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 외에 수형자가족, 군인가족, 장애인가족, 자발적 무자녀가족, 비자발적 무자녀가족, 기러기가족, 동성애가족, 조손가족, 입양가족, 미혼독신가족, 노인가족 등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다양성 확장 관점으로 접근하고 필요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다양한 가족들로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 가족다양성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배치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중심의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양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족의 다양성에 기반한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도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입양가족을 위한 예비 부모교육, 주말가족과 기러기 가족 대상 네트워크 가족생활교육 등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또는 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 4. 가족 정책 관점의 가족다양성: Bogenschneider(2014)의 제안

가족다양성을 가족 정책과 가족서비스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과정에 대한 안내 또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Bogenschneider(2014)는 가족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정책 과정을 소개하면서 가족 정책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가족다양성을 제시하였고, 가족 정책 현장에 가족다양성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였다.

가족다양성은 가족에 대한 정의의 다양성에서 출발한다. 가족은 가족 정책의 대상이고, 가족 정책의 대상으로서의 가족은 가족 정책의 목표,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가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가족 정책 현장의 정책적 맥락에 따라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족 정책이 구현되는 시대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정치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 가족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미국은 헌법과 연방법에 가족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캐나다는 단일한 가족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Bogenschneider, 2014, p.55). 법적으로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법적으로 정의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국가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족을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상황에 따라 더 우선하는 정의는 있으므로 가족의 정의는 가족 정책의 내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자들마다 제시하는 가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Bogenschneider et al.(2012)은 이를 구조적 정의와 기능적 정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통용되는 단일한 정의를 찾기 보다는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구조적 정의와 기능적 정의 중 적합한 것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적 정의: 가족의 멤버십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혈연관계, 법적관계, 거주</li> <li>• 기능적 정의: 가족 구성원이 수행하는 기능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면 경제 자원 공유,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돌보기</li> </ul> |
|--|

예전과 비교하여 가족 구조는 복잡해지고 가족생활도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다수의 가족이 따라가던 가족생활주기의 순차성도 많이 약화되었다. Bogenschneider(2014)는 복잡해진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가족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결혼, 이혼, 재혼이 빈번하여 배우자의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복수의 배우자로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각 자녀의 양육비를 어떤 배우자에게 각각 얼마씩 받아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설계된 가족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가족의 삶의 방식을 담아내기 위한 가족 정책에 가족다양성은 정책의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Bogenschneider et al.(2012)은 특정 가족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가족다양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구체화할 수 있는 도구를 <표 2-4>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족다양성을 ‘가족 형태의 다양성’, ‘가족생활주기의 다양성’, ‘가족의 상황(맥락)의 다양성’으로 구분하였고, 특정 가족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각각 혹은 동시에 고려될 수 있다.

<표 2-4> 가족다양성과 맥락

가족 형태 (family types)	가족생활주기 (family life cycle stage)	가족 상황(맥락) (family contexts)
<b>사회경제적 특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수준</li> <li>▪ 소득수준</li> <li>▪ 직업</li> </ul>		
<b>구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플(자녀 유무)</li> <li>▪ 기혼</li> <li>▪ 동거</li> <li>▪ 첫 번째 결혼</li> <li>▪ 재혼/재결합 가족</li> <li>▪ domestic partnershi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팅</li> <li>▪ Hooking up</li> <li>▪ 동거</li> <li>▪ 무자녀</li> <li>▪ 신혼기-영유아 자녀를 양육</li> <li>▪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li> <li>▪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li> <li>▪ 미성년 자녀 없음</li> <li>▪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함께</li> <li>▪ 성인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손자녀</li> <li>▪ 샌드위치 세대: 미성년 자녀와 부양할 노부모가 있는 성인</li> <li>▪ 발달 장애가 있는 가족원이 있는 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인종/문화</li> <li>▪ 종교</li> <li>▪ 사회경제적</li> <li>▪ 지리적(농어촌/교외/ 도시)</li> <li>▪ 가족원의 특별한 요구(예. 인지, 정서, 신체 등)</li> <li>▪ 비공식 사회적 관계망(대가족, 친구, 이웃, 동료)</li> </ul>
<b>한부모가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li> <li>▪ 별거</li> <li>▪ 이혼</li> <li>▪ 사별</li> <li>▪ 자발적 비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가정</li> <li>▪ 입양가족</li> <li>▪ 별거중인 가족</li> <li>▪ 핵가족/확대가족/3세대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원 중 근로소득자</li> <li>▪ 0명/1명/2명/다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거가족: 결혼이나 동거상태인데 주거를 따로 하는 경우</li> </ul>		

자료: Bogenschneider et al.(2012). The family impact handbook. p.37. 발췌

Bronfenbrenner(1977)의 생태체계이론에 의하면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미시체계(microsystem)로서 기능하고, 가족 정책은 가족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체계(exosystem)라 할 수 있다. Bogenschneider et al.(2012)은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을 11개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능 수행을 위해 사회에서 지원하거나 대체하는 사례들을 제시하였다(<표 2- 5> 참고). 가족 기능의 지원은 가족 정책과 공적 가족서비스 등을 통해 공적으로 제공되거나, 시장에서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해 사적 영역에서 제공되기도 한다. 공공정책으로서 가족 정책과 가족서비스의 기본적인 방향은 개별 가족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의 웰빙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가족다양성을 적용한

가족 정책과 가족서비스의 기본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가족 정책에서 가족다양성을 고려할 때도 가족 기능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표 2-5> 사회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는 가족의 기능들

가족 기능 (family functions)	기관, 제공자, 서비스, 체계(공적, 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가족 형성과 멤버십:</b> 입양, 출생, 사망, 이혼, 결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형성과 소멸(해체, dissolution) 관련 체계:</b> 입양 서비스, 이혼 변호사, 가정 법원, 임신출산 계획과 산부인과, 호스피스 서비스, 결혼과 이혼 상담서비스, 결혼관련 법률, 결혼전 준비, 태아 산전 보호, 청소년 임신 관련 프로그램, 장례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경제적 지원:</b> 가족의 소득활동, 고용, 자산 등을 활용하여 의식주 및 생필품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경제적 체계:</b> 은행, 소득보장과 주거지원 프로그램, 보험, 연금, 사회보험, 대중교통, 노동조합, 직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육:</b> 지식, 능력(competencies), 사회화,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육 체계:</b> 아동 돌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교육, 직업 훈련 프로그램, 도서관, 유치원, 직업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건강과 정신건강:</b>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를 돌보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보건의료와 정신보건 시스템:</b> 의원, 상담, 보건의료전문가의 서비스, 병원, 공적사적 서비스, 치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취약한 가족 구성원 보호:</b> 모든 연령의 환자, 노약자,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물리적 웰빙과 안전을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건강과 사회적 서비스 체계:</b> 기부자선 단체, 노인돌봄, 가정을 기초로 하는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요양원, 재활 돌봄, 사회서비스 기관과 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회적 책임:</b>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 표준, 규칙을 설정하고, 가르치고, 강화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법적 체계:</b> 법원, 소년원, 법률, 교도소, 보호관찰 체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애정과 배려(care):</b> 애정, 인정(affirmation), 친밀감, 상호 배려(mutual car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원 체계:</b> 확대 가족, 결혼과 가족 생활 교육, 이웃 지역사회 기관 단체, 동료지지 모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체성:</b> 지역사회의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가족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재적 체계:</b> 민족, 지역, 종교 단체(모임)와 프로그램/ 지역, 주, 연방 수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문화적 사회화:</b> 사회적, 종교적 가치를 전달하고 계승하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미디어, 교육, 동료, 종교, 여가 시스템:</b> 전자 미디어, 도서관, 각종 기관 단체(예. 지역 기반, 신념 기반, 사회적), 종교 의식을 할 수 있는 공간, 대중매체, 여가생활 관련 단체, 학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종교(영적):</b> 가족의 영성과 종교를 발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종교 체계:</b> 신념 기반 단체 기관,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종교관련 미디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오락, 휴식:</b> 기분 전환, 엔터테인먼트, 여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오락 휴식 체계:</b> 엔터테인먼트 산업, 도서관, 스포츠 단체, 오락휴양 시설</li> </ul>

자료: Bogenschneider et al.(2012). The family impact handbook. p.61. 발췌

Bogenschneider(2014)는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기획할 때 가족 정책 관점(family policy lens)을 적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중 네 번째 원칙이 가족다양성(family diversity)이다. 가족 정책 관점에서 가족다양성은 특정 공공정책, 프로그램, 서비스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게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특정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는 가족생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가족생활의 다양성으로 나타나는 개별 가족의 특성을 근거로 정책과 서비스의 계획 및 집행에서 차별

이 발생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Bogenschneider(2014)는 가족다양성을 가족생활의 다양성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미국 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문화(culture), 인종(race), 민족(ethnicity)의 다양성은 물론 경제적 상황, 가족 구조, 지역 특성, 특수한 가족의 상황, 종교, 가족생활주기 등 가족다양성 요소를 매우 다양하게 제시한다. 또한, 가족 정책과 서비스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가족다양성 적용 점검표도 제시하였다. 아래의 점검표(<표 2-6>)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가족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된 것으로, 정책담당자,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담당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 실무에서 가족다양성이 존중되는지를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점검해 볼 수 있다.

가족 정책 실무자(관계자)는 가족의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 배경, 경제적 상황, 가족 구조, 지역 특성, 특수한 요구가 필요한 상황, 종교, 가족생활주기 단계 등 가족다양성의 요소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특성이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과 서비스를 계획 집행하는데 아래의 점검표를 활용할 수 있다(Bogenschneider, 2014).

<표 2-6> 공공정책과 서비스에 가족다양성 적용 점검표

정책, 프로그램, 실무는 얼마나 잘....	강함 strong	적절함 adequate	제한적임 limited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삶의 단계에 있는 가족들의 다양한 태도, 행동,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는가?</li> <li>• 다양한 가족 구조를 가진 가족들의 다양한 태도, 행동,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는가?</li> <li>•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지역적, 인종적(민족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의 다양한 태도, 행동,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법적인 범위에서 가족의 문화적, 종교적 생활습관과 의례를 지키는 것을 존중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돌보고 돌봄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의 복잡성과 책임을 고려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적, 경제적, 지역적,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으로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은 확보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센터)의 운영 철학은 문화적 반응성(cultural responsiveness)이 확보되도록 작동하는가?</li> <li>• 종사자가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을 발휘할 수 있게 작동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와 문제의 표면적 현상보다는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가?</li> </ul>				

자료: Bogenschneider et al.(2012). The family impact handbook. p.33. 발췌

## 5. 가족 정책 및 가족서비스 실무에 가족다양성 적용 사례

가족다양성을 가족 정책과 가족서비스 실무에 실제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미국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NCFR) 다양성 적용 가이드와 미국 Massachusetts 주 실무자 지침서를 통해 알아보았다.

### 5.1 미국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의 다양성 개념

미국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NCFR)는 학계와 실무에서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성 정의(definition of diversity)와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NCFR, 2018).

“다양성의 포용(embracing diversity)이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양성(diversity)은 (a) 권력, 특권, 접근성의 격차, (b) 취약한 집단의 주류사회로부터 배제를 이해하는 눈(lens)을 제공한다. 이러한 다양성의 눈으로 보면 일부 집단은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인식의 부족으로 폄하되거나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성은 개인, 커플, 가족, 집단 및 사회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의 강점, 지혜, 역량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NCFR, 2018; p.1)”

NCFR에서 제시하는 다양성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 NCFR에서 제시하는 다양성 요소 (NCFR, 2018; p.1)

- 비장애와 장애
- 연령
- 이중언어와 문화다양성/영어학습자
- 체격과 몸상태
- 전통과 관습
- 교육, 전공 또는 직업, 지위
- 민족, 인종, 국적 또는 문화적 정체성
- 젠더, 성별 정체성, 그리고 성별 표현
- 지역적 배경과 위치
- 원주민 또는 이민자의 지위 또는 정체성
- 혼인상태, 관계(독신 포함), 그리고 가족 구조 또는 정체성
- 객관적, 주관적 세계관과 관점
- 정치적 이념과 소속
- 종교(무교), 영적 소속, 그리고 신념
- 성적 성향, 정체성, 그리고 표현
- 사회경제적 지위, 주거 상태, 사회적 계층, 고용, 그리고 군복무

## 5.2 미국 Massachusetts 주 가족서비스 실무자 등을 위한 지침서

미국 Massachusetts 주(Massachusetts Family Engagement Coalition)는 ‘Strengthening Partnerships: A Framework for Prenatal through Young Adulthood Family Engagement’라는 가족사업과 가족서비스에 관여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주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는 가족서비스, 보건의료, 교육현장 등에서 다양한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실무자들의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이 가족다양성에 관한 내용이다.

원칙 1: 모든 가족은 가족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가족서비스는 개별가족의 신념, 가치, 선호, 목표 등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가족과 가족센터 종사자는 협력관계에서 공동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개별가족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 및 존중
- 가족의 목소리와 관점 반영
- 가족을 위한 가족서비스 기획 및 실천이 아닌 가족과 함께 하는 서비스 기획 및 실천

원칙 2: 다양성은 인종, 종교, 민족, 문화, 언어, 가족구조, 능력, 성적 지향,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등과 같은 다양한 수준에서 경험되고 표현된다. 다양한 가족의 성공적인 가족서비스 참여를 위해서 다양성에 대해 인식 및 수용하고, 가족의 다양성에서 오는 강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개별가족이 가진 강점, 필요, 장애 요인을 포함하는 가족의 개별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
- 서비스 기관, 보건의료,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나타나는 가족 내부의 다양성과 가족 간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 강점 관점으로 다양성에 접근

※ The Massachusetts Family Engagement Coalition(2020; p.9)에서 발췌

## 6. 소결

가족구조의 변화와 다양화는 시대적인 흐름이고 세계적인 경향(Eerola, Paananen & Repo, 2021)으로 가족다양성은 가족구조와 생활 모습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다양성은 가족이 추구하는 가치의 다양성(박세경, 2005)으로 특히 개인의 가치관 및 취향에 기초한 가족 구성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이 중요한 가치로 확대되는 만큼 가족의

형태적 다양성은 증가하게 된다(김혜영, 2008).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족 유형과 가족관계는 다양화되고 있고, 가족다양성의 핵심 요소로 가족 구조와 유형의 다양화를 꼽는다. 최근 가족다양성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가족생애과정(family life course)의 역동성이다(Vilhena & Olah, 2017). 가족 구조와 유형의 다양성이 현재 보이는 현상이라면 가족생애과정의 역동성은 가족의 종단적 변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가족다양성 연구들은 주로 가족다양성 인식과 수용을 주제로 다루었다. 대부분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정형가족 이외의 가족 구조와 유형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특정 유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용도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나타난 가족다양성의 개념은 부부와 자녀가 주거를 공유하는 정형가족으로 간주하고, 그 외 다른 유형의 가족관계로 구성된 가족을 다양한 가족으로 보았다(예. 유계숙, 유영주, 2002). 소수의 연구이지만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양부모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유형에 포함하여 일반인의 가족다양성 인식 정도를 조사한 연구도 있다(예. 이근애, 전효성, 2010). 종합해보면, 가족다양성은 가족 구조와 관계의 다양성에 기초하여 발전된 개념인데, 최근에는 가족생애과정의 역동성 등을 고려하고 이를 확장하여 다요인·다차원적으로 가족다양성을 정의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족 정책에 가족다양성을 적용할 때 주체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고, 특정 가족유형 안에서 다양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정책 대상으로 특정 유형의 가족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가족다양성을 정책에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가족을 특정 유형의 취약가족으로 낙인찍을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통합적 가족서비스 차원에서 가족다양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와 전문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가족다양성 관련 서비스가 특정 유형의 가족들에 대한 가족서비스로 제한되는 경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재정립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가족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의 가족서비스 제공 환경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가족다양성을 가족서비스에 적용하는 서비스 제공방식의 다양화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가족의 생활이 다양해지는 만큼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족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가족다양성을 가족서비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가족서비스 실무자는 가족다양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다양함을 이해하고, 이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족다양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와 차원(Bogensneider et al., 2012)을 이해하고,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지하는 가족다양성을 적용한 가족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족서비스 실무자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가족다양성 적용을 위한 점검표 또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고, 가족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실무 사례들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제 3 장

## 가족다양성과 가족서비스

- 제1절 국내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현황
- 제2절 국외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 정책 및 서비스 사례



## 제1절 국내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현황

### 1. 여성가족부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개요

#### 1.1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연혁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의 연혁과 관련 내용은 <표 3-1>에 제시하였다. 먼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5년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2006년 운영을 시작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분리 운영되던 가족서비스 지원기관은 2014년~2015년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2021년에는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고 현재 전국에 208개소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는 14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23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가족센터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1>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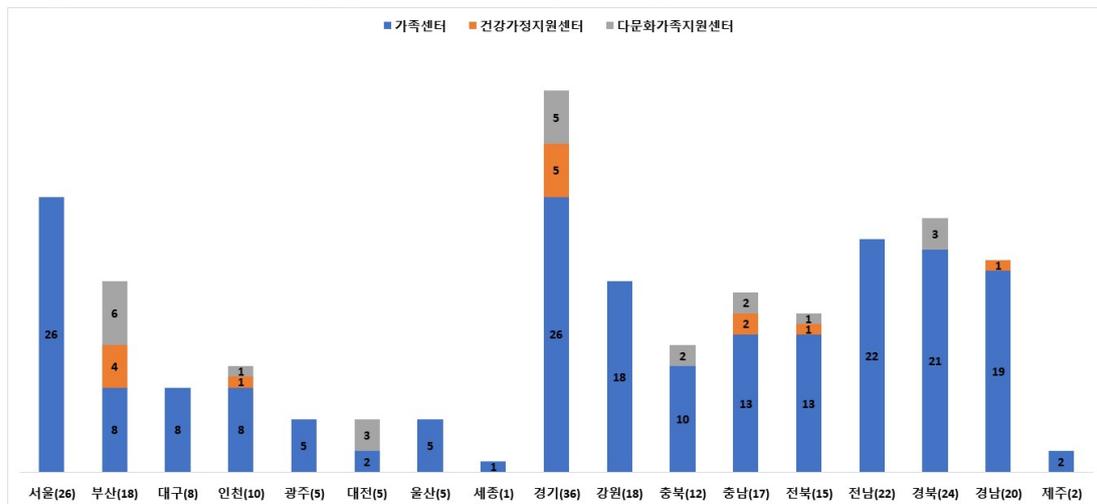
구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4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		
2005	- 건강가정지원센터 본격 실시: 시·군·구 센터 15개소 신규 설치		
2006	↓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	
2008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로 명칭 변경	
2013	- 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 151개소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211개소 설치	
2014 2015	↓	↓	- 2014년~2015년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22개소)
2016	- 통합서비스 실시		-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78개소)
2017	↓	↓	- 운영기관 확대 (101개소)
2021			- ‘가족센터’ 로 명칭 변경
2022	- 운영기관 14개소 유지	- 운영기관 23개소 유지	- 운영기관 208개소 유지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www.kihf.or.kr/lay1/S1T335C338/contents.do>

## 1.2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지역별로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다. 2022년 6월 기준 경기도에 36개소의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센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26개소로 가장 많은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모든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족센터로 통합·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전남, 제주로 나타난다.

<그림 3-1> 2022년 6월 기준 전국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국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http://www.kihf.or.kr/lay1/S1T335C338/contents.do>

## 1.3 가족센터SOC 현황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지역사회 내 보육, 복지, 문화·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여성가족부의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가 참여하고 있다. 가족센터SOC는 전국 104개소가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sup>1)</sup>. 가족센터SOC는 지자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교육, 가족상담,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형’ 과 이에 이웃·세대 간 소통 및 교류를 촉진하는 공간인 다목적가족소통·교류 공간을 추가한 ‘확장형’ 으로 구성된다. 가족센터SOC의 핵심 공간인 다목적가족소통·교류 공간은 지역주민의 돌봄, 관계, 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의 특성 및 욕구에 따라 돌봄중심, 글로벌 소통중심, 지역공동체 통합 중심 등 크게 세 가지 중심 유형으로 조성될 수 있다. 다목적가족소통·교류 공간의 중심 유형의 주요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돌봄중심 유형은 아동 돌봄을 지원하고 돌봄 제공자의 휴식을 지원하는 등 아동 돌봄 부담을 가진 가족들의 돌봄 기능을 보완·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글로벌

1) 출처: 가족센터SOC 홈페이지 <http://soc.kihf.or.kr/web/index.do>

소통중심 유형은 선주민과 이주민의 소통을 지원하고, 기존의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통합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통합중심 유형은 지역 내 1인 가구 및 중장년층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내 세대 간 교류 활성화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가족센터SOC를 통해 가족서비스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적합한 가족서비스 공간을 조성하고, 가족서비스 접근성 및 인지도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2. 가족센터(통합 가족서비스 운영기관) 사업

### 2.1 사업 목적

여성가족부(2022)에서 제공하는 「2022 가족사업안내(I)」(p. 71)에 제시된 가족센터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한 곳에서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먼저 가족서비스 기관의 통합에 따른 단일화된 기관에서의 통합서비스 제공 및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사업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 목적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 2.2 사업 방향

「2022 가족사업안내(I)」의 가족센터 사업 방향 중 가족다양성 관련 부분은 <표 3-2>에 제시하였다. 먼저, 일반·다문화가족 외에 한부모·조손가족, 맞벌이가정, 1인 가구, 북한이탈가족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가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역 여건 및 정책 수요자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원서비스 확대를 제시하였다. 세부 사업 방향과 관련해서는 총 12개의 항목 중 1, 3, 6, 9번을 제외한 8개 항목이 다양한 가족 관련 사항으로 나타났고, 이 중 6개 항목에서 다문화가족을 언급하고 있다. 즉, 다양한 가족 대상 사업의 대부분이 실제 다문화가족 대상의 사업 방향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3-2> 「2022 가족사업안내(I)」의 가족센터 사업 방향

구분	내용
사업 방향	(지원대상 확대) 일반·다문화가족 중심에서 일반, 다문화, 한부모·조손가족, 맞벌이가정, 1인 가구, 북한이탈가족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지원서비스 확대) 지역여건 및 정책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세부 사업 방향	1)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가족문제 대응력 강화 2) <b>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b> 3) 일·가정 생활의 이중고에 지친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고충해소, 자녀육아 등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강화 및 역할 갈등 해소 지원 4) <b>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에 대한 부모·자녀관계향상, 사회성 발달 및 미래설계지원 등 다문화가족 자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b> 5) <b>다문화가족과 한부모(미혼모등)조손가족 등에 대한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들의 역량강화 및 안정적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지원</b> 6)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이용자 참여 확대 및 가족친화지역문화 조성 7) <b>다양한 가족지원, 이용자 참여 확대를 통한 가족기능 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가용자원과 연계한 토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 및 협력 지원 강화</b> 8) <b>문화사업영역에서 유사사업 통합(나눔봉사단 및 가족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 상시프로그램 등)을 통한 가족융합 및 사회인식개선</b> - <b>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가족포용성 향상 도모</b> 9) 통합서비스는 수요자의 특성 및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며, 아빠의 육아참여 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 등 서비스 제공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가족관계 개선 도모 10) <b>다문화비다문화 통합 시 비언어적 프로그램의 확대 통해 다양한 참여자의 진입 장벽 개선</b> 11) <b>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워킹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가로의 유도를 통해 시민의식 고취 및 가족편견 해소를 위한 가족친화문화사업 강화</b> 12) <b>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한부모가족대상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별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활성화</b>

자료: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I)」(p. 93-94)

### 2.3 사업 내용 및 서비스 대상

「2022 가족사업안내(I)」에 제시된 가족센터의 영역별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제시하고 있다(<표 3-3> 참조). 사업영역은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관계’ 영역에서는 부모역할 지원 및 부부역할 지원과 가족상담 사업에서 생애주기별 혹은 가족특성별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모역할 관련 교육 시 활용하는 매뉴얼을 가족 특성별(맞벌이, 한부모, 재혼, 다문화, 조손, 비동거)로 제공하고 있고, 부부역할 지원에서는 노년기 부부지원 사업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혼 전·후 가족지원 사업과 조부모 역할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서비스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가족관계영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사업이 있다.

‘가족돌봄’ 영역에서는 가족 기능이 취약한 가족(예. 한부모·조손가족, 긴급위기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과 이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교섭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즉, 가족돌봄 영역은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 가족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가족생활’ 영역에서도 맞벌이가정 일·가

정양립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예. 초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자녀 사회 포용안전망 사업), 1인 가구 지원사업 등 특정한 서비스 대상에 맞춰진 사업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의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가족사랑의 날, 가족봉사단 등의 사업이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족이 대상이 되는 사업이고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사업 또한 모든 가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예.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다이음사업, 다(多)함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표 3-3> 가족센터 영역별 사업 내용 및 서비스 대상

사업 영역	기본사업 내용		사업 방법	서비스 대상
가족 관계	• 부모역할 지원	- 임신출산(부모) 지원 - 영유아기 부모지원 - 학부모지원 - 혼례가치교육 - 아버지 역할지원	교육, 상담(정보제공 및 초기상담), 문화프로그램	모든 가족 (생애주기별, 가족 특성별)
	• 부부역할 지원	- 부부갈등예방·해결지원 - 노년기 부부지원		모든 가족 (생애주기별)
	• 가족 상담			모든 가족 (생애주기별)
	• 이혼 전·후 가족지원			이혼 가족
	• 다문화가족 사업	-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다문화가족
가족 돌봄	• 조부모 역할지원			조부모
	• 가족역량강화 지원		교육, 상담(정보제공 + 초기상담 → 전문상담) 돌보미 파견, 사례관리 등	가족기능 취약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긴급위기가족 등)
가족 생활	• 면접교섭서비스			이혼 가족
	• 맞벌이가정 알가정양립지원			맞벌이 가족
	• 다문화가족 지원	-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	교육, 상담, 정보제공, 문화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	• 1인 가구 지원			1인 가구
	•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모든 가족
	•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모든 가족
	• 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 품앗이)			모든 가족 (생애주기별)
	• 가족사랑의 날			모든 가족
	• 가족봉사단			모든 가족
	• 다문화가족 사업	-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 다(多)함께 프로그램	모임, 활동, 문화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

자료: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1)」(p. 95-100)

기본사업 외에 별도예산 사업은 취업부모 대상 아이돌봄 지원사업, 취약가족 및 긴급위

기가족 대상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미혼모부자가족 대상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 사업, 영유아자녀가 있는 가족 대상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다문화가족 대상 특화사업 등 특정 가족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다문화 특성화 사업이 별도예산 추진 사업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3-4> 참조).

<표 3-4> 가족센터 별도예산 추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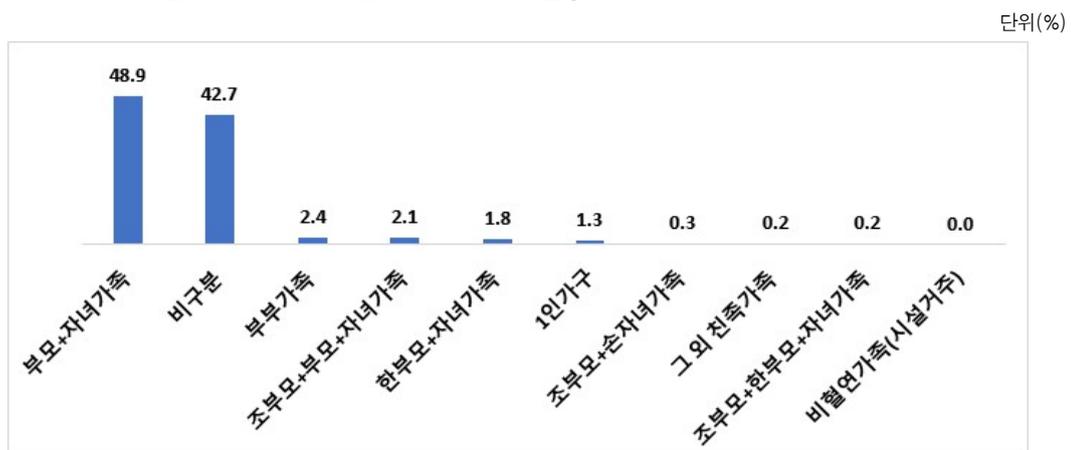
사업 내용	사업 대상
• 아이돌봄지원사업	- 취업부모(자녀 양육)
•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 취약가족(한부모, 조손가족 등), 긴급위기가족
•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 사업	- 미혼모부가족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 모든가족 (영유아자녀)
•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 다문화가족 (영유아자녀)
• 방문교육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 통번역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초기 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자료: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0)」(p. 100-101)

## 2.4 가족센터 이용현황

2021년 기준 가족 구조에 따른 가족센터 이용현황은 <그림 3-2>에 제시하였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의 참여율이 48.9%로 가장 높았고 전체 참여율의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비구분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족’의 참여율이 2.4%로 두 번째로 높았고, 다음으로 ‘3대 가족(조부모+부모+자녀)’이 2.1%, ‘한부모가족’ 1.8%, ‘1인 가구’ 1.3% 순으로 높았다.

<그림 3-2> 2021년 기준 가족 구조별 가족센터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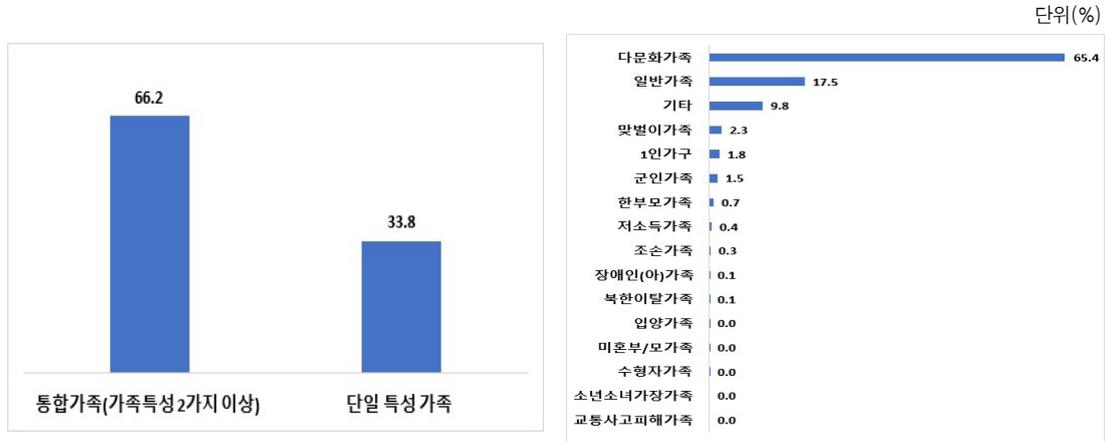
주: 상담, 사례관리, 방문 실적 미포함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2). 2021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p. 174)

가족 특성별 가족센터 이용현황은 <그림 3-3>에 제시하였다. 두 가지 이상 특성을 가진 통합가족의 참여율은 66.2%로 단일 특성을 가진 가족의 참여율(33.8%)보다 높았다. 가족의

단일 특성별 가족센터 참여율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의 참여율이 65.4%로 가장 높았고 일반가족(17.5%)이 그다음으로 높았다.

<그림 3-3> 2021년 기준 가족 특성별 가족센터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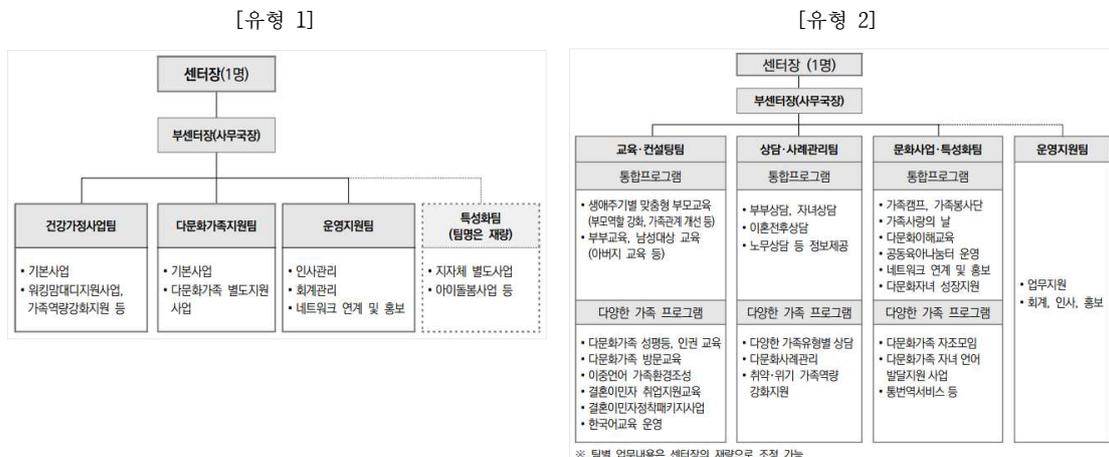


주: 상담, 사례관리, 방문 실적 미포함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2). 2021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p. 173)

### 2.5 가족센터 조직구성 유형

「2022 가족사업안내(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조직구성의 예시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3-4> 참조). ‘유형1’은 건강가정사업과 다문화가족 사업을 별도의 팀에서 담당하는 방안이고, ‘유형2’는 서비스 내용별 팀을 구성하고 각 팀에서 담당하는 사업을 통합프로그램과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여기에서의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이나 가족 유형별 다양한 가족, 취약·위기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림 3-4> 가족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유형별 조직도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2). 2021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p. 84-85)

## 2.6 가족센터 유형별 운영예산 지원

가족센터는 ‘가’, ‘나’, ‘다’, ‘라’, ‘마’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운영예산이 차등 지원되고 있다. 가형의 지원액은 445,600,000원이며, 나형은 406,500,000원, 다형은 341,700,000원, 라형은 302,600,000원, 마형은 253,900,000원이 지원된다. 현재 가형에 해당하는 가족센터는 30개소이고, 나형은 75개소, 다형은 4개소, 라형은 38개소, 마형은 59개소이며, ‘나’ 유형의 가족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3-5> 참조). ‘가’ 유형은 독립해서 운영되었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유형으로 건강가정지원사업 예산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을 각각 지원하여 예산 규모가 다섯 개 유형 중 가장 크다. 반면 ‘마’ 유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전환한 형태로 건강가정지원사업 예산 없이 다문화가족지원 예산으로 운영된다.

<표 3-5> 가족센터 유형별 예산지원

유형	국비지원 센터 수	개소당 지원액 (원)	비고
가형	30	445,600,000	(통합형) 건가 독립형+다문화 가형
나형	75	406,500,000	(통합형) 건가 독립형+다문화 나형 (통합형) 건가 다기능화+다문화 가형(인구 25만명 이상) (통합형) 건가 다기능화+다문화 나형(인구 25만명 이상)
다형	4	341,700,000	(통합형) 건가 다기능화+다문화 가형 (단독형) 건가 독립형(인구 25만명 이상)
라형	38	302,600,000	(통합형) 건가 다기능화+다문화 나형 (단독형) 건가 독립형, 다문화 가형 (단독형) 다문화 나형(인구 25만명 이상)
마형 ※울릉군	59	253,900,000	(단독형) 다문화 나형 ※ 울릉군 : 191,200,000 웅진군(2022년) : 126,950,000

주: 개소당 지원액은 국비 및 지방비를 포함한 총액  
자료: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I)」(p. 73)

## 3. 소결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가족다양성 관련 서비스에서의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가족사업안내(I)」에 제시된 가족센터의 사업 목적 및 방향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의 가족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2022 가족사업안내(I)」에서는 이원화되어 있던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첫 번째 목적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목적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 따로 제시하고 있고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 짓고 있어 첫 번째 목적과 상충 된다. 이는 다양한 가족의 범주 안에 다문화가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이원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단일화해야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 사업을 분리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등 현장에서의 혼란을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사업 목적에는 ‘유형에 상관 없는

다양한 가족'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 방향에서는 여전히 한부모/조손가족, 미혼부모가족, 맞벌이가정, 1인 가구, 북한이탈가족 등 특정 유형의 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어, 가족다양성에 대한 개념화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 관련 사업은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절부터 각 지역의 여건에 맞춰 시행해온 사항이라 「2022 가족사업안내(I)」에서 제시하는 가족서비스 대상 확대가 새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모든 가족을 아우를 수 있는 가족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사업 목적과 방향성을 실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현장에 필요한 가족다양성의 개념화가 먼저 필요하다.

둘째,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센터의 사업 내용과 사업 대상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제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센터의 2022년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관계' 및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사업이 생애주기별, 가족 특성별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 목적에 맞춰 실제 현장에서 유형과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사업인지, 이러한 사업 운영에서의 효과나 문제점은 어떠한지 등 실질적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문서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현장 관련 조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셋째, 포괄적 차원의 가족다양성 서비스의 관점에서 가족센터 운영 조직과 예산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022 가족사업안내(I)」에서는 가족센터의 조직구성으로 두 가지 유형을 제안하고 있다. 유형1은 표면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하나의 센터 안에 통합된 것과 같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팀이 분리되어 있어 센터 사업이 이원화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가족에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통합서비스 제공에는 부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형2는 서비스 내용별로 팀을 구성하였는데, 각 팀에서 담당하는 사업을 통합프로그램과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있고,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의 대다수는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으로 파악된다. 이는 유형1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사업 대상으로 유입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자칫 가족센터의 사업 목적에 명시한 '다양한 가족'이 다문화가족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또한, 가족센터 유형별 예산 규모와 구조가 다른 점도 포괄적인 가족다양성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센터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예산 규모와 구조에 따라 다섯 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어 센터 유형별로 예산의 목적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다르다. 센터의 전체 예산 중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비중이 높은 유형은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 제2절 국외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 정책 및 서비스 사례

본 절에서는 각 국가별로 사회인구학적 상황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가족 정책 및 가족 서비스를 살펴보고, 가족다양성과 관련하여 가족 정책 및 서비스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내고 있는지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먼저, Living Apart Together(LAT) 등 가족 유형의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고 인종적·문화적으로 다양한 이민·난민 인구가 혼합되어있는 북미 국가의 가족 정책과 서비스를 우선 살펴보고자 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국가의 가족 정책을 최대한 살펴보고자 하여 최종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특히 미국은 각 주 정부가 독자적인 법령을 보유하고 있고 독립성이 강한 연방 국가로서 주별 가족 정책 및 서비스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가족다양성 관련해서 미국 내 여러 주의 정책 및 서비스를 각각 살펴보았다.

### 1. 미국

#### 1.1 뉴욕시 가족센터: 취약위기가족 지원

뉴욕 브룩클린(Brooklyn, New York City)에 위치한 가족센터(The Family Center)는 위기상황이나 질병 등으로 취약해진 가족들을 지원하여 가족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각 가족 내 아이들이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뉴욕 가족센터는 HIV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한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2020년 기준 뉴욕시 전체에서 HIV 진단을 받은 사람의 29%가 브룩클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알 수 있듯<sup>2)</sup>, 지역적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뉴욕 가족센터의 주된 서비스는 가족지원 서비스, 법률 서비스, HIV 감염자 대상 건강교육(Health education for people living with HIV), 정신 및 행동 건강 등이 있다(<표 3-6> 참조).

<표 3-6> 뉴욕시 가족센터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내용
가족 지원 서비스 (Family support serv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인 계획</li> <li>- 개인 및 가족 상담</li> <li>- 그룹 활동 및 이벤트</li> <li>- 육아 지원</li> <li>- 경제적 혜택 지원</li> <li>-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li> </ul>
법률 서비스	- 마이테 아퀴노 프로그램(the Maite Aquino Program)

2) 출처: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 부에서 제공하는 자료(HIV in New York City, 2016-2020)에서 확인함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dires/hiv-overall-2016-2020.pdf> (검색일: 2022. 10. 5)

(Legal wellness institu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udith Kaye 판사 프로젝트(The Judge Judith Kaye Project)</li> <li>- HIV에 감염된 뉴욕어를 위한 법률 서비스</li> <li>- 암 관련 고급 법률 프로젝트</li> <li>- 경제 사법(재판) 프로젝트</li> <li>- 지속적인 돌봄 프로젝트</li> <li>- 주택법 및 퇴거방지</li> <li>- 공익 및 소득 지원</li> <li>- 가족법</li> <li>- 생애 계획</li> </ul>
HIV 감염자 대상 건강교육 (Health education for people living with H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IV 보균자를 위한 치료 교육 및 동료 지원</li> <li>- 긍정적인 삶 워크숍(The Positive Life Workshop: TPLW): HIV 감염자를 위한 7세선의 증거 기반 프로그램</li> </ul>
정신 및 행동 건강 서비스 (Mental & Behavioral Health Serv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라우마에 노출된 어린이 (프로젝트)</li> <li>-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li> <li>- HIV 감염자를 위한 상담</li> <li>- 부모 없이 미국에 입국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상담</li> </ul>

자료: 본 사업 내용은 뉴욕시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https://www.thefamilycenter.org/> (검색일: 2022. 8. 20)

## 1.2 매사추세츠주 가족지원 센터: 장애가족 지원

매사추세츠주 발달서비스부 산하의 가족지원 센터(Family Support Center)는 주 전역에 배치되어 있고, 자폐 등 지적·발달장애를 가진 아동 및 성인 가족원이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지원 및 활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히 가족지원 센터는 지역사회 의 자원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다양한 문화(예. 민족, 언어)를 반영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예를 들어 발달장애 아동이 있는 이민 가족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족지원 센터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정보 및 자원 연계(information & referral), 가족 교육(family trainings), 부모 네트워킹(parent networking), 커뮤니티 연결 및 자원(community connections & resources), 서비스 탐색(service navigation) 등의 가족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표 3-7> 참조).

<표 3-7> 매사추세츠주 가족지원 센터 서비스

서비스	내용
정보 및 자원 연계 (Information & Referr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 및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자격이 되는 재정 서비스나 기타 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예. MassHealth)에 대해 학습하도록 도움 제공</li> <li>- 서비스 시스템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제공</li> <li>-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 전화 연락, 1:1 미팅, 자료도서관(온라인 웹사이트, 책, 비디오 파일 등) 활용</li> </ul>
가족 교육 (Family Train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성인 모두에게 흥미로운 주제로 모든 가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행사 및 훈련을 후원함</li> </ul>
부모 네트워킹 (Parent Networ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들이 부모지원 그룹, 부모 연결(1:1 매칭), 형제자매 지원 기회 마련과 같은 ‘부모 네트워킹’ 과 ‘멘토링’ 활동을 조직하거나 주도하도록 촉진함</li> </ul>
커뮤니티 연결 및 자원 (Community Connections & Resour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이 일반 자원과 기타 잠재적인 자금을 탐색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연결을 촉진함.</li> </ul>

서비스 탐색 (Service Navig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서비스: 한 가족이 일정기간 동안 보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별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탐색 서비스</li> <li>- 확장 서비스: 한 가족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받기 위한 탐색 서비스</li> </ul>
--------------------------------	---

자료: 본 내용은 매사추세츠주 발달서비스부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https://www.mass.gov/info-details/dds-family-support-centers#family-support-directory-> (검색일: 2022. 8. 20)

### 1.3 네바다주 가족 자원센터: 개별 가족 지원

네바다주의 가족 자원센터(Family Resource Center)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자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 자원센터는 자원 연계(resources/referrals), 가족 성공 프로그램 (family success program), 지속적인 지원(on-going support) 등의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표 3-8〉 참조). 특히 가족 성공 프로그램은 개별 가족에 맞춰진 프로그램이다. 각 가족은 토론과정을 통해 가족의 고유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이나 요구사항은 종사자와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즉, 개별 가족의 필요한 사항을 가족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표 3-8〉 네바다주 가족 자원센터 서비스

서비스	내용
자원 연계 (Resources/Referr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가족 자원센터 사이트는 자원(자료) 관련 조회 서비스를 제공함.</li> <li>- 전화통화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li> <li>- 이러한 방법 외에도 센터 스텝은 개별 가족의 필요에 맞춰 필요한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 제공</li> </ul>
가족 성공 프로그램 (Family Success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고유의 필요를 결정하기 위한 토론과정을 포함하며, 각 가족과 함께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단계 계획을 수립함</li> <li>- 각 가족은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에 맞는 지역사회 및 정부 자원과 연결을 할 수 있음</li> <li>- 미성년자 또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 권장</li> </ul>
지속적 지원 (On-going Su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책정, 목표 설정 및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기관 종사자를 통한 지속적 지원</li> <li>- 지역사회 기관과의 중재 및 연결 등을 통해 서비스 및 지원 제공</li> </ul>

자료: 본 내용은 네바다주, 보건복지부 및 위쇼 카운티 학군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https://dhhs.nv.gov/programs/grants/programs/frc/family\\_resource\\_center/](https://dhhs.nv.gov/programs/grants/programs/frc/family_resource_center/) (검색일: 2022. 8. 20)  
<https://www.washoeschools.net/site/default.aspx?PageID=5706> (검색일: 2022. 8. 20)

### 1.4 플로리다주 아동 자원센터: 예비부모·영유아 부모 및 보호자 지원

플로리다주의 아동 자원센터(The Carol Jenkins Barnett United Way Children’s Resource Center)<sup>3)</sup>는 0~6세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와 예비부모를 위한 수업, 활동, 워크숍, 발달 검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학습 및 자원센터이

3)「Family Fundamentals」는 2022년 11월 4일 「The Carol Jenkins Barnett United Way Children’s Resource Center」로 명칭 변경함.

다. 본 센터는 부모와 보호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무료 아동발달교실(free child development classes), 유아 마사지(infant massage), 돌리 파튼의 상상 도서관(Dolly Parton's imagination library), 타고난 학습(born learning)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표 3-9〉 참조). 본 아동 지원센터 프로그램의 특징은 영유아의 월령 및 연령을 고려한 세부적인 서비스를 구축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료 아동발달교실은 6단계로 구분하여 아동발달 수업을 제공하고 있고, 돌리 파튼의 상상 도서관 프로그램에서는 아이의 5세 연령에 맞춰 도서를 제공하고 있다.

〈표 3-9〉 플로리다주 아동 지원센터 서비스

서비스	내용
무료 아동발달교실 (Free Child Development Cla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대별 맞춤 수업</li> <li>1) 위대한 시작(Great Beginnings): 12개월 이하</li> <li>2) 옛날옛적에(Once Upon a time): 12~24개월</li> <li>3) 둘이 함께하는 시간(Together Time): 2세</li> <li>4) 놀라운 월요일(Marvelous Monday): 3~5세</li> <li>5) 멋진 수요일(Wonderful Wednesday): 3~5세</li> <li>6) 서둘러, 금요일이야 (Move it, Move it Friday): 3~5세</li> </ul>
유아 마사지 (Infant Mass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를 편안하게 하고, 부모와 유대감을 맺는 기본 기술을 학습</li> <li>- 수업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의 수면 패턴 개선, 발달 강화, 스트레스 감소</li> <li>✓ 산모의 우울증 및 불안감 감소</li> <li>✓ 아이와의 비언어적 교감</li> </ul> </li> </ul>
돌리 파튼의 상상 도서관 (Dolly Parton's Imagination Libr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달 5세 생일을 맞은 아이들에게 무료 새 책을 제공</li> <li>- 아이들이 집에서 자신만의 개인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나이에 맞는 책을 집으로 배송 서비스</li> </ul>
타고난 학습 (Born Lea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조부모, 간병인 등이 일상의 순간을 재미있는 학습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는 공공참여 캠페인</li> <li>- 재미있고 쉽게 일상적인 순간에 취할 수 있는 학습 행동 단계를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학교에 갈 준비에 도움</li> </ul>

자료: 본 내용은 플로리다주, 아동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https://uwcf.org/resourcecenter/#toggle-id-11> (검색일: 2022. 8. 20)

## 1.5 미네소타주 인적서비스부: 아동 및 난민 서비스

미네소타주는 다수의 입양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와 난민들이 이주하여 정착한 곳이기도 하다<sup>4)</sup>. 이러한 독특한 상황과 환경은 미네소타주의 정책에 반영되어 왔다. 미네소타주 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서는 아동, 가족 및 성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있어 크게 7개의 영역(보육 및 조기 교육, 아동 보호·위탁 양육·입양, 원주민 아동 복지, 아동지원 서비스, 경제적 지원·현금지원·식료품 지원, 주택 및

4) 출처: MNopedia에서 제공하는 자료(Immigrants and Refugees in Minnesota: Connecting Past and Present.)에서 확인함  
<https://www.mnopedia.org/immigrants-and-refugees-minnesota-connecting-past-and-present#> (검색일: 2022. 10. 5)

노숙자 서비스, 난민 재정착)으로 나눠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미네소타주의 특성과 가족다양성 관련 서비스를 고려하여 ‘아동 보호·위탁 양육·입양’, ‘원주민 아동 복지’, ‘난민 재정착’ 관련 정책 서비스를 살펴보고자 한다(<표 3-10> 참조).

먼저, ‘아동 보호·위탁 양육·입양’ 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부모지원 프로그램과 입양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제공되고 있다. 부모지원 아웃리치 프로그램(The Parent Support Outreach Program)은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기반의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아동학대 대응과 안전한 돌봄에 대한 미네소타주의 아동 보호 시스템에 기반한다. Northstar 입양지원 프로그램(Northstar Adoption Assistance Program)은 입양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 지급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을 경우 주택이나 차량을 개조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원주민 아동 복지’에 있어서는 원주민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예. 아동학대 예방, 위탁양육 허가, 아동정신건강검진 등)가 제공된다. ‘난민 재정착’ 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난민들이 지역 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는 즉각적 필요에서부터 장기적 지원까지 시차를 두고 다양한 부분(예. 학업, 직장, 경제교육, 법률 서비스 등)에서 지원하고 있다.

<표 3-10> 미네소타주 인적서비스부 아동·난민 서비스

영역	서비스
아동 보호·위탁양육·입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지원 아웃리치 프로그램(The Parent Support Outreach Program):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발적이고 가족 주도적인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li> <li>- Northstar 입양지원 프로그램(Northstar Adoption Assistance Program) 제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경상 비용 상환: 입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녀당 최대 \$2,000까지 지급</li> <li>✓ 주택 개조 환급 및 차량 개조 보상: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제공</li> </ul> </li> </ul>
원주민 아동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주민 아동의 안전과 안녕, 보호를 위해 인디언 부족과 자치구역, 주정부가 협조적 관계를 구축함</li> <li>- 연간 3,000명 이상 원주민 아동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학대 예방</li> <li>✓ 가족보호·아동 보호</li> <li>✓ 위탁양육 허가</li> <li>✓ 아동정신건강검진</li> <li>✓ 친족간 관습적 입양서비스</li> </ul> </li> </ul>
난민 재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에 도착한 지 5년 미만인 난민, 망명인, 특별이민자, 인신매매 피해자, 쿠바 또는 아이티 입국자, 아프간 난민 중 인도적 보호 하에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재정착 하는데 지원하는 프로그램</li> <li>- 제공되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각적인 필요 해결을 위한 도움 제공</li> <li>✓ 학업이나 경력을 위한 장기적 지원</li> <li>✓ 구직 및 더 나은 급여 직장을 찾도록 도움 제공</li> <li>✓ 미국 생활에 대한 무료 강좌: 돈을 절약하는 방법, 자녀 대학진학 준비 방법 등</li> <li>✓ 저렴한 비용의 법률 서비스 지원: 영주권·시민권 신청</li> </ul> </li> </ul>

자료: 본 정책 내용은 미네소타주, 사회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https://mn.gov/dhs/partners-and-providers/program-overviews/> (검색일: 2022. 8. 20)  
[https://www.dhs.state.mn.us/main/idcplg?ldcService=GET\\_DYNAMIC\\_CONVERSION&RevisionSelectionMethod=LatestReleased&dDocName=dhs16\\_177998](https://www.dhs.state.mn.us/main/idcplg?ldcService=GET_DYNAMIC_CONVERSION&RevisionSelectionMethod=LatestReleased&dDocName=dhs16_177998) (검색일: 2022. 8. 20)

## 1.6 루이지애나주 아동가족서비스: 재난가족 지원<sup>5)</sup>

루이지애나주는 2005년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많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태풍으로 인한 재난 피해가 계속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루이지애나 아동·가족복지부(Department of Children & Family Services)는 ‘아동 복지’, ‘가족지원’, ‘재난’의 세 영역에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히 ‘가족지원’ 영역을 살펴보면, 제공되는 서비스가 ‘빈곤가족 임시지원 프로그램(Th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재난 영양 보조 프로그램(Disaster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친족(아동)돌봄 보조금 프로그램(Kinship Care Subsidy Program)’, ‘가족 독립 임시지원 프로그램(the Family Independence Temporary Assistance Program)’ 등 주로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재난’ 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도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다. 즉,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은 루이지애나주는 재난으로 인해 생활이 붕괴된 아동과 가족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물질적·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가족서비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7 노스캐롤라이나주 아동복지서비스: 아동학대, 가정폭력 대응

노스캐롤라이나주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지원을 받는 아동복지서비스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은 주로 아동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의 기능과 강점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생활 환경이 보장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표 3-11> 참조), ‘집중적 가족보호 서비스(Intensive Family Preservation Services) 및 가족보호 서비스(Family Preservation Service)’, ‘가족 재결합 서비스(family reunification services)’, ‘가족지원 프로그램/가족 자원센터 서비스(family support programs/Family Resource Center Service)’, ‘일시적 위탁 서비스(respite care)’, ‘가족 폭력 예방 및 서비스(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TANF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TANF 위협에 처한 아동을 위한 방과후 서비스 및 프로그램(after-school services and programs for at-risk children)’, ‘입양 홍보 및 지원(adoption promotion and support)’, ‘특별한 계획(special initiatives)’, ‘아동 보호 센터(Child Advocacy Centers)’ 등 아동을 보호하고 가족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프로그

5) 자료: 본 내용은 루이지애나주, 아동·가족복지부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https://www.dcfslouisiana.gov/> (검색일: 2022. 8. 20)

램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특별한 계획’ 프로그램 영역을 살펴보면, 결혼 관련 서비스(예. 결혼 교육, 육아 수업), 아버지 교육, 신앙기반 봉사활동 등 일반적인 가족 서비스의 형태이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는 목적에 기반을 두고 기획된다.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가족과 실무자의 협력으로 운영된다.

<표 3-11> 노스캐롤라이나주 아동복지서비스

서비스		내용
가족 보호	집중적 가족보호 서비스 (Intensive Family Preservation Services)	- 가족 내 위기 개입 단기간 서비스(6주) ✓ 목표: 안전하고 온전한 가족 단위 유지 - 가족과 자녀가 분리될 급박한 위험에 처한 가족을 도와 아동이 안전하게 집에 머물고 불필요한 가족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 서비스에는 상담, 기술교육, 자원 연계(referral), 소개(advocacy), 사례관리, 후속 조치가 포함됨
	가족 보호 서비스 (Family Preservation Services)	- 가족 내 위기 개입 서비스 - 가족과 자녀가 분리될 위험이 있는 가족 대상에게 도움 제공 - 최대 6개월 서비스가 제공되며 가족의 필요에 따라 강도가 다르게 제공 - 서비스는 개인 및 가족 치료, 긴급 재정 지원, 사례관리, 멘토링 등이 포함됨
가족 재결합 서비스 (Family Reunification Services)		- 위탁 보호 또는 기타 유형의 가정 밖 배치를 받은 후 자녀가 다시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 서비스는 자녀가 재결합 후에도 지속 - 서비스에는 개인 및 가족 치료, 사례관리 등이 포함됨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가족 자원 센터 서비스 (Family Support Programs/Family Resource Center Services)		- 아동의 학대/방임 및 위탁 보호 배치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가족과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 - 프로그램은 모든 가족을 위해 제공되며 모든 가족 구성원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일시적 위탁 서비스 (Respite Care)		- 장애 아동이나 특수한 요구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나 보호자에게 임시적으로 육아 서비스를 지원 ✓ 부모와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효과로 양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데 효과적 - 단기 서비스: 몇 시간에서 몇 주 정도
가족 폭력 예방 및 서비스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부양 가족에게 즉각적인 보호와 관련 지원을 제공 - 히스패닉 거주자, 노인 학대 피해자, 청소년 폭력 예방에 중점을 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TANF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TANF(Federal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기금 제공 ✓ 피해자에게 주택 및 공과금, 교육비, 교통비, 컴퓨터 서비스, 법률 비용, 음식, 의류, 의료 서비스, 탁아소 시설 등에 대한 비용 관련 도움 제공
TANF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한 방과후 서비스 및 프로그램 (After-School Services and Programs for At-Risk Children)		- 위험한 상황에 놓인 유치원에서 12학년 아동을 대상: 청소년 임신 위험 아동, 중퇴자, 갭단 회원 등 - 방과 후에 학업 및 심화 서비스를 제공 - 일주일에 최소 10시간 방과 후 서비스가 제공
입양 홍보 및 지원 (Adoption Promotion and Support)		- 입양 가족이 입양 자녀에게 평생 헌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 서비스에는 법적 친권 종료, 입양 가족 모집, 입양 준비, 입양 배치 및 감독, 입양 확정 전후의 지원 서비스(예. 지원 그룹, 상담, 양육 프로그램, 출생기록 접근, 정보 제공 등)가 포함
특별한 계획 (Special Initiatives)		- 아동 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 개발, 운영, 확장 및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노력을 지원 - 프로그램 영역 ✓ 건강한 결혼서비스: 결혼 교육, 육아 수업, 건강한 관계 워크숍 등 포함 ✓ 책임감 있는 아버지: 고용 개발, 공동양육 워크숍, 검정고시 준비, 멘토링 등 포함 ✓ 신앙 기반 조직에 대한 봉사 활동
아동 보호 센터 (Child Advocacy Centers)		- 성적 학대 피해자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 각 센터에는 법률 종합팀이 존재: 지방 검사, 법 집행 기관 및 법의학 수사관을 포함 - 가족에게 제공되는 추가 서비스: 개인 및 그룹 상담, 정보 및 자원 연계(referral)

자료: 본 정책 내용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https://www.ncdhhs.gov/divisions/social-services/child-welfare-services/community-based-programs> (검색일: 2022. 8. 20)

### 1.8 국방성 군인가족 지원서비스

미국 국방성(U.S. Department of Defense: DOD)은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군인가족(military families)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73년 자원입대(All-Volunteer Force)로 전환한 뒤 미군 내 결혼·가족생활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현상은 직업적 특성에 따른 반복된 이별과 부재, 신체적·심리적 부상과 사망에 따른 가족 트라우마 등 가족생활에서 새로운 양상을 등장시켰다(Clever & Segal, 2013; Wadsworth & Southwell, 2011). 이에 미 군인가족을 지원하는 특별한 서비스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미 군인가족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영역 중 가족 및 관계(Family & Relationships) 영역에서의 지원서비스를 살펴보면, ‘배우자 지원’, ‘부모 역할 및 자녀 지원’, ‘가족생활 지원’, ‘생존 가족지원’ 등으로 나뉘어 가족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표 3-12〉 참조). 먼저 ‘군인 배우자’ 에게는 교육 과정 및 구직활동 등이 지원되고, 상담 서비스 등 전문가와의 연결 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부모 역할’ 과 관련해서는, 예비부모를 포함하여 부모 역할 관련 교육, 군 보육 프로그램 제공, 입양 및 위탁 돌봄 혜택, 자녀돌봄 관련 무료 상담, 학교 연락 프로그램 등 여러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군인가족 자녀들의 낮은 자존감이나 행동문제, 가족 내 잦은 변화 등과 관련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족생활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휴식과 회복,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군인가족 생활’ 을 지원하는 서비스로는 군 전용 숙박시설 무료 이용이나 비(非)의료 상담 및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생존 가족지원(Gold Star & Surviving Family Members)’ 은 군인 유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담, 자조모임 가입, 재정 및 법률 지원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3-12〉 미국 국방성 군인가족 지원서비스

영역	서비스
배우자 지원 (Spo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 배우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와의 연결 지원</li> <li>✓ 배우자를 위해서 설계된 서비스 접근</li> </ul> </li> <li>- 군인 배우자 교육 및 고용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위과정 이수</li> <li>✓ 훈련 자격증 취득</li> <li>✓ 구직 활동 지원</li> </ul> </li> </ul>
부모 역할 및 자녀 지원 (Parenting & Childr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부모지원 프로그램 (New Parent Support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성장과 발달 관련 지식</li> <li>✓ 도움이 되는 자원 습득</li> <li>✓ 부모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li> <li>✓ 예비부모 및 부모를 위한 1대 1 가정 방문 지원</li> <li>✓ 육아수업</li> <li>✓ 그룹 활동</li> </ul> </li> <li>- 군 보육 프로그램 (Military child care programs)</li> <li>- 입양 및 위탁 돌봄 혜택 (Adoption and foster care benefits)</li> <li>- 무료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교육, 입양, 특수한 요구, 기타 육아 문제에 대한 상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연락 프로그램 (School Liaison Program)</li> <li>- 군 생활 및 가족생활 상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 자녀의 낮은 자존감, 행동문제, 가정 내 변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li> </ul> </li> </ul>
가족생활 지원 (Family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전용 숙박시설 및 리조트 이용</li> <li>- 비(非)의료 상담 및 전문 상담서비스</li> </ul>
생존 가족지원 (Gold Star & Surviving Family Memb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실 후 지원 (Support After Lo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상자 지원프로그램: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li> <li>✓ 무료 비밀 상담 제공</li> <li>✓ 자조모임 가입</li> </ul> </li> <li>- 생존자 재정 및 법률 지원</li> </ul>

자료: 본 서비스 내용은 미 국방부 군 지원 네트워크의 일부인 Military One Source 웹사이트에서 제시된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https://www.militaryonesource.mil/family-relationships/> (검색일: 2022. 8. 20)

### 1.9 America’s Kids Belong: 아동 위탁 보호 서비스<sup>6)</sup>

America’s Kids Belong은 현재 10개 주(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조지아,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버지니아 등)에 걸쳐 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과 위탁 부모를 연결하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America’s Kids Belong은 위탁 보호에 있는 아이들이 위탁 친화적인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 서비스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운영 중에 있다. America’s Kids Belong의 대다수 실무자는 재택근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종사자에 의해 현장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 2. 캐나다

### 2.1 가족지원 센터

캐나다의 가족지원 센터(Family Support Centers)는 아동, 가족, 돌봄제공자의 역량 구축, 강점 향상, 건강한 발달 촉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각 가족지원 센터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모든 가족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에 근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한 서비스와 요소는 <표 3-13>에 제시하였다. 가족서비스의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아동지원’, ‘부모, 돌봄제공자 지원’, ‘가족지원’, ‘지역사회 지원’ 등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6) 자료: 본 내용은 America’s Kids Belong의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https://americaskidsbelong.org/> (검색일: 2022. 8. 20)

&lt;표 3-13&gt; 캐나다 가족지원 센터 서비스

영역	서비스 요소
아동지원	- 아동발달 - 조기 학습 및 관리 (early learning and care) - 교육 업그레이드 (educational upgrading) - 놀이 및 레크레이션 - 장난감, 책 및 미디어 대여
부모, 돌봄제공자 지원	- 취업 지원 - 부모 및 돌봄인 지원 - 부모 교육
가족지원	- 상담 및 중재 (counselling and mediation) - 방문 프로그램 (drop-in programs) - 가족 문해력 (family literacy) - 식품 및 영양 지원 - 건강 및 안전 증진 - 다른 자원 추천
지역사회 지원	- 지역사회 개발 - 지역사회 봉사활동 - 동료 접촉 및 상호 지원 (peer contact and mutual support)

자료: 본 내용은 캐나다 가족지원 센터를 대표하는 Families Canada의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https://familiescanada.ca/article/what-are-family-support-centres/> (검색일: 2022. 8. 20)

## 2.2 가족서비스 토론토

가족서비스 토론토(Family Service Toronto)는 100년 이상 된 토론토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서비스 기관으로 상담, 공교육 프로그램, 옹호 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을 통해 개인 및 가족을 지원해왔다. 특히 가족서비스 토론토는 빈곤과 소외, 억압의 폐해, 커뮤니티 상담 및 정신건강, 성별에 따른 폭력 및 발달장애와 같은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는데 주력해 왔다. 또한, 가족서비스 토론토는 ‘함께 살든 떨어져 살든 혈연, 결혼, 입양 또는 서로를 돌보기 위해 헌신하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로 가족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가족서비스 토론토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표 3-14>와 같다. 가족서비스 토론토에서 제공하는 가족서비스는 명확한 영역별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족’, ‘지역사회’, ‘관계’, ‘상담’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가족’ 영역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이혼 등으로 생활의 변화가 있는 가족 대상 정서적 지원서비스, 도시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한 부모/양육자 대상 지원 서비스, 노인 및 간병인 지원 서비스 등 주로 취약하거나 위기를 겪는 대상 위주의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영역에는 이민자 가족 지원, 영어 이외 언어 사용 노인 공동체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인종 및 문화권의 가족들에 대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관계’ 영역은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적학대에 있어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가 서비스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상담’ 영역에서는 일반상담과 LGBTQ 및 에이즈 관련 상담이 제공되고 있다.

&lt;표 3-14&gt; 가족 서비스 토론토 제공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서비스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기의 가족 (Families in Trans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혼, 별거 등의 분리로 인해 야기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아동과 성인의 정서적 안녕을 지원하는 서비스</li> </ul> </li> <li>- 도시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부모나 양육자에게 기술 및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li> </ul> </li> <li>- 노인 및 간병인 서비스</li> </ul>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한 가족, 건강한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민국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li> </ul> </li> <li>- 사회적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지방 및 국가적 차원에서보다 공정하고 지지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변화를 추진하는 움직임</li> </ul> </li> <li>- 노인 공동체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란어, 타밀어, 아프가니스탄어, 소말리아어, 스페인어권 토론토 노인들의 문화 및 언어 공동체 프로그램</li> </ul> </li> </ul>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 학대에서의 남성 생존자</li> <li>- 여성에 대한 폭력</li> <li>- 파트너 폭행 대응</li> <li>- 팻의 집(Pat's Place):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을 위한 임시 피난처</li> <li>- 퀴어(동성애)와 연결</li> </ul>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상담</li> <li>- David Kelly Service(DKS) LGBTQ+HIV/AIDS 상담</li> </ul>

자료: 본 서비스 내용은 가족서비스 토론토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https://familyservicetoronto.org/our-services/programs-and-services/> (검색일: 2022. 8. 20)

### 3. 호주

#### 3.1 사회복지부 제공 아동가족 정책 서비스

호주 정부의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에서 제공하는 아동가족서비스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표 3-15>와 같고, ‘아동(아동지원)’, ‘가족과 아동 활동(families and children activity)’, ‘국제 입양’, ‘양육·돌봄’, ‘가계 재정’, ‘가족관계’ 등으로 나뉜다. 아동 관련 정책에 있어서, ‘아동(아동지원)’ 영역은 아동의 (성적)학대로부터 보호와 구제에 관한 정책 영역이고 ‘가족과 아동 활동’ 영역에서 아동 및 청소년 복지를 위한 가족 정책 프로그램들이 제시된다. 북미, 유럽 사회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해외입양인을 받아들인 호주 정부에서도 ‘국제 입양’ 관련 가족 정책을 구축하고 있는데, 국제 입양인과 입양 가족에게는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등 여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 유급 육아휴직제도와, ‘가계 재정’ 관련 금융 복지 및 역량 서비스, 소득관리 서비스 등이 마련되어 있고, 동성 커플 관련 지원 정책도 제공되고 있다.

&lt;표 3-15&gt; 호주 정부 사회복지부 아동·가족서비스

영역	서비스
아동 (아동지원)	- 아동 성 학대 예방을 위한 국립 센터 -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위한 왕립위원회 - 북부지역 아동 보호 및 구급에 관한 왕립위원회 - 제도적 아동 성적 학대의 생존자를 위한 영연방 구제 계획
가족과 아동 활동 (Families and Children Activity)	- 가족 및 공동체 프로그램 ✓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가족지원, 가족 및 지역사회 기능 향상 - 6개의 하위 활동 영역 1) 어린이 동반자 촉진 커뮤니티 2) 가족 법률 서비스 3) 가족 및 관계 서비스 4) 아동과 양육, 부모역할 지원 서비스 5) 다시 연결 프로그램: 12-18세 가출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6) 성인 전문가 지원(Find and Connect, 강제 입양 지원 서비스)
국제 입양	- 국제 입양 오스트레일리아 (Intercountry Adoption Australia) ✓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제 입양 절차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관련 정보 제공 - 국제 입양인 및 가족 지원 서비스 (Intercountry Adoptee and Family Support Service) ✓ 입양인, 입양 부모 및 입양 가족에게 입양 전후 지원을 제공하는 무료 국가 서비스 ✓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 입양인, 입양부모, 교사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 ✓ 동료 지원을 포함한 지원 서비스
양육/돌봄	- 유급 육아휴직제도 - 금융 복지 및 역량 서비스 ✓ 지역 사회 조직과 협력하여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 개인과 가정에 무료 지원 서비스 제공 ✓ 위기 지원, 광범위한 금융 역량 구축 서비스, 금융 상담 및 소액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 - 소득관리
가계 재정	- 동성과의 관계 인식 ✓ 동성 커플과 그 가족이 이성 커플과 같은 권리를 인정받고 가질 수 있도록 광범위한 개혁 도입

자료: 본 정책 서비스는 호주 사회복지부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https://www.dss.gov.au/families-and-children/programs-services> (검색일: 2022. 8. 20)

### 3.2 호주 부모 역할 웹 정보

호주 정부의 사회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부모 역할(Parenting) 웹사이트<sup>7)</sup>는 부모-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춰 상세한 메뉴가 구성되어 있다. 즉, ‘임신(pregnancy)’, ‘신생아(newborns)’, ‘영아(babies)’, 유아(toddlers)’, ‘미취학 아동(preschoolers)’, ‘학령기 아동(school ages)’, ‘11-13세 아동(pre-teens)’, ‘청소년(teens)’, ‘성인(grown-ups)’으로 구분하여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성인(grown-ups)’ 메뉴에는 가족다양성(family diversity)이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혼합가족 및 의붓가족, 공동양육 가족, 한부모가족, 이혼 가족, 기타 가족(위탁양육, 입양, 장애(문제)가 있는 부모, 청소년 부모, 이민 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부모 역할과 자녀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폐(autism)’와 ‘장애(disability)’ 관련 메뉴도 마련되어 있고, 의사소통 및 관계 형성 방법, 돌봄, 학습, 상담치료, 부모 가이드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7) 출처: 호주 부모 역할(parenting) 웹사이트 <https://raisingchildren.net.au/> (검색일: 2022. 8. 20)

#### 4. 영국 Family Action

영국의 Family Action은 1869년 자선단체로 설립이 되어 150년 이상 된 조직으로, 가족 복지협회(the Family Welfare Association)를 거쳐 2008년 Family Action으로 최종 명칭 변경이 되었다. Family Action은 한 개인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모든 가족의 구성과 상황은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어떠한 가족이나 구성원도 낙인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연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Family Action의 서비스는 영유아, 아동, 자녀 등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는데, 이는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생애에 있어 가장 좋은 출발을 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모든 가족은 자녀들의 좋은 출발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믿음은 <표 3-16>에서 제시한 가족서비스에 잘 나타나 있다. Family Action에서 제공하는 가족서비스는 ‘생애 초기 서비스’, ‘아동과 가족 서비스’, ‘성인 정신건강 및 안녕’, ‘보조금’ 등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유아, 아동, 자녀들의 생활을 지지하기 위한 정책 서비스들이다. 가령 ‘아동과 가족 서비스’의 「별거 부모 정보 프로그램(the Separated Parents Information Programme)」에서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관점에서 별거 상황을 이해하게 하고, 부부 간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제공한다.

<표 3-16> 영국 Family Action 제공 서비스

영역	서비스
생애초기 서비스 (Early Years)	- 아동 센터 운영
	✓ 가족 지원 및 부모 지원
	✓ 초기 학습 및 돌봄
아동과 가족 서비스	✓ 입학 준비 지원
	✓ 아동 및 가족 건강 서비스
	✓ 부모의 취업교육 및 구직활동 지원
	✓ 짧은 부모지원
	✓ 아버지 지원
	- 출산 전후 지원 서비스
	- 유아 보육 서비스
	- 가족지원 서비스
	- PAC-UK 입양 지원 서비스
	- 특별 후견 지원 서비스
- 별거 부모 정보 프로그램(the Separated Parents Information Programme)	
✓ 온라인 서비스	
- 멘토링 서비스	
- 가족지원 서비스	
- 정서적 건강 및 웰빙 서비스	
- 어린 돌봄인 서비스(young carers services)	
- 특수 교육 서비스	
- 돌봄 지원 서비스	
- 자문 서비스	
- 부모 및 보호자 서비스(예, Newham)	
- 식사/음식 프로그램(예, 푸드 클럽, 학교 아침식사)	

성인 정신건강 및 안녕	- 가족지원 서비스 - 출산 전후 지원 서비스 - 정서적 건강 및 웰빙 서비스 - 주택 서비스
보조금	- 복지 보조금 - 교육 보조금

자료: 본 정책 서비스는 영국의 Family Action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https://www.family-action.org.uk/what-we-do/> (검색일: 2022. 8. 20)

### 5. 아일랜드 아동 및 가족 기관

아일랜드의 아동 및 가족 기관(the Child and Family Agency)은 아동 관련 서비스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광범위한 아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은 가족을 아동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로 바라보며 여기서 제공하는 가족서비스는 아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3-17> 참조), ‘아동 보호 및 복지(child protection and welfare)’, ‘대안적 돌봄(alternative Care)’, ‘출생 정보 추적 및 입양(Birth Information Tracing & Adoption)’, ‘가족 지원(Family Support)’, ‘아동 서비스 규정(Children’s Services Regulation)’, ‘Tulsa 교육 지원 서비스(Tulsa Education Support Service)’, ‘가정, 성적, 젠더 폭력(Domestic, Sexual & Gender Based Violence)’의 영역으로 나뉘어 아동 및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3-17> 아일랜드 아동 및 가족 기관 제공 서비스

영역	서비스
아동 보호 및 복지 (Child Protection and Welfare)	- 아동 우선(Child First): 아동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국가 지침 - 사회 복지사와 접촉 - 아동 보호 성명 준수
대안적 돌봄 (Alternative Care)	- 위탁 - Residential Care - 집중 관리 - After Care -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분리된 아동 - 상담치료 서비스(ACTS)
출생 정보 추적 및 입양 (Birth Information Tracing & Adoption)	- 출생 정보 추적 서비스 - 입양
가족 지원 (Family Support)	- 가족 자료 센터 - 예방, 파트너십 및 가족 지원 - 부모 역할 정보 - 양육 24 - 아동 및 청소년 참여 - Meitheal 양식 및 지침 문서 - 상담 - 심리 지원 서비스
아동 서비스 규정 (Children’s Services Regulation)	- 유아기(유치원) 검사관 - 취학 연령 서비스 - 대안 교육 평가 및 등록 서비스 - 대체 케어(Care) 검사 및 모니터링 서비스
Tulsa 교육 지원 서비스 (Tulsa Education Support Service: TESS)	- 학교 정보 - 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정보 - 청소년을 위한 정보

	- 교육복지서비스 - 학교 수료 프로그램 - 가정 학교 커뮤니티 연락 담당자
가정, 성적, 젠더 기반 폭력 (Domestic, Sexual & Gender Based Violence)	- 전문 서비스 - 마누엘라 리에도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자료: 본 서비스 내용은 아일랜드 아동 및 가족 기관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https://www.tusla.ie/services/> (검색일: 2022. 8. 20)

## 6. 싱가포르 가족서비스 센터

싱가포르의 가족서비스 센터(Family Service Centers)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이나 개인을 지원한다. 그러나 가족서비스 센터는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가족과 개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고, 여러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싱가포르 사회에서 각 개인이나 가족의 특정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족서비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표 3-18>에 제시하였다. 가족지원 서비스는 크게 ‘사례 개입’, ‘그룹 개입’, ‘지역사회 참여’, ‘정보 및 연계’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사례 개입’은 주로 개인 또는 한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그룹 개입’은 사례 개입과 유사하지만 개별적인 사업이 아닌 그룹 단위의 사업이다. 그룹 상담 참여자는 유사한 문제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유도된다.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사회의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보 및 연계’ 사업은 가족서비스 센터의 전문영역으로 부부 혹은 커플의 자기 인식 향상, 부모-자녀 관계 개선, 가정폭력 관리 등이 이 사업 영역에 속한다.

<표 3-18> 싱가포르 가족 서비스

영역	서비스
사례 개입 (Case Work Interventions)	- 개별 또는 가족 상담 - 가족 기반 사례 작업 -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상황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 - 전문적인 지원 요청 시 더 적합한 기관이나 센터에 연계
그룹 개입 (Group Work Interventions)	- 사례관리와 유사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룹 환경에서 수행 - 유사한 경험자들과 그룹 토론 장려 - 유사한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혼자가 아님을 상기
지역사회 참여 (Community Work)	- 조직된 커뮤니티 행사 및 프로그램 - 개인과 가족이 서로를 지원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 간단한 가족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 제공 - 육아 자료 활용, 노인 돌봄 관련 전문적인 조언
정보 및 자원 연계 (Information & Referral: I&R)	- 전문영역 - 부부, 커플 자기 인식 향상 - 부모와 자녀 관계 개선 - 가정폭력 관리 -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기관의 지원

자료: 본 서비스 내용은 싱가포르 가족서비스 센터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요약정리함  
<https://www.homage.sg/resources/family-service-centre-singapore/> (검색일: 2022. 8. 20)

## 7. 소결

2절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의 가족 정책 및 서비스의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적용해볼 수 있는 가족다양성 관련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본 연구에서 검토한 대부분 국가들의 가족 정책은 아동(보호) 혹은 (입양)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예비부모·돌봄제공자 관련 서비스와 가족 기능 및 건강성 향상을 위한 가족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가족 정책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과 개인을 지원하는 정책과 가족서비스가 주를 이룬다. 영국, 캐나다 등은 가족서비스의 목적을 가족의 기능과 건강성을 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가족의 기능 중 ‘돌봄’과 ‘보호’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가족서비스를 촘촘하게 계획하여 실행하고 있다. 가족의 고유한 기능과 가족서비스의 역할을 생각해봤을 때 이러한 국외 사례는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현재 「2022 가족사업안내(D)」에 따르면 ‘가족관계’,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상담’ 영역에 걸쳐 양육과 돌봄 관련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의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하거나 광범위한 측면에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가족 정책 내 위상 등에서 차이가 난다. 가족 정책 및 가족서비스의 방향성은 각 국가나 그 사회에서의 담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비록 유자녀 가구 수가 전체 서비스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출산과 자녀 돌봄 및 보호의 기능은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국외 사례와 같이 가족 정책에서 돌봄과 보호의 가족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둘째, 위에서 살펴본 국가들의 가족 정책은 가족서비스의 접근성, 유연성, 특수성 등으로 가족다양성을 적용하고 있다. 가족다양성의 인정, 존중, 확산 등이 가족 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설정되거나 가족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기보다는 모든 가족이 가족 정책과 가족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차별받지 않고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가족다양성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캐나다의 사례에서 모든 가족의 가족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가족에 대한 유연한 접근으로 특정 유형의 가족이 가족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여 가족서비스에서 가족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가족의 특성에 기인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요구를 가진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수성을 강조한 가족서비스의 결과로 ‘모든 가족의 자녀들이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영국의 family action)’을 실현하고자 상대적으로 취약한(vulnerable) 가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군인가족

지원, 위탁가정지원, 재난가족지원, 난민가족지원 등으로 특화된 서비스들이 가족의 특수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가족서비스이고, 직접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서비스에서 가족다양성을 확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다양성의 중요한 요소로 문화다양성을 가족서비스에서 다루는 사례도 있었다. 캐나다의 이민자가족지원, 영어 이외 언어 사용 노인 지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통한 다양한 문화를 반영한 가족서비스 제공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외 가족 정책 및 서비스 사례에서는 모든 가족에게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특정 대상과 관련된 이슈(예, 재난 가족, 장애 가족 등) 중심으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한 다양한 가족 특화사업이 이러한 경향성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모든 가족을 정책 수요 대상으로 확대 제시함에 따라 가족 사업의 새로운 방향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어떠한 유형, 특성,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접근은 가족서비스의 실천적 측면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모든 가족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한다는 의미는 모든 가족은 가족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가족의 구성과 상황은 다를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어떠한 가족도 낙인감으로 인해 가족서비스에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족서비스의 접근성, 유연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가족서비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가족을 포함한 보편적 측면의 가족다양성 정책 적용은 중장기적인 가족 정책의 방향성으로 확장해서 바라봐야 하고 단계별로 연속성을 고려하여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신 단기적·실천적 측면에서 가족다양성을 가족서비스에 적절히 적용해 볼 수 있는 단계적 방안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캐나다와 영국의 가족서비스 사례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가족의 가족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가족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미국 내 가족 정책 및 서비스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이슈와 관련된 대상에 맞춰 가족 정책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즉,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가족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이 많은 지역은 다문화 관련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난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한 지역에서는 해외의 관련 사례들을 참고하여 보다 지역 맞춤형으로 사업을 구축하는 것으로 적용해볼 수 있다.

# 제 4 장

## 가족다양성에 근거한 가족서비스의 방향: 초점집단면접

제1절 가족 정책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제2절 가족서비스 실무자 초점집단면접



# 4

## 가족다양성에 근거한 가족서비스의 방향: 초점집단면접

### 제1절 가족 정책전문가 초점집단면접

#### 1. 자료 수집 및 연구 대상

가족 정책전문가 초점집단면접은 가족센터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왔으며, 가족다양성, 가족 정책, 가족센터에 대한 이해가 깊은 학계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2022년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을 사용하였다. 초점집단면접 내용은 <표 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다양성의 의미 및 가족다양성과 가족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표 4-1> 가족 정책전문가 초점집단면접 내용

질문 영역	세부 내용
가족다양성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족다양성의 학문적 정의</li><li>• 가족서비스에서의 가족다양성 개념화 방향</li></ul>
가족다양성과 가족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역사회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충의 정책 방향 하에서 가족서비스 대상 및 내용 조정의 필요성</li><li>• 가족다양성과 관련한 가족 정책 및 가족서비스의 방향 및 향후 정책과제</li></ul>

초점집단면접 자료 분석은 전사된 면접 자료를 여러 차례 읽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떠오르는 중심주제를 도출하는 중심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였다(Braun & Clarke, 2006). 공동연구자들이 자료 분석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자료 분석의 엄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2. 가족 정책전문가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가족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집단면접 내용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표 4-2>와 같다. 주요 주제로는 ‘가족서비스에서 가족다양성 적용’ 과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서비스 제공 방안’ 이 주요 주제로 도출되었다.

<표 4-2> 가족 정책전문가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주제	세부 주제
가족서비스에서 가족다양성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족서비스에서 가족다양성의 의미</li><li>• 가족서비스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의 가족다양성</li></ul>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서비스 방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형태별 가족서비스 제공의 변화 필요</li> <li>• 제한된 예산 및 인력 등 정책환경에 대한 고려 필요</li> <li>• 가족다양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기존 가족서비스 변화</li> <li>• 가족다양성 인정 목표를 중심으로 가족서비스 평가</li> <li>• 가족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강화</li> </ul>
-------------------------	--

## 2.1 가족서비스에서 가족다양성 적용

가족서비스에서 가족다양성 적용의 주제에서는 ‘가족서비스에서 가족다양성의 의미’와 ‘가족서비스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 가. 가족서비스에서 가족다양성의 의미

가족 정책전문가들은 가족다양성을 다양한 요소들로 채워지는 가족들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다양성 그 자체가 가치가 될 수도 있긴 한 것 같거든요. (중략) 일단 모든 가족이 하나의 가족의 걸로 봤을 때 똑같은 형태의 가족생활을 하는 것과 그것이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형태나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후자가 훨씬 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다 그럼 그냥 가족다양성... (가족 정책전문가 3)

그러나 가족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가족다양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는 가족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가족다양성으로 정의하였고, 정책의 방향에 따라 우선순위 및 정책의 내용이 구체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양성이라고 하면서 뭔가가 생각나면 안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냥 모든 가족의 모든 특성을 가족다양성이라고 개념은 정의하고... (중략) 어떤 특정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순간 저는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굉장히 오픈된 상태로 모든 가족의 모든 특성이 다양성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정책 사업에서 뭔가 구체화하는 단계들이 필요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가족 정책전문가 1)

반면 다른 전문가는 가족다양성을 ‘모든 가족이 갖는 다양한 특성’으로 정의하기보다는 가족서비스에 가족다양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족다양성을 특징짓는 특성을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똑같지 않으니까,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옆집의 가족이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그걸 다양성으로 볼 거냐 하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2인 가족 똑같은 맞벌이 가족이라도 우리가 다르고 옆집이 다르고 소득계층에 따라서 다르고 이거를 가족다양성이라고 보면 저는 정의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모든 가족이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가족다양성에 대해서 정의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다르다. 이게 아니라 확실히 뭔가 걸으로 드러나는 유형이든 아니면 파트너십을 결정하는 방식이든 이런 것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전제를 하고 정의를 해야지 그냥 모든 가족이 다 다르다 이러면... (가족 정책전문가 3)

특히 가족다양성은 가족 형태를 넘어서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가족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가족다양성이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형태, 즉 가족의 형태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가족다양성에는 가족의 기능, 가족의 속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다양성이라는 것은 가족에 대한 한 사회의 인식 및 가치관과 연동되는 것이므로 가족다양성에 대한 정의도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정형화된 가족 이제 그것이 아닌 모든 이제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게 구조만을 얘기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저는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태만의 다양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실은 그러면 가족의 기능이나 가치적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무엇을 가족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가족의 다양성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가족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이냐 하는 거하고 저는 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서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고 그게 결국 형태가 아니면 기능이나 또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양성을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고민이 이제 거기서부터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은 저희가 이제 형태 얘기를 하지만... (가족 정책전문가 2)

규범이나 가치의 문제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걸으로 드러나는 가족다양성의 실태도 당연히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가족 정책전문가 3)

따라서 가족다양성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가족다양성과 다양한 가족이란 용어 간의 의미의 차이를 구분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가족다양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중의 하나이나, 다양한 가족은 가족다양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족의 한 측면이라는 것이다.

가족다양성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이면서 방향성일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그런 개념은 사실은 가족다양성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다양한 가족이라고 할 때의 정의에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얘기를 들으니까... (가족 정책전문가 3)

가족다양성 안에 형태로 봤을 때 다양한 가족이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기준과 요소들이 가족다양성 안에 있고, 그중에 사업하기에는 형태로 구분하는 게 제일 편했던 사실은 그 부분이겠죠. (가족 정책전문가 1)

또한 가족다양성 ‘인정’ 혹은 ‘수용’ 등의 표현은 가족다양성이라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의 방향을 담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수용이나 인정이나 이 부분은 실은 오히려 사업화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책 방향이나 또는 사업화할 때 실은 방향성에서 다양성을 수용하고 다양성을 지향하고 이 방향인 것 같고. 가족다양성 자체는 (중략) 가족을 바라볼 때 이제 그런 다양성을 갖고 봐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정책전문가 2)

#### 나. 가족서비스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의 가족다양성

가족다양성이 가족 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였다. 그러나 가족 정책이 추구해야 할 우선 가치 혹은 가족서비스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가치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족 정책의 핵심 가치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 정책의 핵심 가치는 모든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이런 건 핵심 가치가 되는데.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가족 정책의 핵심 가치다? 이거는 좀 아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니까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제1순위로 와야되는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가족 정책전문가 3)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가야 하는 방향성이나 가족이 고유하게 가져야 되는 무엇인가는 존재해야 된다는 것에 전 그게 이제 건강성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것이 결국 지향점이 돼서 정책이나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가족 정책전문가 2)

결국은 되게 쉽게 보면 가족의 행복, 삶의 질, 건강성 이런 게 핵심 가치인데 그것에 해당하는 시기마다 중간 목표는 강조점은 다를 수 있는데 어떤 국가든 어떤 시점이든 가족 정책에 핵심 가치는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중략) 지금 가족다양성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니깐 이게 어려워지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기는 하지만 가족 정책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자녀를 극단적으로 얘기 하면 자녀를 돌보지 않는 가족까지 이렇게 느슨하게 지원할 수는 있지만 핵심적인 건 자녀를 잘 돌보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족 정책의 핵심일 수는 있거든요? (가족 정책전문가 1)

## 2.2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서비스의 방향성

가족 정책전문가들은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우선 기존의 형태별 가족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이와 함께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서비스를 마련하기에 앞서 현재의 가족센터 운영 환경을 면밀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가족센터의 예산과 인력에 대한 고려, 이와 함께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존 가족서비스가 새로운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가족다양성이 가족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 가. 기존 형태별 가족서비스 제공의 변화 필요

가족서비스에서 가족다양성 적용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가족 정책전문가들은 현재 가족서비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 형태별, 대상별 서비스로 가족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변화가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가족서비스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인정하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그 대상이 취약가족으로 한정되는 것은 반대하였다.

다양성을 다양해지도록 한다라는 것보다는 현재의 다양성을 아니 다양한 모습에서 살아가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한다. (중략)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서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취약가족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늘 반대했었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라서 한부모 이렇게 나가겠지만. (중략)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말하는 가족 문제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량과 잠재력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역량이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썼는데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을 역량 개발 사업이라고 이렇게 범주화해버리니까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취약가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면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이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 정책전문가 1)

자꾸 어떤 형태까지를 다양한 걸로 포함시킬 것이냐 라는 기존의 그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없어야 된다. 이걸 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어디까지를 넣을거나 이런 문제에 계속 봉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도 첫 번째 생각이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가족 한부모 무슨 이런 식으로 유형화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서의 다양성의 개념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유형으로 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구조로 나누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형태 어떻게 구성돼 있다하더라도 결국은 기능적인 면에서 구성원의 요구에 필요한 기능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기능성과 능력을 담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원래 그 지점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어떤 부분이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장 필요한 요소로 충족되어야 되는가 하는 기본 요소를 파악해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족 정책전문가 4)

한편으로 가족 형태별 사업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예산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당 가족이 갖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가족 형태별 사업의 필요성도 인정되었다. 다만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목표하에서 가족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가족 없이 다양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근데 한부모, 다문화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라고 하는 게 나와버리면서 결국 그 유형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건 굉장히 저는 불일치한 어떤 구조적인 한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한부모든 형태하고 상관(없든) 우리가 말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센터를 방문해서 사각지대 없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그렇게 보면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뭔가 사업가 서비스가 있어줘야 되는 거죠. (가족 정책전문가 1)

#### 나. 제한된 예산 및 인력 등 정책환경에 대한 고려 필요

가족다양성의 가치 확산에 따른 보편적인 가족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의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가족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자녀 양육기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의 한계를 이야기하였다.

정책과 사업은 결국은 돈을 예산을 인력을 어떻게 우선순위로 배정해야 되는가의 현실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타겟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가족 정책전문가 1)

가족센터 예산이 현재 규모로 유지된다면 타겟팅을 확실하게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

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센터를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자녀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그 대상 중심으로... 왜냐하면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그 집단 인구 집단도 다 우리가 커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아주 이상적으로 센터의 예산이 두 배, 세 배 이렇게 늘어난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뭔가 하나의 영역을 조금 더 개발할 수는 있겠죠. (가족 정책전문가 3)

자녀 양육기 가족 중심 서비스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거는 여전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준화해 갖고 이거를 작게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고 양육기 가족에도 아까도 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시간이 없는 사람, 성인들이 갈 등하는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 갖고 오히려 더 잘 들어가면 지금은 너무 두루뭉술한 느낌이거든요. 양육기 가족 해봤자 애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교육이라든지 하여간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만 바꾸지 맨날 똑같은 거 한다 자기네 센터 내부의 역량 같은 것 때문에 근데 이런 건 좀 더 우리가 섬세하게 이렇게 주면 이제 현장에서 변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양육기 가족 중심 서비스는 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고 (가족 정책전문가 5)

#### 다. 가족다양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기존 가족서비스 변화

일부 전문가는 현재 가족센터의 예산 구조를 고려했을 때 다양한 가족 대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기존 가족센터 사업 중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고, 다양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단기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제안하였다.

현재 예산이 유지된다고 하면 이거를 틀을 크게 흔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대신 해야 되는 사업들 중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부모 역할, 부부 역할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용어를 좀 바꿀 수 있겠죠. 아동 양육자 교육이라든가 커플 교육이라든가 파트너십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다양성을 반영하는 제목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프레임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타깃 자체를 지금 바꾸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는... (가족 정책전문가 3)

부부관계에 대한 부분도 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정도의 키워드만 넣어도 실은 훨씬 거기에 대상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범주가 점점 넓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혼한 부부라고 하니까 제도적인 결혼을 한 부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부라는 용어를 쓰지 않음으로써 실은 관계에 있는, 이제 다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1차적으로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서비스명들 자체, 서비스 사업명 자체를 조금 다양성을 제고

하는 방향성으로 바꾸는 거는 아주 미미하지만. 이제 그래서 타겟팅 대상을 좀 넓혀가는 방식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가족 정책전문가 3)

이와 함께 성(性)과 세대 간 가치 차이로 인한 갈등 등 기존 가족센터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다양성 확장의 한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가족다양성을 자꾸 구조나 유형의 다양성으로 이제 하는 게 접근하는 게 사실 쉽잖아요. 대상을 계속 늘려가는 방식이 사실 사업하기는 제일 수월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 가족은 다양한 거고 저 가족은 배제 해야 되는 건가 자꾸 이런 문제가 사실 생기는데 뭔가 다양성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배제 없이 모두에게 어떤 관계에 있는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가족 같은 형태로 살고 있다면 지원해줘야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기능적인 부분의 지원이라든가 너무 대상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니면은 지금 아마 가족 내에서도 성별이나 세대에 따라서 사실 가치의 갭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성들은 상당히 지체돼 있는데 여성들은 많이 변화하고 있다든지 또 세대 간의 격차라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게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른 가치들이 계속 갈등하고 충돌하는 지점들이 가져가는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양성이라는 개념 안에서 어떻게 변화시켜 가거나 그것들을 좀 그런 갈등들을 갈등? 그런 인식의 차이를 좁혀갈 수 있을지 그걸 어떻게 사업화했을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이 대상을 접근하는 것보다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사업들을 좀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는 것부터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가족 정책전문가 5)

## 라. 가족다양성 인정 목표를 중심으로 가족서비스 평가

일부 가족 정책전문가는 가족다양성 가치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앞서 기존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기존 프로그램이 갖는 목표와 내용에서 가족다양성 인정 목표와 상충 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비교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 사업을 어떻게 또 뭘 없혀보지 자꾸 이런 식의 접근인 것 같아요. 또 가족다양성이 막 생기면 무슨 사업을 또 어떻게 좀 만들어 볼까. 근데 기존의 사업이 그 개념과 맞는지 이런 평가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그게 냉정한 평가가 돼야되지 않나 (가족 정책전문가 6)

기존의 사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오히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구분하거나 차별하거

나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를 검토하는 하나의 첫 번째 그런 평가 기준 같은 거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당장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는 가장 필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족 정책전문가 5)

한 전문가는 현재 가족센터 사업에서 세분화되어 있는 사업을 대상의 공통 속성에 따라 통합하여 유연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족다양성 확장의 기조에 부합함을 이야기하였다.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청소년부모 이 세 가지만 봐도요. 명칭의 다름은 있지만 서로 배타적인 범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다 각각 이렇게 사업으로 내려올 때 이제 종사자들은 거의 들고 지원의 내용도 유사하고 이름만 바뀌고 이런 거요.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잖아요? 공통점이? 그런데 부모의 연령과 경제적인 환경 등 몇 가지 범주별로 문제가 유사한 경우를 묶어서 사업을 디자인 해야 한다. (중략) 사업 대상자 규모를 잘 추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략)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거기에 지금 스무 개인가가 목표치라면 다섯 케이스를 청소년 부모를 하라고 그랬다는데 (중략) 제일 많이 했다고 그게 4 사례예요. 그럼 다른 센터는 찾아내지도 못하거든요. 추산을 잘해가지고 이게 각 센터의 기본 사업으로 내려야 될 건지 이걸 진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족 정책전문가 5)

#### 마. 가족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강화

가족 정책전문가들은 가족다양성 가치를 고려한 가족서비스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가족센터 내 서비스 간 그리고 가족센터와 지역사회 기관 간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가족다양성 가치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지역센터도 정말 많이 성장했고 지역이 지역에 특수하게 될 해라라고 할 뿐더러 재량권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다양성도 지역의 특수성에 대응해서 형성되는 거고 끊임 없이 변화하는 거여서 어떤 식으로 줘야 될지 이제 기본 사업에 얽혀 가지고 재량을 갖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략) 종사자 역량 강화를 정말 전문적으로 하고 그거를 현장에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가야지... (가족 정책전문가 5)

사업 베이스로 예산 구조를 바꾸든지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더 특정하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구조를 계속 유지할 거면 사실 개인의 그 기획 역량이라는 게 이 센터의 사업을 다 좌우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종사자 역량 강화나 서비스 방향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실 개별 가지들보다 뭘 할 것인가 보다 그거는 자율성을 더 줄 수 있는 거

조. (중략) 그 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투자를 한가원이나 여가부가 계속해서 기획 역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가족 정책전문가 6)

또한, 한 전문가는 가족다양성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사업 발굴보다 가족센터의 기존 사업 간의 연계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 등의 방식으로 가족다양성 가치를 실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부산시에서 이제 남성 1인 가구 사업을 하는데 (중략) 이제 이혼한 남성 1인 가구,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이런 분들을 비양육 부모하고 이렇게 또 교섭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면접 교섭하는 그런 거랑 연결해 가지고 1인 가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떻게 단독적으로 계속 사업을 계속 새롭게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대상이 그렇게 정해졌을 때 그 내부에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애를 좀 기획해 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단독적으로 사업화 시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혹은 꼭 내부에 없으면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하고 (중략) 더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거기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저쪽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자원을 사실 교류를...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시너지가 날 수 있거든요. (중략) 그러니까 지금 이 개별화된 사업들을 연결해서 어떤 총체적으로 그 가족한테 욕구를 개개인들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줄 수 있는 디자인을 생각해 보는 거 이것도 저는 되게 다양성이나 기존 사업들을 굉장히 다르게 보여주게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족 정책전문가 6)

### 3. 소결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방향 모색을 위한 탐색적 측면에서 진행된 가족 정책전문가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가족서비스에서 가족다양성 적용’ 과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서비스 방향성’의 중심 주제가 도출되었다. 우선 ‘가족서비스에서 가족다양성 적용’에서는 ‘가족서비스에서 가족다양성의 의미’ 및 ‘가족서비스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의 가족다양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가족다양성은 다양한 요소들로 채워지는 가족의 삶을 뜻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지니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다양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현재 가족서비스에서는 가족다양성을 형태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형태의 다양성은 가족다양성의 하위 항목일 뿐 가족다양성을 규정하는 요소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와 함께 가족다양성은 가족 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정책의 핵심 가치이기보다는 하위 목표 중에 한 차원이 되는 것이 적절함을 언

급하였다. 한편, 본 초점집단면접의 탐색적 측면 및 연구참여자 수의 제한으로 가족서비스에서 가족다양성의 의미에 대한 개념 정의 등은 도출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다음으로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서비스의 방향성’에서는 가족서비스가 대상별 서비스나 취약위기가족 대상 지원에서 벗어나 배제되는 가족 없이 다양한 가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제한된 예산 및 인력 등 정책환경에 대한 고려 필요 하에 아동 양육기 가족 등 정책 대상에 대한 타겟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기존 가족센터 사업 대상 중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고 다양성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활용하는 방식 또한 제안하였다. 가족다양성 인정 목표하에 기존 가족서비스에 대한 평가, 가족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강화 등이 주요 하위 주제로 논의되었다.

## 제2절 가족서비스 실무자 초점집단면접

### 1. 자료 수집 및 연구 대상

가족서비스 실무자 초점집단면접은 전국 시·군·구 가족센터의 센터장 혹은 중간관리자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점집단면접 참여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추천받았고,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도시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지역, 농산어촌지역 센터를 포함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2022년 7월 5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을 사용하였다. 면접은 아래 <표 4-3>과 같이 가족센터 운영에 있어 가족다양성과 다양한 가족 의미, 가족센터 운영 경험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초점집단면접 자료 분석은 전사된 면접 자료를 여러 차례 읽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떠오르는 중심주제를 도출하는 중심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였다(Braun & Clarke, 2006).

<표 4-3> 가족서비스 실무자 초점집단면접 내용

질문 영역	세부 내용
가족다양성과 다양한 가족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센터의 가족다양성 정의</li> <li>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을 고려한 사업</li> </ul>
가족센터 운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가족 특성</li> <li>가족센터 주요 서비스 대상</li> <li>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운영 및 운영 성과</li> <li>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운영의 어려움</li> <li>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확대 방안</li> </ul>

### 2. 가족서비스 실무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가족서비스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집단면접 내용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표 4-4>와 같다. 분석 결과 가족센터 사업에 가족다양성 적용 노력, 가족 다양성 적용의 어려움, 가족다양성 관련 서비스 확대 방향 등이 주요 주제로 도출되었다.

<표 4-4> 가족서비스 실무자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주제	세부 주제
가족센터 사업에 가족다양성 적용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다양성에 대한 종사자들의 이해 노력</li> <li>가족센터 사업에 가족다양성 적용</li> </ul>
가족다양성 적용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 지원 중심의 자원 배분</li> <li>개별 가족서비스 목표 및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목표 간 갈등</li> <li>다양한 가족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li> </ul>
가족다양성 관련 서비스 확대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다양성에 대한 종사자 교육</li> <li>지역 특성 반영한 사업 운영</li> <li>사업 운영 방식의 변화</li> <li>가족센터 홍보 강화 및 대상자 확대</li> <li>가족다양성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li> </ul>

## 2.1 가족센터 사업에 가족다양성 적용 노력

본 연구에 참여한 12개 시·군·구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의 통합 과정, 이후 가족센터로의 명칭 변경,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등의 가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가족다양성 개념을 이해하고 가족센터 운영에 여러 형태로 적용하고 있었다.

### 가. 가족다양성에 대한 종사자들의 이해 노력

가족센터 현장에서 마주하는 가족들의 빠른 변화와 함께 가족다양성을 강조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족센터 종사자들은 가족다양성 개념 이해 및 사업 적용을 위해 종사자 간의 토론, 종사자 교육 수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딩크족, 덩펏족 이런 다양한 가족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50대, 60대 이상인 사람들이 들어도 이상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시다. 그리고 비혼인으로 출산한 사유리 씨 방송인. 그분에 대해서도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토론도 해보고 했는데 이전에 저희가 보통 이제 가족이라 하면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 틀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정말 다양한 가족이 있고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이런 가족들도 모두 동성혼 가족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겠구나 하는데 받아들이기는 아직은 버겁긴 하지만 모두 포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J)

건강가정기본계획 직원들 같이 다 놓고 공부했고, 실제로 그 부분들이 센터 사업에 녹아나 게끔 하는 건 여전히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 선생님들도 여전히 잘 모르겠다. 그래서 중간에서 짚어줘야 해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B)

### 나. 가족센터 사업에 가족다양성 적용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은 (1)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 (3) 다양한 가족 이해교육 및 캠페인 등의 방식으로 가족다양성을 가족센터 사업에 적용하고 있었다.

#### (1)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족센터는 지금까지 자녀 양육기 가족, 맞벌이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 특성별 욕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최근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족센터들은 맞벌이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군인가족, 조손가족, 입양가족, 1인 가구 등 지역 내 가족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실제로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은 다양한 가족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 사업으로 여기고 있었다.

가족사업안내 2022년의 사업 방향을 보면,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예전에 건가, 다가로 이분화되었을 때에는 비다문화와 다문화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가족역량강화사업에서 한부모나 조손이나 또 이제 그걸 좀 뛰어넘어서 맞벌이나 1인 가구, 북한이탈주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 대상을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가족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중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는 1인 가구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더 예전보다 좀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 역량 강화 사업에서 청소년 부모 지원 사업을 좀 홍보하고 있고 그 범위 안에서, 대상자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서비스 실무자 E)

일부 종사자는 서비스 대상의 확장과 함께 기존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기존 서비스 대상의 변화하는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족다양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 방식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꼭 이게 다양한 가족 자체의 구성원 형태를 범위를 확대해서 한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 최근 들어서 보면 다문화가족들 중에서 중도입국 자녀, 저희 지역에는 좀 많이 계속 아이들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중도입국 자녀 아이들에 대한 것도 좀 더 집중해서 이제 이게 기존에 다문화를 많이 해왔으니까 다문화는 기존대로 하고. 예를 들면 맞벌이라든지 앞에 언급하신 1인 가구나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제 다문화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서비스로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된다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F)

가족센터 종사자들은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가족센터의 강점으로 여기면서도, 일부 종사자는 가족을 어디까지 구분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가족다양성을 가족유형별 서비스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였다.

가족을 계속 유형화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서 실제로 유형별로 나누었을 때 저희가 가족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 저는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유형을 어디까지 분리해서 해야 될 것이냐 (중략) 가족을 계속 유형화로 나누는 게 너무 습관이 돼서 센터 사업도 이제 그거와 아까 사업도 연결해서 간다라고 하면 ‘너희가 다양한 가족 사업을 하고 있니?’ 라고 하면 저도 여전히 어떻게 하나면 유형별로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1인 가구 사업도 하고 맞벌이가족 사업도 하고 다문화가족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사업도 하고 무슨 유형. 거기다 더 넓게는 센터별로 하면 북한이탈이주민 가족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유형별로 나누었을 때 센터가 과연 가족의 어떤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고 이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느냐 그것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족센터로 저희가 통합이 되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가족을 유형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결국 이들이 계속 조화롭게 묶여야 된다고 하면 여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혼합이 되어 혼재가 되어서 사업을 해야 돼서... (가족서비스 실무자 B)

## (2)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 확대

상당수 가족센터들은 대상별 맞춤형 가족서비스와 함께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일부 센터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간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사업 참여자를 할당하기도 하였다.

다문화가족 자조 모임을 운영한다든가 입양 가족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다 쪼개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다 모이게끔 교류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가족서비스 실무자 D)

대단위로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약간 직원들한테 약간 할당량을 줘요. 한부모가족이 몇 퍼센트 들어가고 다문화가족은 몇 퍼센트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내에서는. 밖에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일부러 그 안에서 섞게 하려고 하고. (중략) 사실 그 안에서 그들이 한부모가족인지 이런 것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쪽은 이제 부모랑 같이 오고 여기는 아버지랑만 오거나 엄마랑만 오기도 하고 이런 건한테 이제 그런 거 자체가 그냥 같이 있으면서 그럴 수 있구나. 저기는 그냥 아빠만 있고 이런 거로 저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다문화가족도 자연스럽게 좀 더 합류가 됐으면 좋겠고 여전히 합해서. 저희가 문화 사업을 해도 다문화 분들은 다문화 분들끼리 이렇게 군집이 돼요. 그들끼리 묶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그래도 좀 약간 인위적으로 약간 일부러 좀 섞게 하는 방법들을 해서 그냥 우리 이웃에 이렇게 다 있구나 정도로 하는 거지. 사실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 이게 정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이 확대는 이렇게는 사실 저희가 성과 이런 것들을 목표를 잡지는 않고 있거든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B)

### (3) 다양한 가족 이해교육 및 캠페인

가족다양성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차별 예방을 위해 다양한 가족 이해교육 및 캠페인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일부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다문화가족 이해교육을 시작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으로 내용을 확장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한 가족센터의 경우 모든 사업 진행에 앞서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본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인식 캠페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온라인을 이용해서 SNS 공모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 관련 교재 책을 하나 소개하면서 독서 챌린지 혹시 그거를 보고 거기에 나온 어떤 문구를 가장 좋아하는 문구를 보내주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떤 상품을 드린다든가 이런 공모전 형태로 저희가 최대한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서비스 실무자 L)

다문화가족만 인식 개선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다양한 가족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게 입양가족이라든지 미혼모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름 이해 존중 교육’ 이라는 이런 매뉴얼을 만들고 강사 지침서도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회기씩 진행을 했어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C)

## 2.2 가족다양성 적용의 어려움

가족다양성의 가족서비스 적용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에서 가족다양성을 가족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다양한 가족보다 다문화가족 지원 중심의 자원 배분, 개별 가족서비스 목표와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목표 간의 갈등, 다양한 가족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등을 주요한 어려움으로 이야기하였다.

### 가. 다문화가족 지원 중심의 자원 배분

특히 지방의 가족센터 종사자들은 다양한 가족 대상 서비스 확장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센터 운영 예산 및 사업비의 상당 부분은 다문화가족 대상 예산으로 할당되어 있어서

제한된 예산과 인력에서 다문화가족 이외의 다양한 가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였다.

가족들은 여기는 센터 존재 이유는 다문화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가족센터로 이제 변화되면서 조금은 이제 저희도 이제 전체 국민,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국민을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서 기본 사업비에 있는 데는 저희가 항상 전체로 다 열어놔요. 다문화 가정 비율을 높이긴 하나 일반 가정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저희가 지자체가 이제 다문화가족 수가 많다보니 지자체에서 특별히 100% 추가로 지원된 금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략) 오직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쓰는 사업비예요. 건가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 저희는 없었어요. (중략)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이걸 어떻게 더 확장시켜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서비스 실무자 J)

도움을 주는 유관기관이 다문화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다문화에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저희가 그런 인식을 깨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족센터라고 하는 네이밍이 바뀌고 건가다가가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아... 다양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업체들의 사회공헌팀에다가 다문화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다양한 가족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나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주는 거는 다문화이지만 사적인 영역의 사회공헌에서는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 프로젝트를 쓸 때 다양한 가족을 위해서 한부모라든가 조손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포괄해서 달라라는... 근데 그 영역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례 관리 영역과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대상자들은 거의 대부분 취약계층이거든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E)

다문화가족 중심의 지원 외에 전국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확장됨에 따라 1인 가구 대상 사업비가 배정되는 등 가족센터의 일부 사업비는 사회적 관심사에 따라 특정 대상을 위한 사업비로 배부된다는 측면도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사업 운영에는 어려운 요소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이제 광역 예산으로 편성돼서 매칭 사업 내려온 게 있지만 그전에는 전부 아예 명시 자체를 다문화가족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이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다양한 가족을 타깃으로 한 사업비가 따로 내려온 건 없었어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F)

예산도 지금 다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족센터 너희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이나 이러한 사업들을 해라고 하기에는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여력이 없습

니다. (가족서비스 실무자 B)

#### 나. 개별 가족서비스의 목표 및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목표 간 갈등

가족서비스 운영 시 개별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외에 가족다양성 고려, 다양한 가족 간 교류 등의 새로운 사업 목표가 개별 단위사업에 추가됨에 따른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목표 간의 충돌은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시도하였던 통합센터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유사한 형태임을 지적하였다.

통합을 시키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한 게... 받아들이는 속도라든지 강사님의 스킬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달라요. (중략) 그러면 그다음 회기 때는 다문화가 좀 안 와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네.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맞겠다. (가족서비스 실무자 K)

이분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그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집중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경험을 좀 분리를 해야 맞는 것 같고. 이렇게 공감대 형성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뭘 던져봐도 이렇게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J)

다양한 가족의 다양성 이런 부분의 취지는 참 좋은데요. 함께 어우러짐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매개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해야 될지는 저희들에게 남겨진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서비스 실무자 H)

특히 각 가족서비스 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서비스가 주요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족다양성의 가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 또한 가족서비스 실무자에게는 어려운 이슈였다.

OOO 프로그램의 경우에 정말 가족 단위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한부모 가정에서도 좀 민원 아닌 민원을 했거든요. 담당자가 이제 가족 단위로 우선 배치를 했더니 이제 후순위가 됐는데 왜 본인이 거기에 이제 접수가 안 된 건지를 궁금해 하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가족 단위를 우선으로 가족 단위라 하면 부, 모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가족들을 저희가 우선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엄마만 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버지 참여를 독려,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 (중략) 아빠가 참여 시에 더 우선 배정한다 이런 식으로 진짜 썼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우게는 했지만 내부에서 그게 필터가 되지 않을 때는 아마도 이제 찾아보면 그런 용어들이 상당히 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D)

근데 저희가 가족 단위로 이렇게 확대시켜 보니 일단은 아빠가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엄마는 쉬을 주고 그 다음에 가족사랑의 날 같은 경우도 취지 자체가 1인 가구가 오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가족이 모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취지로 봤을 때는... (가족서비스 실무자 J)

#### 다. 다양한 가족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은 지역 특성에 따라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1인 가구,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 등 대상별 사업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게 가족다양성을 반영한 탄력적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방에서는 대상별로 구분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지침에 의해서 나온 프로그램으로 그걸 진행하는 지방에서는 그대로 맞춰서 한다는 부분이 예산적인 부분이나 거기에 맞는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같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어려워서 나중에 어떤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지방에 대한 부분으로 고려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족서비스 실무자 L)

저희 시군, 군 단위에서 접할 수 있는 아직 청소년 가구는 없더라고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K)

외국인 주민 수가 많은 곳에서는 저는 다문화가족 사업이 훨씬 더 특화되고 많이 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000처럼 외국인 주민 수가 많지 않은 지역에 똑같이 다문화가족의 거의 60% 되는 이 할당량의 사업을 하기에는 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그래서 아까 지역적인 특성별로 다 사업을 다 좀 다시 좀 통합을 해서 그래서 아까 기본적인 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 지역의 인구학적인 특성에 맞추어서... (가족서비스 실무자 B)

## 2.3 가족다양성 관련 서비스 확대 방향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은 가족센터 사업에 가족다양성이 적용되기 위해서 가족다양성에 대한 종사자들의 이해 및 가치 공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일률적인 가족다양성 사업보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 다양한 가족 이해 교육 및 다양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통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 운영방식의 변화, 지역사회 다양한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로의 홍보 강화, 그리고 가족 다양성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 가. 가족다양성에 대한 종사자 교육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은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확대에 앞서 “가족다양성” 개념 및 가치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생각보다 저희 담당자들이나 혹시 이것을 이끌어가는 어떤 강사들이 과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이나 차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 가족들이 훨씬 더 앞서는 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거는 과연 가족의 다양함을 무엇으로 정의 내릴 것인가라는 걸 계속 질문을 좀 많이 드렸어요. (중략)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지만 가족의 다양성이 우리 센터에서 왜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의미 이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그러니까 여가부나 한가원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이거를 저희 선생님들한테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체계가 저는 좀 잡히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B)

직원들도 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부분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가족서비스 실무자 L)

저는 요즘에 되게 체감하는 게 담당자의 역량이에요. (중략) 직원들은 계속 바뀌다 보니 언제나 늘 1년 차, 2년 차, 3년 차 같은 마인드로 일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슈퍼비전을 주는 데 한계가 있어요. 말을 해줘도 그거에 대한 이해가 100%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센터 방향이나 가치나 이런 걸 공유해서 이렇게 같이 앞을, 같은 방향으로 보고 쪽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가족서비스 실무자 C)

## 나. 지역 특성 반영한 사업 운영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은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을 일률적으로 시행하기보다 지역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가족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가족센터가 전문성을 갖지만 모든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족센터가 중심으로 가져가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사결정과 함께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 간 브릿지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직접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전달, 자원 연계 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대응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요즘에 입양 관련된 거 이런 가족도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모집이 안 돼 갖고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걸 무조건 하라고 하면 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중략) 굳이 막 너희 반드시 한부모 사업해, 다문화가족 무슨 사업해 이런 것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가족유형별로 이러한 사업에서 최소한 다양함이라고 하는 거를 개별 단위로 한다고 하면 세 가지 유형 이상의 가족 반드시 넣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가족이 어우러지는 걸로 한다든지라고 정도 하면은 그래도 센터들이 쉽게 좀 이해하려나? (가족서비스 실무자 B)

가족센터 운영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그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을 때 훨씬 가족이 만족도가 올라가고 보호되는 음... 그 취약성이 보호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센터를 매개로 해서 브릿지로 해서 좀 교류의 접점들을 좀 늘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센터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서비스 실무자 D)

저는 현장에서 보면 우리 주위에 다양한 개인과 가족의 유형이 존재하는데 편견을 갖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거기에다가 포커싱을 둘 때 우리가 주도적이어도 되지만 자원은 복지관, 드림스타트 다 연결하고 있거든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A)

## 다. 사업 운영 방식의 변화

가족다양성 확대에 따라 가족센터 사업제공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우선 다양한 가족 간의 교류 확대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나눠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했을 때하고 그냥 이해 교육을 안 하고 그냥 통합 프로

그램을 했을 때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과가 컸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L)

일단은 지난번에 저희가 다문화 이해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해왔는데 실제로 이제 영역을 확대해서 다양한 가족 이해 교육 그다음에 수용 이러한 부분들은 예 저희가 기본 사업으로 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B)

이와 함께 다문화/비다문화 통합 사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사업에 가족다양성을 고려하기보다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울리기에 적절한 사업 주제를 발굴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처음에는 1인 가구 대상으로 명이냥이 스토리텔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모집을 할 때 되게 이 참여자를 모집하기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일반 가족과 함께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반려견이라는 이런 반려견을 통해서 서로 산책하고 또 이제 반려견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반려견을 다루는 법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 가족과 1인 가구의 어떤 공통점을 또 찾아가면서 이분들이 아! 이 프로그램은 정말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아리처럼 우리도 지속적으로 서로 연락하고 이 프로그램 한 번 더 개최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만족도는 매우 높았었어요. (중략) 반려견이라는 이런 동물을 매개체로 해서 접근하고 이분들이 관심도가 서로 동일했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1인 가구와 뭔가 생활 형태도 다르고 가구의 형태가 다른데 어떻게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토론을 진행해 본 결과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넘어갈수록 더 집중도도 높아졌고 만족도도 더 높아져서 마지막에는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참여한 것은 너무나 잘한 것 같다. 지속적으로 이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H)

저희가 우리 비다문화하고 다문화가 가장 잘 사회 통합이 됐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두 가정의 교차점이 있는 경우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임신 출산, 임신 출산 교육을 한다면 나도 임신을 한 상태고 우리 여기 엄마도 나라만 다른거지 똑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교육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 배경이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서로 정보도 나누고 이걸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중략) 어떤 관계 형성이나 이런 거 사회적인 목표나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나 똑같이 공감하는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무엇을 던져놔도 이분들이 서로 같이 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계속 해온 바에 의하면 별 문제성을 못 느꼈거든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J)

이제 가볍게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제 막 쉬이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그게 자기네들이 왜 쉬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웃이 만나는 것으로 하고 (중략) 약간 저희 담당자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가 계속 그걸 쉬이게끔 만들어서 저희가 반드시 교육하고 뭐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이 서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건 센터 내 사업에 있어서 저는 스며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B)

#### 라. 가족센터 홍보 강화 및 대상자 확대

앞서 가족다양성 실천 현장에서의 어려움에서 지적되었듯이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써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가족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가족다양성이 취약한 가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함께 제시되었다.

저희가 다양한 가족 중에 이 한 가정, 한 가족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고 더 열려서 활동을 할 수 있기, 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조금 있어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J)

꼭 취약계층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인 부분에서 맞벌이 가정에 대한 것들도 다양한 가족의 범주 안에 속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가족센터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부각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 저희 OO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상당히 이제 확대시켜서 맞벌이 가족에 대한 아이들을 케어하고 전문가 부모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것들로 다양한 가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취약계층 플러스 그냥 모든 보편적인 그런 가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가족서비스 실무자 E)

#### 마. 가족다양성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은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사업 확대를 위해서 인력 및 예산 확보가 가장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기존에 센터의 인력들은 대개 지침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프로그램에 다 담당자가 있고 그거를 진행해야 되는 지침을 실적을 또 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냥 다양한 가족에 대한 부분은 뭔가 사업 부분을 두고 거기에 인력을 해서 다양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뭔가 접근을 그 직

원들은 해 가는 걸로. (가족서비스 실무자 L)

가족센터는 지금 여전히 통합은 되었지만 안에 내부적으로는 건가와 다가라고 하는 두 개의 기관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예산도 지금 다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족센터 너희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이나 이러한 사업들을 해라고 하기에는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역력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가에서 주는 사업비로 봤을 때 저희가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이것을 연결해 봤을 때는 좀 아이러니하게 저는 좀 많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B)

다양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어떤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하게끔 그런 것들을 좀 국가에서도 저희가 지침을 내리거나 사업비를 좀 줄 때에도 그런 것들을 사실 마음이 있어도 사실 마음이 있어도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B)

다문화센터는 그냥 어떤 사람을 꼭 집어서 하는 선별적 복지였는데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됐고 그러한 인식 때문에 다양한 가족이라고 하는 지금 여러 가지 주제라고 하는 것도 쉽게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도 굳이 이게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업의 예산을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주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은 이미 건강가정사들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E)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 확대와 함께 대상별 칸막이 예산보다 서비스 주제에 따라 다양한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가족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1인 가족으로만 (사업비) 몇 천을 지금 준 거잖아요. 한부모를 해서 몇 천 안 줬어요. 통으로 돈을 주고 니네들이 하는 사업 중에 가정 경제 교육을 할 때 1인 가족 (대상 사업)이지만 경제 교육은 같이 재무 관리는 같이 들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략) 여가 프로그램에 올레길 걷기 이런 거 (대상 구분 없이) 같이 가도 돼요. (중략) 재무관리, 재무 관리 수업을 하는데 그때는 유아기 자녀를 부모로도 한번 해보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여가는 다 같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서비스 실무자 A)

### 3. 소결

가족서비스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집단면접 내용을 분석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센터 사업에 가족다양성 적용 노력’, ‘가족다양성 적용의 어려움’, ‘가족다양성 관련 서비스 확대 방향’ 등이 주요 주제로 도출되었다. 가족센터 종사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의 통합 과정, 이후 가족센터로의 명칭 변경,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등의 가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가족다양성 개념을 이해하고 가족센터 운영에 여러 형태로 적용하고 있었다.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등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함께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 다양한 가족 이해 교육 및 캠페인 등의 가족서비스를 통해 가족다양성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상 내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형태도 가족다양성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지원 중심의 자원 배분, 개별 가족서비스 목표 및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목표 간의 갈등, 다양한 가족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족다양성 관련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가족센터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해소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가족다양성 관련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가족다양성에 대한 종사자 교육,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사업 운영, 다양한 가족 이해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 주제 발굴 등과 같은 운영 방식의 변화, 가족센터 홍보 강화 및 대상자 확대, 가족다양성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제 5 장

##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현황 및 요구

제1절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현황

제2절 가족센터 이용자의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요구



# 5

##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 현황 및 요구

### 제1절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현황

#### 1.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조사 개요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가족서비스 현황과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족센터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의’, ‘사업과 프로그램에서 가족다양성과 다양한 가족을 적용하는 맥락’, ‘가족다양성과 다양한 가족 사업 사례’, ‘가족다양성과 다양한 가족 사업과 프로그램 추진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가족 정책전문가와 가족서비스 실무자의 초점집단면접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고, 설문지 초안 작성 후 가족서비스 실무자 3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가족다양성 개념, 다양한 가족 대상 사업 또는 프로그램, 가족다양성 및 다양한 가족 관련 프로그램이라 생각하는 이유,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유무 및 장·단점, 가족다양성을 고려하여 발전시킬 사업,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수행의 어려움,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을 위한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원,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운영의 상대적 중요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는 부록에 [2.1 가족서비스 실무자 설문조사지]로 수록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이용하여 2022년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였다. 전국의 가족센터 중간관리자가 설문조사 대상자였고 질문 문항 중 센터 사업과 프로그램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1개 가족센터 당 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전국의 가족센터에 설문조사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공문에 포함된 QR코드와 온라인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설문조사 진행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센터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중간관리자 대면교육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가족센터장 모임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124명이었고, 문항에 따라 응답률이 달라 응답수가 가장 적은 문항은 51명이 응답하였다. 반구조화 된 개방형 문항들과 설문지 후반부에 있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률이 저조하였다.

## 2.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현황

### 2.1 다양한 가족의 정의와 적용

설문조사 대상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의를 조사한 결과는 <표 5-1>과 같다. 문항에 제시한 보기 중 응답자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순서로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하게 하였다. 보기에 적절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타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1순위로 보기 중 ‘다양한 가족은 형태와 취약성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가족을 의미한다.’를 70.2%의 응답자가 선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다양한 가족은 부부+자녀로 구성된 형태 이외의 가족(예. 한부모가족, 1인 가구)을 의미한다.’로 20.2%가 선택하였다. 2순위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보기는 ‘다양한 가족은 부부+자녀로 구성된 형태 이외의 가족(예. 한부모가족, 1인 가구)을 의미한다.’와 ‘다양한 가족은 가족 기능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가족 유형(예. 맞벌이 가족, 장애인 가족, 빈곤가족, 임신부가족 등)을 의미한다.’에 각각 25.8%씩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1순위와 2순위의 응답 합계를 보면 ‘다양한 가족은 형태와 취약성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가족을 의미한다.’가 44.0%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양한 가족은 부부+자녀로 구성된 형태 이외의 가족(예. 한부모가족, 1인 가구)을 의미한다.’가 23.0%로 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종합해보면 조사대상자인 가족센터의 중간관리자급 종사자들은 다양한 가족을 가족의 형태와 취약성에 국한된 개념이 아닌 우리 사회의 모든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별히 가족의 전형성, 가족 기능적 요소를 다양한 가족 정의에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가족을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언어 등 문화적 다양성에 국한하지 않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다양한 가족의 정의를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가족 유형의 다양성뿐 아니라 가족문화의 다양성’, ‘가족의 형태와 모습에 사회적 특성 고려’, ‘다양한 가족은 부부+자녀로 구성된 형태도 포함, ‘기능과 형태를 다 포괄한 단어로 인식’, ‘가족 구성 형태와 가족문화적 배경의 다양성’ 등으로 작성하였다. 형태, 유형, 문화, 사회적 특성, 기능의 다양성이 다양한 가족을 정의할 때 주요어로 나타났고, 다양한 가족이 정형화된 가족(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형태도 포함하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lt;표 5-1&gt; 다양한 가족의 정의

*n* = 124

구분	1순위		2순위		합계	
	<i>n</i>	%	<i>n</i>	%	<i>n</i>	%
다양한 가족은 부부+자녀로 구성된 형태 이외의 가족(예. 한부모 가족, 1인 가구)을 의미한다.	25	20.2	32	25.8	57	23.0
다양한 가족은 다문화가족(다양한 인종, 민족, 출신국가, 언어 등)을 의미한다.	2	1.6	27	21.8	29	11.7
다양한 가족은 가족 기능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가족 유형(예. 맞벌이 가족, 장애인가족, 빈곤가족, 입산부가족 등)을 의미한다.	10	8.1	32	25.8	42	16.9
다양한 가족은 형태와 취약성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가족을 의미한다.	87	70.2	22	17.7	109	44.0
기타	0	0	11	8.9	11	4.4
합계	124	100.0	124	100	248	100

가족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의 서비스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실제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 가족 유형에 대해 질문하였다. 문항의 보기로 제시된 가족 유형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2022 가족사업안내(I)」에 언급된 가족 유형, 가족서비스 실무자 초점집단면접 내용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정형가족은 보기로 제시하지 않았다. 응답 결과는 <표 5-2>와 같다. 조사대상 가족센터 중 98.3%는 다문화가족, 97.5%는 맞벌이가족, 94.2%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1인 가구(80.0%), 조손가족(70.8%), 청소년부모가족(52.5%) 순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환자가족, 분거가족,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센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타 가족 유형으로 3세대 가족, 노년기 가족을 각각 3개 센터에서 응답하였고, 유학생, 외국인가족, 성인자녀를 둔 부모자녀가족, 부부가족, 재혼가족, 소상공인가족, 수형자가족, 다자녀가족 등도 사업과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문항에서 제시한 보기의 가족들을 선택하였지만, 사업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의 유형일 뿐 사업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lt;표 5-2&gt; 가족센터에서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한 가족 유형

*n* = 120

구분	<i>n</i>	%
맞벌이가족	117	97.5
조손가족	85	70.8
청소년부모가족	63	52.5
장애인가족	36	30.0
환자가족	10	8.3
다문화가족(중도입국자녀포함)	118	98.3
북한이탈주민가족	38	31.7
난민가족	21	17.5
군인가족	44	36.7

구분		n	%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미혼모, 미혼부 등)		113	94.2
1인 가구		96	80.0
입양가족		13	10.8
분거가족(주말가족)		10	8.3
기타	유학생, 외국인/일반가족/성인자녀를 둔 부모자녀가족/부부가족(신혼기, 중년기) 3세대가족(3)/노년기 가족(3)/재혼가족/소상공인가족/수형자 가족/다자녀가족 취약위기가족/문항에서 선택한 가족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형일 뿐 사업에 대상을 정해두지 않음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 대상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맥락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표 5-3>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순위로 선택한 보기 중 가장 응답이 많은 보기는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통합 사업 또는 프로그램’으로 33.3%였고, ‘특정 가족유형을 제목으로 명시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예. 맞벌이 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30.8%였다. 1순위와 2순위를 통합한 결과도 ‘비다문화가족 통합 사업 또는 프로그램’과 ‘특정 가족 유형을 제목으로 명시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예. 맞벌이 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각각 34.6%, 31.7%로 높게 나타났다.

<표 5-3> 다양한 가족 대상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맥락

구분	1순위		2순위		합계	
	n	%	n	%	n	%
2개 이상 가족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	28	23.3	16	13.3	44	18.3
부부와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 유형 이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	14	11.7	19	15.8	33	13.8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통합 사업 또는 프로그램	40	33.3	43	35.8	83	34.6
특정 가족 유형을 제목으로 명시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예. 맞벌이 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	37	30.8	39	32.5	76	31.7
기타	1	0.8	3	2.5	4	1.7
합계	120	100	120	100	240	10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족센터 중간관리자들은 다양한 가족을 가족의 형태, 취약성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가족,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 형태 이외의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가족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가족을 ‘비다문화가족 통합 사업 또는 프로그램’과 ‘특정 가족 유형을 제목으로 명시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2 가족센터의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반구조화 된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대상자가 소속된 가족센터의 지역 특성, 지역사회의 요구, 센터의 강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가족 대상 및 가족다양성을 주제로 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3개까지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응답자들은 선택한 사업 명칭, 주요 목표,

대상, 사업 방식을 간략하게 작성하였다. 또한, 선택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어떤 측면에서 다양한 가족, 가족다양성을 나타내거나 의미하는지도 작성하였다.

응답자들이 작성한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였다.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의 의미가 가족센터 사업과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는 응답한 프로그램의 명칭이나 내용보다 왜 그 사업과 프로그램이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이라고 생각하여 선택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였다. 응답자가 선택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근거를 분석한 결과를 주제와 응답 내용 중 예시로 정리하여 <표 5-4>에 제시하였다.

유사한 응답 내용을 묶어서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도출되었다. 먼저, 가족센터의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을 ‘특정 가족 유형 안에서 다양성 찾아보기’를 통해 가족센터 사업과 프로그램에 가족다양성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족센터 사업 대상으로 전형화된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유형 안에서 다양성을 발견하여 이를 사업에 적용할 때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이면서 한부모가정을 사업 대상으로 한다거나, 결혼이민자 중에 맞벌이 직장맘을 사업대상으로 정하는 등 유형화된 가족 안에서 다양성을 고려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특정 가족유형에서 대상을 확장’ 하는 방식으로 가족다양성을 확장하려는 노력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조부모와 손자녀로 확대하여 다양한 가족 유형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다양성 적용도 많이 언급되었다. ‘다문화가족 대상’의 사업과 프로그램은 당연히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과 프로그램,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가족,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으로 보았다. 이 세 가지 주제 모두 다문화가족이 가족다양성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가족다양성 프로그램으로 간주하는 기준은 ‘다문화가족’에 있었다. ‘다문화, 비다문화 구분하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 하는 것이라는 응답도 많았는데, 가족을 다문화가족과 그 이외 가족으로 구분하고, 다문화가족이 사업 참여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되어야 가족다양성을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가족 유형의 다양성에서 가족다양성 프로그램의 근거를 찾았고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 하는 사업은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이라고 하였다. 사업 참여 대상으로 여러 유형의 가족을 명시하기도 하고, 특별히 사업 대상에 대한 명시 없이 모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열어 놓는 경우도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으로 보았다. 반면, 사업 내용과 목적에 가족다양성이 반영된 경우를 다양한 가족,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었다. ‘다른 가족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 사업도 다양한 가족, 가족다양성 증진 사업으로 간주하였는데, 사업과 프로그램의 주목적 이외에 부수적인 사업 목표로 ‘다른 가족에 대한 이해’를 설정하여 운영되는 사업들로 예를 들면 가족캠프, 가족품앗이, 가족축제 등이 있다. 반면 사업의 주목적이 ‘다양한 가족을 알아보고 이해하기’에 두는 사업들도 있었다. 일반인들이 가족의 의미와 다양한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가족다양성을 나타내는 사업으로 보았다.

특정 유형의 가족 대상 사업과 프로그램이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사업으로 의미를 갖는다는 답변들도 많았다. ‘전형적 가족(부부와 자녀) 이외의 정책적 이슈가 되는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가족다양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최근 사회적, 정책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다수의 센터에서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맞벌이 가정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관련 정책이 많이 언급된 유형의 가족으로, 가족센터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는 ‘특정 유형 또는 특성을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프로그램도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의 의미를 나타내는 사업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군인가족, 혈연이 아닌 사회적 이슈로 형성된 가족, 예비가족, 조부모, 청소년, 환자가족, 입양가족, 외국인노동자 등이 언급되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가족다양성’의 의미를 담아낸 사업들도 있다. 지역사회의 요구, 지역사회 가족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군인가족, 교통사고 환자가족, 노인가족, 부자가족, 조부모, 군인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가족을 명명하지 않기’를 통해 가족이라면 모두 다양한 가족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사업, 가족의 어떤 특정한 측면 때문에 다양한 가족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가족다양성이 가족의 구조와 유형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특성, 다양한 관계, 가족구성의 특성,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표현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표 5-4> 가족센터의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 또는 프로그램으로 선택한 이유

주제	응답 내용 예시
특정 가족 유형 안에서 다양성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 가정의 형태가 다문화가정이면서 (여성)한부모가정인 점</li> <li>• 한국 배경의 한부모가족 외 다문화 배경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분</li> <li>• 결혼이민자 중 맞벌이 가정/직장맘 대상의 다양한 가족 지원</li> <li>• 돌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등 대상자 확대</li> <li>•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증가</li> <li>• 본 센터에 속해있는 지역은 한부모 부자, 부녀 가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편이며 다양한 가족으로 지원하고 있음</li> </ul>
특정 가족 유형에서 대상의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와 자녀가 아닌 조부모와 손녀가 대상이 되어 가족다양성 추구</li> </ul>
다문화가족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족</li> <li>• 결혼이주여성</li> </ul>

주제	응답 내용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li> <li>• 다문화가족 자녀</li> <li>• 다문화의 여성, 남편, 자녀, 시부모를 아우른다.</li> <li>•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li> <li>• 다문화가족상담</li> </ul>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는 문화다양성·가족다양성 인식개선에 증진</li> <li>• 인식개선 효과</li> <li>• 여전히 다문화가족의 의미에는 다문화/비다문화를 구분하고 있음. 유튜브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게 하여 직간접적, 장기적 인식 개선의 효과를 기대함</li> <li>• 다양한 연령층에 맞춤 교육 및 캠페인 진행으로 통합적인 차별 감수성 증진 환경 조성으로 인식 개선 증진</li> <li>•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으로</li> </ul>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함께참여, 구분 없음, 그러나 기준은 다문화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li> <li>• 참여자 특성의 다양성(다문화 및 비다문화)</li> <li>•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 가족의 소통 교류</li> <li>• 국적을 기준으로(내국인 및 외국인)</li> <li>• 다문화, 비다문화를 구분하지 않는 대상자 선정</li> <li>• 대상자: 다문화 비다문화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가족 참여유도를 함</li> <li>• 다문화 비다문화</li> <li>• 다문화, 일반가정 부부가 함께 관계개선 및 소통</li> <li>•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 공조</li> <li>• 다문화 비다문화 통합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짐</li> <li>• 다문화와 비다문화 통합사업</li> <li>• 다른 지역과 달리 배우자(아내)가 한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여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른 다문화가족과 다른 특성이 있음</li> <li>• 다문화, 비다문화 구분하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li> <li>• 다문화 비다문화 모두 참여 가능</li> </ul>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가족이 함께 문화, 공간, 지역사회 협력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li> <li>• 다양한 국가 및 가정 형태</li> <li>• 변화하는 가족의 유형 반영</li> <li>• 본 행사 시 비다문화 부모+자녀 가족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부스를 운영함</li> <li>• 가족 형태에서의 다양성</li> <li>•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함</li> <li>• 대상자 선정에 있어 2021년 센터 참여 가족 이외에는 제한이 없었음</li> <li>• 품앗이 모임에 제한이 없고</li> <li>• 참여 가정 중 1인 가구, 부부가족(신혼기, 중년기), 성인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등으로 다양한 가족의 참여를 지원함</li> <li>•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포상(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장애가정, 다자녀 가정, 결혼 61주년이상 가정, 다문화가정, 군인가정, 자원봉사실천가정 등) 다양한 가족 모습 사진 공모전</li> <li>• 가족 범주 안에 있는 모든 가족과 참여 대상 가족의 다양성 추구</li> <li>• 조부모-모-자녀, 부-모-자녀, 모-자녀, 모-친척-자녀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 참여</li> <li>• 참여자의 다양성</li> </ul>
다른 가족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에 참가함으로써 여러 유형의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li> <li>• 품앗이 모임에 형성된 그룹원을 통해 각 가족의 고유한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음</li> <li>• 가족 구분 없이 캠프 참여를 통해 스스로 깨닫는 인식개선의 시간이 됨(참여자 소감중_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모_자녀가 있어야 '가족', 누군가 없거나 구성이 조금 다르면 불행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한 가족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직접 접하고 만나보니 우리가족과 다르지 않더라는 의견이 있었음)</li> <li>• 캠프기간 동안 일반가정(표현의 한계로 구분을 일반이라 합니다)들이 다양한 모습의 가족(한부모 다문화 등)들이 누군가는 부재하고 구성원이 다른 모</li> </ul>

주제	응답 내용 예시
	<p>습이지만 가족구성원들 간 밝고 좋은 관계임을 보는 것을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었다고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가족 유형의 구성원들이 돌봄을 나누며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li> </ul>
<p>다양한 가족을 알아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알아보고,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자체가 의미있는 사업이었다고 평가함 -가족 유형을 어디까지 가족으로 볼 것인지 -가족구성원을 어디까지 가족으로 볼 것인지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양한 가족은 다양한 형태, 특성, 구성원 모두를 포함할 수 있음을 아는 것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li> <li>• 1. “다양한 가족“이라는 언어에 대해 접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2. 기존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의 계기를 더 넓혀 ‘가족’이라는 이미지가 엄마, 아빠, 자녀로 구성된 모습이 아닌 다양한 모습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됨</li> <li>• 가족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부모님과 자녀, 또는 조부모님 등 모두 함께 하는 모습의 이미지가 강했고 누군가의 부재는 부족이라는 부정적인 느낌이 강했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가족에 한정된 가족이 아니다 라는 의미</li> <li>•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어떤 가족의 모습이 어도 서로 지지하고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관계로서의 가족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 가족다양성을 나타내는 사업으로서의 의미</li> </ul>
<p>전형적 가족(부부와 자녀) 이외의 정책적 이슈가 되는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 가구 유형 중 높은 비중의 1인 가구 증가/1인 생활 가구/일반적인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1인 가구라는 대상자/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1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1인 가구의 증가/1인 가구 대상/1인 가구의 대상의 특성으로 다양한 가족 구분/시대의 변화에 맞는 가족구성형태로 1인 가구 역시 다양한 가족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어짐/자녀가 포함되어 있어야 가족이라고 정의되는 것이 아닌 대적 흐름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1인 가구 또한 하나의 가구로써 가족의 형태에 포함됨</li> <li>• 한쪽부모, 미혼모 가족/한부모 대상/다양한 가족은 가족구성원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함으로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족 이외에도 모 및 부+자녀로 구성된 가족도 다양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고 판단</li> <li>• 맞벌이 가족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일부/맞벌이 가족 부부는 함께 경제 활동을 하면서 겪는 가족 내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지역 특성(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일·생활균형 거버넌스)에 맞게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함. 맞벌이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의 한정(맞벌이 가정)/지역사회의 맞벌이 가정들을 위한 가족프로그램</li> <li>• 한부모, 조손가정, 청소년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li> <li>•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출산 및 양육 지원</li> </ul>
<p>특정 유형 또는 특성의 가족을 대상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를 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음</li> <li>• 군인이란 대상의 특징으로 다양한 가족으로 구분</li> <li>• 혈연이 아닌 사회적 이슈와 욕구로 가족을 구성</li> <li>• 한부모가족을 제외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의 다양성을 위한 사업</li> <li>• 예비가족</li> <li>• 군인가족이라는 특수성으로 나타나는 가족의 문제가 있어서</li> <li>• 예비부모인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음</li> <li>• 조부모 대상</li> <li>• 가족의 형태(3세대 가족)</li> <li>• 우리나라에는 입양가족이 소수</li> <li>• 환자 가족 구성원 대상</li> <li>•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하는 것이 의미 있음</li> </ul>
<p>지역특성을 반영한 가족다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부대가 많은 특징 및 교통사고로 인한 어려움</li> <li>• 농촌지역으로 노인인구가 35.8%에 해당, 마을은 거의 노인들만 거주하는 수준으로 이에 따른 노인들의 삶의 질과 정서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가족에 노인가구를 포함</li> <li>• 본 센터에 속해있는 지역은 한부모 부자, 부녀 가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편이며 다양한 가족으로 지원하고 있음</li> <li>• 가족의 형태를 국적과 언어 등으로 대상을 구분 짓지 않고 한 개인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li> <li>• 지역의 초고령화 사회현상으로 양육의 형태도 변해가는 상황에 조부모의 역할이 중요시되었으며 양육의 형태가 조부모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li> </ul>

주제	응답 내용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특성을 감안한 군인 1인 가구를 선정</li> <li>지역 특성(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안 일·생활균형 거버넌스)에 맞게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함</li> </ul>
다양한 가족을 명명하지 않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가족은 다양한 가족의 범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측면 때문에 다양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li> <li>가족 범주 안에 모든 가족들의 다양성을 내포</li> </ul>
가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가족다양성	프로그램 내용 중 생애주기별 관련 프로그램 내용 구성 다양한 관계의 가족원(조손, 고부, 장서 등)
	가족의 특성의 다양성(노인, 장애인), 가족 구성 특성별, 생애주기별
	사회적 이슈 또는 문제, 욕구의 변화, 비혼, 이혼 등 확대

응답자가 근무하는 가족센터에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79.3%가 이러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0.7%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반구조화 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사업 또는 프로그램 사례를 작성하게 하였다. 유사한 서술 응답한 내용을 묶어서 주제를 도출하고 각 주제에 대한 응답 내용의 예시를 정리하여 <표 5-5>에 제시하였다.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에 국한하지 않고 ‘2개 이상 유형의 가족이 참여’ 하는 프로그램,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사업’, ‘특정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표 5-5>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

		n = 58	
구분		n	%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	예	46	79.3
	아니오	12	20.7
	합계	58	100.0
※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 사례			
주제	응답 내용 예시		
다문화가족 비다문화가족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사업</li> <li>선주민/이주민 대상</li> <li>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축제</li> <li>다문화 비다문화가족 연계 프로그램</li> <li>일반 시민과 다문화가정의 프로그램 다문화가 일반 가정에게 서비스를 제공</li> <li>중도입국자녀, 다문화, 비다문화 청소년 대상으로 미래 직업 체험 및 진로계획</li> <li>예비부모 및 임신부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반가정 및 다문화 가정 참여(교육과 문화체험 혼용 운영)</li> <li>다문화/비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li> <li>다문화 및 비다문화 가족이 어울려 소통을 돕는 사업</li> </ul>		
2개 이상 유형 가족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가지 유형 이상의 가족 참여(일반+다문화+한부모가족)</li> <li>다함께 요리조리-다양한 가족이 참여하는 요리수업</li> <li>맞벌이/비맞벌이 대상</li> </ul>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통합지원</li> <li>부모역할지원</li> <li>가족축제 가족편지쓰기 각국 나라체험 가족 어울림 한마당, 가족노래자랑</li> <li>가족봉사단</li> <li>가족사랑의 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운동회</li> <li>• 공동육아나눔터</li> <li>• 특정한 유형의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이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열려있습니다.</li> </ul>
특정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한부모사례관리-(다문화한부모)양육비지원사업</li> <li>• 미혼모부자가족 사업</li> <li>• 취약계층 한부모 조손 청소년부모 등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 등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를 통해 정서적지지 및 사회관계망 형성 및 지지체계 마련</li> <li>• 중년의 부부를 위한 리마인드웨딩</li> <li>• 조손가정(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li> <li>• 아버지-자녀 참여 경로당 어르신 대상 교육 및 체험 내용 사업</li> </ul>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장점을 개방형 문항으로 질문하여 서술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표 5-6>과 같은 주제를 도출하였고, 각 주제의 응답 내용 예시도 함께 제시하였다.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가족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어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 할 수 있다는 점을 사업의 장점으로 꼽았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가족들 간에 ‘같음을 발견’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장점이라 하였다. 가족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고, 가족센터의 기존 이용자 가족이 아닌 잠재적 이용자 가족들에게 사업을 확장해 갈 기회라는 장점을 언급하였다. 프로그램에서 대상자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하였다.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단점으로 ‘가족들 간에 소통의 어려움’ 을 들었는데, 특히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의 어려움 등도 언급하였다.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같음을 발견’ 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고, 동시에 ‘같음의 발견’, ‘공통점,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이 단점으로도 언급되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공통점, 공통요소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이 쉽지 않고, 참여자들 안에서 집단문화, 끼리끼리, 경계 등을 무너뜨리기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여러 유형의 가족들이 갖는 프로그램 참여 욕구가 다른데 가족마다 상이한 욕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고, 가족교육의 경우 가족 간 교육이해도의 차이도 있어 이러한 차이를 섬세하게 고려하기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도 단점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과 여러 유형의 가족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지만 결국에는 ‘다문화가족 중심의 사업’ 으로 진행이 되는 어려움도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취약가족으로 인식되어 ‘낙인감’ 이 우려되고, 다양한 가족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가족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또 다른 차별 기준이 될까 우려’ 됨을 지적하였다.

<표 5-6>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

주제	응답 내용 예시
<b>■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 장점</b>	
다름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가족의 수용성.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인식 개선, 소통, 부정적 인식 변화, 상호이해 및 다문화 감수성 증진, 친밀감 및 관계성 확장. 다양한 가족들의 친밀도, 다름에 대한 이해, 베푸는 다문화가정으로 인식개선, 화합의 장 마련, 상호소통</li> </ul>
같음을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유형이 아닌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동질감(동료의식)을 느끼면 편견 해소, 공통점으로 공감대를 나눠서 좋음, 공통주제 공유, 정보제공 기회</li> </ul>
누구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음. 모든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보편적 사업,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 참여, 모든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부분 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li> </ul>
더 많은 대상에게 다가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의 확장. 센터 인지도 상승</li> </ul>
특별한 요구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를 구분하여 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 활동을 통해 손자녀와 함께하는 놀이법 등을 습득</li> </ul>
<b>■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 단점</b>	
가족들 간 소통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교육 시행 시 언어적 어려움이 있어 다문화가족의 참여가 여전히 낮은 편임</li> <li>• 다문화가족이 컴퓨터 사용능력이 떨어져 프로그램 접수할 때 어려움이 있음</li> <li>• 비대면 (Zoom)으로 비대문화와 다문화가족이 함께 할 경우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있음</li> <li>• 언어적 장벽 등 적응 언어 소통</li> <li>•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li> <li>• 의사소통의 어려움</li> <li>• 일반가족이 소통될 동안 기다려줘야 하는 단점</li> <li>• 다른 가족과의 소통, 함께 교류하는 장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 어려움</li> </ul>
공통점, 공감대 형성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분모를 찾아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어려움</li> <li>• 조율하거나,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li> <li>• 서로에 대한 공감대 형성 어려움</li> <li>• 끼리끼리 집단문화가 보임</li> <li>• 서로 간의 경계가 느껴지고</li> <li>• 간혹 결혼이민자가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li> <li>• 관심 주제의 한계</li> <li>• 욕구가 다를 수 있다.</li> </ul>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이해도 다양함을 충족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주민의 욕구가 상이하여 다양한 욕구를 다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li> <li>• 가족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진행기간, 시간, 내용, 진행방법) 등이 다양하여 전체적인 통합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예를 들어 맞벌이 가족의 경우, 주말 사업 선호, 일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 경우, 자녀와 함께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평일 낮, 저녁, 주말 등 다양함</li> <li>• 참여자의 언어 및 문화 이해 수준에 따라 참여 욕구, 이해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참여자 전반을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음</li> <li>• 언어 수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한부모가정(해당없는 부분이라 생각하여)의 불편함 등</li> <li>• 만족도를 높일 수 없음</li> <li>• 교육을 진행할 때 수준 차이로 인한 강의 진행의 어려움 및 만족도가 낮음</li> </ul>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의 비중은 낮은 편임. 다문화가족의 참여율 낮음</li> <li>• 모객이 쉽지 않음</li> <li>• 참여자 모집에 대한 어려움</li> <li>•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li> <li>• 가족 내 여럿이 함께하는 미션과 더불어 활동성이 있다 보니, 1인 가구나 조손가족의 참여는 어려움이 있음</li> <li>•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프로그램 진행 시 어려움이 있음</li> <li>• 대면으로의 교육 및 직접 참여의 어려움</li> <li>• 지역 내에서 많은 대상을 수용할 수 없음</li> </ul>
다문화가족 중심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설계</li> <li>• 다문화라는 인식으로 인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함</li> </ul>
낙인감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인을 줄 수 있음</li> <li>• 가족 유형별 분류가 또 다른 차별 기준이 될까 우려됨</li> <li>• 1인 가구 및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경우 통합운영 시 낙인의 우려</li> </ul>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자유롭게 응답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5-7〉 참조).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에 여러 유형의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참여자의 불만으로 다시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거나,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통합프로그램의 경우 비다문화가족은 사업 실적에 참여 인원으로 입력할 수 없는 행정적인 문제가 여러 유형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라고 하였다. 또한 ‘가족 유형이나 형태에 따른 특수성’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 유형을 명시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명명하지 않기 때문에’ 등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표 5-7〉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

응답 내용 예시	
•	기존에 다문화한부모과정과 비다문화한부모가정이 함께하는 자조모임을 진행하였으나, 다문화한부모과정의 이용자의 불만으로 인해 현재는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	비다문화가족의 경우 실적을 입력할 수가 없음
•	특별히 가족의 유형을 명시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명명하지 않음 - 모두가 다양한 가족에 속해있는 구성원이라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 구분하고 명명하는 것이 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가족구성원 외 다른 가족이 함께 참여가 어려워서
•	가족 유형이나 형태에 따른 특수성 고려

설문지에 다음과 같이 「2022 가족사업안내(I)」(p. 95)의 표(〈그림 5-1〉 참조)에 제시된 기본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들 중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을 고려할 때 시·군·구 가족센터의 중심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서술해 달라고 질문하였다. 응답으로 서술한 내용을 사업영역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표 5-8〉로 요약 정리하였다.

〈그림 5-1〉 「2022 가족사업안내(I)」(p. 95)의 가족센터 기본사업

[2022 가족사업안내]의 가족센터 사업	
사업영역	기본사업
가족관계	부모역할 지원(임신출산(부모)지원, 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지원, 혼례가치교육, 아버지 역할 지원), 부부역할지원(부부갈등예방·해결지원, 노년기 부부지원), 이혼전·후가족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가족상담, 조부모역할 지원
가족돌봄	가족역량강화지원
가족생활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1인가구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 품앗이),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인식개선 및 공동체 의식,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다함께 프로그램, 기타(사업 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업)

[2022 가족사업안내]의 가족센터 사업분류입니다.

위에 제시된 사업과 귀 센터의 별도사업(여성가족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지원)을 고려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세요.

&lt;표 5-8&gt; 「2022 가족사업안내(Ⅰ)」의 기본사업 중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을 고려하여 확대·발전시킬 사업

구분	응답 내용	응답 횟수
가족관계	결혼이민자 고국에 대한 그리움 해소를 위한 집단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	3
	재혼가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1
	생애주기별 부부역할지원/부부역할지원/부부역할지원 /부부역할지원/노년기부부지원/중장년기 부부 생활	6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생애주기별 교육 부모역할지원/부모역할지원/부모역할지원/ 부모역할지원-생애주기별/부모역할지원사업/아버지역할지원사업	7
	다문화자녀성장프로그램/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2
	조부모역할 사업	1
	가족돌봄	가족역량강화사업/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가족생활	1인 가구 사업/1인 가구 지원사업/1인 가구 지원 1인 가구 원가족관계향상/1인 가구 지원사업 1인 가구 지원사업/1인 가구 지원/1인 가구 지원/1인 가구	9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맞벌이가정일가정양립지원	3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봉사단/가족봉사단/가족봉사단/가족봉사단/가족봉사단/ 가족봉사단/가족봉사단/가족봉사단/	8
	공동육아나눔터/품앗이/공동육아나눔터/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품앗이사업/공동육아나눔터/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8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운영/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운영	2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인식개선 및 공동체 의식/인식개선 사업	6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가족친화문화/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가족사랑의날/가족사랑의 날/가족사랑의 날/가족사랑의날	8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가족과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의 사업들	3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1
	다함께 프로그램/다함께프로그램/다함께 프로그램	2
기타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교육 다양한 가족 대상 소통프로그램	2
	다문화, 비다문화가족자녀 프로그램	1
	북한이탈주민사업	1

‘가족관계’ 영역에서는 부모역할지원사업과 부부역할지원사업의 응답 빈도가 각각 7회, 6회로 다수의 응답자가 이 두 사업을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을 고려한 가족센터의 중심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였다. 부부역할지원사업 중 특별히 노년기, 중장년기 부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한 응답자도 있었다. 부모역할지원사업을 응답한 빈도도 높았는데, 생애주기별 부모역할지원, 아버지 역할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가족돌봄’ 영역에서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이 2회 선택되었다.

‘가족생활’ 영역에서는 1인 가구 지원사업이 9회,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사업이 3회 선택되었고,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은 언급되지 않았다. 1인 가구 지원사업이 가족다양성과 다양한 가족을 고려한 중심사업으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에서는 가족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품앗이 포함)가 각각 8회의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빈도를 보였다. 가족센터의 지역공동체 사업 중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을 고려한 중심사업으로 가족봉사단과 공동육아나눔터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사업의 응답 빈도가 6회로 높았고,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과 가족사랑의 날이 각각 4회의 응답 빈도를 나타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응답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의 전체 사업들을 언급한 응답도 3회 있었다. 기타 응답으로 다양한 가족 수용성, 소통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사업 등이 있었다.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에 조사대상자는 「2022 가족사업안내(I)」(p. 95)에 제시된 기본사업 중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을 고려할 때 변화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였다. 응답을 정리한 결과는 <표 5-9>와 같다.

가족상담, 부부역할지원, 부모역할지원, 가족친화문화, 1인 가구 지원, 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날,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사업은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하여 가족센터가 확대 발전시켜야 할 사업들로 다빈도로 언급된 사업들이다. 가족상담, 가족관계 사업에 다양한 가족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부부역할지원, 혼례가치교육, 조부모역할지원은 대상층을 명확히 하고, 사업 중복성을 줄이고, 가족 안에서의 새로운 대상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변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1인 가구 지원사업의 모호성을 개선하고 보다 상세한 사업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가족봉사단 등은 다양한 가족이 참여하고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들 대부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초기정착지원사업은 현재 새로 유입되는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코로나19 이후 매우 많이 줄었음에도 이 사업을 이전의 예산 규모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은 지역의 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사업을 이관하고, 정착단계별 패키지도 사업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보다 폭넓게 가족다양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교류소통 공간도 다문화가족을 분리해서 운영하지 않고 모든 가족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사업도 다문화가족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제약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 등 다문화가족으로 사업 대상이 명시된 사업들의 대상을 다문화가족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또는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5-9> 「2022 가족사업안내(I)」의 기본사업 중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을 고려하여 변화가 필요한 사업

구분	응답 내용 예시
가족상담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전문가 양성 등
가족관계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 연계

구분	응답 내용 예시
부부역할지원	인력, 예산 대비 세분화 되어 있고, 가족센터의 대상층 명확(타겟층)하게 하여 가족서비스 지원 필요
혼례가치교육	지역, 센터마다 예비부부교실을 진행하는데 내용이 겹칠 수 있고, 타이틀도 올드함
조부모역할지원	핵가족화와 가족의 관계가 느슨해져 조부모가 가정 안에서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봄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다양한 가족이 참여할 수 있으면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음
가족친화문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가족의 인식 변화를 고취 시키지 못함
1인 가구 지원	1인 가구 지원사업 진행 시, 신청대상의 모호성(예비 1인 가구의 범위와 증빙의 어려움)
	정보력이 높은 청년 1인 가구 등은 다양한 기관 프로그램 중복 참여
	참여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 개편 및 신규사업 고민 필요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대상만 있고 대상에 맞는 사업에 대한 제시가 없어서
	특정 가족으로만 나눔봉사단을 운영하는 게 장단점이 있음
가족사랑의 날	가족봉사단의 목적성 및 내용 변화가 필요
	가족내 가족 간 유대감 형성 필요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다양한 가족을 고려한 인식개선이 아직 많이 필요함
	사업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다문화(이주여성/ 남성) 가족의 중년기, 노년기 준비 교육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음, 진행에 있어 모호성이 있음
	정착기에 진입한 다문화가정이 경제생활 주체가 내국인 남성에서 이주여성으로 이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생활교육이 필요함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다문화가족만 한정되는 사업이며, 이제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 단계는 지났다고 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가족센터의 역량으로는 역부족임/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의 공조 필요
	취업은 새일센터의 영역 센터에서 취업까지 연계를 시키기 어려움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패키지	결혼이민자도 다양한 모습 구성이 있는데 사업 운영이 고정화 되어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려움
	다양한 초기적응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나 싶음
	대상자의 욕구와 맞지 않는 필수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지원	특별히 다문화가족의 초기정착지원이나,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가 아닌 이상 다문화가 기재된 사업은, 센터가 통합됨에 따라 다문화만 별도로 지원 하는 것이 아닌 통합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사료됨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과 유사하여 사업 운영에 변화가 필요함
	다문화가족이라고 국한되어 진행하지 말고 다양한 가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이라고 명시된 사업들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는 하지만 다문화 관련 집중 사업이 너무 많음
	가족센터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보편복지보다는 다문화가족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중복사업으로 되어 있음
	다문화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너무 많음, 지침들이 명확하여 확장하기 어려움
	다문화만을 차별적으로 포커스한 사업이다.

구분	응답 내용 예시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	가족관계-다문화자녀 성장지원사업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 통합해도 될 것 같음 사업 운영상 회기 수 및 운영방식의 재논의 필요
찾아가는 다이음 사업/ 다문화사회이해교육	현재 다문화이해교육 및 인식개선사업과 중복됨, 점검필요 찾아가는 문화다양성의 어려움
다문화가정교류 소통 공간	다문화 가족을 나누지 않고 모든 가정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필요
다문화어울림 한마당	다문화 위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이중언어코치의 전문성 및 모집 대상군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
사업명에 다문화/비다문화, 내국인/외국인이 지칭되거나, 대상자기준에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	대상자 입장에서 참여가능 여부가 혼동되거나 낙인을 우려할 수 있음
사업 영역, 사업 내용의 구분	실제로 한 사업을 기획할 때 다양한 부분을 다룰 수 있으나, 프로그램 영역 구분을 해놓다 보니 그 부분을 구분해가며 계획해야 하는 어려움(실적보고 부분, 사업 서철 부분 등)

「2022 가족사업안내(I)」의 기본사업 중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을 고려하여 시도가족센터가 주관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표 5-10>에 정리하였다. 가족상담 사업에서 다문화가족 상담이 가능한 통번역사 지원 또는 광역센터에서 가족상담사업 주관 등의 의견이 있었다. 가족문화사업 중 가족봉사단, 가족캠프, 가족축제, 가족사랑의 날 등을 광역센터가 대규모, 더 많은 예산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하였다. 가족다양성 관련 인식개선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들도 광역자치단체 규모로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강사 양성 및 배치 등도 광역센터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중 시·군·구 단위에서 대상자 확보가 어려운 사업들은 광역센터가 맡기를 희망하였고, 권역별로 수행하고 있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도 광역 가족센터 차원에서 주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족센터의 기본사업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다양화를 제안하였다. 특정 유형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신규사업들을 광역 가족센터에서 주관하기를 희망하였고, 가족센터 종사자들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및 감수성 증진을 위한 종사자교육과 다양한 가족, 모든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가족센터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가족센터 홍보도 시도가족센터에서 주관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5-10> 「2022 가족사업안내(I)」의 기본사업 중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을 고려하여 시도가족센터가 주관하기를 희망하는 사업

영역 분류	시도가족센터 주관 희망사업	이유 (응답 예시)
가족상담	다문화가족 상담지원을 위한 상담통번역 인력 양성	다문화가족의 가족 내 어려움이 존재하고 예방적 차원의 상담지원 활성화를 위해 상담 통번역사 필요하다고 생각됨
	상담사업	기본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사의 인력배치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음, 상담인력이 없어 타센터로 이관하고 있는 상황임,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시도가족센터가 주관하길 원함

영역 분류	시도가족센터 주관 희망사업	이유 (응답 예시)	
가족문화	가족봉사단	대규모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치구가 아닌 광역에서 가족봉사단을 연합으로 진행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가족캠프	큰 예산이 필요하므로 지역센터에서 진행이 어려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가족축제	지역 내에서 다양한가족에 대한 축제행사를 하기 어려움 가족축제 대상이 아직은 3인 이상의 가족에 국한되어 있음	
	가족사랑의 날	좀 더 다양한 가족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인식개선 및 공동체 의식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문화다양성 이해교육(다문화 비다문화 가족소통 및 인식개선교육)	가족다양성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기관차원에서 소규모로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업임 시단위 홍보가 아닌 도단위 대대적인 홍보 필요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강사 양성, 분야에 대한 전문 강사의 필요성 주민참여형소통프로그램:시민의 인식개선 향상 및 소통의 기회제공	
	다양한 가족의 이해 - 캠페인, 홍보 형식의 대대적인 프로그램 진행	다양한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을 통해 현대 가족에 대한 의미를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작업이 요구됨	
	자녀 또는 노년기 대상 인식개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인식 개선 필요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소통·교류 프로그램	만날 수 있는 공간 및 활동 제공이 필요	
	중도입국자녀와 한국자녀의 멘토링 맺기	그들의 삶에 지지자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필요한 사업이나 코로나19로 초기 결혼이민자 입국이 없어 1-2명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시도가족센터에서 주관하는 것도 바람직함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취약계층은 역량강화 지원교육이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 참여하고자 하나 공감할 시간이 없음 비다문화도 포함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기본사업의 간소화 가족센터 기본사업		센터에서 지역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포괄화 필요 기본사업의 다양성	
특정 유형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삼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녀들에게 인성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중요함	
	수형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수형자 가족 해체 예방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대상발굴의 어려움	
	1인 가구 사업	혼자 사는 다양한 가족이 많기 때문에	1인 가구 사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니, 1인 가구 센터를 별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게 좋겠음
		규모와 요구가 급속도로 커짐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방향에 대한 지원 필요	
		연령별 1인 가구 수 증가	
지역별 꼭 필요사업이라 생각			
여가부 1인 가구와 도지원 1인 가구가 중첩됨, 확인필요			
종사자 역량 강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및 감수성 증진 필요	
가족센터 홍보		다양한 가족을 알리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면	

영역 분류	시도가족센터 주관 희망사업	이유 (응답 예시)
		센터 홍보가 대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사업보다는 적극적인 홍보
		센터/사업에 대한 홍보를 큰 단위에서 접근하여 효율성을 높 이길 희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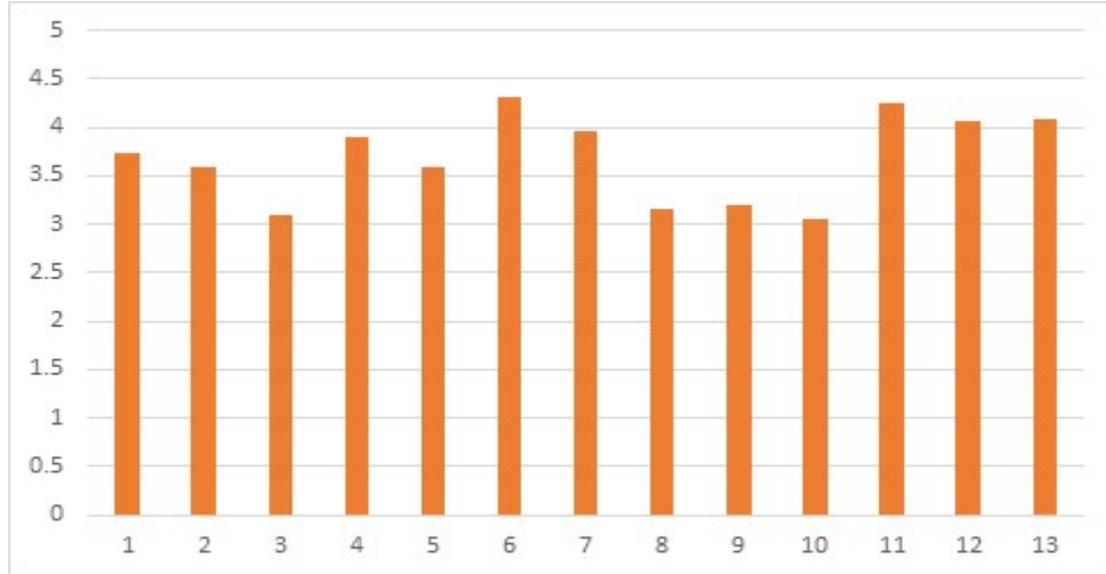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과 관련된 내용을 13 문항으로 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 ‘아닌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중 응답자의 생각과 가장 근접한 응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5-11>에 제시하였고, 각 문항의 평균값을 도표(<그림 5-2 > 참조)로 나타냈다.

가장 점수가 높은, 즉 어려움이 크다고 느끼는 문항은 ‘종사자의 업무량이 많아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기 어렵다.’로 5점 만점에 평균 4.31점이었다. 다음으로 점수가 높은 문항은 ‘센터 내 사업들이 세분되어 사업 운영 및 예산 관리 업무가 과도하다.’로 4.25 점, ‘사업 대상이 다문화가족에 한정된 사업들이 많아 다양한 대상으로 확장하기 어렵다.’는 4.08점, ‘가족다양성을 확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침이나 안내가 부족하다.’는 4.06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이 어렵고, 운영 및 예산 관리 등 행정적 업무가 과도하고, 다문화가족에 한정된 사업들이 많아 다양한 가족으로 확장성이 부족하고,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에 대한 지침과 안내가 부족한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은 문항은 지역주민의 협조(평균 3.06점), 센터 종사자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이해(평균 3.10점), 지역 사회 연계(평균 3.16점) 등으로 나타났다.

<표 5-11>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수행의 어려움

구분	n = 51	
	M	SD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	3.73	0.918
사업 안내, 지침 등에 다양한 가족, 가족다양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사업 기획과 진행이 어렵다.	3.59	1.080
가족다양성에 대한 센터 종사자의 이해가 부족하다.	3.10	1.025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3.90	0.964
효과적인 프로그램 관리 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3.59	0.898
종사자의 업무량이 많아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기 어렵다.	4.31	0.836
시설 및 환경이 사업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	3.96	0.871
지역사회에서 관련 기관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3.16	1.027
지역사회 유사 기관 간에 사업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3.20	1.132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다.	3.06	0.925
센터 내 사업들이 세분되어 사업 운영 및 예산 관리 업무가 과도하다.	4.25	0.913
가족다양성을 확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침이나 안내가 부족하다.	4.06	0.810
사업 대상이 다문화가족에 한정된 사업들이 많아 다양한 대상으로 확장하기 어렵다.	4.08	0.997

&lt;그림 5-2&gt;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수행의 어려움



1.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
2. 사업 안내, 지침 등에 다양한 가족, 가족다양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사업 기획과 진행이 어렵다.
3. 가족다양성에 대한 센터 종사자의 이해가 부족하다.
4.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5. 효과적인 프로그램 관리 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6. 종사자의 업무량이 많아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기 어렵다.
7. 시설 및 환경이 사업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
8. 지역사회에서 관련 기관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9. 지역사회 유사 기관 간에 사업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10.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다.
11. 센터 내 사업들이 세분되어 사업 운영 및 예산 관리 업무가 과도하다.
12. 가족다양성을 확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침이나 안내가 부족하다.
13. 사업 대상이 다문화가족에 한정된 사업들이 많아 다양한 대상으로 확장하기 어렵다

점수: 1=전혀 아니다 2=아닌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응답자가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였다. 그 결과는 <표 5-12>에 요약 정리하였고, <그림 5-3>으로 제시하였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1순위로 선택한 항목 중 다수가 선택한 항목은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19.6%)’, ‘종사자의 업무량이 많아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기 어렵다.(19.6%)’, ‘사업 대상이 다문화가족에 한정된 사업들이 많아 다양한 대상으로 확장하기 어렵다.(13.7%)’, ‘사업 안내, 지침 등에 다양한 가족, 가족다양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사업 기획과 진행이 어렵다.(11.8%)’, ‘센터 내 사업들이 세분되어 사업 운영 및 예산 관리 업무가 과도하다.(11.8%)’ 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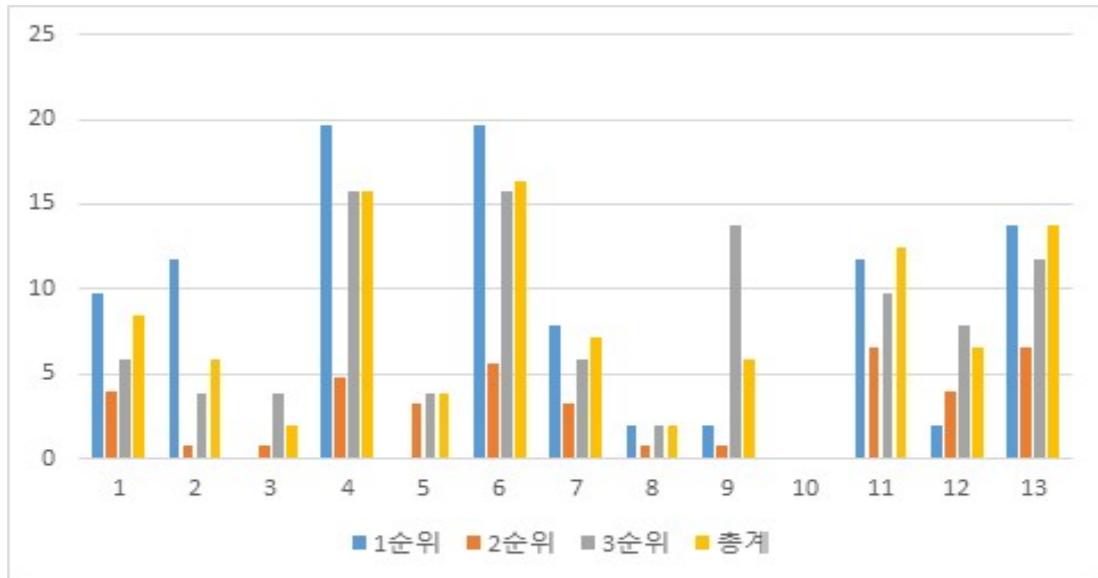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한 빈도를 합산한 결과 ‘종사자의 업무량이 많아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기 어렵다.(16.3%)’,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15.7%)’, ‘사업 대상이 다문화가족에 한정된 사업들이 많아 다양한 대상으로 확장하기 어렵다.(13.7%)’, ‘센터 내 사업들이 세분되어 사업 운영 및 예산 관리 업무가 과도하다.(12.4%)’ 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5-12>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수행의 어려움 중 시급해 해결해야 할 것

n = 51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n	%	n	%	n	%	n	%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	5	9.8	5	4.0	3	5.9	13	8.5
사업 안내, 지침 등에 다양한 가족, 가족다양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사업 기획과 진행이 어렵다.	6	11.8	1	0.8	2	3.9	9	5.9
가족다양성에 대한 센터 종사자의 이해가 부족하다.	0	0.0	1	0.8	2	3.9	3	2.0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10	19.6	6	4.8	8	15.7	24	15.7
효과적인 프로그램 관리 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0	0.0	4	3.2	2	3.9	6	3.9
종사자의 업무량이 많아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기 어렵다.	10	19.6	7	5.6	8	15.7	25	16.3
시설 및 환경이 사업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	4	7.8	4	3.2	3	5.9	11	7.2
지역사회에서 관련 기관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1	2.0	1	0.8	1	2.0	3	2.0
지역사회 유사 기관 간에 사업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1	2.0	1	0.8	7	13.7	9	5.9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다.	0	0.0	0	0.0	0	0.0	0	0.0
센터 내 사업들이 세분되어 사업 운영 및 예산 관리 업무가 과도하다.	6	11.8	8	6.5	5	9.8	19	12.4
가족다양성을 확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침이나 안내가 부족하다.	1	2.0	5	4.0	4	7.8	10	6.5
사업 대상이 다문화가족에 한정된 사업들이 많아 다양한 대상으로 확장하기 어렵다.	7	13.7	8	6.5	6	11.8	21	13.7
합계	51	100.0	51	100.0	51	100.0	153	100.0

<그림 5-3>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수행의 어려움 중 시급해 해결해야 할 것



1.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
2. 사업 안내, 지침 등에 다양한 가족, 가족다양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사업 기획과 진행이 어렵다.
3. 가족다양성에 대한 센터 종사자의 이해가 부족하다.
4.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5. 효과적인 프로그램 관리 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6. 종사자의 업무량이 많아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기 어렵다.
7. 시설 및 환경이 사업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
8. 지역사회에서 관련 기관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9. 지역사회 유사 기관 간에 사업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10.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다.
11. 센터 내 사업들이 세분되어 사업 운영 및 예산 관리 업무가 과도하다.
12. 가족다양성을 확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침이나 안내가 부족하다.
13. 사업 대상이 다문화가족에 한정된 사업들이 많아 다양한 대상으로 확장하기 어렵다.

「2022 가족사업안내(I)」의 내용이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대상 서비스 확대 방향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질문한 결과, 5점 만점에 3.08점으로 보통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표 5-13> 참조). 「2022 가족사업안내(I)」가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가족서비스의 지침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응답으로 서술한 내용을 분석하여 공통된 주제를 도출한 결과 ‘세부 사업 이해 어려움’, ‘사례와 활용방안 필요’,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설명 부족’, ‘신규사업에 대한 교육 및 다양한 가족 매뉴얼 필요’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2022 가족사업안내(I)」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한 안내는 있으나 다양한 가족 사업에 대한 안내가 없어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2022 가족사업안내(I)」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영역별 기본사업 세부 내용에 대한 상세 운영 안내 또는 연도별 사업에 대한 Q&A를 제공하거나, 기본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사업에 적용할 수 있게 적용 사례를 제시하거나 활용방안을 안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2022 가족사업안내(I)」에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의 정의와 의미가 불분명하고, 전반적으로 다양한 가족을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오는 적용의 한계를 언급하였다. 다양한 가족,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을 매뉴얼화하는 것의 한계도 지적하였는데, 사업 내용을 매뉴얼화하면 초기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새로운 사업을 확장할 때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2022 가족사업안내(I)」에서는 가족다양성의 범위와 정의를 제시하는 정도로 사업의 방향성을 알려준다면 각 센터에서 이를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반면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 매뉴얼이 개발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신규사업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 매우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5-13> 「2022 가족사업안내(I)」의 내용과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수행의 어려움

단위: 명, %

「2022 가족사업안내(I)」의 내용이 센터에서 ‘가족다양성’ 확장, ‘다양한 가족’ 대상 서비스 확대 방향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i>n</i>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5.9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10	19.6
보통이다	21	41.2
도움이 되는 편이다	14	27.5
매우 도움이 된다.	3	5.9
	<i>M</i>	<i>SD</i>
「2022 가족사업안내(I)」의 내용이 센터에서 ‘가족다양성’ 확장, ‘다양한 가족’ 대상 서비스 확대 방향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 되는 정도	3.08	0.977

「2022 가족사업안내(0)」가 ‘가족다양성’ 확장, ‘다양한 가족’ 대상 서비스 확대에 대한 지침으로 부족한 부분	
주제	응답 내용 예시
세부 사업 이해 어려움	사업 안내의 포괄적 내용으로 다양한 가족 사업에 대한 안내는 없음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내가 있을 뿐, 그 외 구체적인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음
	-영역별 기본사업 세부 내용에 대한 상세 운영 안내 -년도별 사업 안내에 대한 Q&A 첨부
	충분한 설명과 영역 제시가 되지 않음(유사 사업이 많으며, 지침으로는 세부 사업 이해에 대한 한계가 있음)
	세부 개념과 내용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음
사례와 활용방안 필요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들 프로그램시 예시(언어, 소외감, 삶의 수준 차이)
	다양한 사례나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이나 언급이 없어 전체적인 방향성을 센터 자체적으로(종사자 의견, 욕구조사 보고서 등) 계획 수립 및 운영
	1인가족과 원가족, 다문화가족과 중도입국자녀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설명 부족	사업을 실시할 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의나 가족다양성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주었으면 함
	-다양한 가족이 다문화와 비다문화로 크게 나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음. 사업 내용이 매뉴얼화 되어있다면, 초기 진행은 도움이 되지만, 새로운 사업 확장에 있어 제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다양한 가족, 가족다양성에 대한 범위와 정의? 도 알 필요가 있음 -가족다양성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함(별도 교육 진행도 좋을 것 같음)
	다양한 가족의 대상 구분
신규사업에 대한 교육 및 다양한 가족 매뉴얼 필요	신규사업에 대한 교육 시급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매뉴얼이 개발되었으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음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목표 중 ‘가족다양성 인정’이 가족서비스 실무에서 잘 구현되고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여성가족부의 정책과제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원에 대해 12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응답하게 하였다. <표 5-14>에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그림 5-4>에 각 문항의 평균값의 분포를 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또한, 12개의 문항 내용 중 현재 가장 시급히 필요한 3개를 중요한 순서로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응답 결과를 빈도와 백분율(<표 5-15> 참조)로 제시하고 1순위, 2순위, 3순위, 총합의 중요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림 5-5>에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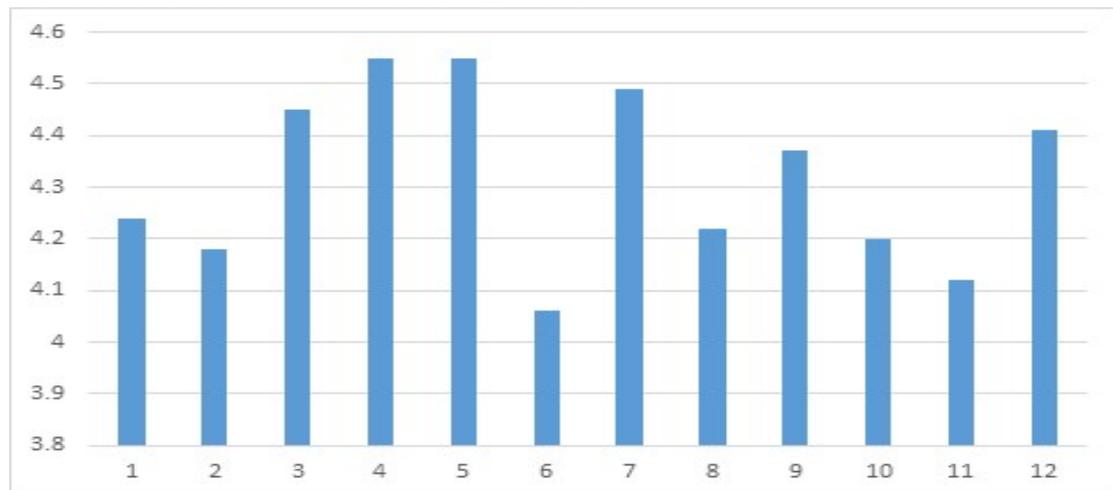
먼저 각 문항의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사업 간 예산 집행 칸막이 삭제 및 집행 자율성 확보(평균 4.55점)’와 ‘기본사업, 별도사업의 운영 인력 구분 및 상이한 처우 개선(평균 4.55점)’이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양한 가족 사업에 대한 여성가족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평균 4.49점)’,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 확장을 위한 예산 확대(평균 4.45점)’,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실무 행정체계 일원화(예. 센터 고유번호증, 차량 명의 등)(평균 4.41점)’가 중요도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다른 문항들에 대한 응답에서도 현재 가족센터의 예산이 사업별로 구분 지정되어 있고,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어 사업수행에서 다문화가족 이외의 가족다양성 확장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던 것과 유사한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

<표 5-14> '가족다양성 인정'이 가족 사업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여성가족부의 정책과제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원

n = 51

구분	M	SD
다양한 가족 사업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4.24	0.764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용자 및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4.18	0.767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 확장을 위한 예산 확대	4.45	0.702
사업 간 예산 집행 칸막이 삭제 및 집행 자율성 확보	4.55	0.610
기본사업, 별도사업의 운영 인력 구분 및 상이한 처우 개선	4.55	0.702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4.06	0.732
다양한 가족 사업에 대한 여성가족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4.49	0.644
다양한 가족 관련 특화사업 개발, 발굴 및 확산	4.22	0.757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4.37	0.69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자료 개발 및 보급	4.20	0.825
다양한 가족 사업 강사 발굴 및 양성	4.12	0.816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실무 행정 체계 일원화(예. 센터고유번호증, 차량 명의 등)	4.41	0.726

<그림 5-4> '가족다양성 인정'이 가족 사업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여성가족부의 정책과제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원



1. 다양한 가족 사업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용자 및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3.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 확장을 위한 예산 확대
4. 사업 간 예산 집행 칸막이 삭제 및 집행 자율성 확보
5. 기본사업, 별도사업의 운영 인력 구분 및 상이한 처우 개선
6.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7. 다양한 가족 사업에 대한 여성가족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8. 다양한 가족 관련 특화사업 개발, 발굴 및 확산
9.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10.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자료 개발 및 보급
11. 다양한 가족 사업 강사 발굴 및 양성
12.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실무 행정 체계 일원화(예. 센터 고유번호증, 차량 명의 등)

점수: 1=거의 중요하지 않다 2=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중요한 편이다 5=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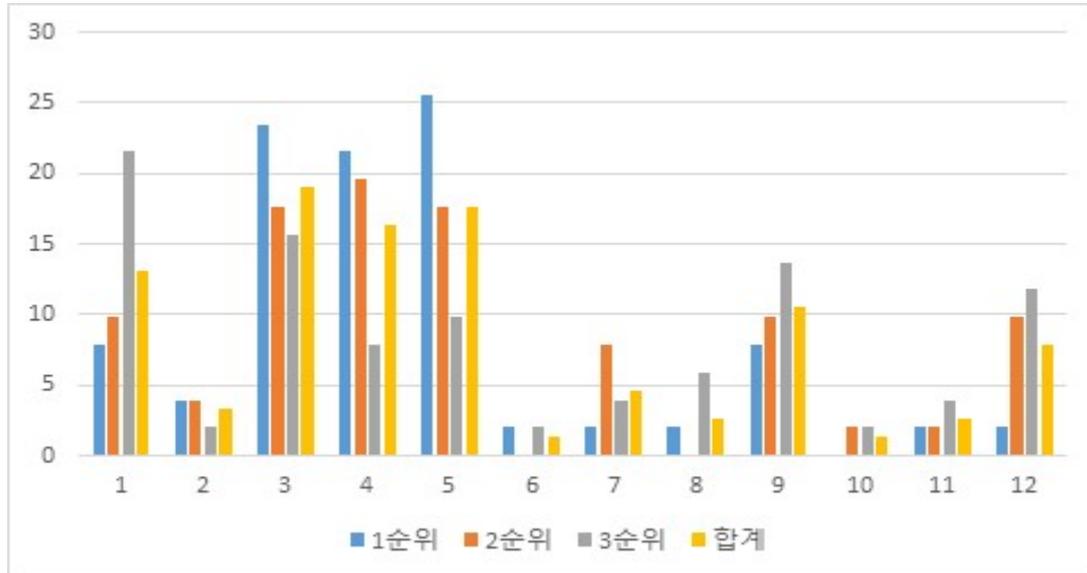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족서비스 실무에서 잘 구현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여성가족부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원 사항을 가장 시급한 순서로 3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1순위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항목은 ‘기본사업, 별도사업의 운영 인력 구분 및 상이한 처우 개선(25.5%)’,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 확장을 위한 예산 확대(23.5%)’, ‘사업 간 예산 집행 칸막이 삭제 및 집행 자율성 확보(21.6%)’로 나타나, 각 문항의 중요도 응답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순위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낸 3개 문항도 1순위의 3개 문항과 동일하다. 반면 3순위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낸 문항은 ‘다양한 가족 사업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21.6%)’이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의 합계를 낸 결과 상위 5개 문항은 ‘기본사업, 별도사업의 운영 인력 구분 및 상이한 처우 개선(17.6%)’,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 확장을 위한 예산 확대(19%)’, ‘사업 간 예산 집행 칸막이 삭제 및 집행 자율성 확보(16.3%)’, ‘다양한 가족 사업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13.1%)’,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 매뉴얼 개발 및 보급(10.5%)’이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가족센터 중간관리자들이 생각하는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족센터의 가족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시급히 지원되고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5-15>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정책과제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원 중 시급히 필요한 일

$n = 51, n = 153$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i>n</i>	%	<i>n</i>	%	<i>n</i>	%	<i>n</i>	%
다양한 가족 사업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4	7.8	5	9.8	11	21.6	20	13.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용자 및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2	3.9	2	3.9	1	2.0	5	3.3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 확장을 위한 예산 확대	12	23.5	9	17.6	8	15.7	29	19.0
사업 간 예산 집행 칸막이 삭제 및 집행 자율성 확보	11	21.6	10	19.6	4	7.8	25	16.3
기본사업, 별도사업의 운영 인력 구분 및 상이한 처우 개선	13	25.5	9	17.6	5	9.8	27	17.6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1	2.0	0	0.0	1	2.0	2	1.3
다양한 가족 사업에 대한 여성가족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1	2.0	4	7.8	2	3.9	7	4.6
다양한 가족 관련 특화사업 개발, 발굴 및 확산	1	2.0	0	0.0	3	5.9	4	2.6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7.8	5	9.8	7	13.7	16	10.5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자료 개발 및 보급	0	0	1	2.0	1	2.0	2	1.3
다양한 가족 사업 강사 발굴 및 양성	1	2.0	1	2.0	2	3.9	4	2.6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실무 행정 체계 일원화(예. 센터고유번호증, 차량 명의 등)	1	2.0	5	9.8	6	11.8	12	7.8
합계	51	100.0	51	100.0	51	100.0	153	100.0

<그림 5-5>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정책과제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원 중 시급히 필요한 일



1. 다양한 가족 사업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2.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용자 및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3.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 확장을 위한 예산 확대
4. 사업 간 예산 집행 간막이 삭제 및 집행 자율성 확보
5. 기본사업, 별도사업의 운영 인력 구분 및 상이한 처우 개선
6.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7. 다양한 가족 사업에 대한 여성가족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8. 다양한 가족 관련 특화사업 개발, 발굴 및 확산
9.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10.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자료 개발 및 보급
11. 다양한 가족 사업 강사 발굴 및 양성
12.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실무 행정체계 일원화(예. 센터 고유번호증, 차량 명의 등)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과 관련하여 가족센터가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질문하였고, 서술형으로 작성한 응답을 분석하여 <표 5-16>과 같이 공통 주제를 도출하였다. 가족센터 중간관리자들이 생각하는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가족센터의 강점으로 ‘문화다양성, 다문화가족 관련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었다. 가족센터로 통합하기 이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을 오랫동안 수행해온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있는 것,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사업 등 지역사회에 문화다양성 확산과 수용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노하우 등을 제시하였다. ‘가족다양성 인식 확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가족이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도 가족센터가 가족다양성과 다양한 가족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았다. 지역사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다양성 인식 확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족센터의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다양한 가족이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에서 가족센터의 강점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가족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모든 가족에게 열려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이므로 모든 가족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성도 가족센터의 장점이

고, ‘가족 대상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관련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은 것과 더불어 ‘가족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도 장점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업 방법’을 통해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하였다.

<표 5-16>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과 관련하여 가족센터가 잘 수행하고 있는 역할

주제	응답 내용 예시
문화다양성, 다문화가족 관련 전문서비스	가족센터가 다문화센터로 인식될 만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다문화라는 말 그대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현하고 있음
	다문화가족분이 센터 오시면 원스톱으로 연결
	찾아가는 문화다양성교육·인식개선 캠페인 진행자
	다문화가족사업
가족다양성 인식 확장 프로그램	가족다양성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지역민들의 인식개선 사업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가족 편견 없애기
	인식개선 교육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
	다양한 가족 관련 프로그램 등으로 인식개선
	다양성에 대한 홍보
다양한 가족이 소통하는 프로그램	편견 없는 가치관 및 경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한 사업 운영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 제공
모든 가족에 열려있는 사업과 프로그램	여러 유형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최대한 다양한 시민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다양한 가족의 발굴 및 지원
	가족이라는 관점을 넓게 보고, 어떤 특정 가족으로 국한하지 않고 지역의 다양한 가족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 하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가족센터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가족단위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가족친화문화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됨
	가족의 다양성과 관계없이 모든 가족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
	모든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가족의 유형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보편적으로 접근하고
	모든 가족 사회적 통합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가족을 위한 차별적 서비스 제공 및 편견개선의 역할
다양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	
가족 대상 서비스 전문기관	모든 가족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가족서비스를 제공
	가족 건강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에 대한 문제와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역할로 인식됨
	가족센터의 정체성을 가지고 각 센터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
가족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전문성	생애주기별 교육
	생애주기별 세분화된 교육

주제	응답 내용 예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실제 가족들이 서로의 가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음
	가족 단위 프로그램 운영
	부모역할(부모교육), 상담사업, 다문화가족 대상 다양한 서비스 제공
다양한 사업 방법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통합프로그램을 위한 노력
	대상 가족 특성에 필요한 통합프로그램 제공
	대상자에 따른 교육 주제 선정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사업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 기획
	-지역적 특성에 따른 가족 사업의 고민과 수행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사업의 개발과 참여 독려 -지속적인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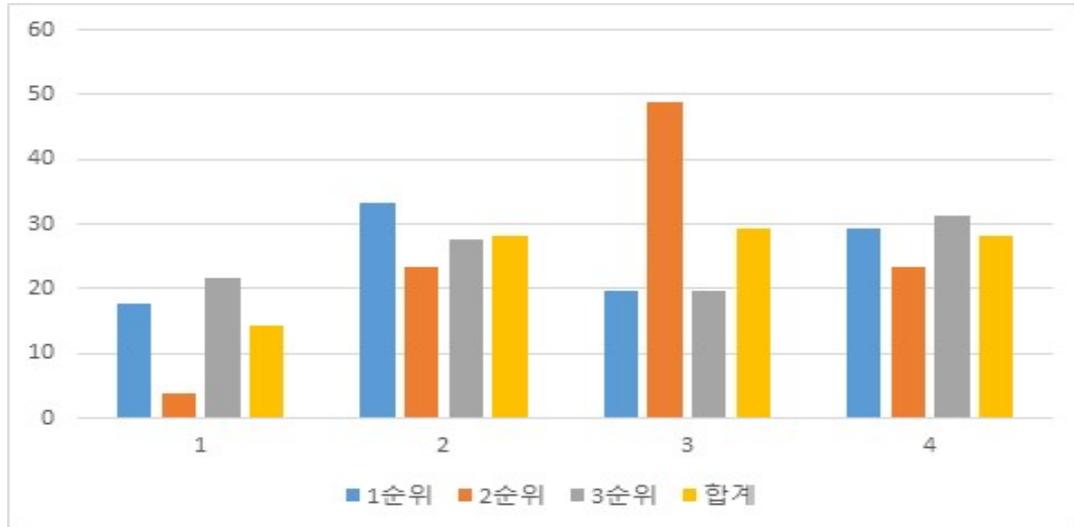
시·군·구 가족센터의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중요한 사업영역을 선택하는 질문에 <표 5-17>과 같은 응답 결과가 나왔다(<그림 5-6> 참조). 1순위로 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은 ‘지역사회 주민 대상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인식 개선/ 수용성 증진 사업’으로 33.3%가 이 항목을 1순위로 선택하였다. 2순위에 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사업’으로 49.0%가 선택하였다. 3순위에 높은 비율로 선택된 항목은 ‘다양한 가족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31.4%가 선택하였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합계 빈도의 비율을 보면 앞의 3개 항목의 선택 비율이 28.1%~29.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센터에서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이 아니며, 지역사회 주민 대상 수용성 증진 사업,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가족 간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을 비슷한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7>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시·군·구 가족센터 사업영역으로 중요한 것

n = 51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n	%	n	%	n	%	n	%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사업	9	17.6	2	3.9	11	21.6	22	14.4
지역사회 주민 대상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인식 개선/수용성 증진 사업	17	33.3	12	23.5	14	27.5	43	28.1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사업	10	19.6	25	49.0	10	19.6	45	29.4
다양한 가족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15	29.4	12	23.5	16	31.4	43	28.1
합계	51	100.0	51	100.0	51	100.0	153	100.0

&lt;그림 5-6&gt;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시·군·구 가족센터 사업영역으로 중요한 것



1.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사업
2. 지역사회 주민 대상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인식 개선/수용성 증진 사업
3.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사업
4. 다양한 가족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응답자가 근무하는 센터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가족, 가족다양성과 관련하여 새롭게 발견되는 욕구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가족센터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반구조화 된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응답자가 서술한 내용을 분석하고 공통주제를 도출하였고 각 주제의 응답 예시를 <표 5-18>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지역사회의 가족다양성 관련 욕구를 충족하는데 가족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로 ‘가족다양성 확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 대상 발굴’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 지자체의 요구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 대상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가족다양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기’도 가족센터가 할 일이라고 보았고, 지역사회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요구를 가족센터 사업을 통해 충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의 현황 및 욕구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가족센터가 이러한 욕구조사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 적합한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도 해야한다고 보았다. 가족센터가 생산한 지역사회의 가족다양성 관련 욕구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가족다양성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가족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확보’, ‘서비스 제공 방식 및 공간 제공’도 지역사회 가족다양성 확장을 위해 가족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가족센터가 ‘모든 가족을 위한 가족센터의 정체성’을 잘 만들어 가는 것도 지역사회에서 가족다양성 인정을 위한 가족센터의 기본적인 역할로 제시하였다.

<표 5-18>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지역사회의 새로운 욕구를 반영한 가족센터 역할

주제	응답 내용 예시
가족다양성 확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 대상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주민, 유학생(장기 한국생활 정착 및 우수 인재 유치 차원에서) 지원까지 포괄할 필요성을 구에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센터 수용성(예산, 사업, 인력 등)이 필요한 상황임</li> <li>• 1인 가구 연령층의 규제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 제한(중장년40세-64세)</li> <li>• 난민 등 사각지대 가족</li> <li>•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체험 및 교육중대(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li> </ul>
가족다양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다양성에 대해 지역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li> <li>•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li> <li>• 다양한 가족에 관한 인식개선 및 수용성 증진캠페인</li> <li>• 인식개선 캠페인, 다양한 프로그램</li> <li>• 가족 차별과 편견 해소</li> <li>• 적극적 홍보</li> </ul>
지역사회의 가족다양성, 다양한가족의 현황 및 욕구를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욕구를 해소 할 수 있는 서비스 안내 및 제공</li> <li>• 욕구를 반영한 사업 진행, 욕구조사</li> <li>• 욕구기반 콘텐츠 제시</li> <li>•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계획</li> <li>•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li> <li>• 지역사회에 맞는 가족들의 욕구파악</li> <li>•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욕구 파악, 대상 범위 확대 및 대상자 발굴 등</li> <li>•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li> <li>• 욕구를 수용하고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모색</li> <li>• 지역에서의 다양한 가족 욕구조사</li> <li>•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의 개발과 진행을 위한 욕구조사 및 의견제시(관련부처 및 지자체)</li> </ul>
가족다양성 프로그램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필요 및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li> <li>• 깊이 있고 지속적인 프로그램</li> <li>•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li> <li>•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li> <li>•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li> <li>• 시의성 있는 프로그램</li> </ul>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인력 등 환경 체계 구축</li> <li>•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 및 공간확보</li> <li>• 사업의 개발과 수행(자율적 권한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함)</li> </ul>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환경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li> <li>• 지역사회 변화 환경과 대응</li> <li>• 즉각적 욕구해소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및 프로그램 개발</li> <li>•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li> </ul>
서비스 제공방식 및 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말운영</li> <li>•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 가족이 소통 할 수 있는 장(공간)</li> <li>• 소통 교류 공간</li> <li>• 교육 및 문화 체험</li> </ul>
모든 가족을 위한 가족센터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가족을 분류하지 않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동기부여</li> <li>• 시민과 다문화 가족 간의 유대관계 지원 등</li> </ul>

### 3. 소결

가족센터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족센터의 중간관리자들은 다양한 가족을 ‘형태와 취약성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가족’ 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1순위에서 70.2%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가족을 가족의 형태와 취약성에 국한된 개념이 아닌 우리 사회의 모든 가족으로 보는 포괄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정형가족을 기준으로 이외의 형태의 가족을 다양한 가족으로 보는 관점도 발견되었고, 가족다양성을 인종, 민족, 출신국, 언어 등의 문화다양성에 한정하지 않는 관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가족 형태의 다양성, 문화다양성, 사회적 특성, 기능의 다양성 등 여러 요인의 다양함을 포함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2022 가족사업안내(Ⅰ)」에 언급된 가족 유형 중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대상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았다. 「2022 가족사업안내(Ⅰ)」에 언급되지 않은 가족 유형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 가족센터들도 다수였고, 가족 유형은 매우 다양하였다. 그러나 실제 가족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가족을 ‘비다문화가족 통합 사업 또는 프로그램’ 과 ‘특정 가족 유형을 제목으로 명시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적용하고 있어, 중간관리자들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인식과 가족 유형의 다양성이 가족서비스에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서비스 중에서 어떤 사업과 프로그램을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는지 근거를 조사한 결과, 특정 가족유형 안에서 다양성을 찾거나 대상을 다양하게 확장하는 사업,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다문화가족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사업 내용과 목적에 가족다양성이 반영된 사업, 특정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역의 가족 특성을 반영한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족을 사업 대상으로 명명하지 않는 사업 등을 다양한 가족,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센터의 가족서비스 실무에서 가족다양성과 다양한 가족 사업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넓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유형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의 장점으로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고, 같음을 발견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단점으로 공통점과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을 언급하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이것이 프로그램의 장점이 되지만,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단점으로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가족마다 상이한 욕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움, 여러 유형의 가족이 참여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족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

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을 고려하여 가족센터의 기본사업 중 중심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로 부부역할지원사업, 부모역할지원사업, 1인 가구 지원사업, 가족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이 높은 빈도로 선택되었다. 이들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사업에 다양한 가족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대상층을 명확히 하고, 사업 중복성을 줄이고, 새로운 대상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인 가구 지원사업도 모호성을 개선하고 보다 상세한 사업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족봉사단 등은 다양한 가족이 참여하고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발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은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들 대부분은 가족다양성 확장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족다양성과 다양한 가족을 고려하여 가족센터의 기본사업 중 시도가족센터가 주관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으로 가족상담사업에 전문성 지원, 대규모의 큰 예산으로 가족문화사업 및 인식개선 공동체의식 사업 주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일부를 담당하거나 기본사업을 간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종사자 역량강화와 다양한 가족, 가족다양성 사업을 주도하는 가족센터에 대한 홍보도 시도가족센터에서 담당하기를 희망하였다.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이 어렵고, 운영 및 예산 관리 등 행정적 업무가 과도하고, 다문화가족에 한정된 사업들이 많아 다양한 가족으로 확장성이 부족하고,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에 대한 지침과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종사자의 업무량이 많아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기 어려움,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움, 사업 대상이 다문화가족에 한정된 사업들이 많아 다양한 대상으로 확장의 어려움, 센터 내 사업들이 세분되어 사업 운영 및 예산 관리 업무가 과도함 등이었다.

가족센터의 가족서비스 제공의 지침이 되는 「2022 가족사업안내(I)」의 내용에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세부 사업 이해 어려움’, ‘사례와 활용방안 필요’,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설명 부족’, ‘신규사업에 대한 교육 및 다양한 가족 매뉴얼 필요’ 등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2022 가족사업안내(I)」에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의 정의와 의미가 불분명한 점, 전반적으로 다양한 가족을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오는 지침 적용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가족다양성 관련 신규사업에 대한 종사자 교육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목표 중 ‘가족다양성 인정’이 가족서비스 실무에서 잘 구현되고 서비스가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여성가족부의 정책과제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의 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업 간 예산 집행 칸막이 삭제 및 집행 자율성 확보, 기본사업, 별도사업의 운영 인력 구분 및 상이한 처우 개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집행과 인적자원 관리 부분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 지향하는 가족 정책의 방향성인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목표를 가족센터 현장과 실무에서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업 간 예산 집행 칸막이를 삭제하고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더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가능하다면 기존에 가족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보다 더 넓게 다양한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예산 확보와 가족센터 실무 행정체계가 다문화가족지원, 그 외 가족 지원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부분을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통합센터의 위상에 맞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가족서비스 현장의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다양성 인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영 인력, 센터 종사자의 상이한 처우 개선이 여성가족부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원 사항 중에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난 점도 앞으로 다양한 가족, 가족다양성 관련 정책과 사업 방향에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으로 보인다. ‘가족다양성 인정’은 이전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이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중심 목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신규 정책 목표가 등장하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신규사업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대부분 별도사업 또는 특별사업의 형태로 예산이 확보된다. 정책을 입안하고 지휘하는 입장에서는 별도사업과 기본사업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정책을 사업으로 구현하는 일선 가족센터에서는 별도사업과 기본사업 운영방식이 상이하다. 특히 별도사업 담당자, 종사자의 처우가 더 낮아 이는 종사자의 업무 사기를 낮추고, 잦은 이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가족서비스는 ‘서비스’이므로 이를 제공하는 담당자, 종사자의 역량과 태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크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가족다양성 인정과 관련된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담당자가 업무에 집중하고, 사업을 장기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업무환경과 처우(급여, 업무시간 등)가 보장되는 사업의 형태로 만들어지길 바라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가족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가족센터의 강점으로 ‘문화다양성, 다문화가족 관련 전문서비스’, 가족다양성 인식 확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가족이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모든 가족에게 열려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기본적인 방향성도 가족센터의 장점이고, ‘가족 대상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관련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한 예방적 서비스 제공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자리잡은 것도 가족센터의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수행의 강점으로 보았다. 또한, 시·군·구 가족센터의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중요한 사업영역으로 지역사회 주민 대상 수용성 증진 사업,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가족

간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 등을 다수의 가족센터에서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지역사회의 새로운 욕구를 고려할 때 가족센터가 할 역할로 ‘가족다양성 확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 대상 발굴’, ‘가족다양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기’, ‘지역사회의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의 현황 및 욕구를 파악’, 가족다양성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가족센터가 ‘모든 가족을 위한 가족센터의 정체성’을 잘 만들어 가는 것도 지역사회에서 가족다양성 인정을 위한 가족센터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보았다.

## 제2절 가족센터 이용자의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요구

### 1. 조사 개요

#### 1.1 자료수집

가족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가족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협조와 홍보를 통한 편의 표집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기간은 2022년 8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였다.

총 193명이 설문에 응하였고, 이 중 응답의 대다수가 누락되었거나 무응답으로 인해 분석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유효응답자 14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1.2 분석대상

조사 참여자를 살펴보면(<표 5-19> 참조), 응답자의 91.5%는 여성으로, 남성(8.5%)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만40-49세’가 4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만30-39세’ 37.2%, ‘만50-59세’ 10.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이 53.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학원 졸업 이상’ 21.5%, ‘고등학교 졸업’ 20.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가족 관련 사항에 있어 먼저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기혼(법적 혼인)’ 상태가 83.1%로 가장 높았다. 자녀 유무와 관련해서는 ‘자녀 있음’ 응답률이 90.8%로 나타났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는 ‘중’ 수준 응답률이 5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하’ 22.3%, ‘중상’ 18.5%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8%로 나타났다.

가족센터 이용 기간과 관련하여, ‘3년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 26.2%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는 ‘광역시’ 42.9%, ‘중소도시’ 26.5%, ‘특별시/특별자치도’ 25.9%, ‘읍면지역’ 4.8% 순으로 나타났다.

&lt;표 5-19&gt; 분석대상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성별	여성	119	91.5
	남성	11	8.5
	소계	130	100.0
연령대	만20-29세	10	7.8
	만30-39세	48	37.2
	만40-49세	54	41.9
	만50-59세	13	10.1
	만60세 이상	4	3.1
	소계	129	100.0
학력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1	.8
	중학교 졸업	5	3.8
	고등학교 졸업	26	20.0
	대학교 졸업	70	53.8
	대학원 졸업 이상	28	21.5
	소계	130	100.0
혼인상태	미혼/비혼	10	7.7
	기혼(법적 혼인)	108	83.1
	사실혼 또는 동거	0	0.0
	이혼/별거/사별	12	9.2
	소계	130	100.0
자녀 유무	있음	118	90.8
	없음	12	9.2
	소계	130	100.0
가족 사회경제적 수준	상	3	2.3
	중상	24	18.5
	중	66	50.8
	중하	29	22.3
	하	8	6.2
소계	130	100.0	
다문화가족 여부	다문화가족	37	24.8
	비다문화가족	112	75.2
	소계	149	100.0
가족센터 이용 기간	1년 미만	24	18.5
	1년 이상 2년 미만	34	26.2
	3년 이상	72	55.4
	소계	130	100.0
거주지역	특별시/특별자치도	38	25.9
	광역시	63	42.9
	중소도시	39	26.5
	읍면지역	7	4.8
	소계	147	100.0

참고: 무응답으로 인해 유효응답자 수와 변인별 소계가 일치하지 않음

응답자의 가족 특성과 관련해서, 27가지의 가족 유형 선택지를 제시한 후 해당 사항에 복수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20>에 제시하였다. 응답자의 가족 구성 및 형태를 살펴본 결과, ‘맞벌이가족’에 해당되는 응답자의 비율이 22.9%로 가장 높았고 ‘다문화가족’ 14.9%,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13.3%,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12.0% 순으로 나타났다. 27가지 유형 중 한 가지 특성만을 가진 가족은 51.9%로 나타났고, 2가지 이상 여러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진 가족은 48.1%로 나타났다 (<그림 5-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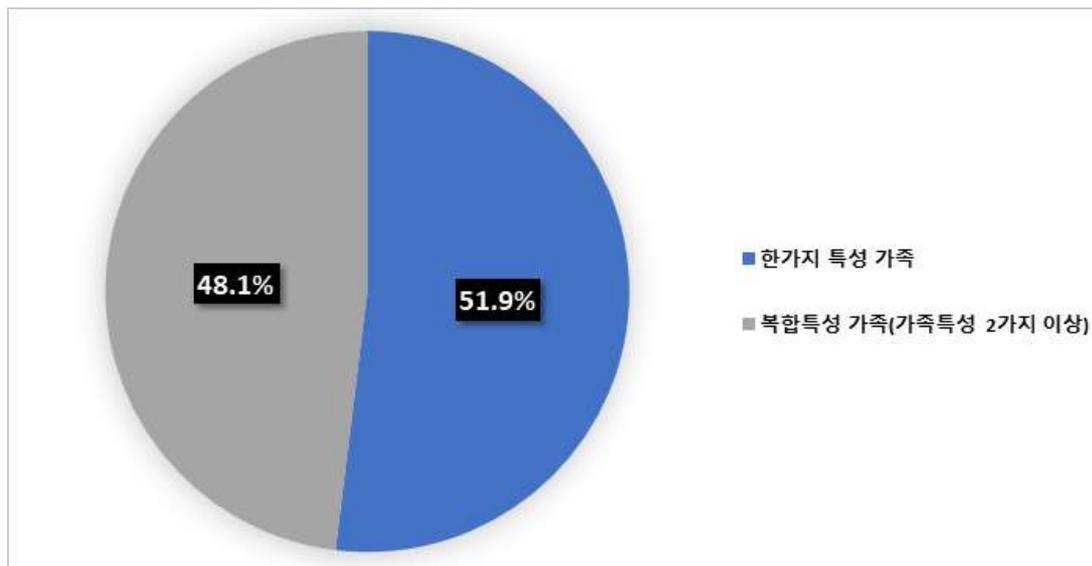
<표 5-20> 분석대상자의 가족 특성 (다중응답)

구분	명	%
맞벌이가족	57	22.9
다문화가족	37	14.9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33	13.3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30	12.0
중고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족	17	6.8
다둥이가족(자녀3인 이상)	15	6.0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미혼모, 미혼부 등)	13	5.2
미성년자녀가 있는 전업주부 부모가족	7	2.8
장애가 있는 가족원이 있는 가족	6	2.4
1인 가구	6	2.4
자녀가 있으나 함께 살지 않는 부부	5	2.0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가족원이 있는 가족	4	1.6
분거가족(예. 주말부부, 자녀가 학업 등으로 따로 사는 경우 등)	4	1.6
조손가족	3	1.2
청소년부모가족(부모연령 만25세 이하)	3	1.2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가족원이 있는 가족	3	1.2
가족원 중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가족(예. 치매 어르신)	2	0.8
동거커플(공식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함께 사는 커플)	1	0.4
재혼가족	1	0.4
무자녀 부부	1	0.4
입양가족	1	0.4
법적 관계 없이 함께 사는 가족	0	0.0
북한이탈가족	0	0.0
난민가족	0	0.0
군인가족	0	0.0
비양육부모(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별거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	0	0.0
예비부부(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커플)	0	0.0

참고: 무응답을 제외한 분석 결과임

<그림 5-7> 가족 특성별 현황

N = 129



참고: 무응답을 제외한 분석 결과임

### 1.3 조사내용

가족서비스 기관 이용자 대상 설문 문항은 ‘가족다양성 프로그램 경험’, ‘다양한 가족 포용 프로그램’, ‘가족센터 서비스 확대 요구’, ‘가족센터 가족지원’, ‘가족에 대한 인식’ 등 총 5개 항목으로 나뉘고, 각 항목별로 세부 문항을 구성하였다(〈표 5-21〉 참조).

〈표 5-21〉 설문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가족다양성 프로그램 참여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li> <li>•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 영역 및 내용</li> <li>•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 내 가족 유형</li> <li>•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 참여 소감</li> <li>•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li> <li>•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의향 및 이유</li> </ul>
다양한 가족 포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가족 포용 캠페인·교육·문화 활동 참여 경험 유무</li> <li>• 다양한 가족 포용 캠페인·교육·문화 활동의 효과(도움 정도)</li> </ul>
가족센터 서비스 확대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확대 필요 정도</li> <li>• 주제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확대 우선 순위</li> </ul>
가족센터 가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센터에서 우선 지원해야 할 가족 기능 순위</li> </ul>
가족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에 대한 생각 동의 정도</li> </ul>

### 1.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빈도, 백분율, 평균값, 다중응답 분석 등을 실시했다. 또한 응답자의 특성(자녀 유무, 다문화가족 여부, 가족센터 이용 기간, 거주지역)에 따라 조사 내용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범주형 변수 간의 비교에서는 교차분석( $\chi^2$  검정)을 실시하였고, 셀 빈도가 ‘5’ 보다 작은 경우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연속형 변수는  $t$ -test와 One-way ANOVA 등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Scheffé test)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ANOVA)의 경우 하위 집단 표본 크기가 ‘30 미만’으로 정규분포 가정에 위배되는 경우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 2.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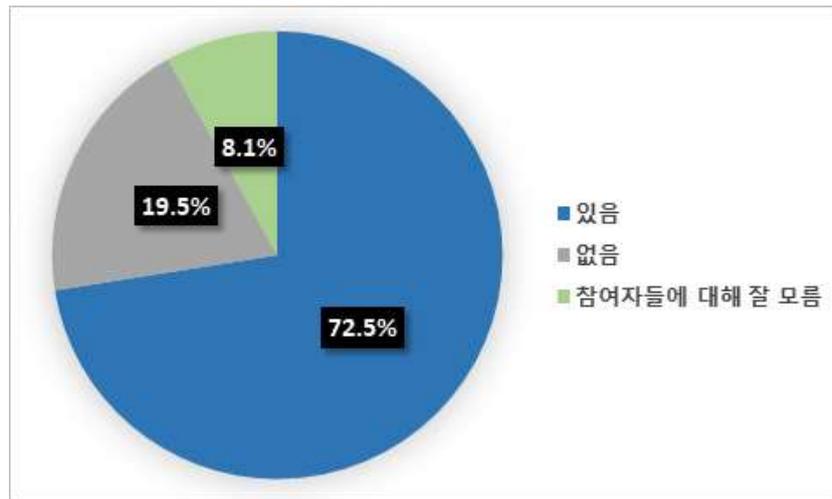
### 2.1 가족 다양성 프로그램 참여 경험

#### 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와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는 <그림 5-8>에 제시하였다. 먼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5%였고,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률은 19.5%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8.1%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가족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8>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

N = 149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표 5-22> 참조), ‘자녀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률(76.3%)이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참여 경험률(41.7%)보다 높았다. ‘다문화가족 여부’, ‘가족센터 이용 기간’,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22〉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합계	있음	없음	참여자에 대해 잘 모름	$\chi^2$	
전체	149	72.5	19.5	8.1	-	
자녀 유무	있음	118	76.3	16.1	7.6	8.30*
	없음	12	41.7	50.0	8.3	
다문화가족 여부	다문화가족	37	64.9	24.3	10.8	1.46
	비다문화가족	112	75.0	17.9	7.1	
가족센터 이용 기간	1년 미만	24	58.3	33.3	8.3	4.09
	1년 이상	34	76.5	14.7	8.8	
	2년 미만	72	76.4	16.7	6.9	
거주지역	특별시/특별자치도	38	71.1	21.1	7.9	3.52
	광역시	63	68.3	22.2	9.5	
	중소도시	39	79.5	15.4	5.1	
	읍면지역	7	85.7	0.0	14.3	

참고: 무응답으로 인해 유효응답자 수와 변인별 소계가 일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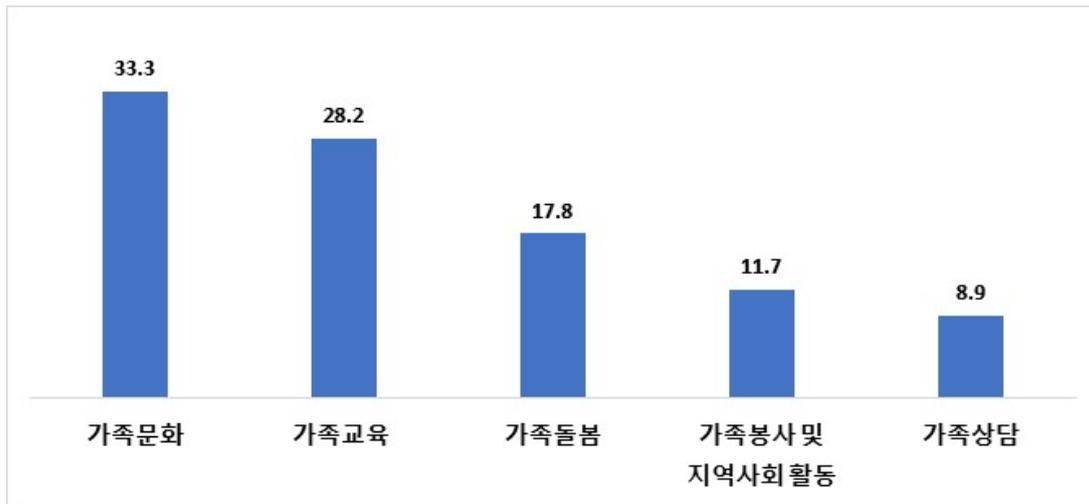
\* $p < .05$ 

#### 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 영역 및 내용

응답자들이 참여했던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의 영역을 복수로 응답한 결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그림 5-9〉 참조), ‘가족문화’ 영역이 33.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족교육’ 28.2%, ‘가족돌봄’ 17.8%, ‘가족봉사 및 지역사회 활동’ 11.7%, ‘가족상담’ 8.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9〉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 영역 (다중응답)

단위: %



응답자들이 참여했던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 참여했던 프로그램의 명 혹은 내용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5-23〉과 같다.

&lt;표 5-23&gt;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용	
가족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사랑의 날 프로그램: 가족별 골든벨, 가족 나들이, 가족 운동회, 가족 1박 2일 체험가족 축제, 가족과 함께 요리, 온가족 놀이 한마당, 가족 단위 프로그램(가족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미션에 참여)</li> <li>•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아빠와 자녀의 여가문화 행사</li> <li>• 김치 만들기 행사</li> <li>• 각 나라 음식이나 상품을 부스 운영 행사</li> <li>• 추석 명절 송편만들기</li> <li>• 설날 같이 음식 만들고 새해 축하 행사</li> <li>• 지역 역사탐방</li> <li>• 독서 및 독후 활동</li> <li>• 연극/영화 관람, 만들기 등</li> </ul>	
가족교육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 교육</li> <li>• 부모자녀 교육</li> <li>• 육아로 힘든점 나누기</li> <li>• 부모의 자존감 높이기</li> <li>• 엄마들의 수다</li> <li>• 엄마가 아닌 나로서의 정체성 찾기</li> <li>• 육아 관련 어려움 나눔 및 양육 스트레스 해소</li> </ul>
	자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 놀이</li> <li>• 나눔터 자녀 프로그램</li> <li>• 스마트시대 자녀교육</li> <li>• 아기 수학 배우기</li> <li>• 국어, 수학 online 배우기</li> <li>• 토래와 미술·과학·요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li> <li>• 언어학교</li> <li>• 자녀성장지원</li> <li>• 자녀학습</li> </ul>
	부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벌이 부부간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li> </ul>
가족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앗이 육아, 품앗이 활동</li> <li>• 가족 간 돌봄</li> <li>• 영유아 프로그램</li> <li>• 유아 3명이 모여 요리도 하고 그림자 연극을 봄</li> <li>• 돌봄공동체 활동</li> </ul>	
가족봉사 및 지역사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봉사단</li> <li>• 노인을 위한 음식 봉사에 다문화 결혼이주여성과 같이 참여</li> <li>• 요양원 및 시설 봉사</li> <li>• 다양한 지역봉사 및 다문화 가정 봉사</li> <li>• 지역 하천/천변, 등산로 정화 활동</li> <li>• 지역사회 지구환경을 위한 실천</li> </ul>	
가족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정 초등 저학년 학생들 멘토링 및 정서적 지원</li> <li>• 부모 상담</li> <li>• 아이 성교육 상담</li> <li>• 아이 진로상담</li> <li>• 이혼가정 부모의 어려움 극복 상담</li> <li>• 집단 가족 상담 및 개인 상담</li> </ul>	

참고: 개방형 응답을 토대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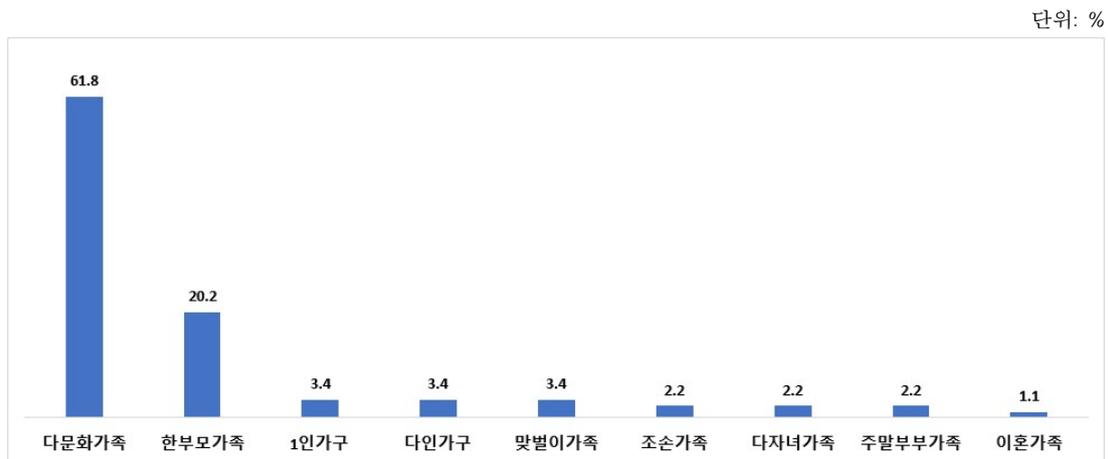
개방형 질문을 통한 응답은 위에서 제시된 5개의 영역(가족문화, 가족교육, 가족돌봄, 가족봉사 및 지역사회활동, 가족상담)으로 정리되었다. ‘가족문화’ 영역에 있어 응답자들은 가족 사랑의 날 프로그램,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문화행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과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교육’ 영역에서는 부모

교육, 자녀교육,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과 함께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가족돌봄’ 영역에 있어서는 품앗이 육아활동, 가족 간 돌봄, 영유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들과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봉사 및 지역사회 활동’ 과 관련해서는 가족봉사단, 다양한 지역봉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가족상담’ 영역에 있어서는 부모상담이나 자녀 관련 상담을 통해 다양한 가족들과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 내 가족 유형

응답자가 참여했던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내에 가족 유형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그림 5-10>에 제시하였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이 6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 이 20.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0>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 내 가족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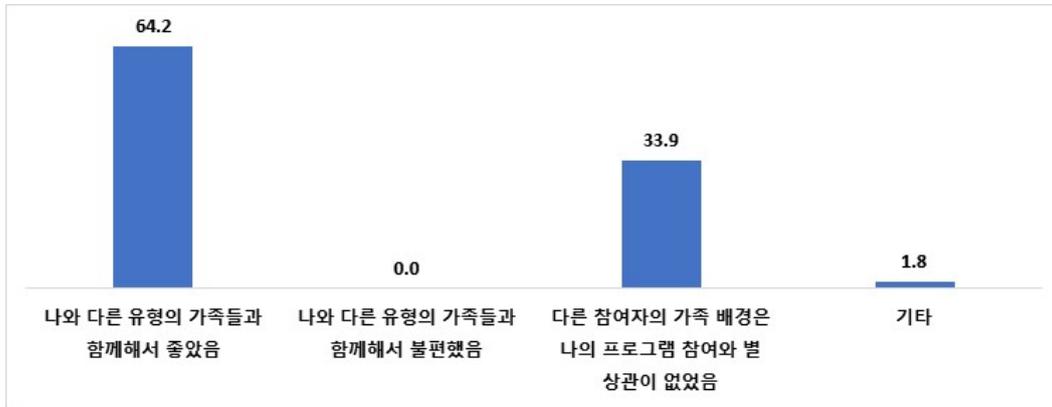
참고: 개방형 응답을 토대로 무응답을 제외한 분석 결과임

#### 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 참여 소감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소감에 대해 살펴본 결과(<그림 5-11> 참조), 응답자의 64.2%는 다른 유형의 가족들과 ‘함께해서 좋았다’ 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다른 유형의 가족들과 ‘함께해서 불편했다’ 는 부정적인 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다른 참가자의 가족 배경이 크게 상관이 없다’ 는 반응도 33.9%로 나타났다.

<그림 5-11>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 참여 소감

n = 109, 단위: %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한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5-24>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거주지역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소도시 거주자에게서 ‘함께해서 좋았다’는 긍정적인 응답률은 38.7%로 다른 지역의 긍정적 응답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중소도시 참여자의 ‘상관없음’의 응답률(61.3%)은 다른 지역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 중 ‘자녀 유무’, ‘다문화 유무’, ‘기관 이용 기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24>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 참여 소감

단위: 명, %

구분	합계	함께해서 좋았음	함께해서 불편했음	상관없음	기타	$\chi^2$	
전체	109	64.2	0.0	33.9	1.8	-	
자녀 유무	있음	91	61.5	0.0	36.3	2.2	.72
	없음	5	80.0	0.0	20.0	0.0	
다문화 유무	다문화가족	25	76.0	0.0	20.0	4.0	3.39
	비다문화가족	84	60.7	0.0	38.1	1.2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14	78.6	0.0	21.4	0.0	9.12
	1년 이상 2년 미만	26	42.3	0.0	57.7	0.0	
	3년 이상	56	67.9	0.0	28.6	3.6	
거주지역	특별시/특별자치도	27	55.6	0.0	44.4	0.0	29.71***
	광역시	44	84.1	0.0	13.6	2.3	
	중소도시	31	38.7	0.0	61.3	0.0	
	읍면지역	6	83.3	0.0	0.0	16.7	

참고: 무응답으로 인해 변인별 소계가 일치하지 않음

\*\*\*p < .001

#### 마.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좋았던 점과 관련하여 응답자들

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고, 응답은 ‘경험·기회·교육’, ‘자녀교육’, ‘소통·이해·공감’, ‘비슷한 고민·정보 공유’, ‘함께·하나됨’, ‘즐거움’ 등의 항목으로 분류되었다(〈표 5-25〉 참조).

〈표 5-25〉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의 좋은 점

구분	내용
경험·기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과 만남으로써 새로운 경험이 되었음</li> <li>• 평소 경험하지 못한 가족들과 함께해서 색다른 활동이었음</li> <li>•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음</li> <li>• 다른 문화의 가정,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음</li> <li>•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서로 다른 모습을 알 수 있어서 좋았음</li> <li>• 다양한 가족을 접하면서 보고 배울 것이 많았음</li> <li>• 다른 점과 새로운 생각을 배워서 좋았음</li> </ul>
자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다문화) 가족 형태를 자녀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음</li> <li>• 아이가 자연스럽게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음</li> <li>•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도 만나고 같이 만들기도 하고 좋았음</li> <li>• 자녀에게 사회성 등 다양한 체험이 좋았음</li> <li>•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문화가족과 자주 대화나 활동으로 친근해진다면 앞으로 더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족들을 대할 것 같음</li> </ul>
소통·이해·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하는 기회</li> <li>• 서로 거리감 없이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기회</li> <li>• 같이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도 많이 해서 좋았음</li> <li>• 다양한 문화 및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음</li> <li>•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음</li> <li>• 직접 접할 기회가 점점 늘어나니 별로 서로 다르다고나 불편한 점을 못 느꼈음</li> <li>• 다른 유형이라고 다를 것이 없고 동질감을 형성하여 좋았음</li> </ul>
비슷한 고민·정보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분들의 고민과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좋았음</li> <li>• 나와 내 가족 외에 여러 부모들과 가족들을 보면서 서로의 고민을 알고 함께 해결점을 찾는 것이 좋았음</li> <li>• 서로 위로할 수 있어서 좋았음</li> <li>• 공감하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음</li> <li>• 한국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는지 다른 나라(출신) 엄마들과 함께 장단점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음</li> <li>• 비슷한 또래를 키우면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접할 수 있어 좋았음</li> <li>• 육아정보를 공유해서 좋았음</li> </ul>
함께·하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좋음</li> <li>• 같이 한다는 것이 좋았음</li> <li>• 경계를 허물고 다 같은 가족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됨</li> <li>• 일반가정 다문화가정 구별하지 않고 그냥 같이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음</li> </ul>
즐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이 더 많이 참여하면 더 재미있음</li> <li>• 다른 나라 친구가 생겨 좋았음</li> <li>• 추억을 만들어서 좋았음</li> <li>• 서로 다른 유형의 가족이지만 한 프로그램 때문에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재미있었음</li> </ul>

참고: 개방형 응답을 토대로 분석함

‘경험·기회·교육’ 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서로의 다른 점과 새로운 점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녀교육’ 과 관련해서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다양한 가족들을 접할 수 있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소통·이해·공감’ 에 있어서, 응답자는 다양한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교류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으며 동질감을 형성하는데 좋은 기회였다는 의견을 기술하였다. ‘비

슷한 고민·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육아 등 비슷한 고민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함께·하나됨’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경계를 허물고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가지며 조건 없이 같이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즐거움’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 친구를 만들고 좋은 추억을 만들며 재밌는 경험을 한 것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불편했던 점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26>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불편한 점이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일부 응답자들은 ‘문화의 차이와 낯섦’, ‘초반의 어색함’,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음’, ‘눈치가 보임’, ‘충돌 발생 시 소통이 어려울 것 같음’, ‘한부모가족 자녀가 부모의 부재를 더 느끼는 것 같아 미안함’ 등을 불편한 점으로 언급하였다.

<표 5-26>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의 불편한 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의 차이</li> <li>•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우리와 다른점에 대한 낯섦</li> <li>• 처음에 어색해서 불편했음</li> <li>•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음</li> <li>• 눈치가 보임</li> <li>• 충돌이 있으면 소통이 좀 어려울 것 같음</li> <li>•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재를 더 느끼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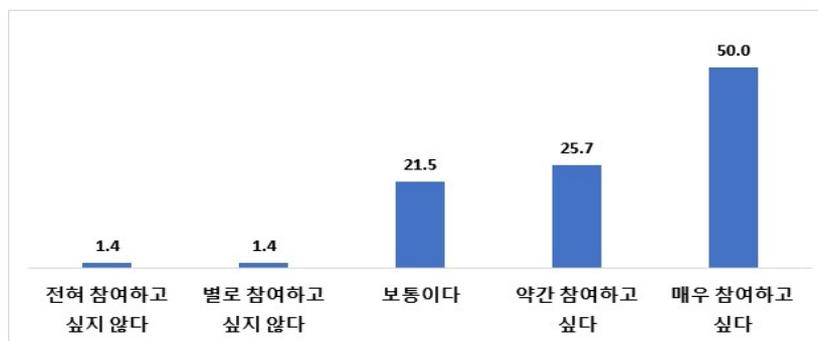
참고: 개방형 응답을 토대로 분석함

### 바.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의향 및 이유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평균 4.2점(범위: 1-5점)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75.7%(매우 참여하고 싶다+약간 참여하고 싶다)가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2> 참조).

<그림 5-12>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의향

N = 144, 단위: %



참고: 무응답을 제외한 분석 결과임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앞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살펴본 결과는 <표 5-27>에 제시하였다. 개방형 질문에 따른 응답은 ‘가족 형태와 상관없음’, ‘프로그램 내용’, ‘경험·이해·교육’, ‘교류·공유’, ‘자녀교육’의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표 5-27>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구분	내용
가족 형태와 상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참여 결정에) 가족 형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li> <li>• 가족 형태가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함</li> <li>• 다른 형태의 가족이라도 똑같은 가족이므로</li> <li>• 각 가정마다 다른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며 그게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므로</li> </ul>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가족들의 형태보다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li> <li>• 프로그램 아이টে을 보고 신청하는 것이지 참가 대상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음</li> <li>•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좋아야 함</li> </ul>
경험·이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성, 다양한 가족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음</li> <li>• 가족의 다름, 다양한 가족을 알고 이해하는 기회</li> <li>• 서로 다른 문화,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는 기회</li> <li>•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새로운 점을 배울 수 있음</li> <li>• 서로에게서 배우며 살아가는 세상임을 더욱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li> <li>• 다른 형태의 가족을 통해 내 가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li> </ul>
교류·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류 및 재미</li> <li>• 친해질 수 있는 기회</li> <li>• 좋은 이웃이 될 것 같음</li> <li>• 어우러진 공동체</li> <li>• 다른 가족과 만나 정보 공유받고 싶음</li> <li>• 서로 많이 돕기를 바람</li> </ul>
자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들에게나 부모인 나에게 도움이 됨</li> <li>•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충족해주기 위해서</li> <li>• 자주 접하면서 익숙해지면 자녀에게 좋을 것 같음</li> <li>• 아이들이 집에서는 하기 힘든 다양한 활동을 좋아해서</li> <li>• 타문화에 대해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편견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li> </ul>

참고: 개방형 응답을 토대로 분석함

먼저 ‘가족 형태와 상관없음’ 과 관련해서, 응답자들은 가족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똑같은 가족이므로 큰 의미가 없고, 그러므로 프로그램 참여 결정에 가족의 형태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히려 ‘프로그램 내용’ 과 관련해서 응답자들은 어떤 프로그램인지가 프로그램 참여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참여 대상의 구분은 프로그램 참여 결정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경험·이해·교육’ 과 관련해서 다양한 가족을 만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가족의 다름을 이해하며 내 가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프로그램을 참여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응답자들은 다양한 가족들과 ‘교류·공유’ 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했다. 더불어 ‘자녀교육’ 에 있어서도 앞서 좋았던 점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편견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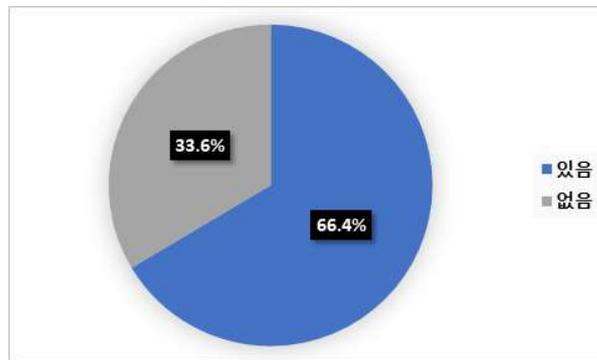
## 2.2 다양한 가족 포용 프로그램

### 가. 다양한 가족 포용 캠페인·교육·문화 활동 참여 경험 유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된 캠페인, 교육, 문화 활동 등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펴본 결과(<그림 5-13> 참조), 응답자의 66.4%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3> 다양한 가족 포용 캠페인·교육·문화 활동 참여 경험 유무

N = 14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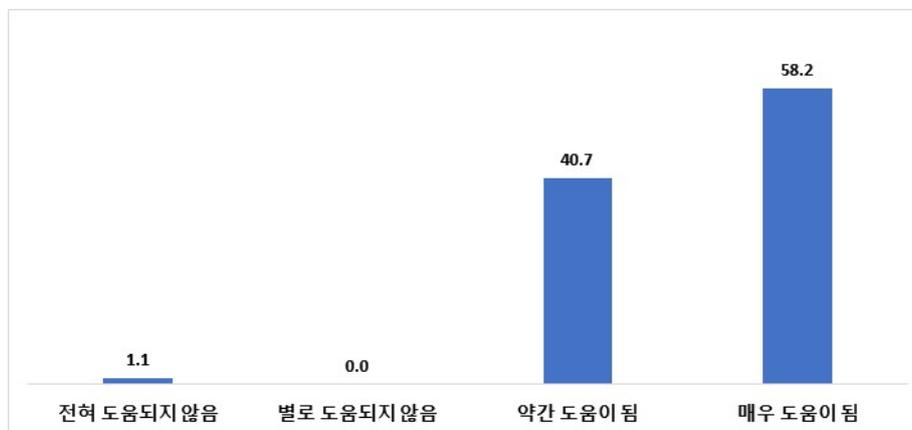
참고: 무응답을 제외한 분석 결과임

### 나. 다양한 가족 포용 캠페인·교육·문화 활동의 효과(도움 정도)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캠페인, 교육, 문화 활동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91명)를 대상으로, 위의 활동이 다양한 가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프로그램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5-14>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8.9%가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이 되었다+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14> 다양한 가족 포용 캠페인·교육·문화 활동 효과

n = 91, 단위: %



참고: 다양한 가족 포용 캠페인·교육·문화 활동에 참여한 응답자만 본 질문에 응답하였고 무응답은 제외함

## 2.3 가족센터 서비스 확대 요구

### 가. 주제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확대 필요 정도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가운데 가족다양성 관련 각각의 주제별로 서비스 확대 필요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28>과 같다. 전반적으로 모든 주제에 있어서 평균 3.5점(범위: 1-4점) 이상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모든 주제 영역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가족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평균 3.68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필요 정도가 가장 높았고, 응답자들의 74.6%는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5-28> 주제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확대 필요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합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인정 및 포용을 위한 이해 교육 확대	131	2.3	1.5	23.7	72.5	3.66
다양한 유형(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등)의 가족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130	0.8	4.6	20.0	74.6	3.68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가족/개인 간의 소통 교류 프로그램 확대	129	0.8	3.1	26.4	69.8	3.65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참여하는 공동체 돌봄 활성화(예. 공동육아, 가족품앗이 등)	129	0.8	3.1	28.7	67.4	3.63

참고: 무응답으로 인해 변인별 소계가 일치하지 않음

가족다양성 관련 각각의 주제별 서비스 확대 필요 정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인정 및 포용을 위한 이해 교육 확대’의 필요에 있어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29>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기관 이용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센터 이용 기간이 길수록 이해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1년 미만으로 이용한 응답자 중 8.3%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인식 정도(범위: 1-4점)를 살펴보면, 이해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도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이용한 응답자의 인식 수준(평균 3.78점)이 가장 높았고 1년 미만 이용자의 인식 수준(3.42점)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응답자의 특성 중 ‘자녀 유무’, ‘다문화 유무’, ‘거주지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lt;표 5-29&gt;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인정 및 포용을 위한 이해 교육 확대 필요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합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t or F	
전체	131	2.3	1.5	23.7	72.5	3.66	-	
자녀 유무	있음	117	1.7	1.7	23.1	73.5	3.68	.96
	없음	12	8.3	0.0	25.0	66.7	3.50	
$\chi^2$				2.35				
다문화가족 여부	다문화가족	37	2.7	0.0	21.6	75.7	3.70	.44
	비다문화가족	94	2.1	2.1	24.5	71.3	3.65	
$\chi^2$				.99				
가족센터 이용 기간	1년 미만	24	8.3	0.0	33.3	58.3	3.42	3.28*
	1년 이상 2년 미만	33	0.0	3.0	33.3	63.6	3.61	
	2년 이상	72	1.4	1.4	15.3	81.9	3.78	
$\chi^2$				11.97				
거주지역	특별시/특별자치도	30	0.0	3.3	23.3	73.3	3.70	1.15
	광역시	60	1.7	0.0	21.7	76.7	3.73	
	중소도시	34	2.9	2.9	29.4	64.7	3.56	
	읍면지역	6	16.7	0.0	16.7	66.7	3.33	
$\chi^2$				9.45				

참고: 무응답으로 인해 변인별 소계가 일치하지 않음

\* $p < .05$ 

‘다양한 유형의 가족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의 필요에 있어서,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30>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별시/특별자치도 거주자와 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맞춤형 서비스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80% 이상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소도시 거주자와 읍면지역 거주자의 경우 50~60%대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또한, 중소도시 거주자 및 읍면지역 거주자의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10% 이상으로 나타나는 반면 특별시/특별자치도 거주자와 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3% 이하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인식 정도(범위: 1-4점)를 살펴보면,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야한다는 요구도와 관련하여 광역시 거주자의 인식 수준(3.78점)과 특별시/특별자치도 거주자의 인식 수준(3.77점)이 높았고 읍면지역 거주자의 인식 수준(3.33점)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응답자의 특성 중 ‘자녀 유무’, ‘다문화 유무’, ‘기관 이용 기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lt;표 5-30&gt; 다양한 유형의 가족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합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t or F
전체	130	0.8	4.6	20.0	74.6	3.68	-
자녀 유무	있음	116	0.9	4.3	21.6	73.3	-0.42
	없음	12	0.0	8.3	8.3	83.3	
$\chi^2$			1.56				
다문화 가족 여부	다문화가족	37	0.0	5.4	18.9	75.7	.44
	비다문화가족	93	1.1	4.3	20.4	74.2	
$\chi^2$			.51				
가족센터 이용 기간	1년 미만	24	4.2	8.3	25.0	62.5	2.41
	1년 이상	32	0.0	6.3	21.9	71.9	
	2년 미만	72	0.0	2.8	18.1	79.2	
	2년 이상	72	0.0	2.8	18.1	79.2	
$\chi^2$			6.93				
거주지역	특별시/특별자치도	30	0.0	3.3	16.7	80.0	2.75*
	광역시	60	1.7	0.0	16.7	81.7	
	중소도시	33	0.0	12.1	27.3	60.6	
	읍면지역	6	0.0	16.7	33.3	50.0	
$\chi^2$			13.64				

참고: 무응답으로 인해 변인별 소계가 일치하지 않음

\*  $p < .05$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가족/개인 간의 소통 교류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에 있어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31>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읍면지역 거주자의 경우 소통 교류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음+별로 필요하지 않음)고 생각하는 비율이 33.3%로 나타나 5% 이하인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응답률보다 높았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응답자의 인식 정도(범위: 1-4점)에 있어 읍면지역 응답자들의 소통 교류 프로그램 확대 요구도 수준(평균 3.33점)은 다른 지역 응답자들의 인식 수준과 비교하여 가장 낮았다. 이외 응답자의 다른 특성(자녀 유무, 다문화 유무, 기관 이용 기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lt;표 5-31&gt;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가족/개인 간의 소통 교류 프로그램 확대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합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t or F
전체	129	0.8	3.1	26.4	69.8	3.65	-
자녀 유무	있음	116	0.9	2.6	28.4	68.1	-0.48
	없음	11	0.0	9.1	9.1	81.8	
$\chi^2$			3.12				

다문화 가족 여부	다문화가족	37	0.0	5.4	18.9	75.7	3.70	.64
	비다문화가족	92	1.1	2.2	29.3	67.4	3.63	
		$\chi^2$		2.64				
가족센터 이용 기간	1년 미만	24	4.2	4.2	37.5	54.2	3.42	2.72
	1년 이상	32	0.0	0.0	37.5	62.5	3.63	
	2년 미만	32	0.0	0.0	37.5	62.5	3.63	
	2년 이상	71	0.0	4.2	18.3	77.5	3.73	
		$\chi^2$		11.64				
거주지역	특별시/특별자치도	29	0.0	0.0	31.0	69.0	3.69	1.96
	광역시	59	1.7	0.0	20.3	78.0	3.75	
	중소도시	34	0.0	5.9	38.2	55.9	3.50	
	읍면지역	6	0.0	33.3	0.0	66.7	3.33	
		$\chi^2$		28.21**				

참고: 무응답으로 인해 변인별 소계가 일치하지 않음  
\*\*  $p < .01$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참여하는 공동체 돌봄 활성화’의 필요에 있어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32>와 같다. 기본적으로 응답자의 96.1%는 공동체 돌봄 활성화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함+약간 필요함)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응답자의 거주 지역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읍면지역 거주자의 공동체 돌봄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음+별로 필요하지 않음)는 응답률(16.7%)이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응답률(0.0~5.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32>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참여하는 공동체 돌봄 활성화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합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t or F	
전체	129	0.8	3.1	28.7	67.4	3.63	-	
자녀 유무	있음	115	0.9	2.6	30.4	66.1	3.62	-.27
	없음	12	0.0	8.3	16.7	75.0	3.67	
		$\chi^2$		2.07				
다문화 가족 여부	다문화가족	37	0.0	2.7	32.4	64.9	3.62	-.08
	비다문화가족	92	1.1	3.3	27.2	68.5	3.63	
		$\chi^2$		.73				
가족센터 이용 기간	1년 미만	23	4.3	4.3	26.1	65.2	3.52	.73
	1년 이상	33	0.0	3.0	36.4	60.6	3.58	
	2년 미만	32	0.0	0.0	37.5	62.5	3.63	
	2년 이상	71	0.0	2.8	26.8	70.4	3.68	
		$\chi^2$		5.79				
거주지역	특별시/특별자치도	30	0.0	0.0	26.7	73.3	3.73	1.88
	광역시	58	1.7	1.7	22.4	74.1	3.69	
	중소도시	34	0.0	5.9	41.2	52.9	3.47	
	읍면지역	6	0.0	16.7	33.3	50.0	3.33	
		$\chi^2$		11.44				

참고: 무응답으로 인해 변인별 소계가 일치하지 않음

## 나. 주제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확대 우선순위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다양성 관련 주제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순서와 관련하여 3순위까지 살펴본 결과는 <표 5-33>과 같다. 1순위 응답에서 ‘다양한 유형의 가족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가 49.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가족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욕구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가족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대한 응답자들의 필요도가 가장 높았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2순위 응답에서는 1순위와 달리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참여하는 공동체 돌봄서비스’가 31.7%로 가장 높았다. 3순위 응답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참여하는 공동체 돌봄서비스’가 27.8%로 가장 높았다. 1~3순위를 합한 결과로 살펴보면 ‘다양한 유형의 가족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가 31.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참여하는 공동체 돌봄서비스’ 29.3%,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가족/개인 간의 소통 교류 프로그램’ 22.2%,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인정 및 포용을 위한 이해 교육’ 1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3> 주제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확대 우선순위

N = 63,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다양한 유형의 가족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49.2	22.2	25.0	31.8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참여하는 공동체 돌봄 서비스	28.6	31.7	27.8	29.3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가족/개인 간의 소통 교류 프로그램	14.3	30.2	22.2	22.2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인정 및 포용을 위한 이해 교육	7.9	15.9	25.0	16.7

참고: 8개의 문항 중 가족다양성 관련 4개 문항에 1~3위로 참여한 응답만을 분석한 결과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가족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1순위 응답을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5-34>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가족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우선 확대해야한다 것과 관련하여 각 지역별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특별시/특별자치도 거주자의 경우 66.7% 응답률을 나타냈고 이는 50%를 넘지 않는 다른 지역 거주자의 응답률보다 높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인정 및 포용을 위한 이해 교육’에 있어, 중소도시 거주자의 응답률(13.3%)이 다른 지역 거주자의 응답률(0.0~7.9%)보다 높았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가족/개인 간의 소통 교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중소도시 거주자의 응답률(20.0%)이 다른 지역 거주자의 응답률(11.1~14.3%)보다 높았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참여하는 공동체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는 광역시 거주자의 응답률(42.3%)이 다른 지역 거주자의 응답률(20.0~28.6%)보다 높았다.

<표 5-34> 주제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우선 확대 순위 (1순위)

단위: 명, %

구분	합계	이해 교육	맞춤형 서비스	소통 교류 프로그램	공동체 돌봄	$\chi^2$	
전체	63	7.9	49.2	14.3	28.6	-	
자녀 유무	있음	54	9.3	42.6	16.7	31.5	5.84
	없음	8	0.0	87.5	0.0	12.5	
다문화 가족 여부	다문화가족	19	10.5	52.6	26.3	10.5	6.15
	비다문화가족	44	6.8	47.7	9.1	36.4	
가족센터 이용 기간	1년 미만	13	0.0	53.8	0.0	46.2	9.05
	1년 이상	19	5.3	63.2	15.8	15.8	
	2년 이상	30	13.3	36.7	20.0	30.0	
거주지역	특별시/특별자치도	18	0.0	66.7	11.1	22.2	17.74*
	광역시	26	3.8	42.3	11.5	42.3	
	중소도시	15	13.3	46.7	20.0	20.0	
	읍면지역	4	7.9	49.2	14.3	28.6	

참고: 무응답으로 인해 변인별 소계가 일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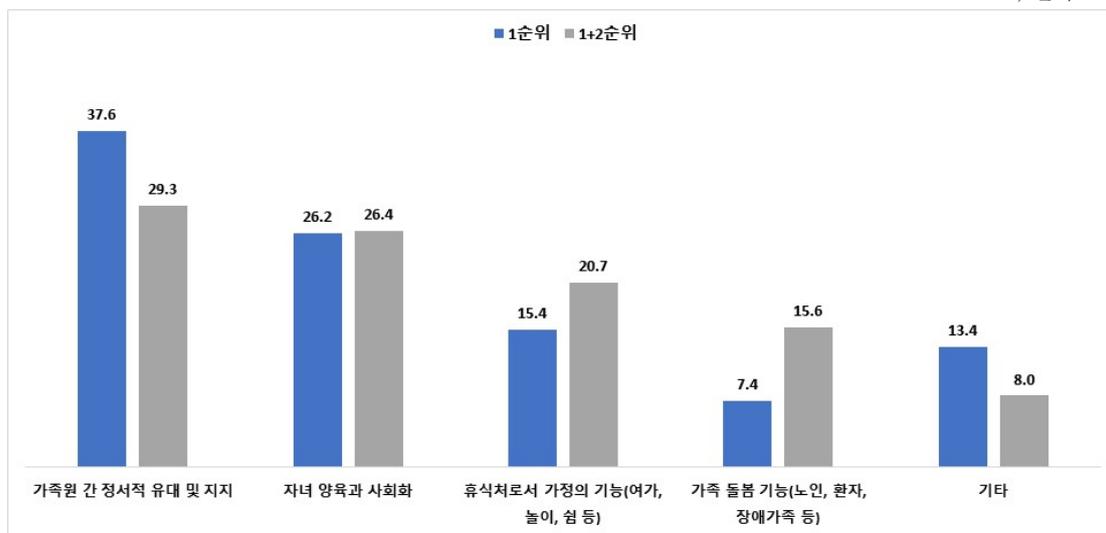
\* $p < .05$

## 2.4 가족센터에서 우선 지원해야 할 가족 기능 순위

가족의 기능과 관련하여 가족센터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을 1, 2순위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5-15>와 같다. 1순위 응답에서는 ‘가족원 간 정서적 유대 및 지지’가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 양육과 사회화’가 26.2%로 다음으로 높았다. 1, 2순위를 합한 결과로 살펴보면 ‘가족원 간 정서적 유대 및 지지’가 29.3%로 여전히 가장 높았고,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과 사회화’가 26.4%로 다음으로 높았다.

<그림 5-15> 가족센터에서 우선 지원해야 할 가족 기능 순위

N = 149, 단위: %



가족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하는 가족 기능 1순위 응답을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5-35>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유형의 다문화가족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하는 가족 기능 중 다문화가족 응답자의 경우 ‘자녀 양육과 사회화’를 1순위로 응답한 경우가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다문화가족 응답자의 경우 ‘가족원 간 정서적 유대 및 지지’에 대한 1순위 응답률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 ‘자녀 유무’, ‘가족센터 이용 기간’,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5-35> 가족센터에서 우선 지원해야 할 가족 기능 순위 (1순위)

단위: 명, %

구분	합계	가족원 간 정서적 유대 및 지지	자녀 양육과 사회화	휴식처로서 가정의 기능	가족 돌봄 기능	기타	$\chi^2$	
전체	149	37.6	26.2	15.4	7.4	13.4	-	
자녀 유무	있음	118	43.2	31.4	14.4	9.3	1.7	6.40
	없음	12	41.7	16.7	33.3	0.0	8.3	
다문화 가족 여부	다문화가족	37	29.7	43.2	10.8	13.5	2.7	13.69**
	비다문화가족	112	40.2	20.5	17.0	5.4	17.0	
가족센터 이용 기간	1년 미만	24	41.7	37.5	16.7	0.0	4.2	4.45
	1년 이상	34	44.1	29.4	11.8	11.8	2.9	
	2년 미만	72	43.1	27.8	18.1	9.7	1.4	
	2년 이상	72	43.1	27.8	18.1	9.7	1.4	
거주지역	특별시/특별자치도	38	28.9	26.3	18.4	5.3	21.1	20.51
	광역시	63	34.9	34.9	17.5	6.3	6.3	
	중소도시	39	56.4	10.3	10.3	10.3	12.8	
	읍면지역	7	14.3	42.9	0.0	14.3	28.6	

참고: 무응답으로 인해 변인별 소계가 일치하지 않음

\*\*  $p < .01$

## 2.5 가족에 대한 인식

가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5-36>과 같다. 먼저 ‘법적인 혼인, 혈연으로 연결되면 가족이다’라는 견해에 대해 응답자의 83.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다’라는 견해에서도 응답자의 81.8%가 동의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한편 ‘서로 아플 때 돌봐줄 수 있으면 가족이다’는 견해에서는 응답자의 67.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다’는 견해에서는 62.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5-36&gt; 가족에 대한 인식

N = 132, 단위: %

구분	동의	비동의
법적인 혼인, 혈연으로 연결되면 가족이다.	83.3	16.7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다.	81.8	18.2
서로 아플 때 돌봐줄 수 있으면 가족이다.	67.4	32.6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다.	62.1	37.9

참고: 무응답을 제외한 분석 결과임

### 3. 소결

가족서비스 기관 이용자 149명을 대상으로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도 등을 조사한 결과의 요점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가족서비스 기관 이용자들의 약 73%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명 중 7명은 참여 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6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된 이후 각 기관에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내 다양한 유형의 가족으로 다문화가족이 6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기존의 가족다양성 관련 프로그램은 다문화·비다문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에서 주로 진행되어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관점에 따른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보편적 측면의 가족다양성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문화·비다문화를 넘어 경계선 없이 어떠한 유형의 가족들도 함께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 구성 및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했던 프로그램의 영역을 보면 가족문화, 가족교육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참여한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 ‘부모교육 및 자녀교육’, ‘품앗이 육아활동’, ‘부모 및 자녀관련 상담’ 등 다수의 프로그램이 자녀와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응답자들은 동질감 및 공감대 형성과 정보 공유를 장점으로 꼽았고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따라서 가족다양성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할 시 가족문화 영역이나 부모교육 및 자녀 돌봄 영역에서부터 시작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참여자들이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거나 정보교환이 이뤄질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구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가운데 가족다양성 관련 각 주제별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에 있어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였고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1순위로 꼽았다. 즉, 응답자들이 주로 보편적 측면에서 다양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경험한 것과는 달리, 응답자들이 요구하는 가족다양성 관련 서비스는 각 가족의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가족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측면에서의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와 함께 각 가족의 욕구에 맞춰 지원하는 서비스도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관련 반응에 있어, 광역시(84.1%)와 읍면지역(83.3%)의 긍정적 반응 비율은 높은 반면, 특별시/특별자치도는 55.6%, 중소도시는 38.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오히려 다른 참가자의 가족 배경은 크게 상관없다는 반응에서 중소도시는 61.3% 특별시는 44.4%로 광역시(13.6%) 및 읍면지역(0.0%)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족다양성 관련 각 주제별 서비스 확대 필요 정도에 있어서도, 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가족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반면 중소도시 거주자의 요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다양한 유형 가족 관련 이해 교육 우선 확대와 소통 교류 프로그램 우선 확대와 관련해서는 중소도시 거주자의 요구도가 다른 지역 거주자의 요구도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와 관련하여,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 여부와 연령대에서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읍면지역에서 참여한 응답자의 57.1%가 다문화가족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27.0%, 특별시/특별자치도 21.1%, 중소도시 20.5%로 나타났다. 연령대와 관련해서, 광역시 및 읍면지역에서는 50대 이상 연령층의 참여율이 15% 이상으로 나타났고 30~40대는 70%대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도시와 특별시/특별자치도에서는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의 참여율은 8% 이하로 나타났고, 30~40대 연령층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광역시와 읍면지역에서 참여한 응답자 구성에서 중소도시와 특별시/특별자치도에 비해 고연령층, 다문화가족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족일수록 가족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고, 각 가족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중년층이나 비다문화가족일 경우,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있어 참여하는 가족유형에 대해 크게 상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다양한가족 관련 이해교육이나 소통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구축할 시 참여자의 요구도는 물론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지역별 인구 특성에 대한 파악도 함께 필요하며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한 캠페인, 교육, 문화 활동 등에 참여했던 응답자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러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다양한 가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문화적 차이에 따른 낯섦이나 어색함 등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참여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가족서비스 기관을 이용한 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여러 해 센터를 이용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1회 이상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고 긍정적인 효과의 시너지를 경험했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한 이해 교육이나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이수하는 것이 가족다양성 관련 통합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

# 제 6 장

## 결론 및 제언

제1절 가족서비스 실무를 위한 가족다양성

제2절 가족다양성 적용 점검 및 진단

제3절 가족센터 사업에서의 가족다양성 적용 및  
발전 과제



## 제1절 가족서비스 실무를 위한 가족다양성

### 1. 가족다양성 관련 개념 정의

가족다양성의 정의는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시대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적 맥락에서 가족다양성의 정의를 검토하였고, 한국사회의 가족정책과 가족서비스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센터의 가족서비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족다양성의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 1.1 가족다양성 개념 정의 과정

본 연구에서는 가족다양성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가족다양성(family diversity)**

가족다양성은 가족의 삶의 모습과 생활방식의 다양함을 의미한다. 가족의 삶의 모습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가족의 삶의 모습이 다양하다’, ‘가족의 생활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다양성(diversity) 자체가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기 어려우며, 가족다양성이란 표현을 통해 몇몇 특정한 유형의 가족이 떠오른다면 다양성이 지향하는 바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서비스 실무에서는 사업과 프로그램의 목표와 대상 설정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되는 개념 정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족다양성의 개념은 가족서비스 실무에서 가족서비스 실무자가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 가족서비스의 지향점에 가족의 삶의 모습과 방식의 다양함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족다양성의 개념은 가족 내 구성원들의 삶을 포함한 가족의 삶의 모습의 다양함과 생활방식의 다양함 두 측면을 포함한다. ‘가족의 삶의 모습’은 현재 가족이 보여주는 상태, 실태 등을 의미하며, 현재 나타나는 가족의 삶의 모습은 가족이

살아온 ‘가족의 생활방식’의 결과물이자 현재의 생활방식을 가져오는 토대라 볼 수 있다. 가족의 삶의 모습은 현재 드러나는 것이고, 생활방식은 가족의 생활철학, 가치관 등이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 가족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에 걸쳐있다. 가족의 생활방식은 현재에도 형성되고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가족의 생활 모습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가족서비스에서는 가족의 현재 모습을 관찰하고 조사하여 가족의 필요와 욕구를 알아내고 이를 충족하고 보완하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서비스 실무자가 가족의 삶의 모습이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가족다양성을 적용한 가족서비스가 시작된다. 또한, 현재 가족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어떤 과정(생활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현재 모습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가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한 다양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도 가족다양성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가족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형성해 온 생활방식과 현재의 생활모습의 다양함은 미래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래의 위기와 어려움을 예방하는 차원의 가족서비스 계획에도 가족다양성 반영이 필요하다.

가족들의 삶의 모습과 생활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른 가족다양성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가족다양성을 적용한 가족서비스의 방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가족 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삶의 결합에 따라 어떤 가족도 똑같은 가족이 없고, 모든 가족은 다 나름의 고유성과 특별함을 갖기 때문에 개별 가족의 다양성만큼 가족서비스의 종류와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가족의 고유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가족서비스 실무에서는 개별 가족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여 가족을 분류하고 유형화해서 각각의 필요와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다수의 가족들이 유사한 가족생활주기를 따라갔기 때문에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분류와 유형화가 가족서비스 실무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용한 요소였다. 그러나 현재는 가족의 삶의 모습이 과거와 비교하여 매우 다양해졌고, 가족의 삶의 다양성과 관련 있는 요소들도 과거와 비교하여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가족서비스 실무에서 가족다양성을 적용한 가족서비스를 계획할 때 가족의 삶의 모습의 다양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1.2 가족서비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족다양성 개념 제안

현재 가족서비스는 가족다양성이 특정 가족 유형을 의미하지 않도록 정의하였지만, 가족 유형화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2022 가족사업안내(I)」(p. 93)에 가족센터 사업 방향으로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일반, 다문화, 한부모·조손가족, 맞벌이가정, 1인 가구, 북한이탈가족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가족센터의 사업 방향은 기존의 다문화가족 중심

의 가족서비스에서 가족의 다양한 특성과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조사 결과 가족서비스 실무에서는 다양한 가족 사업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맞벌이가정, 1인 가구, 북한이탈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이해되고, ‘다양한 가족’은 이러한 유형의 가족으로 한정하여 이해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서비스 실무에 적용할 가족다양성 개념 정의에 있어 모든 가족을 아우르면서 개별 가족의 삶의 모습이 다양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가족다양성 개념을 가족서비스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에 따라, 가족서비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의 근거가 되는 가족다양성 개념 요소들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가족의 삶의 모습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가족서비스 실무에 모두 반영할 수 없으므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제시하되, 현재 가족센터 서비스에서 고려되는 요소들보다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가족다양성 개념은 현재 가족센터 실무에서 적용하는 가족다양성의 개념보다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나, 실무 적용의 편의성을 위해 다양성의 일부 요소들에 대한 고려를 제안함으로써 서비스 대상 가족이 제한될 수 있는 한계를 갖는다.

<표 6-1> 가족서비스에서 가족다양성 개념화 및 적용

기존 가족서비스에서의 가족다양성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가족서비스에서의 가족다양성	
이상	모든 가족을 위한 가족서비스 지향	▶	이상	모든 가족의 삶의 모습과 생활 방식의 다양함을 고려한 가족 서비스 지향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유형의 가족 = 다양한 가족</li> <li>특정 유형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서비스</li> </ul>	▶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다양성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li> <li>종사자들의 가족다양성 인식 확대 강조</li> <li>그러나 가족서비스 실무 적용을 위해 가족다양성에 대한 비교적 제한적 고려</li> </ul>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족다양성 개념은 가족서비스 실무에 적용하기에 다소 추상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가족다양성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가족서비스 실무에 적용될 수 있다.

### 1.3 가족다양성 개념을 실무에 적용 시 가이드라인

가족다양성 개념을 실무에 적용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가족서비스 실무에 가족다양성 적용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① 가족서비스 실무에 가족다양성 적용은 가족 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삶을 포괄하는 가족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생활방식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 ② 가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가족서비스 접근성의 격차가 발생하거나, 특정 가족이 가족서비스 이용에 있어 차별받거나 배제될 수 있음과 반대로 특정 가족이 가족서비스 이용에 우선권이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한다.
- ③ 지역사회에서 가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생활방식으로 인한 차별과 배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가족다양성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을 포함한다.
- ④ 우리 사회에 가족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때 나타나는 지혜와 역량을 발견하고, 가족생활의 다양성이 사회에 제공하는 장점을 인식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⑤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이 가족다양성을 이해하고 가족서비스 실무에 이를 적용하려는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가족센터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 가. 모든 가족은 가족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가족서비스는 개별 가족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가족서비스 실무자는 개별 가족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고, 가족센터는 가족서비스 제공에서 개별 가족과 가족센터 실무자가 협력관계를 가지고 최대한 공동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나. 일반적인 다양성의 요소들도 가족다양성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가족생활에서 인종, 종교, 민족, 문화, 언어, 능력, 성,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등과 같은 다양성의 요소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경험되고 표현된다. 가족의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생활방식이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강점이 될 수 있다. 다양한 가족의 성공적인 가족서비스 참여를 위해서는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 필요하며, 가족의 다양성에서 오는 고유성을 강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 ‘다양한 가족’ 용어를 ‘가족다양성’ 으로 재개념화한다.

「2022 가족사업안내(Ⅰ)」에 ‘다양한 가족’으로 특정 가족 유형이 열거되어 있어, 가족서비스 실무에서 ‘다양한 가족’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몇몇 유형의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정상가족’, ‘정형가족’ 중심의 사고가 반영되고, 정형가족 이외의 가족은 취약가족, 어려움이 있는 가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다양한 가족은 우리 사회의 모든 가족 유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형가족이라 불리는 유형의 가족도 포함되는 것인데 반해, 실제로 그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형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을 포함한다는 차원에서 가족다양성의 의미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 라. 가족다양성의 특정 요소로 가족을 단편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을 지양한다.

개별 가족에 다양성의 요소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차원에서 가족생활의 다름이 발견된다. 하나의 특정 가족다양성 요소로 가족을 유형화하고 그 유형에 속한 가족은 모두 같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가족서비스 실무에서 가족다양성 인식과 존중을 저해하므로 지양한다.

#### 마. 어떤 가족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과 가족의 특수한 욕구를 강조한 가족서비스의 균형을 지향한다.

예산과 인력의 제약으로 지역사회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불가능하다. ‘어떤 가족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은 모든 가족에게 접근성이 열려있는 사업, 특정 유형의 가족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거나 서비스 접근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가족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가족에게 접근성이 열려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가족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도 가족다양성 존중에 필요하다. 센터 전체의 사업과 프로그램을 놓고 보았을 때, 모든 가족에게 열려있는 보편적 가족서비스와 가족의 특수한 욕구를 강조한 서비스의 상호 보완과 균형을 지향한다.

## 2. 가족의 기능 및 가족다양성의 요소

### 2.1 가족의 기능

가족다양성을 가족서비스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가족의 다양한 삶의 모습 및 생활방식과 관련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제안한다. 다양성 요소들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가족서비스의 목적, 역할을 다시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다. 가족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가족의 건강성 증진이고, 이를 위해 가족서비스는 가족이 스스로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가족의 기능을 지지하고, 보충하고,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가족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한 사회에서 가족이 수행하는 공통된 기능이 있다. <표 6-2>는 Bogenschneider(2014)가 제시한 가족의 기능(2장 참고)을 기초로 가족 정책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정리한 것이다. Bogenschneider(2014)는 정책과 사회서비스가 가족의 기능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의 기능을 분류 정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Bogenschneider(2014)의 틀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6-2>를 통해 가족의 기능을 이해하되 가족센터의 가족서비스로 지지, 보충,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떤 것들인지 점검해 볼 수 있다.

<표 6-2>에 ‘애정’, ‘보호’, ‘건강’, ‘휴식 오락’, ‘교육과 사회화’, ‘가치와 문화 전승’, ‘사회적 책임’, ‘경제(생산소비)’의 8개 가족 기능을 제시하였다. 먼저 ‘애정’ 기능은 가족 및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감과 관련된 기능이다. 심리적인 집단으로서 가족은 애정의 원천이라 할 수 있으며, 가족 내 구성원들은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나누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 배려와 지지, 인정을 통해 행복감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1인 가구를 포함한 한 가족이나 가족 내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이 깨어진 상태, 즉 애정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정책적인 개입이나 서비스를 통한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가족생활교육 등을 통해 가족의 애정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호’ 기능은 가족 및 가족 내 구성원을 정서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보는 것과 관련된다. 즉, 가족 내 환자나 어린이,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을 보호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가족 기능을 말한다. 가족원에 대한 일차적인 보호의 책임과 부양 역할은 가족에게 부여되고 있으며, 보호 기능을 지원하는 공적 개입의 대표적인 예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초 모든 공적 돌봄시설의 운영이 중지되었을 때 영·유아 및 가족원 돌봄 관련 일대 혼란이 일어난 것을 통해 가족의 보호 기능에 대한 사회적 대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서비스는 이러한 가족 보호 기능이 어려움 없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 기능은 가족 구성원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가족 구성원의 건강은 가족의 유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 가족은 건강한 의식주 생활, 쾌적한 물리적 환경, 건강한 가족관계 등을 제공한다.

‘휴식 오락’ 기능은 가족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회복 그리고 여가생활과 관련되는 기능이다. 가족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긴장을 풀고 피로를 회복시키며 심신이 안정될 수 있도록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가족은 공동으로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휴식과 행복감, 그리고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다. 직업 및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현대사회에서 가족 구성원 각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에너지 재충전은 가족의 건강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건강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따라서 가족서비스를 통해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휴식 및 오락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고, 가족 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누릴 수 있는 휴식이나 여가 프로그램 마련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과 사회화’ 기능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나 규범, 기술, 지식, 언어, 행동 등을 습득하고 내면화하는 사회화 과정(socialization)과 관련된다. 특히 생애 초기의 사회화는 주로 가족이나 돌봄 집단에서 일어나므로 가족(돌봄 집단)은 사회화의 주된 체계로 간주된다(Putney & Bengtson, 2002). 일반적으로 가족의 교육과 사회화 기능은 가족 내 아동의 교육 및 사회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시기에 맞춰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하고, 따라서 사회화 과정은 개인의 일생동안 지속된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습득한 가치와 기술을 변형해야 하는 재사회화(re-socialization) 과정도 겪게 될 수 있다(Little, Vyain, Scaramuzzo, Cody-Rydzewski, Griffiths, Strayer & Keirns, 2014). 따라서 가족 내 전방위적인 교육과 사회화의 기능으로 초점을 맞춰 가족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치와 문화 전승’ 기능은 앞서 언급한 사회화 기능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파생된 기능으로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전통적·문화적·종교적 가치와 유산은 집단 내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세대를 거치면서 계승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이 속한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선대로부터 배워 다시 후대에 전함으로써 그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개별 가족은 고유한 가치관과 정체성, 종교적 생활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교육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 공유되고 유지될 수 있다. 가치와 문화 전승이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가족의 역할과 기능을 조력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체계이고, 사회의 건강한 유지 발

전을 위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은 가족이 고립되고 폐쇄적인 단위가 아니고 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가족 스스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가족이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사회적 책임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경제(생산소비)’ 기능은 가족의 의식주에 필요한 경제 활동과 관련된 기능이다. 가족은 구성원에게 의식주 및 생필품을 제공하거나 공유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수행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닌 재화를 통한 구입 방식으로 제한된 수입에서의 소비를 요구한다. 즉, 모든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명하게 소비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가족 경제적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내 부모 혹은 성인 구성원의 경제적 지식, 기술, 역량은 자녀나 어린 연령대 가족원의 재무 사회화(financial socialization)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Pinto, Parente & Mansfield, 2005). 따라서 가족의 경제적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 관련 가족서비스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

<표 6-2> 가족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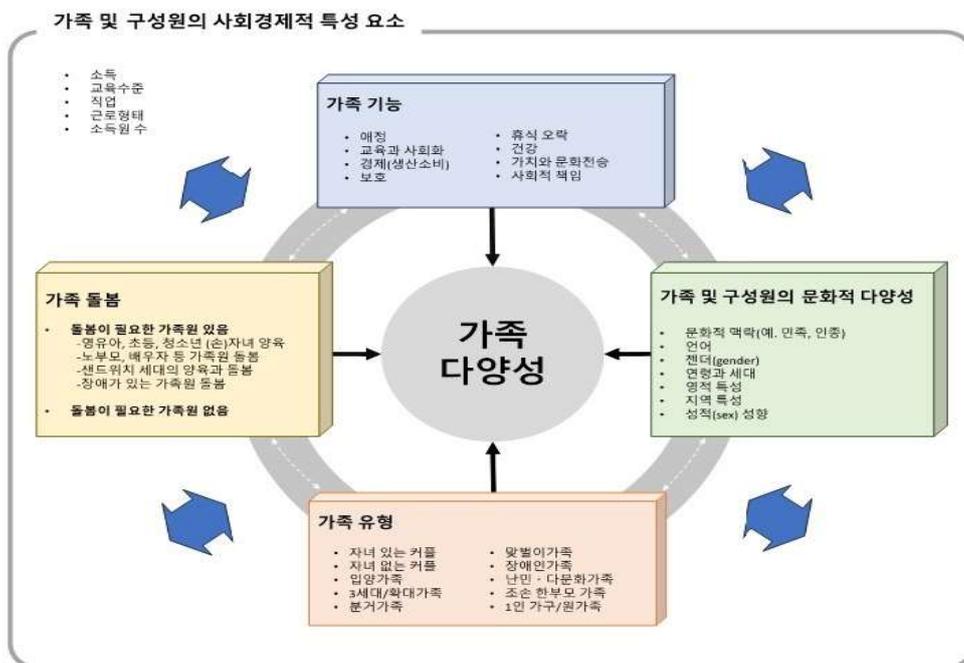
기능	내용
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정</li> <li>• 친밀감</li> <li>• 상호 배려</li> </ul>
교육과 사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li> <li>• 사회화</li> </ul>
경제(생산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활동</li> <li>• 고용</li> <li>• 의식주</li> <li>• 생필품 제공</li> </ul>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보호</li> <li>• 어린이, 노인 보호</li> <li>• 정서적 물리적 안전</li> </ul>
휴식 오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li> <li>• 휴식</li> <li>• 오락(엔터테인먼트)</li> </ul>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적 건강</li> <li>• 정신적 건강</li> </ul>
가치와 문화 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적 가치 전달</li> <li>• 사회적, 종교적 가치 전달</li> <li>• 정체성 발전: 가족/지역사회/민족/국가/종교</li> </ul>
사회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참여</li> <li>• 시민의식</li> <li>•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 사회화</li> </ul>

## 2.2 가족다양성 요소와 차원

가족의 삶의 모습은 여러 차원과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다른 가족과 다르면서 고유하다. 가족서비스 실무에서는 개별 가족의 고유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되, 모든 가족의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각각 제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족서비스 실무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가족의 다양성을 몇 개의 다양한 차원과 요소들을 활용하여 인식하고, 발견된 가족다양성의 차원과 요소들을 중심으로 가족서비스에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어떤 특성을 가진 가족이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가족서비스에 더 영향을 받는지, 서비스에서 배제되는지, 서비스 접근에 차별은 없는지 등을 다양한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이 가족다양성을 가족서비스 실무에 적용하는 기초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표 6-3>은 가족다양성의 다양한 차원으로 가족 유형, 가족생활주기단계(family life cycle stage), 가족 맥락을 제시한 Bogenschneider(2014)의 가족다양성 분석틀, 문화다양성의 요소 등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표 6-3>을 구성하게 된 기초적인 아이디어는 가족서비스를 기획하거나 평가할 때, 특정 가족서비스가 어떤 가족에게 더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분석하는 데 ‘어떤 가족’을 규정하는 가족의 특성은 매우 다양한 차원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Bogenschneider(2014)의 제안에서 왔다. 즉, 가족의 구성이나 구조가 같은 유형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각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생활주기나 문화적인 배경 요소,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가족 기능에서의 욕구가 다양하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6-1> 참조).

<그림 6-1> 가족 기능 및 가족다양성 요소를 고려한 가족다양성 개념 모형



〈표 6-3〉 가족다양성의 요소와 차원은 가족다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 중 가족센터의 가족서비스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가족 정책전문가, 가족서비스 실무자의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하였다. 〈표 6-3〉 가족다양성의 요소와 차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분류와 요소,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가족다양성의 대분류는 ‘문화다양성’, ‘가족 유형’, ‘가족 돌봄’,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분류되고, 각 분류의 하위 요소를 나열한 다음, 각각의 하위 요소를 가족서비스에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문화다양성’은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들을 포함하였다. 문화적 맥락(민족, 인종, 국적, 문화 정체성 등), 언어, 성역할, 연령과 세대, 영적 특성(종교, 신념 등), 지역 특성 등의 요소를 문화다양성으로 분류하였다.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대다수 가족다양성의 요소 중 문화적 맥락, 언어를 고려한 사업이다.

‘가족유형’은 가족 구성 및 구조와 주거 공유를 가족다양성 요소로 포함하였다. 가족 구성 및 구조의 다양성을 커플,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가족, 3세대가족/확대가족의 차원으로 제시하였는데, 가족 구성의 방식과 구조로 차원을 구분하였으나 각각의 차원의 수준이 동일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커플과 한부모를 구분하는 기준과 조손가족과 입양가족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가족다양성 요소를 구분하는 차원이 많아지면 가족서비스 실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 차원의 수준이 동일하지 않으나 가족서비스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가족의 유형을 가족 구성 및 구조의 다양성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주거 공유에서는 분거가족, 1인 가구/원가족 등이 가족다양성 요소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차원이다.

‘가족 돌봄’은 돌봄과 부양이 필요한 가족원의 유무를 가족다양성의 요소로 보고 자녀 양육과 돌봄, 노부모, 배우자 등 자녀 이외 가족원 돌봄을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과거에는 결혼을 시작으로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의 출생과 성장, 자녀의 독립, 배우자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가족생활주기로 가족의 삶의 모습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가족생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의 생활사건들(예. 결혼, 출생, 독립 등)이 단일한 차원으로 순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커져서 자녀의 출생과 성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생활주기를 모든 가족의 삶의 모습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예를 들면 결혼, 이혼, 재혼이 반복되기도 하고,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가족 구성이 다른 여러 유형의 가족(예. 양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재혼양부모가족, 1인 가구 등)에 속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생활주기를 적용해서 가족생활을 이해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인 자녀의 출생과 성장에 따른 가족의 변화와 그 변화에 수반되는 가족의 필요와 욕구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되, 변화의 선형적이고 순차적인 부분을 완화하여 돌봄과 부양 책임의 변화에 따른 가족다양성의 요소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돌봄과 부양이 필요한 가족원의 유무가 가족의 삶의 모습과 방식의 차이와 깊은 관

련이 있다고 보고, 돌봄과 부양이 필요한 가족원 유무를 가족다양성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먼저 돌봄과 부양이 필요한 가족원이 없는 경우(예. 무자녀, 미성년 자녀가 없음 등)를 구체적인 차원으로 점검할 수 있다. 돌봄과 부양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 가족원 돌봄, 양육과 돌봄 모두 등과 관련 있는 가족의 특성을 점검해 보고, 더 구체적으로 자녀의 연령, 돌봄의 대상이 노부모인지, 배우자인지, 그리고 양육과 돌봄을 모두 필요로 하는 가족의 특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특성’은 가족 내 구성원들의 소득, 교육 수준, 직업 지위, 근로 형태 및 가족 내 근로소득자 수 등을 구체적인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가족센터의 가족서비스 대부분은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보편적 서비스이고, 가족원의 교육 수준, 직업적 지위 등을 가족서비스 계획과 대상선정에 직접 활용하지 않으나, 가족을 이해하는 배경 요인으로 소득, 교육 수준, 직업 지위를 포함하였다. 근로 형태와 근로소득자 수는 가족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상을 선정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족다양성의 차원이라고 보았다.

<표 6-3> 가족다양성의 요소와 차원을 가족서비스에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분류, 요소, 차원은 상호 배타적인 카테고리가 아니다. 가족다양성의 여러 요소와 차원은 한 가족에게 동시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문화적 맥락 요소를 고려할 때 특정 가족의 구성원들의 민족, 인종, 국적, 문화적 정체성이 다양할 수 있고, 가족 구성 및 구조 요소에서도 한부모가족이면서 입양가족에 해당될 수도 있다. 둘째, <표 6-3>의 분류와 법률의 가족 분류는 다르다. <표 6-3>은 가족다양성이 다양한 요소에 의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법적인 기준이나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한부모가족에 포함되어 지원 대상이 되지만, <표 6-3>에서 한부모가족은 한부모 형성과정을 기준으로 다양성의 차원들을 제시하여 조손가족이 한부모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서비스 실무자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표 6-3>과 같은 가족다양성의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여 현재 우리 지역사회의 가족다양성 존중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가족서비스 실무자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감수성 증진을 위해 가족다양성의 요소들을 검토하고 파악하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표 6-3>에서 제시한 요소와 차원은 가족서비스 실무에서 가족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들로 구성하였으므로, 제시된 가족다양성 요소와 차원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가족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다양성 요소와 차원을 추가하거나 더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lt;표 6-3&gt; 가족다양성의 요소와 차원

대분류	요소	차원1		차원2
문화다양성	문화적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족</li> <li>인종</li> <li>국적</li> <li>문화 정체성</li> </ul>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중언어</li> <li>한국어 이외 모국어</li> </ul>		
	성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역할 정체성</li> <li>성역할 분담</li> </ul>		
	연령과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li> <li>생물학적 연령</li> </ul>		
	영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교</li> <li>신념</li> </ul>		
	지역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li> <li>중소도시</li> <li>대도시</li> </ul>		
가족 유형	가족 구성 및 구조	커플	• 자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혼(법적결혼)</li> <li>동거</li> <li>초혼/재혼/재결합</li> </ul>
			• 자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혼(법적결혼)</li> <li>동거</li> <li>초혼/재혼/재결합</li> </ul>
		한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혼/이혼/사별/별거</li> <li>모자가족/부자가족</li> <li>비양육부모</li> </ul>
		조손가족		
	입양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 과정</li> <li>중도입국자녀 입양</li> </ul>	
	3세대가족/확대가족			
	주거 공유	분거가족		
1인 가구/원가족				
가족 돌봄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거</li> <li>무자녀</li> <li>미성년 자녀 없음</li> <li>장애가 있는 가족원 없음</li> <li>노부모 등의 가족원 없음</li> </ul>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있음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손)자녀</li> <li>초등학생 (손)자녀</li> <li>청소년 (손)자녀</li> </ul>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부모 돌봄</li> <li>배우자 돌봄</li> <li>다른 가족원 돌봄</li> </ul>
		양육과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 자녀/손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li> <li>샌드위치 세대: 미성년 자녀와 부양할 노부모가 있는 성인</li> <li>발달 장애가 있는 가족원</li> </ul>
사회경제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의 소득수준</li> <li>가족원의 교육 수준</li> <li>가족원의 직업 지위</li> </ul>			
	가족원의 근로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일제/시간제</li> <li>직장인/자영업</li> <li>계절 근로자</li> </ul>	
	가정의 근로소득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맞벌이 가족</li> <li>외벌이 가족</li> </ul>	

주: <표 6-3>에서 제시한 요소와 차원은 가족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들로 구성하였음. 제시된 요소와 차원 이외에도 가족서비스 사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족다양성 요소와 차원을 추가하거나 더 세분화하여 구성할 수 있음

### 3. 가족 기능 및 가족다양성 요소의 실무 적용

#### 3.1 가족 기능 및 가족다양성 요소에 따른 가족서비스 체계

가족다양성 관련 실무서비스를 위해 앞에서 제시한 가족의 기능과 가족다양성 요소들을 활용하여 구축한 가족서비스 체계와 관련된 사업 예시는 <표 6-4>와 같다. 본 체계는 가족의 기능을 기본 축으로 문화다양성, 가족 유형, 가족 돌봄을 교차하여 구축하였다. 핵가족 등 비교적 단일한 가족 유형이 중심이었던 이전 시기에는 가족 기능과 가족생활주기를 교차하는 단순한 방식을 활용하여 개별 가족이 필요로 하는 가족서비스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더 포괄적 차원의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다 확장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체계에서 제시하는 가족 기능, 문화다양성, 가족 유형, 가족 돌봄의 각 하위 요소들은 「2022 가족사업안내(Ⅰ)」와 본 연구의 조사결과,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을 참고하고 현장에서의 실천적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재구성하였다.

각 축이 교차하는 영역에는 가족 기능과 해당 요소와 관련될 수 있는 가족서비스의 내용 예시를 도출하여 배치하였다. 먼저 가족 기능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사업 예시를 제시하였다. 기본사업은 가족의 각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가족에게 필요할 수 있고, 어떠한 유형이나 특성에 상관없이 포괄적·포용적 측면에서의 가족다양성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본사업에 문화다양성, 가족 유형, 가족 돌봄을 각각 반영한 사업 내용 예시를 추가적으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가족의 고유성이나 개별적 측면에서의 가족다양성 개념을 적용하여 가족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

교차하는 각 영역에 제시된 가족서비스 예시는 「2022년 가족사업안내(Ⅰ)」(p. 95)의 표에 제시된 기본사업과 본 연구의 가족센터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에게 가족다양성의 개념을 이해하여 가족서비스 사업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제시된 예시가 해당 영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본 예시 외에 가족센터에서 시행해온 사업 중 각 영역에 해당되는 관련 사업이 더 있을 수 있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가족다양성 사업 체계를 보완하거나, 새롭게 구성되는 사업을 추가하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다양성 요소가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가족다양성에 따라 도출된 각 영역의 사업 내용 역시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따라서 각 영역에 제시된 사업들은 기획하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여러 영역에 중복·적용할 수 있다.

<표 6-4> 가족 기능 및 가족다양성 요소에 따른 가족서비스 체계와 프로그램 예시

		가족 기능					민족/인종		언어		성별		연령		지역 특성	
		예정적 관계	가족 돌봄 (양육, 교육, 보호)	경제(생산소비) & 노동력 재생산	휴식 & 오락	가치, 문화 & 사회적 책임										
가족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없음</li> <li>• 동거</li> <li>• 무자녀</li> <li>• 미성년 자녀 없음</li> </ul>	<b>[기본 사업 구성]</b> -가족 관계 -갈등 예방해결 -가족 상담 사업	<b>[기본 사업 구성]</b> -공동 육아/돌봄 활동 -역할지원 -가족역량 강화 -가족 상담 사업	<b>[기본 사업 구성]</b> -일·가족양립지원 -재무교육	<b>[기본 사업 구성]</b> -가족친화문화 -가족사랑의 날	<b>[기본 사업 구성]</b> -지역사회 가족봉사단 -정체성 형성 -가족다양성 인식 -공동체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있음</li> <li>• 양육</li> <li>✓ 영유아 (손)자녀</li> <li>✓ 초등학교생 (손)자녀</li> <li>✓ 청소년 (손)자녀</li> </ul>	<b>[문화다양성 반영]</b> -세대관계 -성평등 관계 -민주적 가족문화	<b>[문화다양성 반영]</b> -아버지 역할지원	<b>[문화다양성 반영]</b> <대상별 교육> -청년 및 예비부부 성인 -아동청소년 -중노년기	<b>[문화다양성 반영]</b> -지역 특성 반영 행사	<b>[문화다양성 반영]</b> -세대간 이해/통합 교육 -타문화와 소통 활동 -지역 특성 반영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부모 돌봄</li> <li>✓ 배우자 돌봄</li> <li>✓ 다른 가족원 돌봄</li> </ul>	<b>[가족 유형 반영]</b> -다문화가족 관계 -1인 가구 원가족 관계 -입양가족 부모-자녀관계 -분거가족 관계 -원가족이 없는 가족의 확장된 가족 관계	<b>[가족 유형 반영]</b>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맞벌이/한부모자녀 돌봄 -조손가족 조부모역할 -난민가족 심리상담 -1인 가구 자기돌봄 -장애인/돌봄가족 공동체 활동 및 상담 -이혼 전·후 가족지원 -이혼 면접교섭서비스	<b>[가족 유형 반영]</b>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맞벌이, 한부모가족 일·가족 양립지원 -1인 가구 경제교육	<b>[가족 유형 반영]</b> -맞벌이, 한부모가족 일·생활균형	<b>[가족 유형 반영]</b> -다문화가족 문화의식, 정체성 -이중언어 가족환경 (중도입국가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과 돌봄</li> <li>✓ 성인 자녀/손자녀와 동거</li> <li>✓ 미성년자녀와 부양 노부모</li> <li>✓ 발달 장애가 있는 가족원</li> </ul>	<b>[가족 돌봄 반영]</b> -부부관계 -(조)부모-(손)자녀 관계: 자녀연령대별, 부모의 혼인상태별 등 -성인자녀-노부모 관계	<b>[가족 돌봄 반영]</b> -자녀 연령대별 부모 역할 -돌봄 역할	<b>[가족 돌봄 반영]</b> -초중등 자녀가 있는 가족의 가사노동 분담(교과 내용)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모 대상 경제교육	<b>[가족 돌봄 반영]</b> -자녀 연령대별 행사 -돌봄 제공자 휴식	<b>[가족 돌봄 반영]</b> -연령대별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자녀있는 커플관계    자녀없는 커플관계    입양 가족    3세대/확대가족    분거 가족    맞벌이 가족    장애인 가족    난민 가족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1인 가구/원가족	<b>가족 유형 (예)</b>													

주: 제시된 가족 기능은 가족센터 사업과 관련된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재구성하여 제시함

주: 제시된 프로그램 예시는 「2022 가족사업안내(D)」와 가족센터 진행사업을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센터 사업에 대한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구성함. 따라서 관련 사업의 일부분만을 제시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며, 제시된 예시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여 본 체계표를 보완확장하여 사용 가능함

주: 각 영역에 제시된 프로그램 예시는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므로 중복될 수 있고 여러 영역의 사업을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음

<표 6-4>에서 제시한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체계를 현장에서 활용할 때에 주의할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체계에서 제시한 가족다양성 관련 요소들을 가족서비스 실무에서 모두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각 지역 현황과 가족센터 상황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요소들도 있을 수 있고, 본 체계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나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사업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한 요소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서비스 실무자는 가족센터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등 현장에 맞춰 현재 지역사회 가족다양성 존중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가족다양성 요소를 파악하여 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체계를 기초로 각 센터의 상황과 지역 현안에 맞춰 불필요한 칸은 삭제하거나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실무자가 원하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실용적인 체계로 조정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체계에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 요소(예. 소득수준, 교육 수준, 직업 요소 등)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가족의 갈등이나 처한 상황, 가족 욕구와 서비스 참여에 직결되는 부분의 고려는 필요하다. 따라서 본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각 지역 가족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사회경제적 특성 요소를 추가한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을 파악해 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체계는 2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앞서 제시한 모형(<그림 6-1> 참조)과 같이 가족의 기능과 가족다양성 여러 요소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보다 복잡한 양상의 가족의 필요와 욕구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혼한 다문화가족이 현지에 있는 자녀를 입양하는 형식으로 가족을 형성한 경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문화가족의 욕구와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차원에 따른 반영 예시는 단편적이 아닌 복합적으로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가족 유형에 따라 가족다양성 요소들을 고려하고, 그를 바탕으로 가족서비스를 구상해야 함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를 바라봤을 때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의 가족 유형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 체계에서 제시한 가족의 기능, 가족다양성의 요소나 가족사업의 예시에 보다 열린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리 사회의 다문화 역사는 30년을 지나고 있고,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성인기에 접어들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다문화가족이라는 가족 유형의 요소는 더 세분화된 새로운 요소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족서비스 실무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가족다양성 관련 요소 및 가족서비스의 변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 3.2 가족센터 사업목표에 가족다양성 포함 여부에 따른 사업 분류

가족센터에서의 사업은 사업목표에 있어 가족다양성 요소를 포함하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가족 사업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6-5>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가족센터의 사업을 분류하여 살펴보고, 관련 키워드의 도출과 현재 시행되는 사업 예시를 토대로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가족센터 사업 중 사업목표에 가족다양성 요소를 포함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되는데, ‘지역사회에 가족다양성 인정·존중확산을 주목표로 하는 사업’, ‘가족다양성 인정과 존중 증진을 부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사업’, ‘가족의 특별한 욕구 충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 가족다양성 인정·존중확산을 주목표로 하는 사업’은 가족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핵심키워드로 「가족다양성 인정·존중포용」, 「지역사회 일반주민 대상」, 「가족센터 이용자 확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센터 사업 예시로는 “다이음사업”,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사업”, “지역사회 가족다양성 존중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가족다양성 인정을 위한 가족축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가족다양성 인정과 존중 증진을 부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 내용에 가족다양성 증진을 포함하는 것과 사업 방법에 가족다양성 증진을 포함하는 것 등 사업 목적을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사업 내용에 가족다양성 증진을 포함하는 사업의 핵심키워드는 「가족다양성 이해」, 「다른 문화 존중」 등이고, 사업 예시로는 “가족축제”, “가족문화사업”, “가족사랑의날” 등이 해당한다. 이는 가족다양성 인정이 부차적 목표로서 사업 명칭에 직접적으로 가족다양성이나 다양한 문화 수용 관련 언급이 없지만 사업 배경 및 내용(진행)에서 가족다양성 개념을 반영하고 추구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업 방법에 가족다양성 증진을 포함하는 사업의 핵심키워드는 「사업 접근성 강화」, 「참여자 간 교류와 소통」 등이 있다. 사업 예시로는 “부모교육”과 “부부교육”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춘기자녀 관련 부모교육이나 중년기 부부교육 등 공통 관심사나 비슷한 생애주기 아래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족다양성 인정과 존중이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설정되지 않지만, 가족다양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특정한 가족이 프로그램의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가족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들 간에 교류와 소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다양성을 확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족의 특별한 욕구 충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가족의 다양성과 관련된 가족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고, 핵심키워드는 「가족다양성 요소

구체화」 및 「특수성 안에서 다양성」이 될 수 있다. 사업 예시로는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이 있고, 구체적으로 ‘코로나 시기 중도입국 자녀의 적응 관련 부모교육’ 이나 ‘가정폭력 관련 부부교육 및 상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센터 사업 중 사업목표에 가족다양성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은 ‘가족다양성 증진을 사업목표로 설정하기 어려운 사업’ 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본래의 고유한 목적 달성이 중요한 사업으로, 핵심키워드로는 「포용적 언어사용」, 「사업 접근성 강화」가 있다. 사업 예시를 살펴보면 “가족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부모교육이나 부부교육은 앞에서 살펴본 ‘사업 방법에 가족다양성 증진을 포함하는 부모교육, 부부교육 사업’ 과는 다른 차원에서 기획된다. 즉, 부부교육이나 부모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 가족다양성 인정과 존중 관련 사항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가족센터 운영에 적용하는 가족다양성 존중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예. 포용적 언어사용, 사업 접근성 확대 등)만 고려하는 것이다.

<표 6-5> 가족센터 사업목표에 가족다양성 포함 여부에 따른 사업 분류 및 예시

	분류	설명	키워드	사업 예시
사업목표에 가족다양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에 가족다양성 인정·존중 확산을 주목표로 하는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목적이 가족다양성 인정과 존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다양성 인정·존중·포용</li> <li>지역사회 일반주민 대상</li> <li>가족센터 이용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이음사업</li> <li>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사업</li> <li>지역사회 가족다양성 존중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li> <li>가족다양성 인정을 위한 가족축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다양성 인정과 존중 증진을 부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내용에 가족다양성 증진 포함</li> <li>사업 방법에 가족다양성 증진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다양성 이해</li> <li>다른 문화 존중</li> <li>사업 접근성 강화</li> <li>참여자 간 교류와 소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축제</li> <li>가족문화사업</li> <li>가족사랑의날</li> <li>부모교육</li> <li>부부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의 특별한 욕구 충족을 목표로 하는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의 다양성과 관련된 가족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다양성 요소 구체화</li> <li>특수성 안에서 다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li> <li>다문화가족 지원사업</li> </ul>
사업목표에 가족다양성 불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다양성 증진을 사업목표로 설정하기 어려운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본래 목적 달성이 중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용적 언어사용</li> <li>사업 접근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상담</li> <li>부모교육</li> <li>부부교육</li> </ul>

## 제2절 가족다양성 적용 점검 및 진단

### 1. 가족서비스 실무에서 가족다양성 적용 점검표

가족서비스 실무에서 단위사업과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가족센터의 전반적인 사업 기획과 평가, 가족센터 운영 전반에 가족다양성 적용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점검표를 구성하였다. ‘가족다양성 적용 점검표’의 기초적인 아이디어는 Bogenschneider(2014)가 제시한 Family Impact Checklist의 가족다양성 관련 문항을 바탕으로 하였다. 가족서비스에서 가족다양성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술들이 담긴 자료들(예. 미국 매사추세츠주 가족서비스 실무자 등을 위한 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점검 문항을 구성하였고, 가족 정책전문가와 가족서비스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 가족센터의 가족서비스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 1.1 가족서비스 단위사업과 프로그램을 위한 가족다양성 적용 점검표

가족센터의 단위사업계획 및 평가, 개별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등에 가족다양성 적용 정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아래의 점검표를 활용할 수 있다(〈표 6-6〉 참조).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가족다양성 점검표를 활용하여 기존 가족 사업에서 가족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기존 사업 내에서 가족다양성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이때 가족다양성의 핵심 요소들의 반영 여부를 사업기획 단계에서만 뿐만 아니라 사업실행 및 사업평가 등 전 단계에서 반영한다.

〈표 6-6〉 가족서비스 사업과 프로그램을 위한 가족다양성 점검표

※ 가족센터의 특정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다음 문항에 답하십시오.

문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1.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 또는 부수적 목적에 가족다양성 인정, 존중, 수용, 확장 등이 포함되는가?	[2번으로 가시오]	[1-2번으로 가시오]	
1-2.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예. 대상, 서비스 제공 방법 등)이 있습니까? 사업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서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서비스 계획 마련을 고려할 수 있습니까?			

문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2.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가족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가?			
2-2. 가족다양성의 어떤 요소들(〈표 6-3〉)을 고려하였는가?			

‘가족다양성 요소와 차원’을 참고하여 기획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가족다양성의 요소와 차원을 작성해 본다.

대분류	요소	차원
문화다양성	문화적맥락 언어 성역할 연령과 세대 영적 특성 지역 특성	

가족 유형	가족 구성 및 구조 주거 공유	
가족 돌봄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없음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있음	
사회경제적 특성	가정의 소득수준 가족원의 교육수준 가족원의 직업지위 가족원의 근로형태 가정의 근로소득자 수	
제시된 요소와 차원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서비스 사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족다양성 요소와 차원을 추가하거나 더 세분화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아래의 문항들은 2-2번에서 작성한 가족다양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답하십시오.

문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3.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목표에 가족다양성의 인정, 존중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가?			
4.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대상선정에 특정한 가족이 배제되거나 독점 또는 편향되지 않도록 노력하는가?			
5.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가족다양성의 인정과 존중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가?			
6. 사업 또는 프로그램에 가족다양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7.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방법과 운영 과정에서 특정한 가족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가?			
8.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평가 요소에 가족다양성의 인정과 존중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가?			
9.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용어는 가족다양성 존중을 고려하는가?			
10. 사업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이 문화적, 종교적 생활습관과 의례를 지키는 것을 배려하는가?			

## 1.2 가족센터 전체 사업을 위한 가족다양성 적용 점검표

가족센터의 연간사업계획, 연간사업평가, 3-5년 단위의 중장기 사업계획 또는 발전계획, 분기별 사업평가 등에 <표 6-7> 점검표를 적용할 수 있다.

<표 6-7> 가족센터 전체 사업을 위한 가족다양성 점검표

※ 가족센터의 전반적인 사업과 프로그램에 다음의 내용을 적용하여 답하십시오.

문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1. 가족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가족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가?			
2. 가족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 전반에서 주로 고려한 가족다양성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가족다양성 요소와 차원’을 참고하여 가족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 전반에 중요하게 고려한 가족다양성의 요소와 차원을 작성해 본다.

대분류	요소	차원
문화다양성	문화적맥락 언어 성역할	

	연령과 세대 영적 특성 지역 특성	
가족 유형	가족 구성 및 구조 주거 공유	
가족 돌봄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없음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있음	
사회경제적 특성	가정의 소득수준 가족원의 교육수준 가족원의 직업지위 가족원의 근로형태 가정의 근로소득자 수	
제시된 요소와 차원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서비스 사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족다양성 요소와 차원을 추가하거나 더 세분화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아래의 문항들은 2-2번에서 작성한 가족다양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답합니다.

문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3. 가족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에서 주로 고려한 가족다양성 요소들은 지역사회의 가족다양성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가?			

3-1. 그렇다면, 어떤 요소들이 지역사회의 가족다양성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가?

3-2. 아니라면, 지역사회의 가족다양성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가족다양성의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문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4. 가족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에서 특정한 가족이 가족서비스 이용에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4-1.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4-2. 아니라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문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5. 가족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에서 사용하는 언어, 용어에서 가족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게 노력하는가?			

5-1.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5-2. 아니라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문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6. 가족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에서 참여하는 가족이 문화적, 종교적 생활습관과 의례를 지키는 것을 배려하는가?			

6-1.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6-2. 아니라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문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7. 가족센터의 전체 사업의 예산계획에 가족다양성이 반영되었는가?			

문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8. 가족센터 사업과 프로그램에 가족다양성 반영 정도를 모니터링 또는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1.3 가족센터 기관 운영을 위한 가족다양성 적용 점검표

가족센터 기관 운영에 가족다양성의 적용 정도를 <표 6-8>의 점검표로 점검해 볼 수 있다.

<표 6-8> 가족센터 기관 운영을 위한 가족다양성 점검표

※ 가족센터의 특정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다음 문항에 답하십시오.

문항	그렇다	아니다	비고
1. 가족센터의 운영 철학, 비전에 가족다양성의 인정과 존중이 반영되어 있는가?			
2. 가족다양성에 포용적이고 민감한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서비스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는 가족다양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는가?			
3. 가족서비스 실무자와 강사들은 가족다양성에 대한 편견이나 판단 없이 모든 가족을 대할 수 있는가?			
4. 가족센터는 지역 내 가족의 욕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가족다양성 적용에 활용하는가?			
5. 가족센터는 지역사회에 가족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와 이미지를 전달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6. 가족센터는 지역 내 다른 기관과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에 가족다양성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제3절 가족센터 사업에서의 가족다양성 적용 및 발전과제

#### 1. 실무에서의 가족다양성 적용 및 실천적 방안

##### 1.1 개별 가족서비스의 명확한 목적 설정

######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운영 의사결정 시 고려할 사항』

- 가족서비스의 목표 확인
- 가족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해당 가족서비스의 목표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평가
  - (부합한다면) 가족다양성 반영 방법에 대한 고려
  -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목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가족서비스에 가족다양성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족서비스의 목적과 목표 설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가족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주요 목표로 고려될 수 있는 사업인지, 부부관계 향상 혹은 남성의 양육 참여 확대 등 그 밖에 다른 목표 달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2022 가족사업안내(I)」나 지역센터에서 사업 운영기획 시 사업별 명확한 사업 목적 및 목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 가족다양성 개념이 적용되거나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2022 가족사업안내(I)」에는 주요 서비스 영역과 사업수행 내용 정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으나,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문서화 되지 않은 상태이다. 개별 사업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참여에 대한 다양한 가족의 욕구가 상충 될 경우, 센터 현장은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사업의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게 기술될 때, 가족다양성 관련 목표가 해당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손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표 6-9〉 참조), 남성 양육자의 자녀 양육 참여 향상을 목표로 부모-자녀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다문화가족의 참여로 가족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으나, 한부모가족의 참여는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부간 의사소통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비다문화가족 부부와 다문화가족 부부 대상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것이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다. 대상별 프로그램은 개별 가족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해당 가족이 필요로 하는 고유한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하므로 가족다양성을 반영한 사업이라 볼 수 있다. 즉, 가족서비스의 목표와 관

계없이 가족다양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고려는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서비스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가족다양성을 어떻게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예로 ‘가족사랑의 날’은 가족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가족이 양질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센터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대상의 경우 기존에는 ‘가족 2인 이상 참여’에서 최근 ‘1인 가구의 참여’가 가능토록 사업 지침이 수정되었다. ‘가족사랑의 날’에 1인 가구가 참여할 수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1인 가구 참여가 사업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중 “아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꽃바구니 만들기”, “가족 사랑 쪽지” 등의 활동에 1인 가구가 참여하여 함께 살지 않는 가족과 연결되는 기회를 갖는다면 ‘가족사랑의 날’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별로 가족구성원의 공동 참여를 통한 가족 유대감 증진을 목표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1인 가구의 참여를 사업 목적과 어떻게 연관성을 설정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즉, 가족다양성에 대한 강조에 따라 무조건적인 사업 대상 확대보다 사업 목적 및 목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 대상 확대 및 그에 적합한 조건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6-9> 개별 가족서비스별 목표 및 가족다양성 적용 예시

기존 사업	사업목표 예시	가족다양성 적용 가능성 및 참고사항
가족사랑의 날	• 가족이 질적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가족관계 향상 도모한다.	※ 가족구성원 2인 이상 참여 요구
	•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1인 가구, 분거가족 등 참여 가능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요리 활동	• 남성 양육자의 자녀 돌봄 참여를 증진한다.	※ 다문화가족, 비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양부모가족 참여 가능

## 1.2 가족서비스에서 포괄적인 언어사용

가족서비스에서 포괄적인 언어사용을 통해 가족다양성을 반영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가족서비스 중 ‘가족관계 영역 프로그램’은 포괄적인 언어사용을 통해 가족다양성 확장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부부교육, 예비부부교육을 커플교육으로의 명칭 변경 및 관련 내용 변경을 통해 혼인 중인 커플뿐 아니라 동거 및 데이팅 중인 커플의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서비스 내 언어 및 내용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 대상 서비스를 부모 및 양육자 대상 서비스로의 명칭 변경, 대상별 필요 내용 마련 등의 콘텐츠 변경 및 확대 등의 방식으로 가족다양성 반영을 고려할 수 있다(<표 6-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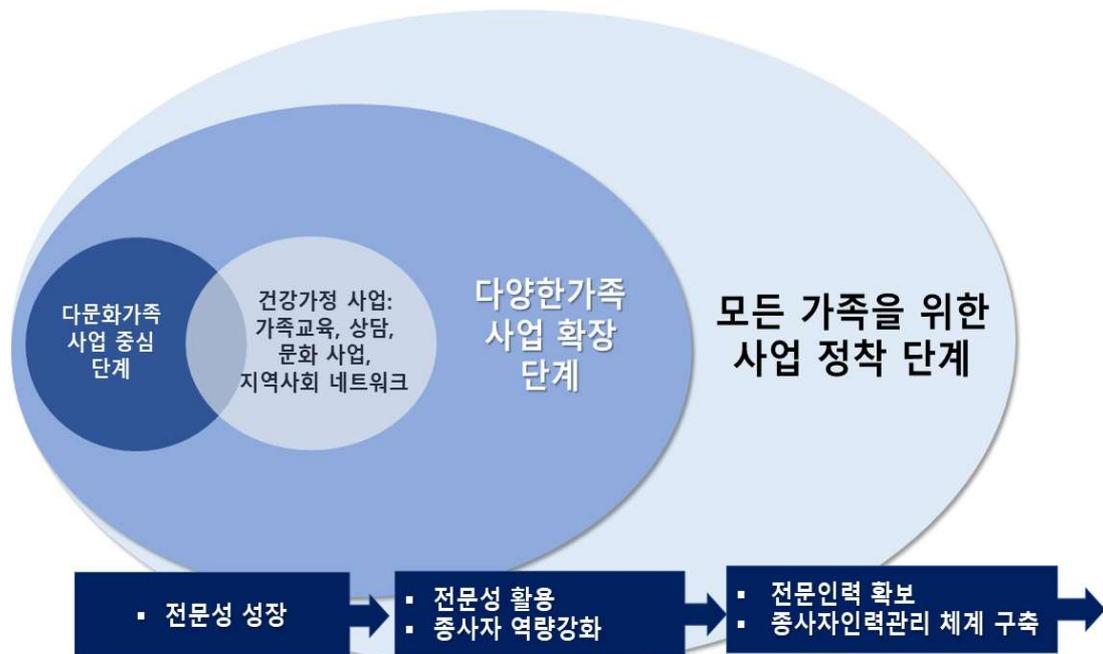
<표 6-10> 가족관계 영역 서비스 명칭 변경안

기존 사업명		변경된 사업명	
• 부모역할 지원	- 임신출산(부모) 지원 - 영유아기 부모지원 - 학부모지원 - 혼례가치교육 - 아버지 역할지원	▶	• 부모 및 양육자 역할 지원 - 임신출산 지원 - 영유아기 부모/양육자 지원 - 학부모지원 - 아버지 역할지원
• 부부역할 지원	- 부부갈등예방·해결지원 - 노년기 부부지원	▶	• 커플 관계 지원 - 생애주기별 커플 관계 향상 지원
• 이혼 전·후 가족 지원		▶	• 이혼 전·후 가족 및 비혼 부모 지원 - 이혼 전·후 가족 및 비혼 부모 지원

### 1.3 기존 가족서비스 대상에서 가족다양성 확보

가족센터의 예산 부족 및 예산 배부 형태에 따른 종사자들의 사업 운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센터 예산 및 예산 배정 형태 변경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 대상 내에서 가족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가족센터는 가족을 위한 다양한 가족교육 및 상담을 제공해 온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상당히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존 가족서비스 대상들의 다양한 그리고 변화하는 욕구를 반영하여 가족다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6-2> 참조).

<그림 6-2> 가족다양성 사업을 위한 가족센터 및 종사자 전문성 활용



실제로 가족센터 종사자들은 현재의 사업 구조하에서 ‘특정 가족 유형 안에서 다양성 찾아보기’의 방식으로 가족다양성을 가족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즉, 가족센터 사업의 주요 대상인 아동기 자녀 양육 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등의 유형 안에서 특성의 다양성을 발견하여 이를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가족센터의 대응은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가족다양성 요소를 가족서비스에 적용하려는 노력으로 가족센터의 가족다양성 확장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대상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 내에서도 다양한 가족 욕구를 지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와 떨어져 생활하는 비양육 1인 가구 대상 부모 역할 프로그램, 부모를 돌보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 돌봄 관련 프로그램, 이혼을 경험한 1인 가구 대상 커플 교육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 내에서도 자녀양육기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다문화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생애주기 및 가족 맥락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가족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예로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육아 공간 및 돌봄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조성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주요 참여 대상자는 여성이다. 그러나 참여 대상을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그리고 조부모 등 비동거 친족의 참여 확대를 통해 가족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대상 서비스가 특화된 센터의 경우 다문화가족 내 다양한 가족의 특성 및 지역 특성, 다문화가족의 변화하는 욕구를 반영해 가족다양성을 고려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여성 초기 정착 및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에서 다문화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및 중도입국자녀 지원 등 현재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가족서비스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족다양성 증가 및 아동양육기 가족의 비율 감소가 한국 사회의 주요 인구 변화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것은 가족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야 하므로(홍승아, 최진희, 진미정, 김수진, 2015), 아동양육기 가족은 가족센터의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우선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 현황에 맞춰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포함한 자녀양육기 가족을 위한 심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양육기 가족 내에서도 양육자의 수 및 성별, 양육자의 연령 및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차이, 아동의 연령 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요구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도 필요하다.

## 2. 가족센터 사업 운영에서의 가족다양성 적용 및 실천적 방안

### 2.1 지역별 특성 고려한 지역 특화 가족다양성 사업 추진

가족서비스는 지역별 인구와 가족 규모, 지역사회 가족다양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의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가족 사업 계획은 지역 가족센터 운영의 어려움 및 지역 내 가족의 욕구 미충족을 초래하게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가족센터는 운영예산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 (가)-(마) 유형으로 구분되고 유형별로 운영예산이 차등 지원되고 있어서 가족다양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그대로 가족센터로 전환한 (마) 유형의 경우 다문화가족 이외 유형의 가족을 위한 가족서비스 제공이 매우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가족 정책 방향을 고려한 공통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의 사회인구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 추진하는 것이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화 가족다양성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센터 사업 운영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함께 예산 확대 및 예산 사용의 자율성을 일부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지역에 맞는 가족 사업 운영을 위해 가족서비스 실무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센터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해 가족센터 사업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가족다양성 관련 실무자 교육에서는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센터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가족교육, 가족상담 등 사업 특성별로 가족다양성 관련 실무자 교육내용을 차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 가족센터는 지속적인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지자체의 요구 등을 반영한 가족다양성 관련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욕구에 대응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부 다양한 가족 대상 사업(예. 청소년 부모)의 경우 대상자 발굴이 지역에 따라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사업의 경우 시도 가족센터와 시군구 가족센터가 연합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면서 지역센터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 2.2 가족다양성 관련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 확대

가족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가족다양성을 반영한 가족 사업 수행뿐 아니라 가족센터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가족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가치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 지역

사회의 모든 가족이 다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 마련 등과 함께 가족다양성 인식 및 존중 관련 사업과 캠페인을 통한 가치 공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관련 정보제공 등에서도 가족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가족다양성 감수성을 높이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가족센터의 여러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가족다양성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가족센터 인지도 향상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해 가족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2.3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어려움 해소를 위한 종사자 지원체계 필요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가족 사업에 대한 가치와 철학, 가족 사업의 방향성, 가족다양성 개념 및 관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가족서비스 실무자 교육 및 지원체계 마련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가족센터 종사자들이 가족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개별 사업에서 가족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및 적용 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때, 사업 운영에서 가족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가족센터 종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교육강사, 컨설턴트, 가족상담사 등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등 가족센터의 내외부 관계자 모두가 가족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종사자 대상 조사에서는 다양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수행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가족센터 이용자 조사는 다양한 가족과 함께 하는 사업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나 중립적인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를 고려할 때, 다양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이 함께 참여한 사업에서 종사자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참여자의 다양성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가족다양성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에 다양한 가족이 참여한 것과 관련하는지 등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가족다양성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2.4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별 역할

가족다양성을 반영한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족서비스를 전달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시도가족센터, 시·군·구 가족센터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6-11>, <그림 6-3>에 제시하였다. 우선, 가족센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가족센터 운영을 지원하되, 가족센터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칸막이 예산 사용의 문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등 가

족다양성 확장의 방향으로 가족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도가족센터는 지역사회에서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가족다양성 이해 교육과 가족서비스에서 가족다양성 확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예, 가족다양성 가족정책 및 가족서비스 설명회)를 제공하여 행정기관에서 가족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가족센터의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가족센터 홍보를 지역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부처 단위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가족다양성 확장과 인정 관점에서 중요하다. 가족다양성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뿐 아니라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센터에 대한 홍보는 가족다양성 인식 개선을 위한 직·간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시도가족센터는 가족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가족다양성 인식 및 존중 사업 및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다양성이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추구하는 가치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 가족센터 사업 운영에서의 반영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국 단위 및 지역 단위에서 가족다양성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및 매뉴얼 개발, 가족다양성 적용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등을 통해 지역 가족센터의 가족서비스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가족서비스 실무자 및 전문인력이 가족다양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사자 역량 강화는 지역센터가 지역 욕구를 반영한 가족서비스 운영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 가족서비스의 질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종사자 역량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가족센터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한 가족서비스의 질 관리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주요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역 가족센터의 가족다양성 확장을 위한 센터 운영 및 행정적 지원체계 마련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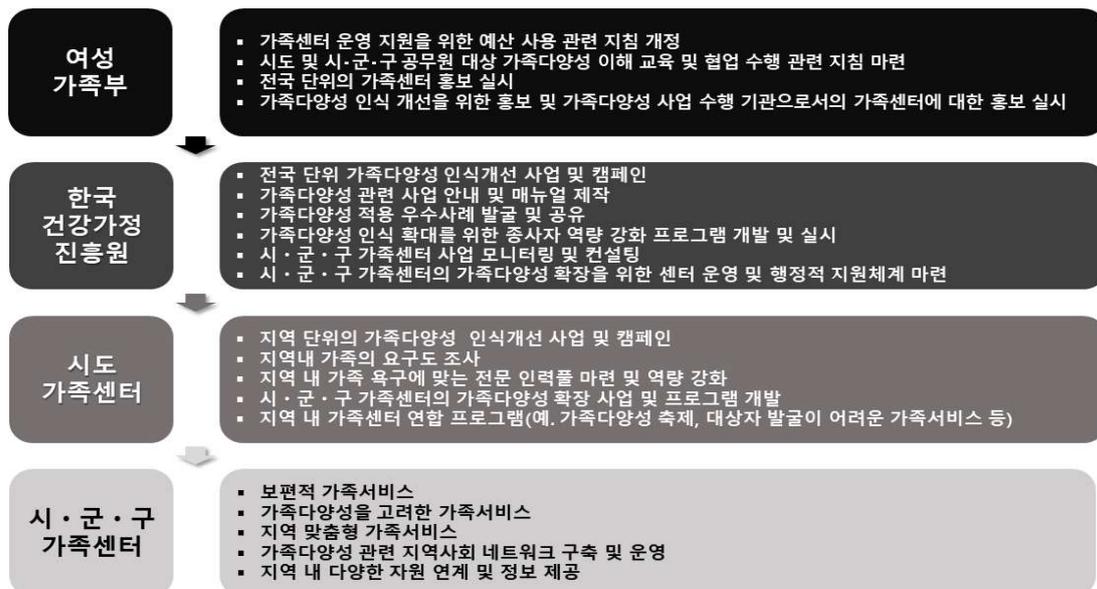
시도가족센터가 지역 내 가족의 욕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가족센터의 가족다양성 사업 운영 방향성 설정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시도가족센터가 지역 내 가족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풀(pool)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가족서비스의 방향성 공유 등의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다. 시·군·구 가족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족다양성 확장 가족 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시·군·구 가족센터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내 서비스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여러 시·군·구 가족센터가 연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 가족센터가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군·구 가족센터는 지금까지 운영해온 가족서비스에 가족다양성을 적용 및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지역 내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가족서비스 기획 및 운영으로 발전시킨다. 또한, 가족다양성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생활 관련 정보 및 자원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등의 역할을 고려할 수 있다.

<표 6-11> 가족다양성 관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별 역할

기관	역할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사용 관련 지침 개정</li> <li>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대상 가족다양성 이해 교육 및 협업 수행 관련 지침 마련</li> <li>전국 단위의 가족센터 홍보 실시</li> <li>가족다양성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가족다양성 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가족센터에 대한 홍보 실시</li> </ul>
한국건강가정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단위 가족다양성 인식개선 사업 및 캠페인</li> <li>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안내 및 매뉴얼 제작</li> <li>가족다양성 적용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li> <li>가족다양성 인식 확대를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li> <li>시·군·구 가족센터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li> <li>시·군·구 가족센터의 가족다양성 확장을 위한 센터 운영 및 행정적 지원체계 마련</li> </ul>
시도가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단위의 가족다양성 인식개선 사업 및 캠페인</li> <li>지역내 가족의 요구도 조사</li> <li>지역 내 가족 욕구에 맞는 전문 인력풀 마련 및 역량 강화</li> <li>시·군·구 가족센터의 가족다양성 확장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li> <li>지역 내 가족센터 연합 프로그램(예. 가족다양성 축제,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가족서비스 등)</li> </ul>
시·군·구 가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편적 가족서비스</li> <li>가족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서비스</li> <li>지역 맞춤형 가족서비스</li> <li>가족다양성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li> <li>지역 내 다양한 자원 연계 및 정보 제공</li> </ul>

<그림 6-3> 가족다양성 관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별 역할



## 2.5 가족센터의 가족다양성 적용 단계

가족센터는 초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시작하여 2016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였고 다시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여러 번의 과도기를 거쳤다. 이러한 변화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른 가족센터의 역할과 사업 내용에 맞춰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족센터는 명실상부한 가족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센터는 모든 가족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욕구에 대한 인정과 함께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가족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가족사업의 보편성을 기치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2016년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운영되기 시작한 가족센터는 현재 전국에 20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직 14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23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남아 있으나 이러한 센터들도 가족센터로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차를 두는 각 가족센터들의 변화 움직임이나 그동안 각 지역센터에서 시행해온 다양한 가족관련 사업 경험 및 지역 환경 등 개별 센터의 여러 여건에 따라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의 성장 속도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장 단계의 차이를 인지하고 해당 가족센터가 가족다양성과 관련해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자가진단(<표 6-7>, <표 6-8> 활용 가능)을 통해 단계별로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면 보다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가족다양성 관련 서비스의 선도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12>에는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센터의 4단계 성장 단계를 제시하였고 각 성장 단계의 상황과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표 6-12> 가족다양성 측면에서의 가족센터 성장 단계와 가족다양성 적용 전략

단계	상황	적용 전략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다양성에 대한 고려 거의 없음</li> </ul>	-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다양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문화가족 중심의 사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다양성에 대한 인식 관련 종사자교육 실시</li> <li>기본계획에서 언급한 다양한 가족부터 적용, 확대</li> <li>가족다양성 적용 방안 매뉴얼 활용</li> </ul>
성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가족의 특성 탐색</li> <li>가족다양성에 대한 이해</li> <li>다문화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족다양성 적용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의 가족다양성 특성 파악하고 적용</li> </ul>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가족다양성 특성 파악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에서 가족다양성 관련 선도기관 역할</li> </ul>

먼저 ‘도입’ 단계는 가족센터 내 사업에 있어 가족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는 단계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단계에 해당되는 센터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성장’ 단계이다. 성장 단계에 있는 가족센터는 가족다양성에 대해 고려는 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하거나 진행하고 있을 수 있다. 아마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러한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가족센터로의 통합과 가족다양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가족다양성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해서 종사자 및 실무자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언급하는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을 적용·확대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다양성 적용 관련 매뉴얼을 활용해보는 것도 성장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이 된다. 성장 다음으로는 ‘성숙’ 단계이다. 성숙 단계에 있는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탐색하고 있고 가족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넘어 가족다양성을 가족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성숙 단계의 가족센터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의 확장을 시도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가족다양성 특성을 파악하고 적용하여, 「2022 가족사업안내(Ⅰ)」 등의 매뉴얼을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안정’ 단계가 있다. 안정 단계에 있는 가족센터는 지역 내 가족다양성 특성을 이미 파악하고 그동안 가족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온 센터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단계에 있는 가족센터는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가족다양성 관련 선도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으므로 성장이나 성숙 단계에 있는 다른 가족센터들과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발전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 부록

1. 초점집단면접 질문지(가족 정책전문가, 가족서비스 실무자)
2. 설문조사지(가족서비스 실무자, 가족센터 이용자)
3. 사업계획서 예시
4. 가족서비스 실무자 교육 참고자료



## 부록 &lt;&lt;

## 1. 초점집단면접 질문지

## 1.1 가족 정책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질문지

##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 전문가 FGI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다양성 인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으로서의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가족다양성의 의미 개념화 및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현황 분석을 통한 가족서비스 개편방안 모색을 과업 내용으로 합니다.

1. 시대적으로 다양한 학자들이 가족다양성(Family Diversity)을 정의해왔는데, 현시점에서 가족다양성은 학술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2. 정책적으로 가족센터 사업과 가족서비스 등 실무에서 “가족다양성”을 어떻게 개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다양성”을 가족 정책과 사업의 핵심 가치로 다루어야 할까요?
  -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핵심 요인은 무엇인지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3.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목표 아래 11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적 지향점을 정책과제에서 적절하게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 목표를 현장의 가족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정책 목표 ‘가족다양성 인정’의 세부 과제들은 1)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과제, 2) 일반인들에게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과제, 3)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서비스, 4) 기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족센터의 사업과 서비스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 또한 정책적 제한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세부 과제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4.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센터 서비스가 자녀 양육기 가족 중심의 서비스에 치우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족다양성 확장을 가족센터의 사업과 서비스 대상의 다양성 증가로 본다면, 가족센터에서 확대해야 할 대상 혹은 서비스 영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가족센터 예산이 현재 규모로 유지된다면, 어떻게 사업을 조정하면 좋을까요?

5. 현재 가족센터 서비스는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로 사업영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유형 및 특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업영역	기 본 사 업	비 고
가족관계	부모역할 지원(임신출산(부모)지원, 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지원, 훈례가치교육, 아버지 역할 지원), 부부역할지원(부부갈등예방·해결 지원, 노년기 부부지원), 이혼전·후가족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가족상담, 조부모 역할 지원	교육, 상담(정보제공 및 초기상담), 문화프로그램 등
가족돌봄	가족역량강화지원	교육, 상담(정보제공 + 초기상담 → 전문상담) 돌보미 파견, 사례관리 등
가족생활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1인가구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	교육, 상담, 정보제공, 문화프로그램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 품앗이),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u>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u> , 인식개선 및 공동체역식,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다음사업, 다함께 프로그램, 기타(사업 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업)	모임, 활동, 문화프로그램 등

6.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핵심 정책과제로 1인 가구 지원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족다양성의 정책적 지향성과 가족 단위의 지원대상 범주에서 1인 가구 지원정책의 주안점과 차별점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7.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앞으로 가족다양성과 관련된 가족 정책 및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향후 정책과제 및 후속 연구과제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본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1.2 가족 정책전문가 서면 자문 질문지

## 서면 자문 의견서

연구명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
작성자	
자문일	
<p>「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다양성 인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으로서의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p> <p>본 과제는 가족다양성의 의미 개념화 및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현황분석을 통한 가족서비스 개편방안 모색을 과업 내용으로 합니다.</p> <p>*참고자료 첨부파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2 가족사업안내(I)」 중 가족센터 사업 다음의 질문에 대해 전문가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p>	
<p>1. 다양성(Diversity), 가족다양성(Family Diversity)에 대해 여러 학자의 다양하게 개념 정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환경과 가족의 변화, 가족센터의 가족서비스를 고려할 때, 다양성(Diversity), 가족다양성(Family Diversity)을 어떻게 개념화하여 정책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p>	
<p>2. 정책적으로 가족센터 사업과 가족서비스 등 실무에서 “가족다양성”을 적용할 때 어떤 요소들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다양성”을 가족 정책과 사업의 핵심 가치로 다루어야 할까요?</li> <li>-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 정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핵심 요인은 무엇인지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li> </ul>	

<p>3.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2 가족사업안내(Ⅰ)」의 내용에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다양한 가족을 정책과 사업의 대상으로 제시하지만, 정책 대상으로서 다양한 가족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다양한 가족’은 ‘모든 가족’을 의미한다고 서술하지만, 정책과 사업의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p> <p>- 가족센터의 가족 사업과 서비스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은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까요?</p>	
<p>4.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목표 아래 11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적 지향점을 정책과제에서 적절하게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 목표를 현장의 가족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정책 목표 ‘가족다양성 인정’의 세부 과제들은 1)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과제, 2) 일반인들에게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과제, 3)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서비스, 4) 기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족센터의 사업과 서비스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p>	
<p>5. 현재 가족센터 서비스는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로 사업영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팀은 다양한 가족 유형 및 특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 제공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족다양성 확장을 위한 가족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p>	

사업영역	기 본 사 업	비 고
가족관계	부모역할 지원(임신출산(부모)지원, 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지원, 혼례가치교육, 아버지 역할 지원), 부부역할지원(부부갈등예방·해결 지원, 노년기 부부지원), 이혼전·후가족지원, 다문화가족관계항상지원, 이종언어 가족환경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가족상담, 조부모 역할 지원	교육, 상담(정보제공 및 초기상담), 문화프로그램 등
가족돌봄	가족역량강화지원	교육, 상담(정보제공 + 초기상담 → 전문상담) 돌보미 파견, 사례관리 등
가족생활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1인가구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	교육, 상담, 정보제공, 문화프로그램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 품앗이),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인식개선 및 공동체역식,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다함께 프로그램, 기타(사업 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업)	모임, 활동, 문화프로그램 등
<p>6.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앞으로 가족다양성과 관련된 가족 정책 및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향후 정책과제 및 후속 연구과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p>		

## 1.3 가족서비스 실무자 초점집단면접 질문지 1

##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 가족서비스 실무자 FGI 질문지(통합본)

본 연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는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입니다.

가족다양성의 의미 개념화 및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현황분석을 통한 가족서비스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참고>**

- 「2022 가족사업안내(Ⅰ)」에는 센터회원을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자녀(중도입국자녀 포함), 북한이탈주민, 기타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목표 아래 11개의 정책과제를 제시.

**[가족다양성과 다양한 가족의 의미]**

1. 귀 센터에서는 가족다양성을 어떻게 해석(정의)하고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계십니까?
  - 1-1. 사업 운영, 기관 운영에서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을 주로 어떤 맥락, 범위에서 사용하십니까?  
예) 사업목표, 사업 대상, 사업 내용, 예산,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관 비전
  - 1-2. 이전과 비교하여 올해 센터 사업에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을 더 많이 고려하십니까?
  - 1-3.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이 센터 사업 기획·운영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까?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루집니까?

**[현장에서의 가족다양성 현황]**

2. 귀 센터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 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2 가족사업안내(Ⅰ)」에 언급된 가족 유형 중 귀 센터 사업의 주요 대상자는 어떤 가족들입니까?  
(예. 맞벌이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미혼부가족 등), 조손가족, 북한이탈가족, 1인 가구 등)  
-이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센터 사업예산(아이돌봄서비스 예산 제외, 여가부, 서울시, 자치구 지원예산 모두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2-2. 2-1에서 언급한 가족 이외에 서비스를 제공했던(제공 중인) 다양한 가족이 있다면 사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2-3. 귀 센터의 사업과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어떤 가족입니까? 누구입니까?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시행 및 성과]**

3. 귀 센터에서 가족다양성 관련 이슈로 진행하고 있는(진행한) 대표적 사업은 무엇입니까?
  - 3-1. 제공한 사업은 어떠한 성과 혹은 긍정적 효과(높은 만족도 등)가 무엇입니까? 혹은 어떠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합니까?

**[가족센터와 가족다양성 사업]**

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어떠합니까?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구현의 어려움 및 한계]**

5. 귀 센터에서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인력 및 예산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기타 현장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4 가족서비스 실무자 초점집단면접 질문지 2

##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

## 가족서비스 실무자 FGI 질문지 1

본 연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는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입니다.

가족다양성의 의미 개념화 및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현황 분석을 통한 가족서비스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lt;참고&gt;

- 「2022 가족사업안내(Ⅰ)」에는 센터회원을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자녀(중도입국자녀 포함), 북한이탈주민, 기타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목표 아래 11개의 정책과제를 제시.

## [가족다양성과 다양한 가족의 의미]

1. 귀 센터에서는 가족다양성을 어떻게 해석(정의)하고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계십니까?
  - 1-1. 사업 운영, 기관 운영에서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을 주로 어떤 맥락, 범위에서 사용하십니까?  
예) 사업목표, 사업 대상, 사업 내용, 예산,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관 비전
  - 1-2. 이전과 비교하여 올해 센터 사업에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을 더 많이 고려하십니까?
  - 1-3.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이 센터 사업 기획·운영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까?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루집니까? 언제부터 또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 [현장에서의 가족다양성 현황]

2. 귀 센터에서 마주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가족의 범위 혹은 지역적 특성은 어떠합니까?
  - 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2 가족사업안내(Ⅰ)」에 언급된 가족 유형 중 귀 센터 사업의 주요 대상자는 어떤 가족들입니까?  
(예. 맞벌이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미혼부가족 등), 조손가족, 북한이탈가족, 1인 가구 등)  
-이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센터 사업예산(아이돌봄서비스 예산 제외, 여가부, 서울시, 자치구 지원예산 모두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2-2. 2-1에서 언급한 가족 이외에 서비스를 제공했던(제공 중인) 다양한 가족이 있다면 사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2-3. 가족센터 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해 향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시행 및 성과]

3. 귀 센터에서 가족다양성 관련 이슈로 진행하고 있는(진행한) 대표적 사업은 무엇입니까? 다음의 구분으로 사업을 생각해봐 주세요.

-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다양한 가족, 가족다양성을 주제로 하는 사업
  - 가족다양성 확장을 위한 서비스 방법
  - 기타
  -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사업명, 프로그램 목적, 대상, 내용, 서비스 구조 등).
- 3-1. 제공한 사업은 어떠한 성과 혹은 긍정적 효과(높은 만족도 등)가 있었습니까? 혹은 어떠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합니까?
- 3-2. 제공하고 있는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하실 계획입니까?

**본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5 가족서비스 실무자 초점집단면접 질문지 3

##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

## 가족서비스 실무자 FGI 질문지 2

본 연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는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입니다.

가족다양성의 의미 개념화 및 가족다양성 관련 가족서비스 현황분석을 통한 가족서비스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lt;참고&gt;

- 「2022 가족사업안내(Ⅰ)」에는 센터회원을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자녀(중도입국자녀 포함), 북한이탈주민, 기타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다양성 인정’이라는 목표 아래 11개 정책과제를 제시.

1.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을 운영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1-1. 센터 이용자에게서도 가족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 사업 욕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 1-2. 가족센터 이용에 있어 혼인, 혈연가족 위주의 관행, 문화로 인해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이 겪는 불편 사례가 있었습니까?
  - 1-3. 귀 센터의 이용자 욕구 혹은 가족 다양성 특성에 맞춰 앞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하고 있는 신규사업이나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2. (서울지역 가족센터) 서울지역 가족센터의 경우, 1인 가구 지원센터와 가족센터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서울 외 가족센터) 서울시의 경우,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없는 본 시도의 경우 1인 가구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가족센터와 가족다양성 사업]

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요? 현장에서의 경험을 말씀해주시요.

##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구현의 어려움 및 한계]

5. 귀 센터에서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인력 및 예산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기타 현장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협력기관]

6. 귀 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가족 서비스 관련하여 연계나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6-1. 향후 연계를 강화하거나 구축해야 할 기관은 무엇입니까?

**[가족사업안내 매뉴얼 활용]**

7. 다양한 가족 대상 서비스 확대에 있어 현재 「2022 가족사업안내(I)」에 제공된 지침을 활용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7-1.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책과제 및 가족서비스 실무자의 욕구]**

8. 가족변화(가족다양성 확대)에 따라 가족센터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9.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목표 중 ‘가족다양성 인정’이 현장에서 잘 실천되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먼저 필요한 정책과제와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여자 일반적 특성**

인 터 뷰 일 시			
성 별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남	연 령	
근 무 기 관	근 무 기 간 (타 센터 포함)		
근 무 직 급	① 센터장    ② 부센터장.사무국장    ③ 팀장    ④ 선임팀원    ⑤ 팀원		
최 종 학 력	최종학력전공		

## 2. 설문조사지

### 2.1 가족서비스 실무자 설문조사지

조사 참여 안내
<p>안녕하십니까?</p> <p>본 조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하고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의 가족서비스 실무자 대상 조사입니다.</p> <p>변화하는 사회환경과 가족 정책을 고려하여 가족다양성 관점의 가족서비스 개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가족센터의 사무국장, 총괄팀장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활성화 및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p> <p>본 설문지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사업에 관한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p> <p>조사 참여 대상은 시·군·구 가족센터의 사무국장, 총괄팀장, 팀장 등이고, 센터당 1인이 응답합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p> <p>&lt;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gt;</p> <p>본 조사는 ‘서베이 몽키’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답변 내용과 IP 주소를 수집합니다. IP 주소를 수집하는 이유는 동일한 IP 주소에서 중복응답 된 설문지를 식별하여 삭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p> <p>또한, 설문조사를 완료한 응답자에게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 발송을 위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휴대전화번호는 분리하여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수집된 IP 주소는 온라인 설문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폐기할 예정이며, 휴대전화번호는 모바일 상품권 발송 업체의 발송시스템에 활용됩니다. 또한 참여자의 상품권 지급 증빙자료로 휴대전화번호의 일부(개인 식별 불가)를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할 예정입니다.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수집된 휴대전화번호는 조사 종료 후 즉시 폐기할 예정입니다.</p> <p>조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p> <p>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연구주관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구수행기관: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고선강  연 락 처:  E-mail:</p>

**가족다양성 / 다양한 가족**

\* 귀하는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다음 중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순서로 선택해 주세요. 보기에 적절한 내용이 없으면, 기타를 선택하시고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다양한 가족은 부부+자녀로 구성된 형태 이외의 가족(예. 한부모가족, 1인 가구)을 의미한다.	○	○
다양한 가족은 다문화가족(다양한 인종, 민족, 출신국가, 언어 등)을 의미한다.	○	○
다양한 가족은 가족 기능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가족 유형(예. 맞벌이 가족, 장애인 가족, 빈곤가족, 임신부가족 등)을 의미한다.	○	○
다양한 가족은 형태와 취약성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가족을 의미한다.	○	○
기타	○	○

보기에 적절한 내용이 없으면 기타를 선택하시고, 아래 빈칸에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 귀 센터 사업과 프로그램의 서비스 대상으로 명시된 가족 유형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센터에서 실제로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적 있는 가족 유형을 모두 체크 해주세요.

- 맞벌이가족
- 조손가족
- 청소년부모가족
- 장애인가족
- 환자가족
- 다문화가족(중도입국자녀포함)
- 북한이탈주민가족
- 난민가족
- 군인가족
-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미혼모, 미혼부 등)
- 1인 가구
- 입양가족
- 분거가족(주말가족)
- 기타: 앞에서 선택한 가족 유형 이외에 사업 대상의 다양한 가족 유형이 있으면 작성해 주세요

**다양한 가족 대상 사업 또는 프로그램**

\* 귀 센터의 사업 운영 시 ‘다양한 가족 대상 사업 또는 프로그램’은 다음 중 어떠한 맥락으로 주로 적용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를 선택해 주세요, 보기에 적절한 내용이 없으면, 기타를 선택하시고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2개 이상의 가족 유형을 함께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	○	○
부부와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 유형 이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	○	○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통합 사업 또는 프로그램	○	○
특정 가족 유형을 제목으로 명시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예. 맞벌이 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	○
기타	○	○

앞에 제시된 것 외의 맥락으로 사용하시면 기타를 선택해 주시고, 아래 빈칸에 작성해 주세요.

**다양한 가족 대상 및 가족다양성을 주제로 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

\* 2021년-2022년도에 귀 센터의 지역 특성, 지역사회의 요구, 센터의 강점 등을 고려하여 특화된 사업을 3개까지 작성해 주세요.

‘다양한 가족 대상 및 가족다양성을 주제로 한 사업’이란?

본 연구는 ‘다양한 가족’, ‘가족다양성’이 센터 실무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활용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이해한 개념으로 귀 센터에서 적용하는 개념에 기초하여 편안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1-1. 첫 번째 사업에 대하여, 사업, 프로그램, 서비스의 명칭을 작성해 주세요.

\*1-2. 첫 번째 사업에 대하여, 사업, 프로그램, 서비스의 주요 목표를 간략하게 작성해 주세요.

\*1-3. 첫 번째 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1-4. 첫 번째 사업의 사업 방식의 특징적인 부분을 작성해 주세요. (예. 교육, 상담, 문화, 사례 관리, 네트워크, 자원연계, 여러 방식 혼합, 대면/비대면 등)

\*1-5. 이 외(기타) 첫 번째 사업의 어떤 측면이 다양한 가족, 가족다양성을 나타내거나 의미하는 것인지 간략히 작성해 주세요.

**다양한 가족 대상 및 가족다양성을 주제로 한 사업: 두 번째**

\*2-1. 두 번째 사업에 대하여, 사업, 프로그램, 서비스의 명칭을 작성해 주세요.

\*2-2. 두 번째 사업에 대하여, 사업, 프로그램, 서비스의 주요 목표를 간략하게 작성해 주세요.

\*2-3. 두 번째 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2-4. 두 번째 사업의 사업 방식의 특징적인 부분을 작성해 주세요. (예. 교육, 상담, 문화, 사례 관리, 네트워크, 자원연계, 여러 방식 혼합, 대면/비대면 등)

\*2-5. 이 외(기타) 두 번째 사업의 어떤 측면이 다양한 가족, 가족다양성을 나타내거나 의미하는 것인지 간략히 작성해 주세요.

**다양한 가족 대상 및 가족다양성을 주제로 한 사업: 세 번째**

\*3-1. 세 번째 사업에 대하여, 사업, 프로그램, 서비스의 명칭을 작성해 주세요.

\*3-2. 세 번째 사업에 대하여, 사업, 프로그램, 서비스의 주요 목표를 간략하게 작성해 주세요.

\*3-3. 세 번째 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3-4. 세 번째 사업의 사업 방식의 특징적인 부분을 작성해 주세요. (예. 교육, 상담, 문화, 사례 관리, 네트워크, 자원연계, 여러 방식 혼합, 대면/비대면 등)

\*3-5. 이 외(기타) 세 번째 사업의 어떤 측면이 다양한 가족, 가족다양성을 나타내거나 의미하는 것인지 간략히 작성해 주세요.

###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귀 센터에서 여러 유형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기획 운영된(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①-1. 구체적인 사례(간략한 사업 내용)를 제시해주세요.

\*①-2. 여러 유형의 가족 대상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긍정적 측면 또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①-3. 여러 유형의 가족 대상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부정적 측면 또는 단점은 무엇입니까?

### 여러 유형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

\*②-1) 여러 유형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2 가족사업안내(0)]의 가족센터 사업**

사업영역	기본사업
가족관계	부모역할 지원(임신출산(부모)지원, 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지원, 혼례가치교육, 아버지 역할 지원), 부부역할지원(부부갈등예방·해결지원, 노년기 부부지원), 이혼전·후가족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가족상담, 조부모역할 지원
가족돌봄	가족역량강화지원
가족생활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1인 가구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 품앗이),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다함께 프로그램, 기타(사업 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업)

[2022 가족사업안내(0)]의 가족센터 사업 분류입니다.

위의 제시된 사업과 귀 센터의 별도사업(여성가족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지원)을 고려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세요.

\*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을 고려할 때, 시·군·구 가족센터의 중심사업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2-3개 제시해주세요.

앞의 표에 제시된 기본사업과 센터가 수행한 별도사업 중 선택해 주세요.

사업

위의 사업들을 선택한 이유를 간략히 작성해 주세요.

\*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을 고려할 때, 사업 운영에 변화가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사업명과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해 주세요.

앞의 표에 제시된 기본사업과 센터가 수행한 별도사업 중 선택해 주세요.

사업명   
 선택 이유

\*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을 고려할 때, 시도 광역센터가 주관하여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 주제(내용)와 이유를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

앞의 표에 제시된 기본사업과 센터가 수행한 별도사업 중 선택해 주세요.

사업주제(내용)   
 선택 이유

###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수행의 어려움 1

\* 귀 센터에서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과 관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	○	○	○	○	○
사업 안내, 지침 등에 다양한 가족, 가족 다양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사업 기획과 진행이 어렵다.	○	○	○	○	○
가족다양성에 대한 센터 종사자의 이해가 부족하다.	○	○	○	○	○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	○	○	○	○
효과적인 프로그램 관리 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	○	○	○	○
종사자의 업무량이 많아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기 어렵다.	○	○	○	○	○
시설 및 환경이 사업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	○	○	○	○	○
지역사회에서 관련 기관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	○	○	○	○
지역사회 유사 기관 간에 사업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	○	○	○	○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다.	○	○	○	○	○
센터 내 사업들이 세분되어 사업 운영 및 예산 관리 업무가 과도하다.	○	○	○	○	○
가족다양성을 확장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	○	○	○	○	○
사업 대상이 다문화가족에 한정된 사업들이 많아 다양한 대상으로 확장하기가 어렵다.	○	○	○	○	○



**여성가족부 정책/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원 1**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목표 중 ‘가족다양성 인정’이 가족 사업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여성가족부의 정책과제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거의 중요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가족 사업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	○	○	○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용자 및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지원	○	○	○	○	○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 확장을 위한 예산 확대	○	○	○	○	○
사업 간 예산 진행 칸막이 삭제 및 집행 자율성 확보	○	○	○	○	○
기본사업, 별도사업의 운영 인력 구분 및 상이한 처우 개선	○	○	○	○	○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	○	○	○
다양한 가족 사업에 대한 여성가족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	○	○	○	○
다양한 가족 관련 특화사업 개발, 발굴 및 확산	○	○	○	○	○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	○	○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자료 개발 및 보급	○	○	○	○	○
다양한 가족 사업 강사 발굴 및 양성	○	○	○	○	○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실무 행정 체계 일원화(예. 센터 고유번호증, 차량 명의 등)	○	○	○	○	○

**여성가족부 정책/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원 2**

\* 앞서 제시한 ‘가족다양성’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정책과제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원 중 현재 가장 시급히 필요한 3개를 중요한 순서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다양한 가족 사업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	○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용자 및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지원	○	○	○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 확장을 위한 예산 확대	○	○	○
사업 간 예산 진행 칸막이 삭제 및 집행 자율성 확보	○	○	○
기본사업, 별도사업의 운영 인력 구분 및 상이한 처우 개선	○	○	○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	○
다양한 가족 사업에 대한 여성가족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	○	○
다양한 가족 관련 특화사업 개발, 발굴 및 확산	○	○	○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자료 개발 및 보급	○	○	○
다양한 가족 사업 강사 발굴 및 양성	○	○	○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실무 행정 체계 일원화 (예. 센터 고유번호증, 차량 명의 등)	○	○	○

### 가족센터의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 운영

\*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과 관련하여 가족센터가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 운영에서 시·군·구 가족센터 사업영역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중요한 순으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1순위	2순위	3순위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사업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역사회 주민 대상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관련 인식 개선/ 수용성 증진 사업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 지원 사업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다양한 가족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기타: 보기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중요한 사업영역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귀 센터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가족다양성’, ‘다양한 가족’ 과 관련하여 새롭게 발견되는 욕구를 고려할 때 가족센터에서 진행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 일반적 특성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여  
 남

\* 귀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세

\*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광역시/도   
 센터명

\* 귀하가 근무 기간(타 가족센터 포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        )년   
 (        )개월

\*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센터장  
 부센터장·사무국장  
 팀장

\*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전공이 2개 이상이면 복수 응답 가능합니다.

- 가족학, 아동가족학, 가족복지학, 가정학 등 가족 관련 전공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노인복지학 등 복지 관련 전공  
 청소년학 등 청소년 관련 전공  
 교육학(가정교육, 유아교육 등) 전공  
 상담학, 심리학 등 상담 관련 전공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2.2 가족센터 이용자 설문조사지

조사 참여 안내
<p>안녕하십니까?</p> <p>본 조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하고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의 가족센터 이용자 대상 조사입니다.</p> <p>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센터 사업 활성화 및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p> <p>본 설문지는 가족센터 이용 경험, 이용자의 사업 요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p> <p>귀하가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p> <p>&lt;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gt;</p> <p>본 조사는 ‘서베이 몽키’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답변 내용과 IP 주소를 수집합니다. IP 주소를 수집하는 이유는 동일한 IP 주소에서 중복응답 된 설문지를 식별하여 삭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p> <p>또한, 설문조사를 완료한 응답자에게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 발송을 위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휴대전화번호는 분리하여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수집된 IP 주소는 온라인 설문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폐기할 예정이며, 휴대전화번호는 모바일 상품권 발송 업체의 발송시스템에 활용됩니다. 또한 참여자의 상품권 지급 증빙자료로 휴대전화번호의 일부(개인 식별 불가)를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할 예정입니다.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수집된 휴대전화번호는 조사 종료 후 즉시 폐기할 예정입니다.</p> <p>조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p> <p>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연구주관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구수행기관: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고선강  연 락 처:  E-mail:</p>

**가족센터**

\* 귀하는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귀하가 이용한 가족센터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 경험**

\* 귀하는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중 귀하 가족과 다른 형태의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프로그램의 다른 참여자들에 대해 잘 몰랐다

**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 경험**

\* 귀하가 참여한 다른 형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었습니까? 참여했던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가족교육(예. 부모교육,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생활 관련 교육 등)  
 가족상담(예. 개인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  
 가족문화(예. 가족축제, 가족사랑의날, 운동회, 여가문화 프로그램 등)  
 가족돌봄(예.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등)  
 가족봉사 및 지역사회 활동(예. 가족봉사단,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 등)  
 기타: 1번-5번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적어주세요.

\*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형태의 가족은 어떤 유형의 가족이었습니까?

\* 위에서 선택한 프로그램은 무엇을 하는 것이었습니까? 간략히 작성해 주세요.

\*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떠셨습니까?

- 나와 다른 유형의 가족들과 함께해서 좋았다
- 나와 다른 유형의 가족들과 함께해서 불편했다
- 다른 참여자의 가족 배경은 나의 프로그램 참여와 별 상관이 없었다.
- 기타: 앞에서 제시하지 않은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 좋았던 경험

\* [나와 다른 유형의 가족들과 함께해서 좋았다]고 답하셨는데,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 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 불편했던 경험

\* [나와 다른 유형의 가족들과 함께해서 불편했다]고 답하셨는데, 어떤 점이 불편했습니까?

#### 가족센터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참여 의향

\* 귀하는 귀하 가족과 다른 형태의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 보통이다
- 약간 참여하고 싶다
- 매우 참여하고 싶다

위와 같이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다양한 가족 포용 프로그램 참여

\* 귀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내용의 캠페인, 교육 문화활동 등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예
- 아니오

### 다양한 가족 포용 프로그램 참여

\* 캠페인, 교육, 문화활동 등은 귀하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 약간 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

### 가족센터 서비스 확대

\* 귀하는 가족센터가 다음 주제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인정 및 포용을 위한 이해 교육 확대	○	○	○	○
다양한 유형(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등)의 가족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	○	○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가족/개인 간의 소통 교류 프로그램 확대	○	○	○	○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참여하는 공동체 돌봄 활성화 (예. 공동육아, 가족품앗이 등)	○	○	○	○
가족원 간 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 확대 (예.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	○	○	○	○
가족의 생애주기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가족교육 프로그램 강화(예. 영유아자녀 부모교육, 초등학생 자녀 부모교육, 청소년 자녀 부모교육, 노년기 부부교육 등)	○	○	○	○
가족봉사단 등 가족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	○	○	○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	○	○	○	○

\* 사업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위에 제시된 사업 주제 중 우선하여 확대해야 할 것을 중요한 순서대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인정 및 포용을 위한 이해 교육 확대	○	○	○
다양한 유형(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등)의 가족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	○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가족/개인 간의 소통 교류 프로그램 확대	○	○	○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참여하는 공동체 돌봄 활성화(예. 공동육아, 가족품앗이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가족원 간 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 확대(예.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가족의 생애주기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가족교육 프로그램 강화(예. 영유아자녀 부모교육, 초등학생 자녀 부모교육, 청소년 자녀 부모교육, 노년기 부부교육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가족봉사단 등 가족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가족센터의 가족지원

\* 귀하는 가족의 행복도 향상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우선 지원해야 할 가족의 기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가족원 간 정서적 유대 및 지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자녀 양육과 사회화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휴식처로서 가정의 기능(여가, 놀이, 쉼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가족 돌봄 기능(노인, 환자, 장애가족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기타에 체크 하신 경우 내용을 간략히 적어주세요.

### 가족센터의 가족지원

\* 귀하는 다음과 같은 ‘가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법적인 혼인, 혈연으로 연결되면 가족이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서로 아플 때 돌봐줄 수 있으면 가족이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이용한 프로그램/서비스**

\* 귀하가 참여한(이용한) 가족센터의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써주세요. 정확한 명칭이 기억나지 않으시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대략 작성해 주세요. 여러 개에 참여한 경우 3개까지 작성해 주세요.

1

2

3

\* 가족센터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에서 도움을 받았거나 좋았던 사례를 적어주세요.

\* 가족센터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운 점, 불편했던 점을 적어주세요.

\* 향후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기를 바라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응답자에 대하여 1**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성

여성

\* 귀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세

\*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특별시/특별자치도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 귀하의 정규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 초등학교 졸업 이하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졸업
- 대학원 졸업 이상

\*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미혼/비혼
- 기혼(법적 혼인)
- 사실혼 또는 동거
- 이혼/별거/사별

### 응답자에 대하여 2

\* 귀하가 속한 가족 유형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 <input type="checkbox"/> | 맞벌이가족                                  |
| <input type="checkbox"/> | 조손가족                                   |
| <input type="checkbox"/> | 청소년부모가족(부모연령 만25세 이하)                  |
| <input type="checkbox"/> | 장애가 있는 가족원이 있는 가족                      |
| <input type="checkbox"/> | 가족원 중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가족(예. 치매 어르신)     |
| <input type="checkbox"/> | 다둥이가족(자녀3인 이상)                         |
| <input type="checkbox"/> | 동거커플(공식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함께 사는 커플)      |
| <input type="checkbox"/> | 중고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족                         |
| <input type="checkbox"/>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가족원이 있는 가족         |
| <input type="checkbox"/> | 다문화가족                                  |
| <input type="checkbox"/> | 북한이탈가족                                 |
| <input type="checkbox"/> | 난민가족                                   |
| <input type="checkbox"/> | 군인가족                                   |
| <input type="checkbox"/> | 재혼가족                                   |
| <input type="checkbox"/> | 무자녀 부부                                 |
| <input type="checkbox"/> |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 <input type="checkbox"/> | 자녀가 있으나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부                |
| <input type="checkbox"/> | 미성년자녀가 있는 전업주부 부모가족                    |
| <input type="checkbox"/> |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미혼모, 미혼부 등)              |
| <input type="checkbox"/> | 1인 가구                                  |
| <input type="checkbox"/> | 입양가족                                   |
| <input type="checkbox"/> | 분거가족(예. 주말부부, 자녀가 학업 등으로 따로 사는 경우 등)   |
| <input type="checkbox"/> | 비양육부모(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별거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 |
| <input type="checkbox"/> | 예비부부(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커플)                   |
| <input type="checkbox"/> |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 <input type="checkbox"/> |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가족원이 있는 가족               |
| <input type="checkbox"/> | 법적 관계없이 함께 사는 가족                       |

**응답자에 대하여 3**

\*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귀하 가족의 생활 수준은 다른 가족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상
- 중상
- 중
- 중하
- 하

\* 귀하(가족)가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1년 미만
- 1년-2년 미만
- 3년 이상

3. 사업계획서 예시<sup>8)</sup>

## 3.1 지역사회에 가족다양성 인정·존중 확산을 주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서 예시

사업명	동화책으로 읽는 가족다양성
목적	지역 내 가족 다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가족다양성 감수성 증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화책에 나타난 다양한 가족을 이해한다.</li> <li>•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들을 이해하고 각 가족의 삶의 방식을 존중할 수 있다.</li> </ul>
사업 대상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생</li> <li>• 유아기 자녀와 양육자(부/모 혹은 조부모)</li> <li>• 초등학생 자녀와 남성 양육자</li> <li>• 다문화가족 자녀와 아버지 등</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화책에 나타난 다양한 가족 살펴보기</li> <li>• 동화책 읽기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족이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해</li> </ul>
사업 운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에서 문화다양성, 가족 유형, 개별 가족의 특수성을 배려하는 언어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예. 강사의 강의안 자기점검).</li> <li>•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배경과 특성의 가족에 속해 있음을 고려한다.</li> <li>• 사업 담당자는 프로그램 내용이 특정 유형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만드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한다.</li> <li>• 사업담당자는 프로그램 진행 방식에서 특정 유형의 가족에 속한 참여자가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한다(예. ‘엄마와 어제 함께 먹은 음식 말해보기’).</li> </ul>

8)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사업명, 사업의 필요성(법적근거, 정책적 근거, 지역사회 가족의 욕구, 가족서비스 기관의 욕구, 지역사회 환경, 기타 사업의 필요성 등), 사업목적과 목표, 사업내용과 방법, 인력구성, 추진전략, 평가방법, 예산 등을 포함함. 그러나 본 장에 제시된 사업계획서 예시는 가족서비스에 가족다양성 적용에 대한 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가족다양성 적용 관련 목적 및 목표, 주요 내용, 운영 방법을 중심으로 기술함.

## 3.2 가족다양성 인정과 존중 증진을 부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예시

## 1) 사업 내용 및 방법에 가족다양성 증진 포함 사업 예시

사업명	영아기 양육자 지원 프로그램	
목적	영아기 아동 양육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자의 돌봄스트레스 해소 및 양육 역량 강화	
목표 <sup>9)</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기의 발달 특성과 부모역할을 이해하고 아동과의 적절한 놀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li> <li>• 아동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트레스 완화방법을 습득한다.</li> <li>• 영아 양육에 필요한 지역사회 정보와 돌봄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li> <li>• 아버지의 자녀 돌봄 참여 방법과 기술을 습득한다.</li> <li>• 남성의 일과 생활의 균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생활에서 실천한다.</li> </ul>	
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및 양육자</li> </ul>	
주요 내용	공통 프로그램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교육 1: 영아기 발달 특성과 부모 역할</li> <li>• 부모교육 2: 신나는 영아기 아동과의 놀이법</li> <li>• 양육자 휴식 프로그램</li> <li>• 영아 양육 관련 지역사회 정보제공</li> <li>• 공동체 돌봄 커뮤니티 형성</li> </ul>
	대상별 프로그램 예시 <sup>10)</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 아빠의 자녀 돌봄 참여 및 일·생활 균형</li> <li>• (부부) 돌봄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부부 갈등 완화</li> <li>• (조부모) 조부모와 영아 부모 간의 의사소통</li> <li>• (다문화가족) 문화별 자녀 양육 방식 이해</li> <li>• (맞벌이가족) 맞벌이가족의 일·생활 균형</li> <li>•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일·생활 균형</li> </ul>
사업 운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및 양육자를 대상으로 영아기 아동 양육 및 돌봄과 관련해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식 및 정보, 휴식 지원을 공통 프로그램으로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프로그램 참여 접근성을 높인다.</li> <li>• 공통 프로그램과 함께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대상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개별 가족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대상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가족다양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1-2개 집단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li> <li>• 대상별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운영 요일 및 시간대 선택, 대면 또는 비대면 방법 선택, 자녀돌봄서비스 제공, 홍보 방법 등 참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가족의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인다.</li> </ul>	

9) 대상에 따라 사업 목표가 달라질 수 있음. 본 예시는 남성 양육자 대상 사업 목표 예시임

10) 프로그램 참여 대상에 따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2) 사업 방법에 가족다양성 증진 포함 사업 예시

사업명	반려견 간식 만들기
목적	반려견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다양한 지역주민(성별, 연령, 국적, 인종,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 무관)들이 간식 만들기 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어울릴 수 있는 기회 마련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을 존중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li> <li>• 다양한 가족 간 교류와 소통 기회 제공으로 가족다양성 존중 문화 확산</li> </ul>
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견을 돌보고 있는/반려견에 관심 있는 지역사회 주민</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견 양육 팁(건강관리, 문제행동대처 등)</li> <li>• 반려견 간단한 간식 만들기</li> </ul>
사업 운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관심사를 가진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통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마련한다.</li> <li>• 프로그램에서 문화다양성, 가족 유형, 개별 가족의 특수성을 배려하는 언어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예. 강사의 강의안 자기점검).</li> <li>•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요일 및 시간대, 장소 등을 준비한다.</li> <li>• 프로그램 홍보 시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기관, 시민단체, 생활공동체 등의 협조를 구한다.</li> </ul>

#### 4. 가족서비스 실무자 교육 참고자료

##### ■ 교육 목표

1. 가족다양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 현장에서의 가족다양성의 개념과 적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실제 업무에 가족다양성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 ■ 교육 대상

1. 가족서비스 실무자

##### ■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단계	프로그램 내용	자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강의 내용 소개</li> <li>• 가족 유형의 변화 및 다양한 가족 이해</li> <li>• 건강가정기본법·건강가정기본계획·가족사업안내 소개</li> </ul>	현황 통계
I. 가족다양성 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다양성의 개념적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다양성 개념 실무 적용 시 가이드라인</li> </ul> </li> <li>• 가족의 기능 및 가족다양성 요소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의 기능 및 가족다양성 요소의 실무 적용</li> </ul> </li> </ul>	본 보고서 p. 161~177
II. 가족다양성 적용 점검 및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서비스 실무에서 가족다양성 적용 점검표 소개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사업과 프로그램 적용 점검표</li> <li>- 전체 사업 적용 점검표</li> </ul> </li> <li>• 기관 운영 적용 점검표</li> </ul>	본 보고서 p. 178~181
III. 실무에서 활용방안 및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서비스에서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한 사업 목적 설정</li> <li>- 포괄적인 언어사용</li> <li>- 포괄적인 서비스 대상 확대 방안</li> </ul> </li> <li>• 가족 사업 운영에서의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방안</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지역별 혹은 유사한 지역(예. 광역시, 농어촌)을 묶어 종사자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련 예시 및 내용 준비</p> <p>※ 사업영역별(예. 교육사업, 상담사업)로 종사자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련 예시 및 내용 준비</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센터의 가족다양성 적용 단계 확인</li> </ul>	본 보고서 p. 182~191
IV. 소그룹 활동 및 네트워크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 발표 및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에서의 어려움 및 유용한 정보 나눔</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소그룹 구성 시 종사자의 근무 기간이나 근무지역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다양성 적용 우수사례 제시</li> </ul>	활동지, 사례집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내용 요점 정리</li> <li>• 평가지를 사용하여 본 교육 효과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다양성 인식 및 감수성 증진 효과</li> </ul> </li> </ul>	



- 김두섭·김정석·송유진·최양숙(2005).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 김성숙·강현경(2012). 유아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수용도와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 아동교육, 21(4), 117-133.
- 김유경(2005). 가족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지원체계. 보건복지포럼, 47-72.
- 김혜영(2008). 한국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그 이중적 함의. 아시아여성연구, 47(2), 7-37.
- 김화선(2016). 보육교사의 가족이념이 가족다양성수용에 미치는 영향: 반편견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0(4), 633-654.
- 문소정(2008). 한국가족 다양화담론의 다양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아시아여성연구, 47(2), 73-107.
- 박미경(2017). 예비유아교사의 가족의 다양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1), 727-747.
- 박세경(2005).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실태와 사회적 지원 방안. 보건복지포럼(5), 73-88.
- 박정운·김영란·손서희·진미정(2019).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박정운·장영은·이영호·한은주(2021). 정책대상과 집행 관점에서 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의의와 한계점. 가족 정책연구, 1(2), 15-31.
- 서수경(2002). ‘포스트모던 가족’ 담론과 한국 가족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40(5), 95-108.
- 송혜림·윤소영·고선강(2018). 서울지역 1인 가구 현황분석에 따른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송혜림·윤소영·고선강(2019). 서울지역 자치구 1인 가구 특화프로그램 활성화 연구.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송효진(2021). 가족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제 대응에 있어 쟁점 고찰 - 다양한 파트너십과 공동체 관계의 제도화 이슈를 중심으로 -. 이화젠더법학, 13(3), 185-214.
- 여성가족부(2020).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21). 2025 세상 모든 가족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2-2025).
- 여성가족부(2022). 2022 가족사업안내(I). 여성가족부.
- 유계숙(2005). 가족의 다양성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과 문화, 17(2), 211-233.
- 유계숙·유영주(2002).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5), 79-94.
- 윤소영(2021).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서비스 방향성. 2021년 제2차 온라인 가족포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전망과 과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이근애·전효정(2010). 아동을 위한 다양한 가족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21-40.
- 이선영·정유진(2018).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 다양성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3), 3-29.
- 이진숙(2017).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가족 서비스 지원 체계 효율화 방안 모색. 보건복지포럼, 2017.10. 78-91.
- 조은주·이기숙(2008).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가족다양화 수용 방안. 여성연구논집, 20, 244-272.

- 진미정(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비판적 검토와 가족 정책의 과제. *가족 정책연구*, 1(2), 1-13.
- 최은경·송지은·박성민·오진실·임정하(2021). 국내 TV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연구. *가족과 문화*, 33(4), 58-80.
- 최인희 외(2021). 통합 가족센터 운영 모델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홍승아·최진화·진미정·김수진(2015). 가족변화 대응 가족 정책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셋별·이명진·최유정(2021). 가족다양성 수용도 측정도구 개발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Bogenschneider, K., et al.(2012). The family impact rationale: An evidence base for the family impact lens. The family impact institute.
- Bogenschneider, K.(2014). Family Policy Matters. 3rd ed. Routledge: NY.
- Bronfenbrenner, U.(1977). Experimental toward an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 513-531. DOI: 10.1037/0003-066X.32.7.513.
- Braun, V. & Clarke, V.(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DOI: 10.1191/1478088706qp063oa.
- Clever, M. & Segal, D. R.(2013). The demographics of military children and families. *The Future of Children*, 13-39. DOI: 10.1353/foc.2013.0018.
- Eerola, P., Paananen, M. & Repo, K.(2021) ‘Ordinary’ and ‘diverse’ families. A case study of family discourses by Finnish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dministrators. *Journal of Family Studies*. DOI: 10.1080/13229400.2021.1939100.
- OECD(2016). Society at a Glance. Paris: OECD Publishing.
- Little, W., Vyain, S., Scaramuzzo, G., Cody-Rydzewski, S., Griffiths, H., Strayer, E. & Keirns, N. (2014). Introduction to sociology-1st Canadian edition. BC Campus: Victoria, BC, Canada.
- NCFR(2018). [https://www.ncfr.org/system/files/2019-04/Definition\\_of\\_Diversity\\_Board\\_Approved\\_October\\_2018.pdf](https://www.ncfr.org/system/files/2019-04/Definition_of_Diversity_Board_Approved_October_2018.pdf)
- Massachusetts Family Engagement Coalition(2020). Strengthening Partnerships: A Framework for Prenatal through Young Adulthood Family Engagement.
- Neyer, G., Thévenon, O. & Monfardini, C.(2016). Policies for families: Is there a best practice? European Policy Brief from the project Families And Societies.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Pinto, M. B., Parente, D. H. & Mansfeld, P. M.(2005). Information learned from socialization agents: Its relationship to credit card use.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3, 357-367. DOI: 10.1177/1077727X04274113.
- Putney, N. M. & Bengtson, V. L.(2002). Socialization and the family revisited.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7, 165-194. DOI: 10.1016/S1040-2608(02)80034-X
- Van Eeden-Moorefield, B. & Demo, D.H.(2007). Family diversity. In G. Ritzer (Ed.).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ology*. Blackwell Publishing. Blackwell Reference Online.
- Vilhena, D. & Oláh, L.(2017) Family Diversity and its Challenges for Policy Makers in Europe. Evidence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FP7 project Families And Societies.

[https://www.jp-demographic.eu/wp-content/uploads/2017/04/famsoc\\_discussionpaper5\\_final\\_web.pdf](https://www.jp-demographic.eu/wp-content/uploads/2017/04/famsoc_discussionpaper5_final_web.pdf).

Wadsworth, S. M. & Southwell, K.(2011). Military families: Extreme work and extreme “work-family” .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38(1), 163-183. DOI: 10.1177/0002716211416445.

##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성 연구

발행일 | 2022년 10월

발행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행인 | 김금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빌딩 21, 24층

전화 | 02-3479-7600

팩스 | 02-3479-7798

홈페이지 | [www.kihf.or.kr](http://www.kihf.or.kr)

기획·편집 | 사업기획부

수행기관 |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인쇄처 | 운정POD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발췌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